

제12호 특별호

경기 문화 저널

경기도문화원

담론 2016

제12호 특별호

경기 문화 저널

경기도문화원

담론 2016

목차

프롤로그

문화원의 조직과 법제
현실 진단을 통한 올바른 처방

변화하는 문화정책에 대처하는
문화원의 자세

지방문화원을 총람하다

경기도 직원들의 현안 모아보기

생활문화사업의 원칙과 방향설정

문화원의 생활문화 가치 재확인

'4인 4색'_경기도 네 개 지역,
네 가지 이야기

경기도 생활문화 다시보기

I.

경기도 문화원 지금을 보다.

II.

경기도 지방문화원 생활문화를
논하다.

경기향토문화연구소 2016년의
방향 모색

경기향토문화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모색

경기지역학포럼-경기 의병 이야기

문화원의 향토문화사업 부분의
현실진단을 통한 솔루션 찾기

2016 경기도 어르신사업 키워드
찾기

경기도류(流)의 어르신사업을
만들기 위하여

경기도 어르신사업 현황 공유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Ⅲ.

경기도 어르신 사업을 말하다.

Ⅳ.

경기도 문화원 지역학에 대해
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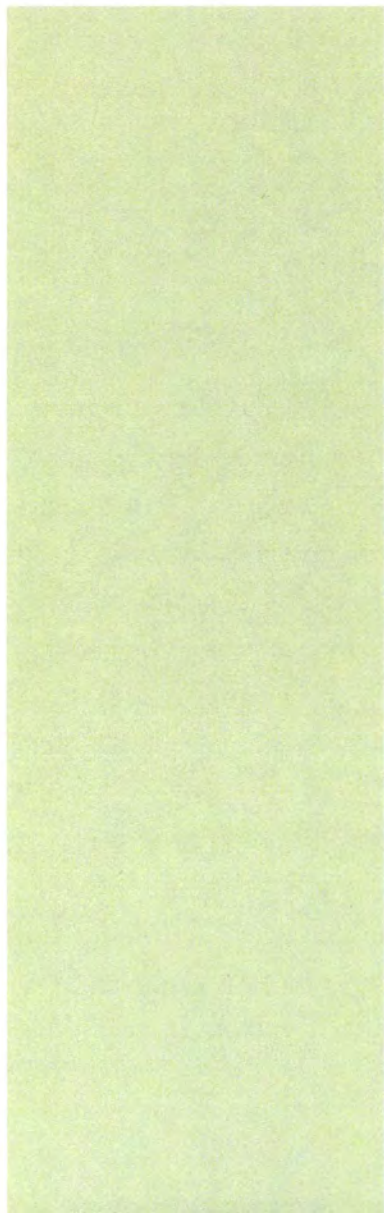
문화원에서 일하는 우리들,
법과 제도 속에서 길을 잃다

문화정책론 2016 문화트렌드
분석-문화예술교육 영감 사례
10선

Ⅴ.

경기도 문화원의 미래를
준비하다.

프롤로그



경기문화저널 12호 특별호 발간에 부쳐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엄상덕

<경기도문화원담론2016>은

우리는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 왔는지 정리해보고, 항상 되풀이 되는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간 진보의 이야기를 해 보자는 취지이다.

문화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 왔다. 그러나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별 없이 끝없이 공전하는 이야기만 난무했다.

이야기가 되풀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그 만큼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그 지점에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설정했다.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이야기를 이제는 되풀이 하지 말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당장 해결해야 할 것들, 그리고 중,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을
구별하자는 뜻이다.
<경기도문화원담론2016>은 2016년 한 해 동안 경기도 지방문화원
에서 해 왔던 이야기를 녹취하고, 윤색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다.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우리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내년에는 2016년도의 문화원 담론을 넘어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의
이야기가 넘쳐나기를 바란다.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이야기를 이제는 되풀이 하지 말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 문화원의 조직과 법제 현실 진단을 통한 올바른 처방
- 변화하는 문화정책에 대처하는 문화원의 자세
- 지방문화원을 총람하다
- 경기도 직원들의 현안 모아보기

1.

경기도 문화원
지금보다.

문화원의 조직과 법제 현실 진단을 통한 올바른 처방

구리문화원 사무국장 윤종민

2016년 6월 15일에 진행된 2차 지역문화아카데미의 '조직과 법제' 시간에 나는 이야기를 정리했다.

조직과 법제는 가장 민감하고, 현실적이고, 따분한 소재이다. 하지만 이해 해야만 하는 내용이다. 현장에서는 '법 위에 법'이 자행되고 있어서 이 시간이 부끄럽다. 이 현실을 바탕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준비했다.

지방문화원의 역할은 지방문화원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8조에 나와 있다.

1.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이 역할을 하는데 저해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 현실로 인하여 사무국장들이 업무를 계획성 있게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1995년에 시작한 지방자치제도로 대한민국이 발전하기는 했지만, 지역 문화 단체들에게는 나쁜 영향도 끼쳤다. 현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국장에게, 그리고 문화원 재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피해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4년 주기로 지자체장이 바뀐다.

지자체장의 정치적인 정적, 측근,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관계에 따라 사무국장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지자체장의 문화 마인드로 인하여 해당 지역 문화원이 스타문화원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문화원에서 시 위탁 사업의 성과를 잘 내고 있었음에도 재단이나 예총 등 다른 문화예술단체로 사업을 이관시키기도 한다.

그런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경상운영비를 감액시킨다. 그래서 문화원의 자부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학교 운영을 포기할 수 없기도 하다. 만약 사무국장이 부당하고 당했을 경우, 노동법을 근거로 신문고나 분쟁조정신청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도 할 수 있다. 소송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는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그 문화원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사무국장들은 퇴사를 한다. 그리고 원장 선임 과정에서 후보 간의 소송 등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무국장들이 문화원 본연의 업무를 위해 고민해야할 시간과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게 한다.

지방문화원과 관련해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있고, 지자체별 지방문화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또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제시한 표준 정관과 운영편람이 있다. 권역단위 조례는 4개 지역에서만 제정되어 있다. 법률적으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중요함에도 아직은 미비하다. 조직 정비, 기본 정비가 갖추어지면 문화원 조직이 안정성을 갖고, 사무국장,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운영편람에 맞게 운영하게 되면,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어서 감사 지적사항도 줄 것이다.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같은 시스템을 구축 하게 되면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하여 재정지원이 좌우된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문화원 사이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지방문화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이 규정은 “…대여할 수 있다.”에서 “…대여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1996년 7월 18일 조례571호 구리시 문화원 육성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구리문화원이 최초일 것이다. 문화원의 자립을 위해 기금을 모아야겠다는 여론은 형성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지원이었다. 국회의원, 시장, 시의장, 시의회까지 다수당이 있었고 정치적인 타협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문화원

이사, 회원들이 사생결단을 내자는 심정으로 의회 회의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내외부적인 힘으로 어렵게 제정된 것이다. 1996년부터 매해 1억씩 적립하여 10년 후에 10억을 만들자. 다만 10억은 사용하지 말자. 10억 이후부터는 이자의 90%를 사용하고 10%는 적립하자. 그렇게 시작하여 현재 13억이 되었다. 만약 이런 기금이 없었다면 발간 사업, 취타대 운영, 역사 보존 자료 수집 같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기금은 향후 원사 건립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아직 문화원 지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들이 있다. 제정을 위해 국장님들이 노력할 더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임직원이 바뀌어도 문화원이 계속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문화원지원육성조례가 없다. 지자체마다 도의원이 있으니 경기도 권역 차원에서 경기도 지방문화원에 대한 육성 조례를 신설한다면 지자체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또한 경기도에서 제정되면, 지자체는 더 세부적으로 제정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분권 교부세의 예산 사용 목적은 사무국장 인건비로 분명하게 책정이 되어 있었다. 그러데 지금은 쥐도 되고, 안쥐도 되는 형태로 바뀌었다. 아직은 지자체에서 전처럼 예산을 확보 해 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간혹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국장들이 스스로 챙겨야한다.

직원들의 고용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으나, 사무국장의 고용은 안정되어 있지 않다. 원장이나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사무국 인력 전체가 바뀌는 경우가 경기도 내에서도 있었는데, 이렇게

까지는 아니어도 원장이 바뀔 때마다 사무국장도 바뀌는 경우는 80%이상이다. 국장의 임기가 3년 계약직인 경우가 많아서이기도 하겠다.

퇴사 이유는 급여, 근무환경 개선이 되지 않아서 등이다. 또한 문화원사와 관련하여 퇴직한 국장도 있고, 업무 외의 비상업적 활동을 사유로 퇴직한 국장도 있다. 원장, 지자체장이 바뀐 후 퇴직한 사례는 많다.

이사회에서 정년임기 조항이 승인 되었음에도 그만두는 사례도 있다. 원장은 사무국장을 고용할 때,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야한다.

사무국장의 잦은 교체로 문화원 입장에서는 인력 손실이고,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이 떨어진다. 새 사무국장이 문화원 업무를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된다. 전문위원들도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문화원 자부담으로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재정 상태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현재 문화원 재원은 지자체 의존도가 매우 높다. 민간기업의 참여 형태를 확대해야한다. 의정부문화원 같은 경우는 마사회 활동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다. 용인문화원의 경우, 지역의 대학교들과 협약을 많이 맺고 있다. 제가 있는 구리문화원의 경우, 문화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역농협에서 연간 3백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있다.

자체 재원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영역에 힘을 기울일 수 없다. 그러다보니 재정 시스템, 인력, 모든 면에서 문화재단을 따라갈 수는 없다.

조직과 법제가 제대로 실행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원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나는 3년 계약직이다. 3년마다 업무 평가를 받는다. 재임용 시, 재정, 법령, 임원진 구성, 시에서의 문화원 위상, 지역 네트워크 활동 등 문화원의 3년 계획서와 발전방안을 제출한다. 목표의 80% 미만 달성 시 퇴사할 각오도 밝힌다. 대신 원장님과 이사님들께 도와달라고 이야기 한다. 내 스스로 성찰하고 안주하지 않을 수 있는 동기부여이기도 하다.

사람이 싫으면 직장에서 일하기 어렵다. 원장과 사무국장, 직원들 간의 합의 맞지 않으면 일하기 힘들 것이다. 중간에 있는 국장들이 제일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직원 관리를 해야 하고, 원장님 의견도 잘 해야 한다. 조금 더 노력해서 원장과의 관계, 직원 근무 환경 개선 등의 역할도 잘 해주시기 바란다. 내부적으로 사무국장이 중심이 되어 잘 운영되어야 지역에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토대가 된다.

문화원은 정치 중립 의무가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서울 ○○문화원은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지 않고, 공채로 임명한 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 □□ 문화원은 신입 문화원장이 전 □□구청장이다. 현 □□구청장과 정적인 관계다. 소속 당도 다르다. 이런 이유로 구청에서 온갖 구실을 만들어 문화원의 시 및 구 보조금을 차단했다.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원의 강좌실을 폐쇄한 후, 문화원에서 운영하던 50여개 강좌를 구청문화체육과로 이관했다. 위법이고 문화원이 승소할 수 있어도, 지자체에서는 시간만 끌고 예산을 줄인다. 사업비와 인건비가 줄었으니 문화원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워진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도종환 의원은 예술인이다. 그래서 예술진흥에 대한 법률을 발의한 것이다. 문화원에서도 문화원 임직원을 시의원, 구청장, 시장, 도의원까지 적극적으로 배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해시는 최초로 행사 의전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었다. 민선 6기로 들어가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시장이 바꾸어보고자 한 것이다. 행사에 지자체장의 참석 유무로 행사의 무게, 존재감, 예산이 달라진다. 권위적이다. 지자체장이 와야 인정받는 행사이고, 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안 오면 의전이 바뀐다. 행사 내용과 더불어 축사 순서, 자리 배치를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전국 지방문화원의 현실이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동해시는 필요 없는 의전을 없앴다. 시장, 시의장, 주최 측을 제외하고 먼저 오는 순서대로 자리에 착석하면 된다.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좌석을 배치했다. 내빈 소개를 생략했다. 국가 경축일, 현충일, 삼일절 등의 행사를 제외하고 내빈 소개를 하지 않는다. 축사는 꼭 필요한 사람만 한다. 전에는 내빈들이 축사 후 행사장을 떠났다면, 동해시는 이제 참석한 행사는 끝날 때까지 함께해야 한다.

경기도권에서도 시도 해볼 만한 신선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한 지역이 시도하여 반응이 좋으면 확산 될 것이다.

외부에서 'OO문화원 신선해'라는 평가를 들으면 성공한 것이다. **신선하다는 것은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원이라는 뜻이다.** 어르신 프로그램, 많은 어르신들의 참석만으로는 절대 신선한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문화원을 찾아 간다면 신선한 것이다. 그 변화의 중심엔 사무국장님들이 있다.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신선하다, 후레쉬하다는 문화원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일 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핵심 키워드다. **신선한 문화원 만들어보자**

사회

현실적인 이야기여서 의미심장하게 들으며,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몇 달 후에는 국장들이 많이 바뀌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 문화가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단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지자체장이 바뀌면 원장, 사무국장이 바뀐다. 그런 경우 비전문가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들이 많다. 핵심적인 자리에 비전문가가 오면 그 문화원은 발전하기 어렵다. 앙드레 말로가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모든 공공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1%는 문화에 투자해야 한다는 1% 시스템이라든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생겼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문화의 준거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직 지자체장들의 지방문화원에 대한 인식이 요원하다.

OO문화원

공감하는 내용이었다. 지역문화는 80년대에 한국적인 것을 따지면서도 지역성이 강조되었다. 지자체가 시행된 후 중앙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 같았지만, 전국민의 생활양식이 획일화되면서 문화도 획일화 된 것 같다. 문화원이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만들어가기 보다는 획일화된 문화에

종속된 거 같다. 문화원이 오래전부터 향토사 연구에 집중해 온 성과가 좋은 장점인 반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 시행 전에 문화원들이 현재와 과거의 패러다임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법령을 만들어서 문화원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첫 번째로 아쉽다.

두 번째로 연합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연합회에서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중과 방송을 통해 홍보를 해줘야한다고 했었다.

세 번째로 원장님들도 청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사나 향토사에만 머물러 있기에는 사회가 급변하고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신입 원장님들께 문화원의 역할 등을 알려주는 매뉴얼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네 번째로 다시 연합회 역할이다. 문화원이 향토사 관련 사업과 더불어 현대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곳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토사 사업 외의 사업도 활성화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문화원 사무국 직원들의 운영 개선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문화원 직원들이 젊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무국장의

기획에 따라서 사업 진행, 회계처리만 한다.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합회 차원에서 후원이 이루어진다면, 전문적인 의식을 갖지 않은 직원들은 일을 진행하기 힘들 것이다.

OO문화원

우리 문화원이 최근까지 민형사 재판 32건을 진행하여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 판례는 3개나 받았다. 소송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진행되었는데, 지방문화원진흥법, 정관 등이 있어도 우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100%짜리는 없다. 실제 재판을 하다보면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온다. 문화원에 고문변호사가 있는 곳이 있는가? 유능한 변호사를 찾으면 기본이 착수에 500만원, 성공보수 소송가액의 10%, 특히 약점을 이용해서 브로커가 붙으면 성공보수를 100% 달라고 한다. 소송 건수가 많아서 시의 고문변호사를 소개 받아 문화원 고문변호사로 선임하게 되었다. 수입료는 보통가의 2/3를 지불했다. 앞으로 소송 한 번 안 할 문화원들이 많겠지만, 갑자기 법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비용, 상황 상 여의치가 않다. 연합회, 문화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문변호사 제도가 필요하다.

한 가지 더, 소송이 끝나고 나니 판결문만 두 박스다. 문화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로 진행된 소송이었기에 우리 문화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소송 내용과 판결을 책으로 발간하여 문화원들에게 공유할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 지역에 문화원사를 건립하면서 2011년도에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다. 승소 후, 조례를 근거로 시에 원사 위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5조에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다는 답변으로 1여년을 미뤘었다. 법은 100%로 필요하지만, 현실에서 법으로만 100% 해결할 수 없다. 법과 함께 문화원을 서포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구리문화원
사무국장
윤승민

법 보다 주먹이 빠를 때가 있다. 그런데 주먹을 사용하려면 힘을 모아야한다. 그 힘을 모으기 위해 ‘문화원아! 신선해지자’, ‘스타문화원을 만들자’, ‘31개 시군이 동일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내자’를 말하겠다.

사회

국장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이 많은 것 같다. 그 고민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안이 모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처장

2016년 경기도 문화원의 현재를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내년에는 이것보다 발전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발전되기를 다함께
노력하자.



변화하는 문화정책에 대처하는 문화원의 자세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박정근

2016년 6월 15일에 진행된 2차 지역문화아카데미의 '문화정책' 발제 내용을 정리했다.

의정부 복지기관 종사자들에게 기획 관련 특강을 3년째 하고 있다. 요즘은 공모사업, 행사 중심의 사업이 많은데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행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달라고 문화원으로 특강 의뢰가 왔다. 강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꼭 강조하는 한 가지는 '보는 시각을 달리 하라'이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과 행사를 한다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행사로만 본다. 이번 강의에서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다. 공연같은 걸 꼭 하나씩 넣어달라고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 그러면서 복지사들이 좋은 공연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저에게 물어봤다. 그래서 좋은 공연은 아이들이 좋아하면 엄마들은 다 좋아한다, 엄마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애들

취향에 맞추면 된다고 답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들은 쉬고 싶을 거다. 잘은 모르지만, 아이들을 떠나서 아이들 걱정 없이 하루 몇 시간, 일박 이일이라도 아무 것도 안하고 쉬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시작해서 행사를 만들어보자고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문화원도 보는 시각을 다르게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아주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얼마 전 '두레'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다. 학교에서 배운 두레는 '기브애틀테이크(Give & Take)'였다. 그런데 제 윗세대들에게 두레는 30~40가구가 모여 살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였다. 그 하나가 너와 내가 아니라 식구의 개념이었고, 내 형제 같은 사이였다. 문화원이 '두레'라는 개념에서 다시 시작을 하면,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늘 이야기할 문화정책 내용은 사실 문화원 국장, 직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문화를 소재로 대화를 할 때, 정책 이야기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리를 시작했다. 나는 현재 의정부시의회문화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 의정부 문화정책을 논의할 때 형식적이지만 참석하고 있다. 의정부 문화원 사무국장인 나를 불러주었기에 향후 문화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활동하고 있다. 이왕이면 문화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활동하자는 의미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대부분은 국장님들이 업무를 하면서 겪었고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것이다.

문화정책이라는 개념은 공공부문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면서 대두됐다.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 혹은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규정된다.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출발점은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으로 보고 있다. 임학순 교수는 문화정책을 “정부 등 공공기관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부문에 개입하는 일련의 행위 및 상호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정책의 개념이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춰 조용하듯 문화정책의 영역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의 문화개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책과 수단이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지지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과 상호작용하는 정책이 아니라 일방적인 정책이었다. 국민들의 정책참여 욕구, 특히 문화 분야는 국민들에게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정책이기에 이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대두된 것은 1990년 수립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에 따른다.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문화 복지의 균등화’의 방향이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지역문화라 하더라도 지역의 독특한 차이가 반영되지 못했고 지역문화의 개별성은 무시되거나 간과되었으며 중앙의 문화가 획일적으로 이식되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지역문화와 괴리가 있다. 2000년 ‘새로운 예술의 해’에 이어 2001년 ‘지역문화의 해’로 지정되면서 ‘지역문화’라는 용어의 개념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다양한 논쟁과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지역에서 활동해 온 예술가와 문화운동가, 기관과 단체의 활동가, 문화예술관련 대학교수와 공무원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전국적인 지역문화 네트워크가 형성 되었다. 이 시기에 전국에 있는 지방문화원들의 가치와 중요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지역문화정책은 중앙으로 통칭되는 기득권, 혹은 지배 중심의 문화와 투쟁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중앙과의 괴리감을 없애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당연하게 수용하고 있다.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문화 개발이라는 자생적 혹은 자구적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문화와 정책에서 이야기하는 지역문화가 같은 것인가? 같지 않기 때문에 겹돌고 있다. 그 거리를 줄여나가는 것이 정책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지역문화정책은 자치단체의 개발수요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민선 시대에 공격적인 지역문화정책이 잇달아 발표됐다. 지역문화를 통한 자치단체의 신규수요를 발굴하고 주민들의 유입을 꾀하고자 함이었다.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우리 시, 우리 도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기준이 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교육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문화이다. 교육과 문화가 발전한 곳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표명하기 시작했다. 지역문화의 자치화 자립화, 지역문화의 개성화와 특성화, 지역문화의 다양화와 다원화의 방향을 주장하게 되었다.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들이 지방자치제도가 생기면서 정책으로 내세워졌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내려오는 정책에 아직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을 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 지방문화원은 다시 한 번 더 각광받기 시작했다. 지방문화원의 정체성이 지역을 대표하는 시기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문화원들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정신을 담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지역학 연구 사업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향토사 관련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자치단체는 역사적 혹은 지리적

문화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 지역문화의 발굴은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포인트라고 했다. 이 시기에 '오~ 거기 사람 다 되었네.'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지기 시작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이주를 하여 살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이제 전라도 사람 다 되었네'라고 한다. '어디 사람 다 되었네'라는 말의 근본이 지역학이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지명유래도 강조되기 시작하여, 대부분의 지방문화원이 지명유래 관련 연구서를 발간하고, 지역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문화정책 흐름에 대해 정리 해 보면, 60년대까지는 경제적으로 힘들었기에 문서화된, 말뿐인 문화정책이었고, 소극적인 재산관리 중심의 문화재 관리업무가 중심이었다. 실질적인 예산 투여가 된 사업은 없었지만, 관련법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공연법」(61.12), 「문화재보호법」(62.1), 「지방문화사업조성법」(65.7), 「영화법」(66.8), 「음반에관한법률」(67.3) 등 많은 문화 관련 법들이 이때 제정되었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이적인 경제성장 및 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전통사회질서의 균열과 가치관 파괴현상이 두드러졌다. 사람들의 중심이 정신이 아니라 금전 중심, 기술이 아니라 기계 중심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사회통합과 가치관 순화를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문화가 아니라 '문화예술'이었다.

80년대 정부는 문화정책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 문화정책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제5공화국에서는 '문화정책'을 국가정책의 한 부분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제6공화국에서는

정부부처에 '문화부'를 신설했고 <문화발전10개년계획>까지 수립하였다.

제5공화국 시기 문화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문화예산의 확대와 전국적인 문화시설의 조성이다. 또한 지역문예진흥기금이 적립되기 시작했다. 문화예술부문 예산 확대는 문화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 및 전국적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데 따른 것이다. 이시기에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등의 대규모 문화시설이 건립되고, 경복궁·경희궁·덕수궁·창덕궁·창경궁 등 5대 궁(宮)이 개·보수되었다. 또한 각 시·도에도 종합문예회관, 특장문화시설,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등 문화시설이 확충되어 지역문화진흥의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방문화시설 조성에 뒤따라야 할 운영인력과 예산, 프로그램의 지원은 결핍되었다. 그래서 '빈 깡통 문화행정'이라는 혹독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지방의 문화 활동과 행사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시·도 종합예술제, 전국민속예술제도 이에 속한다. 지방미술대전, 연극경연대회, 향토축제, 지방문화제 등이 중점 지원되었다. 문화정책에서 중요한 변수는 88서울올림픽 개최였다. 올림픽과 문화가 무슨 관계냐 할 수는 있겠지만,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통일'이 거론되기 시작고, '통일'이 이데올로기 개념이 아니라 문화로서의 '통일'을 중요시 하기 시작했다. 이 일환으로 남북한이 동시에 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한 단일팀을 만들었으며, 통일문화정책이 등장하였다.

90년대는 국민의 문화향수권과 참여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문화복지의 실현에 중점을 둔 계획이다. 그때는 문화 다음이 복지였다. 문화복지라는 개념을 거친 다음에는 복지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문화로 바뀌었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정책이 기존의 창조자 중심에서 수용자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완전히 전환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창조자는 예술의 지배층, 예술가들이었다면 이제는 수용자,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문화가족운동'이다. 문화원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현재도 문화원은 '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 소외지역·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순회사업', 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했던 '한국문화학교', '문화의 거리 조성' 등도 시행되었다.

이후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정부 문화정책에서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 간 문화 균형이 강조되면서 문화 향수·참여 중심의 정책 기조는 더욱 강화되었다. 중앙 정책이 형평성이 없었기에 균형이 강조된 것이다. 교통부로부터 관광업부가 문화체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광과 문화와의 접목이 가능하게 되었다.

80년대 후반 이후 민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익의 사회적 환원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Noblesse Oblige)이 싹트고, 이것이 새로운 홍보전략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과 맞물리면서 문화에 대한 민간기업의 지원이 크게 증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1994년 4월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현 한국메세나협회)의 창립을 통해 그 활동이 보다 조직화되었다. 기업과 문화의 연결이었다.

지역의 문화 균형이 강조되면서 지역문화가 중요시 되고,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애석하게도 문화원은 이 시기에 문화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1997년 7월 '경기문화재단'이 출범한 이래 지역문화재단이

경쟁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의 핵심이 되었다.

2000년대는 1998년 2월 IMF 구제금융과 함께 문화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다. 정부 전체 예산 중 극히 미비한 비율이었음에도 문화예술 예산을 방만하게 지원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문화예술에도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단행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문화예술 예산을 중간에서 관리할 문화매개의 역할을 할 곳이 필요하게 되었고, 문화원이나 예총 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단체로 예산이 분배되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문화비전 2008~2012」에서 문화정책의 비전을 ‘방방곡곡 모세혈관처럼 펼쳐지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수요자중심의 정책추진,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 실용과 효율의 문화행정, 상생하는 문화와 산업, 소통과 개방의 전략, 문화를 통한 녹색성장 등 6개 전략을 제시했다. 90년대 이후의 문화정책을 모두 망라한 정책이다. 모든 것을 끌어 담았다. 문화정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결과 중심이기도 했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문화융성’이라고 하며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까지 정책이 진행 중이니 결론을 이야기하기는 그렇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2013년 7월 문화융성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인문가치의 정립·확산, 문화융합모델 발굴·육성,

문화가치의 국내외 확산, 아리랑의 재해석과 국민 축제화 등 새로운 관점의 정책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문화정책을 시기적으로 정리해서 말했다. 정책이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어 현재까지 왔는지 과정을 그려보면, 다음의 정책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이다. 현재의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주도의 고전적 거버넌스에서 민·관 중심의 뉴 거버넌스로 변화했다. 정부 문화예술 행정의 체계, 조직, 인력, 자원, 사업 및 정책 전반에 걸쳐 '거버넌스'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거버넌스를 우리가 협치, 협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들 중 가장 밀접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SNS이다. 협치 다음의 어떤 개념, 논리, 정책이 정해진다면, 그 기본은 SNS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다. SNS가 뉴 거버넌스는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뉴 거버넌스로 변하고 있다.

둘째 '문화'의 가치와 위상이 상승하고 있다. 우리가 딱 한 줄로 문화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을 표현할 때 '문화가 우리를 먹여 살릴 시대가 왔다.', '문화가 돈을 벌 수 있다.', '문화가 우리를 살립니다.'라고 한다.

셋째 중앙집권적 문화정책에서 지방분권화적 문화정책으로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수도권과 중앙정부에 집중되었던 문화예술정책이 지금은 우리가 고민하는 지방에서 지방의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중심의 문화예술로 변화이다. 예술이 분산화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고, 인쇄된 책보다는 인터넷 웹툰 등으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러한 신기술 발달 이후 예술의 생산과 보급이 변화하였고 이로 인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으로 변하고 있다. 다섯째 스토리텔링 기반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정책이다. 문화원형을 이야기할 때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등 외국 사례를 많이 이야기한다.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문화상품이 개발된다면 충분히 상품화로서의 경쟁성이 있을 것이다. 현재 지역에는 이야기는 매우 많은데, 그 이야기를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인력과 자원, 지원과 시간이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여섯째 '융합문화' 등장이다. 기존의 '문화'라는 제한된 형식에서 벗어나 창의성, 상상력, 개방성 및 다양성, 네트워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문화가 장르를 합치고, 문화와 체육이 합치고, 문화와 건설이, 문화와 모든 타 영역이 합쳐진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야기 하는 문화가 한 가지가 아닌 것이다. 모든 영역에 문화를 붙이면 문화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앞으로 정책에서도 '융합문화'가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한다.

일곱 번째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문화예술정책으로 변화이다. 공간 중심이 아니라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 내용 중심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의 문화예술정책이다. 사회 문제에 대한 답도 문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지원 사업이나 공모사업에서도 어떤 사회 문제를 문화를 매개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제안을 가장 설득력 있게 볼 것이다.

우리가 기존의 정책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정책을 고민할 때, 융합문화, 사회문제 대안으로서의 문화를 어떻게 활용해 갈 것이냐, 또 문화원이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전통과 현대, 전통과 산업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고민이 향후 10년, 20년 문화 정책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지방문화원은 그 내면의 관조를 통하여 강점을 찾아 더욱 집중하고 약점을 찾아 보완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시류에 편승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첫 번째로 방대한 지역의 전통문화 아카이브를 활용한 2차 문화상품에 개발에 도전하라. 문화와 무엇을 융합하여 상품을 만들 것인지, 문화를 매개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전통 아카이브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두 번째 전국적인 조직을 활용하라.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조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사무국장 연수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아이템, 소재를 얻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아이템을 상품화하기에는 여력이 없다. 아이템을 상품화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세 번째 문화원은 문화 공급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매개 단체이기도 하다. 매개 단체의 장점을 활용하자. 지방문화원은 다양한 민간, 기관을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업무로 바빠서인지 그 역할을 간과하고 포기한다. 문화원이 개입함으로써 사업이 얼마나 발전할 것이고, 양쪽의 입장을 동시에 끌고 갈 수 있을지 매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네 번째로 생활문화 거점으로써 문화원의 장점을 극대화 하자.

2016년 가장 중요한 문화정책의 핵심은 생활문화이다. 생활 속에 모든 것이 문화이고 예술이라고 결론지으며 마치 새로운 장르의 문화운동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지금껏 지방문화원이 진행해온 모든 사업의 핵심이 바로 생활문화인 것이다.

나아가 생활문화에서 파생된 여가문화 또 그를 통해 새로이
만들어질 문화트렌드를 예측하고 대비해 가면서 지방문화원은
미래의 지역문화사업을 선점하여야한다.



지방문화원을 총람¹⁾하다!

2016년 4월 7일에 진행된 1차 지역문화아카데미의 '지방문화원을 총람하다' 발제 내용을 정리했다.

1. 지방문화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을 총람하다>라는 주제이다.

먼저 지방문화원이 갖고 있는 법적 지위가 무엇인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근거한 비영리 독립 법인, 특수 법인이라고도 한다. 사단법인에 준한 법을 준용하는데, 지방문화원을 진흥하기 위한 특별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법적 기구이다. 비영리독립법인이라는 법적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229개 행정자치단체에 하나씩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연합회가 만들어져 있다.

각 문화원은 독립적인 지위이긴 하나 개별문화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¹⁾총람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것이 한국문화원연합회이다. 또한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기 힘들니, 광역시, 도에 시도문화원연합회를 만들었다. 그 중에 하나가 경기도문화원연합회다. 이것이 지방문화원의 네트워크 구조이다.

원칙적으로 문화원은 비영리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연합회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문화원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정관'도 지방문화원이 독자적으로 제정, 개정하게 되어있다. 이는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고자 하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문화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연합회가 만들어 진 것이다.

앞서 '개별문화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것이 연합회의 1차적인 목적이다.'라는 말을 했다.

그러자니 지방문화원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했다.

그런데 그동안 발간된 '총람'형태의 데이터로는 지방문화원의 속 깊은 사정을 알 수가 없었다. 또한 종합적인 현황을 알고자 할 때는 처음부터 집계를 다시 해야 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경기도 지방문화원 총람 <경기도 문화원을 만나다>이다.

이 기획은 2014년도 경기도민속예술제 기획회의를 하러 포천으로 가는 길 위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방문화원이

무슨 일을 하는 지 잘 모르겠으니 알아보자는 의도였다.

알아본다는 것 보다는 문화원의 현황을 분석한 고급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즉 도연합회 차원에서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현황을 아카이빙하고자 한 것이다.

<경기사이버도서관>에 문화원 중심의 아카이브 사업 제안을 했다. 흔히 '아카이브'라고 하면 자료집적, 축적, 데이터베이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도연합회에서 생각한 아카이브의 핵심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끝나고 난 다음의 기대효과를 얼마나 정교하게 생각했느냐이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총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자료를 분석했을 때 실제로 지방문화원이 당면한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연구 과제가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연합회에서 할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방문화원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주는 연합회의 본래의 역할 말이다. 오늘 연수도 개별문화원 차원에서는 어려운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합회의 역할 중 하나이다.

지방문화원을 총람하기 위해서 연합회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었다.

한국 문화페리다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합회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지역문화원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전제이다.

2. 경기도문화원을만나다.

지역에선 일이 참 많다. 그런데 바쁜 와중에 연합회에서 자료 요구도 대단히 많다. 그런데 자료 제출 후 한 번이라도 그 조사와 관련한

피드백 받은 적 있었나? 없다! 자료만 주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니까 안 해주고 싶다고 한다.

저도 연합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견 아니다 싶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피드백을 하자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다.

자료의 16쪽부터 총람 조사의 요약된 결과가 나와 있다. 기 발송된 총람을 보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원사는 용인문화원이 2개 공간 운영으로 총 32개이다.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회원은 총 9,019명이며, 원장, 임원 등을 합치면 11,000명 정도이다. 경기도에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직원은 140명이다. 문화원마다 직급 체계가 다르다. 지자체에 직원 현황을 공유하면 이 표를 준다. 직제 통일이 안 되어 있어서 면이 안 설 때도 있기는 하지만...

다음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및 근속 현황이다. 3~5년 근무한 국장들의 평균 연봉이 4,400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10년을 넘게 일한 국장들의 연봉이 3,900만원이다. 왜 그럴까? 국장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4.77년이다. 직원들의 경우도 평균 근속년수가 4.78년이다. 문화원에서 오래 견디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직원 채용 형태는 정규직이 많다. 사무국장의 채용 형태는 정규직과 계약직 반반 정도이다. 그러나 정규직이라도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

부설, 산하 및 위탁 기관은 총 195개이다.

문화원에서 만들어낸 단체를 동아리로 볼 것인지 위탁인지

산하단체로 볼 것인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총람 설문지를 작성할 때 힘들었을 것이다.

내가 볼 때는 동아리인데 부설기관으로 작성되어 있기도 했다.

합창단을 동아리로 볼 것인지, 봉사단체로 볼 것인지의 기준도

불명확하다.

연합회에서 분류 기준을 만들고, 지표도 개발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아직 안 한 것이다. 늦은 것이다.

우리가 도연합회로써 할 일을 못하다 보니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수가 '99개'라고 되어 있다.

생각보다 많은가? 하하

한 문화원 당 동아리가 3개 정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니지

않나?

가까운 수원문화원만 해도 20개가 넘는 걸로 안다. 정확한 집계가 안

나온다. 생활문화동아리를 만든다고 해도 문화원에 총람된 자료가

없어서 같이 진행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자체적인 사업이 많으니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한다. 새로운 사업에 부정적이다.

동아리 99개, 1,858명, 봉사단체 수 16개, 452명, 산하단체 수 61개

2,201명, 위탁 단체 수 19개이다.

정관을 기준으로 분석한 임원의 인원 및 임기 현황만 해도 경기도

31개 문화원이 다르다.

인사 규정 24개, 복무 규정 20개, 직제 규정 18개, 위임전결 규정 15개

문화원에서 제정되어 있다.

여비 규정 21개, 회계 규정 16개, 보수 규정 19개 문화원에서 제정되어

있다.

선거관리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곳이 25개이다. 규정 없이 원장

선임을 하는 곳이 6군데라는 것이다.

기본 규정이라고 생각되는 규정도 제정되지 않은 문화원이 있다.

기타 향토사연구소 관련 규정, 대관 및 시설 관리 규정, 회원 회비 관리 규정 등 각 문화원에서 운영에 필요하여 제정된 규정이 84개이다.

경기도 31개 시, 군문화원 예산 현황이다.

1년 동안 31개 문화원의 총 예산이 17,553천만원이다. 경상운영비가 7,141백만원, 사업비가 10,412백만원이다. 많다고 생각되시나? 한 개 문화원당 평균 사업비가 566백만원 정도이다. 참고로 전국 평균은 450백만원이다.

문화원은 문화정책사업에서 다 비껴나 있다.

이야기 할머니는 문화원에서 처음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은 국학연구원에서 5~60억 규모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토사 관련해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하고 있다.

생활문화동호회가 조직 되었다. 문화원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동아리를 만들었다. 그런데 막상 이 활동이 정책사업으로 결정되었는데 사업파트너로 문화원은 빠져있다.

문화원이 늘상 해오던 일이 생활문화동아리 운영인데 말이다.

정책사업은 공모사업보다 예산 규모가 크다. 문화원 입장에서 아쉬운 일이다.

경기도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수는 339개다. 각각 기념식, 민담설화, 인물 등의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기준은 임의로 정했다.

경기도 문화원에서 진행되는 강좌 수는 485개이며, 장르 분류기준은 임의로 정했다.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사진이나 미디어 교육을 한다면 어떤 장르로 속해야 할까? 이런 기준을 연합회에서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설문지를 작성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2017년에 총람을 다시 낼 것이다. 사실 이 총람을 발간하는 과정이 힘들었다. 이 총람의 목적은 분석된 데이터 300개 확보였다. 하지만 분석을 하다가 포기를 하고 84개에서 멈추었다. 임원 회비나 직원 인건비 같은 민감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료까지 합쳐도 100개 정도이다.

그만큼 문화원이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원으로부터 더 세밀하게 총람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 어떤 내용으로든 타문화원과의 비교 현황을 요구할 때 편리하며, 문화원이 지자체에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하기도 편리하다.

그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연합회에서 해야 할 일 아니겠나. 다음 번 설문에서는 지난 번 보다 세밀하게 작성해달라.

3. 경기도 문화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이다.

2011년부터 도연합회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문화원 욕구 수요 조사를 했다. 문화원에서 바라는 욕구, 어려움을 전수조사하여 정성평가를 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문화원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지 4개의 키워드를 뽑았다.

첫 번째는 조직과 법제,
두 번째는 축제와 문화사업
세 번째 문화예술교육
네 번째 향토문화연구

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적어도 4가지 먼저 로드맵을 작성하여 진행하면 지방문화원이 안정적으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TFT를 구성하고, 국장들에게 관심 있는 파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조직과 법제 쪽으로 20여명이 몰렸다. 3~4년마다 국장들이 바뀌어서인지 조직과 법제에 대한 관심이 강한 것 같고, 국장들의 주된 대화 소재도 조직과 관련된 것이다. 사업이나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이에 작년에 원장님들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작년 합동연수에서 어젠다 선포를 했었다. 2016년 합동연수에서는 올해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의 문화원 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어젠다 선포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큰 틀거리로 지방문화원의 지역 내 위상 강화와 동반성장이라는 목표를 두고 첫 번째는 조직 경영 선진화이고 두 번째는 사업추진역량선진화라는 목적을 정했다

조직 경영 선진화로 법, 제규정 정비, 조직 경영 안정화, 네트워크 강화이고, 사업추진역량선진화로 기획역량강화, 일관된 문화정책 수립 및 추진, 문화재원구조의 다양한 모색이다. 그래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목표도 설정했다.

법적 제도적 정비라는 것은 정관이나 내부 규정의 정비이다.

31개 시군문화원의 정관이 모두 다른데, 통일된 정관을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일부 조항은 통일할 필요가 있다.

사무국 직제도 다 다르다. 위탁 기관 운영 규정의 경우도 공유가 안 된다. 잘하고 있는 문화원들의 규정과 운영 사례를 교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문화원 재원은 지자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 사업추진역량선진화로 문화재원구조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해야하며, 문화원의 힘인 회원 구조를 정비해야한다.

도연합회에서 경기도 문화원의 재원 확보를 위해 경기문화재단 등 정책 사업비를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때마침 경기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동호회 사업파트너 제안이 왔다. 생활문화 관련 사업이 정책적으로 큰 흐름이기에 문화원이 함께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정책의 흐름을 알고 사업 기획이 되어야 한다. 기획초기 단계부터 사업 결과와 효과를 정교하게 설정해야한다. 이것이 있어야 기획의 질이 높아진다. 직원이나 문화원 차원의 나름대로의 학습도 필요할 것이다.



경기도 직원들의 현안 모아보기

2016년 11월 17~18일에 진행된 3차 지역문화아카데미에서 현장의 고민을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다.

사회

‘지방문화원 이렇게 좀 바뀌면 좋겠다’는 어젠다를 논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마련했다. 짧은 시간이라도 속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직원들 입장에서 문화원의 문제점을 나열해보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중,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목록화해 보려고 한다. 문화원 이렇게 변화하면 좋겠다, 도연합회 또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이런 거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하자. 그리고 업무를 하

면서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조직문화개선

직원 입장에서 개선하고 싶은 점들은 직원의 역량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원장님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사무국장의 역할에 따라서 그 문화원의 방향성이 정해진다**. 사무국장은 문화원 사무국을 운영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리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원장님 수행 업무가 잦다. 원장님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문화원은 그래왔다. 연합회에서라도 원장님 세미나 연수에서 강연이든 어떤 형식이든 사무국장의 역할,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주길 바란다. 원장님을 모셔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수행비서의 역할이 더 커서는 안 될 것이다.

문화원이 아닌 문화단체 근무 경력이 있다. 문화원 사무국 근무 연차도 꽤 되었다. 지금 하는 고민이 단체 설립 목적이나 목적 사업, 담당 업무가 달라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나의 고민은 문화원의 경직된 조직 문화이다. 타 문화단체에 있을 때는 제 역량껏 주민들과 재미있게 사업하면서 근무했다. 그런데 문화원은 직

원이 2명이든 10명이든, 조직문화를 따라야 되고 경직되어 있다. 이사회, 총회를 거쳐서 운영이 되는 법인체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안다. 문화원은 일반 회사가 아니고, 우린 공무원도 아니다. 우리는 문화 기획자이고, 활동가이다. 이런 마음으로 유연하게 되든 안되든 기획회의 하면서 의견도 내볼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말 일하다가 지켰을 때 '저희 한 번 놓시다!' 하는 분위기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조직이니까 상하관계가 분명해서 사업 계획서도 체계적인 결재체계로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한다. 위에서 '안 돼' 라고 하면 설득의 말을 미처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래..." 라고 한다. **문화원 조직이 좀 유연해지면 좋겠다** 직원들이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얼마나 재밌게 지역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나? 적은 예산으로 한 명이 여러 명 역할을 하면서 문화 일을 만들어 가는데 그 분위기가 경직되는 순간 정말 일이 되어버린다. 이런 게 힘들다.

우리는 사업 기획에 원장님이 많이 참여한다. 대부분 결정사항은 직접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처리만 직원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국장님, 직원들과 함께 사업 기획 회의를 하거나 방향성을 고민하는 것이 힘들다. **기획자로서 사업의 초기부터 함께 기획하고 고민하는 것이 낫음**

기회자를 키우는 일이 된다고 생각한다.

고루하다는 표현이 떠오른다. 합동연수 어워즈 때, 도연합회가 준비하는 도지사상 같은 기존의 상 제도가 아닌, 지역 문화원 국장님들이 직원들에게 주는 재미있는 상 같은 이벤트가 있으면 한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동유럽을 여행하면서 어떤 도시의 시청을 방문했다. 시청 건물이 시민들과 떨어진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허름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더라. 그 광장이나 시청 건물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문턱 자체가 없더라. 한국은 요즘 시청이나 구청을 새로 지을 때 크고 으리으리하게 짓는다. 시청에 아무나 들어가도 되기는 하지만, 위축되는 분위기가 있다. 그런 비교를 하니 우리나라가 참 권위적인 사회구나 라고 뼈저리게 느꼈다. 그런 권위적인 문화가 문화원에도 많은 영향을 준 것 같다.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

강의를 듣다보면 내가 사업에서 고민했던 부분의 어느 지점을 건드려줄 때가 있다. 강의 들으면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라도 배우고 공부해야겠다. 생각보다 우리가 맡은 업무는 영향력이 있다.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기획자들 이란 걸 몸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진행했던 행사장은 공연이나 전시, 행사를 위해 지어진 공간이 아니고 집, 창고, 마당 등 다양한 공간과 계단도 많은 곳이었다. 그 공간을 행사장으로 세팅하면서 사업의 방향성도 고민해야하지만, 이런 공간 세팅도 완벽히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느꼈다. 문화사업을 하려면 참 많은걸 다양하게 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

맞다. 저도 얼마 전에 행사 하나를 혼자 진행했다. 그 날 문화원에 또 다른 행사가 있었고 직원이 많지 않아서 혼자 할 수 밖에 없었다. 문화원에 근무한다는 것, 문화기획자라는 것은 능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느꼈다.

문화정책이 바뀌면서 문화원의 색깔이 바뀌어 져야한다는 것에 대해 교육이나 공모사업의 컨설팅으로 푸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또 고집을 굽혀야하는 것들이 생긴다는 점이 고민된다. 문화는 포괄적이고 지역성을 띄면서 색깔이 나오는데, 정책의 방향성은 자꾸 변화하고, 실무자들의 역량도 전통 문화나 향토사의 복원 개념에서 벗어나는 게 교육

차원에서 느껴진다. 이런 인식이 변화하고 역량을 바꾸어 나가야하는 정보를 새로운 공모사업을 통해서 얻는다. 새로운 흐름을 국장님들이나 인협회 차원에서 미리 준비를 시켜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원만의 문화강좌, 그것이 전통만을 고집하라는 게 아니더라. 생활 문화에서 지역성을 입히고, 전통을 입히거나 전환하는 작업, 전환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지자체, 지역 기관과의 관계

문화원이 주체적으로 기획, 추진, 완성하는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시와의 관계 등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은 다 비슷할 것이다.

시청에서 직접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사업단체들이 있는데, 그 사업단체들의 중간역할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력을 보충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적인 업무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문화원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사업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든다. 나는 정산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사업을 문화재단이나 예술단체가 하게되는 경

우가 많아져서 문화원에 대한 입지가 자꾸 작아진다는 느낌이 들고, 그에 상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도 작아진다는 느낌이 든다.

당장 해결할 수도 없고, 연합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도 안 들지만, 박물관이 할 수 있는 일, 문화원이 할 수 있는 일,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면,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명료하게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시 조례가 제정되거나 문화 내부 규정이 잘 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법에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아니며, 지자체장이 바뀌면 사업비 예산뿐만 아니라 인건비 예산도 바뀌는 경우가 있다. 지방문화원 지원 조례를 광역시도단위에서는 제정할 수 없는 것인가?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각 지역 문화원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을 것 같다. 법에서도 지방 자치단체가 문화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건데 그와 관련한 조례 제정이나 지원 주체가 꼭 시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일이긴 하겠다.

사회

일을 하다보면, 예총, 재단, 박물관 등 많은 단체들의 사업이 중복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문화원에 인원이 없고, 3~4명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크지도 않다. 그렇기에 문화원이 축소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원의 시 개정 의존도를 계속 낮출 필요가 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국비든 재단 사업이든 어떤 형태로든 확보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책 사업의 프로젝트형 사업형 규모는 생각보다 크다. 그런 사업을 문화원에서 협력하고, 네트워킹해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문화원의 장점은 네트워킹이다. 지역사가 같은 권역, 생활권이 연결되는 권역 등 권역별 프로젝트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권역별 프로젝트 너무 힘들다. 우리 문화원에서 인근 문화원들과 권역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시도했고, 일부는 실행했다. 그 주제로 몇 개의 문화원이 다 모여야 하는데 관심 없는 문화원도 있고, 관심은 있는데 직원들의 역량이 안되는 곳도 있다.

문화강좌 운영 노하우

어떻게 하면 사업홍보를 잘 할 수 있을까?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든, 인문학 강의를 하든 해가 갈수록 강의 듣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같다. '나 그거 너무 좋아 듣고 싶어'하면서도 정작 오지는 않는다. 효과적인 홍보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

요즘은 수강생도 미리 섭외해야 한다.

기본적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고 행사를 시작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여자가 없기도 하지만, 강사에게도 미안한 마음이다.

우리는 사전에 참석자의 문자 신청을 받는다.

강사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예산으로는 유명 강사를 섭외할 수 없다. 1년에 10회 진행하고 매회 다른 강사로 섭외한다. 강의 내용은 정말 좋은데 일반 회원들 기준에선 고루한 주제나 내용일 수도 있다. 주로 전통관련 강좌가 많기 때문인데, 이사님들이나 회원 분들이 들어보겠다고 오시긴 하는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듣고 있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다.

지역에서는 단순 강좌가 굉장히 많다. 지자체에서도 인기 강사 특강을 많이 한다. 그러니 문화원에 서까지 인기 강좌라는 걸 할 필요는 없다. 문화원에서는 이런 강좌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자리 잡아야한다. 문화원 사업 방향성에 맞춰서 다시 고민을 해봐야한다. 우리는 소소한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형식적이거나 강사 인터

부도 하고 재면접도 본다. 강사 면접을 할 때 문화원에서 정한 전체 방향성을 계속 이야기하니 강사들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3년째 같이 하니 문화강좌가 옛날 것도 가지만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우리가 완벽하게 잘 된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고민을 하면서 진행해 보니 우리 문화원 강의에 마니아가 생겼다. 회원들 중에서 확보인원은 우리가 만들어낸다. 관련 강의를 좋아하는 층과 만들어내는 층 합쳐서 100명 정도를 만든다. 회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리이러한 강의를 있으니까 들으면 좋겠다는 홍보 전화를 돌리고 있다.

지역적 색깔이 있는 인문학 강의를 하면, 문화원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강의이기 때문에 의외로 인기가 있다. 어느 명강사가 와도 못하는 내용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가능하더라. 결국 **문화원이 지역적인 내용을 수용한 인문학강의 색깔을 내는 게 맞는 방향 같다.**

그런 강사를 양성하거나 섭외하는 게 수월하지가 않지 않나?

그런 강사는 이미 강사로서 충분한 능력들이 갖춰져 있다. '우리는 이 분야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이 분야를 연구해서 두 시간이나 한 시간

내에 풀어주세요' 하면은 못하는 분들이 없더라.
우리 지역 관련 자료는 제공한다.

직원 복지, 근무 환경

연차 제도가 있는지, 또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연월차에 개념이 전혀 없다.

규정에 연월차 관련한 내용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우리 문화원은 월차가 있다. 그런데 저만 상황에 따라 쉬고,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쉬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왜 저만 쉬냐고 하더라. 그 이후로 아무도 못 쉬고 있다.

우리 문화원은 월차가 있고, 매달 쉬고 있다.

사용 못한 연월차 수당은 받나?

없다.

우리 문화원은 수당으로 받는다. 그런데 연차하고 상관없이 주말근무를 많이 한다.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나?

전혀 없다.

우리 문화원은 주말 근무 시 수당이 나온다.

급여규정이 있고, 관련 조항이 있어도 수당을 주든 안주든 문제가 안 되는 것 같다. 강제성이 없다.

정기적으로 여름휴가는 있나? 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

휴가는 있다.

일주일. 근무일 기준 5일이어서 주말 합치면 9일이다.

연합회 차원에서 연월차부분에 대해 공지해주면 좋겠다.

사회

문화원의 4대 기본 규정과 관련하여 표준안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문화원은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표준안을 만들어도 연합회에서 문화원에게 그 규정으로 변경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규정 유무를 떠나 문화원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장기근속자를 위한 제도

요즘 연차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것 같다. 오랜 기간 근무했으니, 다 잘하겠네라고 한다. 일을 하다보면 놓치는 것도 있고 처음 하는 업무나 사업은 모를 수도 있는데 말이다. 그래서 요즘 조금 힘들다.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내가 지금 여기 있어도 되는건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데 와서 교육받고 계속 발전해야하는데 현장으로 돌아가면 원리, 원칙도 없이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일정근무연차가 되면 기대치가 있나보다. 저 정도는 완벽하게 알아서 혼자 다 해야할 것 같고, 모든 질문을 다 나한테 하고, 그렇지 않나?

“산 증인이다”라는 말도 한다. 우리 문화원은 너 없으면 큰일 난다는 말도 한다.

10년 연차 휴가를 제안했다. 10년 정도 근무자에겐 별도의 휴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작년에 한 달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2주를 받았다. 그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유럽을 다녀왔는데,

여행하고 재충전하고 오니 사업 아이디어가 샘솟더라. 우리 문화원이 시작했으니 다른 곳들도 도전해봐라. 한 두 군데가 시작하면 이런 분위기가 당연 시 되지 않겠나.

마무리

사무처장

사무국장의 역량강화, 역할, 국장의 잦은 변동 같은 문제들이나 문화원 내부 규정 문제는 사실 10년 전부터 이야기 하고 있는 내용이다. 오랜 시간 논의해 왔지만, 그만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인 듯 하다.

조직문화개선도 장기적으로 풀어야할 문제이다. 연월차 문제는 규정 관련 문제이다. 문화원에서 기본으로 제정되어야할 규정이 인사, 복무, 보수, 직책, 위임 전결 다섯 가지 정도이다. 내년에 이 규정들의 표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기본 규정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문화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전에 제정되었기에 현재 상황과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내용도 있을 것이다. 규정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아까 말했듯이 연합회가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알 것이다. 도연합회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원장님들과 또는 국장들과 표준안을 만들어서 공유하게 되면 표준안을 기준으로 문화원 실정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하고 문화원 이사회에서 개정을 해야 한다.

청정 해질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일차 일겠다. 지역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어야 한다.

다음엔 직원협의회에서 기획하는 사업 세 가지만 알려줬으면 한다. 또는 도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알려주면,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해보겠다. 사업비를 따내라는 것이 아니다. 요즘 CoP사업을 지원해주는 공모가 많다. 연구모임 사업이다. 국제 교류 네트워크를 하는 연구모임은 네명이 해외로 나가서 교류하는 프로젝트도 진행도 있었다. 작년 경기문화재단 프로젝트 중 예술가에게 3백 5십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었다. 그 예술가가 '아무것도 안하기 콘셉트'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고 승인이 났다. 그 돈으로 베트남에 가서 한 15일 동안 아무 것도 안하고 왔다고 한다. 보고서를 냈는데 재밌게 놀면서 느낀 것들을 보고서로 착실하게 냈더라. 이런 것들을 직원협의회 차원에서 또는 마음 맞는 직원들끼리 해보기를 바란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많다. 아이템을 주면 관련 정보를 함께 찾아보겠다.



- ▶ 생활문화사업의 원칙과 방향설정
- ▶ 문화원의 생활문화 가치 재확인
- ▶ '4인 4색'_경기도 네 개 지역, 네 가지 이야기
- ▶ 경기도 생활문화 다시보기

II.

경기도

지방문화원

생활문화를

논하다.

생활문화사업의 원칙과 방향설정

경기도 31개 시·군·지방문화원의 생활문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원칙과 방향을 합의과정을 통해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및 실무자와 2016년 6월 10일에 진행한 간담회를 정리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이하 도연합회)

작년에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 총람인 <경기도문화원을만나다>를 내보니, 지방문화원 차원에서 사업의 맥락이나 동아리에 대한 개념, 조직 운영 등에 대한 합의가 없이 개별문화원 차원에서 자의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사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정리, 합의, 분석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이하 대전대표이사)

이 총람을 가지고는 순차적으로 뭐가 나오기 힘들 것 같다. 참여한 사람들의 느낌들을 이야기로 끌어내면서 그걸 기준으로 정리하고 그 관점과 기준으로 이 책을 보자는 거다. 여기에서 무엇을 더 뽑아 낼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도연합회

이 안에서 생활문화동아리를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그것을 분석 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라든가, 동아리라는 부분도 각 문화원 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까지 건드리기에는 영역에서 벗어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

자문위원1

외부 연구자들 중 누군가에게 의뢰를 하면 이미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현황조사를 또 한다.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틀이 또 있으니 새로 시작하게 된다.

도연합회

연구자들이 하게 되면 우리의 고민보다 깊이 고민하고 훨씬 더 맛있게 이용을 할 수는 있겠다. 지금은 그저 막연한 데이터기만 해서 '나도 잘 모르겠으니, 나라도 맥락을 잡아보자. 향후에 동아리가 됐던, 뭐가 됐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문화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아야 이후에 방향을 잡던 할 것 아니냐.' 하면서도 이게 맞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갑갑해지기도 한다.

대전대표이사

연합회 차원에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시범적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아리 조사하면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하고 싶다는 건지 확실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나는 활동가들의 감이 중요한 거 같은데? 감을 풀어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이거는 느낌이나 감이 정확한 것 같다.

도연합회

이 사업은 애초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문화원의 생활문화사업에 대한 육성, 지원 정책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에서 경기도의 생활문화는 어떻게 가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게 됐다.

지원을 위한 예산도 책정되어 있어서 저는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 지방문화원 중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굳이 도연합회 예산을 추가해서 중복할 이유가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도연합회는 사업의 방향을 조정해서 지방문화원의 생활문화사업의 현황을 정밀하게 실태 조사하고, 맥락을 잡고 구획 정리를 하면 문화원 차원에서의 생활문화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이나 제안을 할 수 있고, 좀 더 확장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다.

지역마다 동아리 등의 모임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생활문화 동아리나 사람의 모임을 문화원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대전대표이사

그렇다면 가능성 있는 것, 내버려 둘 것, 버릴 것 의 3단계로 리스트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자문위원2

그러면 또 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감각적으로, 보여지는 모임의 형태가 경기도 내에 2~3백 개는 될 텐데, 문화원들이 작성해 준 설문지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정리해보면 토털 99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다.

1차년도 사업이어서 양적 데이터로 밖에 집계가 안된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나마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다. 아마도 분류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역마다 동아리에 대한 기준이나 개념이 다 다르기 때문인 것 같다. 버릴 것 안 버릴 것 구분하려면 또 다시 대면 조사를 통해서 자료 정리해야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가 다시 고민이 된다.

도연합회

설문지를 통해 보다보니 구획이 모호해서 저마다 생각이나 기준점이 달랐고,

총람에 나와 있는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동아리나 생활문화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의미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함께... 지역 마다 동아리 등의 모임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생활문화 동아리나 사람의 모임을 문화원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하는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도 분석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도 해 봤다.

대전대표이사

그럼 조사 방법을 잘 아는 사람한테 자문을 해봐야지. 이런 방법으로 설문을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답은 안 나올 거다.

도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의뢰로 전국 지방문화원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도

빈약함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니 경기도 차원의 총람
자료를 보면 저도 아직 맥락이
안 잡히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다.

자문위원2

전국 지방문화원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도 전국 단위의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된 자료의 한계도 있을
수밖에 없다. 직접 가서
하나하나 끌어 내는 것이 가장
좋은데, 과연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된다.

도연합회

대표이사님께서 연합회
자문위원도 하시고
문화원들에 대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실
것 같아서 함께 고민을
부탁드리게 됐다.

대전대표이사

조사를 다시 하겠다. 라는
입장인가?

도연합회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이 없었으면,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잘하는
문화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시범사례를 만들어 보려고
했다.

이 총람을 만든 이유는
2부에 게재되어 있는
경기도 지방문화원 운영 및
사업관련 세부현황인데,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동아리
현황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정리해 봤다. 그런데
적어도 데이터의 정확성이
50% 이상은 되었으면 하는데,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니
이걸 동아리나 문화원
사업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보고, 솔루션을
찾아보자. 그래서 대면 조사를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보자는 취지에서 연구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였다.

대전대표이사

대전 마을 만들기 3년차를 접어들면서 성장 사례 조사를 했다. 마을 활동가 20명이 전화 조사를 기본으로 했는데, 남는 건 20명 인터뷰 다닌 사람이 남았다. 자기들이 활동하던 경험자이다 보니까, 나 혼자 활동을 했었는데 이걸 조사하면서 보니까 그동안의 과정이 정리 되면서 스스로들 성장을 한 것이다. 보고서는 그냥 제출용으로 끝났다. 나도 이야기하면서 단계별로 씨앗, 발아단계 등으로 넓혀진 도표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의 연차별 경험들을 정리하게 되니까 활동가들이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남는 것이었던 거다.

자문위원2

단계를 처음부터 팔로잉 한 것이 아니고, 중간단계에 조사를 하신건가?

대전대표이사

연차별로 팔로잉했다. 1년차, 2년차, 3년차. 그러다 보니 활동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정리가 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더라. 아직 미적지근했었는데, 확실한 활동가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자문위원2

문화원 조직이 어떻게 보면 활동가고 어떻게 보면 기획자고 참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들과 '새로운 무언가를 해보자' 해도 기존 조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든다. 기존과 똑같거나 비슷한 형태의 무언가로 만들어 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도연합회 입장에서는

분류체계나 명칭을 어느 정도는 명확히 하고 싶은 것이다.

연합회라면 지방문화원의 현황들을 파악하고 현재 이런 저런 사업과 운영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제도적, 행정적 지원 등의 역할이 주된 임무라고 생각한다.

근거나 비교(변화)자료를 제시해서 보여 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니 도연합회에서는 자꾸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전대표이사

사실 연합회가 해야 할 일이 정확하게 명분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맞다. 거기에

있으면 그런 유혹을 갖게 된다. 연합회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통제, 관리를 해야 하니까. 문화부만 해도 '근거를 대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이렇게 근거를 대기 위해서 대안이 필요한 거지. 제가 보기에는 연합회 차원에서 하고 싶은 것은 정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싶은 거라고 보여진다.

자문위원2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고, 발화점을 찾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연합회

연합회라면 지방문화원의 현황들을 파악하고 현재 이런 저런 사업과 운영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제도적, 행정적 지원 등의 역할이 주된 임무라고 생각한다. 개별 문화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게 마련이니까.

대전대표이사

연합회라면 당연한 일이다. 내가 개별 문화원에 있을 때 이런 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다. 나는 못하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하고 싶다는 유혹이 생긴다. 그런데 사실 현황 자료를 보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용을 하는 거지 실무자들이 보지는 않는다. 대안으로 제시하자면 언제 한번 실무자들 모아놓고 너는 이 총람 자료를 보고 뭘 찾을 수 있냐? 라는 프로그램도 해 보면 어떤가?

도연합회

경기도지방문화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그런 시간을 가져 본 적은 있다. 사실 고민의 여지만 던져 주고 자료를 통해 무엇을 보았는지까지는 진행되지 못했지만.

대전대표이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짜줘야 돼. 자기 스스로 짜는 것은 한계가 있다. 몇몇이 모여야 집단 역동성이 생기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이걸 현황 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보완 했으면 좋겠다. 그게 현실 가능하냐, 이 부분을 실무자와 의논해서 물어봐라. 어차피 그분들과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합회 처장님과 지방문화원 국장님은 생각이 또 다르다고, 고민 하는 건 비슷한데 고민하는 방향이 다르다.

자문위원2

총람을 만들어서 과연 문화원들이 이 자료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도연합회에서 물어본 적 있지
 않았나? 반응이 어땠나? 각
 문화원에서...

도연합회

생각보다 많은 문화원에서
 관심을 보였다. 예산규모, 회원
 등의 현황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니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런데 오히려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다.

대전대표이사

읽어본 사람을 잡아야한다.
 '당신은 어디 부분을 관심
 있게 봤냐' 라는 내용. 사실
 나는 잘 안 봐. 숫자가 느낌이
 안 오니까. 직접 읽어 본
 사람에게 뭘 도움을 받았냐고
 물어 보는 게 가장 빠르다.

도연합회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인가?

대전대표이사

광역문화재단 조직표만 나열
 해 놓은 자료가 있다. 점검을
 하면서 다시 확인 작업을
 했는데 그런 조직표라 해도
 사용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쓰임이 다르다. 긴가 민가 하는
 건 거기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고. 그 정도 자료도 못
 만들고 있는 곳도 많다.

충남에서 심사를 했으니
 자료를 달라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건데, 내 눈에
 들어왔던 것은 33개
 지역특성화 중에 26개가
 마을 사람이더라. 이걸
 엄청난 변화다. 그런 것도
 막연하게 있는 것이라 몇 개
 중 몇 개라고 간단한 거라도
 픽업해서 자료를 보여주면
 말의 힘이 다르다니까. 이게
 추세다.

내가 전에 마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융합 어찌고저찌고 하는데,
조사를 해 보니 장르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많고 또 장르끼리
통합된 곳도 많다. 지금은
통합이 장르보다 늘어났다.
이거는 지역적인 현상이고
특성이 되는 거다. 대전하고
충남하고 또 다르다. 그러니까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

내 말은 통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면 관점을 가지고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는 뜻이다. 좀
끌어주면 될 곳, 나머지 열 개
정도를 뽑아보자. 거기에서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단체만
전화 인터뷰라도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FGI그룹처럼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것도 방법 일 수 있다.

자문위원2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과연 도연합회에서
가려고 하는 방향에 올해는

어느 지점까지가 가능한지가
고민일 것이다.

대전대표이사

그때는 돈 되는 것만큼만
하라고. '선택과 집중',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말이 맞다.
퍼쥬도 퍼쥬도 끝도 없는 거다.
지역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서울은 잘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너무 밀집되어
있고, 지역은 사람이 참 없고.

자문위원2

오히려 먹거리들이 밀집
된 곳이 잘 되는 것처럼
도심지역은 잘하는 단체들이
밀집 되어 있어서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교류가
되니까 자연 성장하는데,
지역은 그것이 더 힘들게 되는
거다.

몇 년 전에 공연장 실태조사
한 걸 보면, 똑같이

지원받아서 만든 공연장인데,
서울과 지역 공연장들의
현황이 너무 차이가 난다.
공연장을 운영하려면 예술
단체들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 경기, 대전으로 내려
갈수록 공연장에 설 단체가
없기 때문에 공연장 운영이
힘들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 지금 생활문화도 똑같은
것 같다.

대전대표이사

지역도 참 좋아지고
했는데도 이제는 질적으로
승부해야 하는데, 사실
문화예술교육에서도 관리가
안되고 있다. 토요프로그램
떨어뜨려야 하는데, 단체가
없으니까. 막연하게 걱정이
된다.

문화적인 것은 지역적
편차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보이는 거다. 젊은 친구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감이

있어서, 젊은 문화기획자가
있는 곳은 확실히 다르다.
변화가 눈에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서 쓸 만하면
이탈해버린다. 서울이나
대도시로 떠나버리기 때문에
지역엔 사람이 더 없다.

젊은 친구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감이 있어서. 젊은
문화기획자가 있는 곳은
확실히 다르다.

자문위원2

경기도만 해도 그렇다.
북부권으로 가면 젊은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예술단체도 매칭하기

힘들다고 하니 전국적으로 보면 더 한 것이 당연하고... 총람자료를 정리 해 보니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 좀 더 정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잘 정리 해 놓으면 각 문화원에서 변화 자체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할 부분들도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 사업의 방향자체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연합회와 국장님들의 의견 수렴이 먼저 필요한 것 같다.

대전대표이사

이런 부분들을 잘 메모해서 국장님들 불렀을 때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게 좋겠다. 그거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지 뭐.

문화원의 생활문화 가치 재확인

경기도 31개 시·군·지방문화원의 생활문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2016년 7월 18일에 평택, 의정부, 이천, 시흥, 남양주문화원 사무국장이 함께 논의했던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도연합회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2016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생활문화관련으로 한 꼭지를 우리가 도 예산으로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생활문화사업이 대대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여 졌기 때문에 문화원차원에서 생활문화사업이 전개되고 있다라는걸 경기도에 보여주자!라는 취지에서 책정하게 됐다.

기획 과정에서 작년에

경기도문화원총람을

만들어냈는데, 1페이지 도연합회 고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총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 경기도 지방문화원 소속 동아리가 99개로 집계되어 있다. 평균 한문화원당 3개씩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평택문화원

이거는 실제 있는 동아리만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수업도 다 동아리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도연합회

그리고 각 문화원의 동아리 운영방식과 분류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도연합회차원에서 일관된 흐름과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동아리가 가진 성격이 '지역성, 자발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문화원에서 활동의 장을 만들어 주고 지역 내 문화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실제적으로 문화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연합회 차원에서 조사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 사업들이 전개 되면서 문화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도문화원연합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 되는지 어떤 식으로 활동 되는지 구획 정리를 하는 것이 연합회의 역할이라 생각했다.

문화원은 지역 내 동아리를 중심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자료를 들여다봤다.

기존 방식은 이렇다.

문화원이 <문화학교>라는 구조를 통해 강좌를 운영, 지역 주민의 기초적인 문화예술 욕구를 수용하는 차원으로 시작한다.

개설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좀 더 심화할 필요와 욕구가 생긴다. 그래서 '동아리'라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문화원 차원의 후속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고민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강사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거다. 문화원에서 필요에 의해 강사를 섭외하고 시민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기존의 문화원 방식이다. 마지막 단계는 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까지인 것 같다.

여기까지는 주민센터나 다른 문화센터의 방식과 같다.

문화원 동아리 전수조사를 다시 해 보면 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 이유이다.

경기도문화원에 있는 생활문화사업의 전형, 무기, 근거, 지원 방안 등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연합회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욕심일 수도 있다. 연구보고서로 만들면 지방문화원의 실질적 활동에 도움이 될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국장님들을 모아보자.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생활문화사업을 만들어 갈지를 논의해 보자! 라고 생각해서 오늘 모이게 된 것이다.

평택문화원 지난 번 총람을 위한 설문조사는 소극적 내용의 조사였다.

생활문화동아리들이 문화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독립적으로 하는 곳들도 많이 있다. 그런 부분까지 조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조사가 돼야 한다. 생활문화동아리들은 각 시에서 더 잘 알 것이다. 보조금 심의 같은 거 해보면 평택의 경우에도 80~120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이 다 조사가 안 된 거이지 않나? 배우고 있는 단계의 동아리까지 하면 그 수가 지역마다 200~300개 정도 나올텐데, 어느 정도 역량 있는 단체들만 문화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100개 이상은 나온다.

도연합회 각 지방문화원에서 관할하고 싶은 부분까지 다 한다 면 더 확장시키자는 말씀이시다.

평택문화원

지역의 동아리들이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문화원으로 온다. 그런 곳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닌가? 직접 교육하고 있는 곳, 양성시켜서 나간 곳, 지역의 역량이 있는 곳을 모두 조사해서 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도연합회

평택의 이야기를 정리 하자면 도연합회에서 경기도 문화원 각 지역의 동아리 현황,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의 부분, 운영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내보자이다. 이것은 1차적 사업추진방향이니까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 평택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역 내 수용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켜줄 것인가? 각 기관과 어떻게 연결을 시켜줄 것인가? 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

평택문화원

명분으로 보면

지방문화원들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기관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문화원 소속 동아리로 만들어 달라는 말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받음으로 해서 예총과 갈등이 생긴다. 사실 예총은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없다. 지방문화원 차원에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간접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도연합회

생활문화센터를 통해서 지역 내 동아리를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시흥문화원

시흥은 평생학습 도시이다 보니까 규모가 엄청 크고,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를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랬을 경우 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과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과연 분리나
연결이 가능할 지가 가장 큰
의문이다.

도연합회

도연합회입장에서 <경기도
지방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지원 사업>으로
지방문화원 내 생활문화
우수동아리를 발굴해서
지원해주자. 그리고

확장해주자.
애초에 그런
의도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총람을 발간해
보니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동아리
전체 수가
99개로 나왔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동아리 수는 99개지만,
봉사단체, 어르신 동아리,
산하단체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다 합쳐 보면 179개가
나온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약 200개의

이천문화원

그것도 말하자면 동아리인데,
모래알갱이다. 지방문화원도
그 수준에서 크게 다르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



동아리들 안에 회원을 10명으로 따지면 활동인원이 2,000명이 움직이고 있는 셈인데,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지방문화원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 지점에서 이 사업, 즉 <경기도 지방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육성지원 사업>이 연구사업이 맞느냐 직접지원사업이 맞느냐를 고민하게 된 것이다.

평택문화원 이 예산을 생활문화센터를 구성하는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31개 문화원에 생활문화센터를 다 만들어서 데이터를 만들고 취합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쪽으로 연구사업은 가고, 잘 되고 있는 우수 동아리를 선정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

시흥문화원 생활문화센터는 동두천문화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

동두천문화원 동두천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2014년도에 만들어 졌는데, 그 장소에 약 70평을 '생활문화센터'공간으로 할애해 줬다. 시비와 국비를 지원 받아 지역문화여건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생활문화센터를 만들었고 그것을 문화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사업 및 운영에 대한 동두천 시에서 받는 예산은 없고 시설만 받았다.

인력은 공공근로 배치와 문화원 회원과 임원들의 거의 무료 봉사로 그동안 운영하고 있다.

센터 관리비가 연 50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원 기존의 프로그램을 그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도이다.

남양주문화원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저는 문화원에 들어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이 낯설지 않았다. 쉽게 접근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문화원 업무에 깊숙이 들어가면서, 왜 문화의집이나 외부 단체들은 흔히 말하는 접촉터닝이 빠를까. 즉 진입이 빠를까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더라. 그들은 가장 먼저 시민들이 좋아하느냐, 동아리가 활성화 될 수 있느냐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문화원의 경우 국장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흔들린다.

문화원 내부에 변화가 있어도 접근과 접목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일률적으로 맞출 필요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원에서 만들어져 쏟아져 나오는 동아리 활동이 그게 정말 재밌고, 신선하고, 의미있다고 부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정부문화원 먼저 사업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얘기가 좁혀질 것 같다. 즉 문화원 동아리를 육성하는 거냐? 문화원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동아리를 찾아서 육성하는 것이냐? 유독 이 동아리만큼은 문화원다운 동아리더라. 저는 지방문화원이 그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원다운 동아리 하나를 만들어 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지역 내에 파급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아직 문화원에만 있는 생활문화동아리라는 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의하고, 문화원다운 생활문화동아리를 만들어 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도연합회

두 가지가 상충 되는데 평택은 지역 내 문화원이 2-300개가 된다. 자발적 동아리가 필요한 것들을 문화원에서 지원구조를 갖자니 지역 내 예총 등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가 됐건 다른 형태이건 문화원 내에서 지역 내 동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필요한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동두천문화원

본의 아니게 우리 문화원에서는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문화동아리는 문화원 성격의 동아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아리도 있다. 어차피 생활문화동아리라고 한다면 포괄적으로 그 지역 내 동아리는 문화원에서 안고 가면 어떨까? 문화원 성격보다도 여러 가지 동아리를 흡수하는 게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이천문화원 '전수조사'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기존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조사한 것은, 생활문화 동아리의 갯수를 조사한 것이고, 한국문화원연합회차원에서 이미 디테일하게 생활문화동아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조금만 활용하면, 경기도지방문화원 생활문화 동아리가 강좌 중심인지 지역사회 봉사나 활동을 하는 것인지, 지역을 기반으로 움직이는지 등에 대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무엇인가 나오지 않을까?

올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내용들이 좋은 게 많다. 이걸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경기도권역 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더 진도가 나간 조사를 하면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이제는 문화원이 문화원만 보면 안 된다는 지점이다.

'문화원이 지역 사회 내에서 허브 역할을 한다.'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활 문화 부분에서도 선도적인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역 사회 구도 내에서 문화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를 알아야 한다.

보다 긴 안목으로 지역의 청사진을 문화원이 그리고 있어야 한다.

문화원은 문화의집이나 기타 생활 문화를 빠른 감각으로 해 나가고

있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생활문화에 대한 감이 떨어진다.

문화원은 그들과 비교해 보면 지역 기반을 못 가지고 있다. 어디에서나 하고 있을 법한 것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커뮤니티를 발전시키고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담보하는 지역학습까지 못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는 어때야 하는지의 이런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것이 문화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연합회 그렇다면 문화원이 추진해야 할 생활문화사업의 형태와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의견을 모으는 '합의의 과정'을 도연합회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까?

의정부문화원 2015년도에 의정부 생활문화 동아리 전수조사를 했다. 우리가 혼자 한 것은 아니고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와 같이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들여다보니 이천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알 수 있겠더라 하는 부분은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기에는 너무 멀더라. 토론하고 의논하기에는 또 그만큼 시간이 가버리더라. 문화원 스타일의 동아리는 돌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화원마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걸 어떻게 다듬을 것이냐, 어떻게 다시 접근할 건지에 대한 것을, 사업을 통해서 숙제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본다.

일단 해 보고나서 어떤 지에 대해 그 이후에 고민을 다시 한다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하면 그냥 시간이 또 넘어간다.

처음부터 잘 세팅하고 다듬어서 가면 물론 좋은데 현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움직여지지 않더라.

우리의(지역의) 생활문화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지금은 액션(action)을 해야 할 때인데 고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따라가기에도 바쁘다.

‘지역에 있는 모든 생활문화 동아리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저는 좀 부정적이다.

문화원에서는 문화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빨리 찾아야 하고 문화원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에너지를 어디에 더 많이 줘야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 지금은 더 낫다고 생각한다.

시흥문화원 이천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성, 의정부 국장님이 말씀하신 문화원다운 동아리. 그게 핵심일 거 같은데, 그래도 전체 문화원의 어젠다(Agenda)도 될 수 있겠지만 평택과 같이 전체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시범사업 비슷하게 케이스대로 해 보는 건 어떤가? 그걸 토대로 경기도문화원의 생활문화 정책을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결론 도출하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든다.

동두천은 공식적인 생활문화센터의 활용과 현재의 한계 그리고 극복 방안.

평택은 지역 전체 생활문화동아리를 아우르는 방법론.

이전의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 케이스 등을 각각 해보고 나서 또 이야기 해 보는 것이 어떨까?

대전대표이사 생활문화의 범위는 지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거면 다 가능해서, 문화원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전통강좌 프로그램, 자기가 예술가는 아닌 사람들, 프로는 아닌 사람들, 아마추어 안에서도 범위가 나눠지겠지만, 그래도 아마추어들로만 해서 폭을 넓게 하면 될 것 같다. 프로가 아니고 협회 이런데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면 될 것 같고.

저도 만 4년을 문화원에 있었다. 지금은 감이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문화원 연합회에서 전국단위사업을 추진할 때 항상 어려워하는 부분은, 전국지방문화원이 질적, 양적으로 균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 경기도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전수조사 자체는 자료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 한정된 예산에서 전수조사가 우리에게 크게 도움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야말로 문화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동아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점이다. 04~08년도까지 제가 유성 문화원 국장시절에 보면 5-60개 강좌가 있었는데, 이걸 동아리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했는데 전환이 잘 안 되더라.

그것은 이미 문화학교로 고착되어 왔기 때문에, 그나마 전통쪽 하는 사람들은 오래 했기 때문에 봉사라도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그것마저도 안 되더라.

2008년 이후에 동아리 붐이 들어서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지원금을

투여하고, 문화자원봉사라는 의미로 해서 동아리 활성화가 조금은 됐다.

그러나 여전히 동아리의 질적인 문제는 차이가 난다.

어떤 문화원이든 기존 강좌는 강좌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중 강좌에서 생산적인 동아리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

예를 들어 제가 문화원에 있을 때 '책 보따리'라는 팀과 '우리고장 해설사'라는 두 개를 만들었다. 그야말로 문화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든 거였다. 문화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동아리가 사무국장이 일하기에 가장 좋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것이기도 했다. 지금 말로 하자면 문화 기획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

문화기획을 뭐라도 해 볼 수 있는 유형의 동아리와 이제까지 전통 강좌를 통해서 활동해 왔고 그나마 즐겁게 봉사도 할 수 있는 동아리로 분류해서 갈 필요가 있다.

또 경험으로 대관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문화원은 강좌를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관리라는 것이 지금 말하는 생활문화센터였던 것 같다.

지금의 생활문화센터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즐기게 하고, 동아리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동아리로 볼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문화 기획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라는 것이다.

자기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해서 문화원에서 직원이나 국장이

해보지 못하는 것들, 요소요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기획하는 걸 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조금만 훈련시켜서 문화원 권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원의 공간이 허락되는 한 일반적으로 동아리가 오면 그 공간을 열어주어야 한다.

지금 너무 많은 강좌 운영으로 동아리가 들어올 공간이 없다. 앞으로 그런 것은 줄어들어야 한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생산적인 동아리들, 자발적, 자율적 공간에 의지해서 하는 동아리를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단계별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지역민들의 수요를 파악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예전에 '책보따리' 활동을 할 때 길러졌던 인력들이 지금은 대전 지역에서 짱짱하게 잘 활동하고 있다.

도연합회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모신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전국의 생활문화사업현황이나 지역 문화현황들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순간순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어서다.

대전대표이사 작년에 생활문화센터로 전환한 곳 조사를 다녔는데 흐뭇했던 부분은, 전환하는 지점에서 생긴 변화였다. 그 전에는 문화원이건, 문화의집이건, 그냥 수강생, 이용자로 있었다면, 생활문화센터로 전환하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오픈했던 곳은 '이 공간이 우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 수준을 문화원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스스로 이름을 만들어 명패를 붙일 수 있는 자발성을 갖춘 지역커뮤니티 형성의 가능성이 어디까지일지.

시흥문화원

문화자원 봉사도 생활문화 센터랑 연계성이 있는 건가?

대전대표이사

즐겁게 여가차원에서 하다가 이분들이 뭔가를 해보고자할 때 봉사를 하게 되면 훨씬 강화가 되는 거다.

도연합회

문화원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강좌를 하고 싶다!'고 찾아오게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 숙제로 남는다.

남양주문화원

연구보고는 누군가에게 참고가 됐든, 어떤 하나의 역할로서는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실행하면서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활문화 쪽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다양한 경험이 더 필요하다.

대전대표이사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어떤가?

평택문화원

공간이 없는 곳에서도 충분히 시와 이야기해서 공간을 얻어낼 수

있다. 평택의 경우,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얻어낼 수 있는 명분만 있으면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도연합회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정리해서 다음 번에 오늘
했던 얘기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보겠다.



'4인 4색' 경기도 네 개 지역, 네 가지 이야기

경기도 31개 시·군·지방문화원의 생활문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문가, 실무자와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4개 문화원을 선정하였다. 4개 문화원 실무자와 동 사업 자문위원, 코디네이터가 생활문화심포지엄 개최를 위하여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경기도지방문화원의 생활문화사업의 원칙과 방향을 세우고자...

도연합회 경기도지방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3차 간담회를 시작하겠다. 생활문화사업이 화두이다. 본 사업은 생활문화사업을 문화원 차원에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오늘 모이신 4개 문화원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에 결합되어 있는 5개 문화원과 별도로, 다른 사례를 가지고 연구,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포지엄을 하게 된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 및 아이টে임을 선정해 주시고, 심포지엄을 통해 향후 경기도지방문화원의 생활문화사업의 원칙과 방향을 세우고자 한다.

평택문화원

동아리 조사는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연습 및 사무 공간, 재정 지원 3가지가 가장 필요하다. 문화기반시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더니, 사람들에게 책상만 내어주면 되더라. 지원 받고 싶어 하는 단체들을 모아보자 해서 공고를 내고, 선별해서 문화원과 함께 사무실을 쓰고, 가까이 있으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9월내에 선별하여 사용하도록 하려한다. 사무기기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시간을 잘 분배한다면 많은 동아리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듯하다.

시에서는 단체에 지원해주는 경우 효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결과만 중요하지, 과정에 대한 관심은 없다. 그 부분을 평택문화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도와주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 사무실을 공유한다면 그들에게 부족한 행정력을 문화원에서 도와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자문위원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것이 기타를 가지고 공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나누는 형태로 읽혀지는 부분이 있다.

동두천은 생활문화센터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공간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 사업은 함께 연결해서 공연하고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형태로 읽혀져야 한다.

화성문화원

작년부터 한 마을에서 요구가 있었다. 그 동네에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분이 돌아가시면서 맥이 끊어졌는데, 그것을 그 마을에서 다시 복원시키고 싶어 하고 있었다. 주민들끼리 모여서 하고 싶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문화원에 도움을 받고 싶다고 요구를 해 왔다. 주민 동아리로 만들어서 향후 보존회로 만들어 '소리'를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는 요구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얘기해 보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 사업이 기존에 있는 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동아리의 처음 생성부터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담아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왔다.

평택문화원

지금 문화원 동아리의 특징이, (강사에 의해) 사유화 되어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동아리 형성에는 반드시 한계를 두어야 된다. 일정 역량이 되기까지(약 2-3년) 과정만 지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원을 시작할 시점부터 미리 선별해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그 범위를 성인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등 포괄적으로 열어야 한다.

용인문화원

용인 통기타 네트워크는 생활문화사업으로 2차년도 지원 받고 있다. 사업은 6월에 끝났는데, 권역별로 성남, 군포와 같이 7월에 공연을 또 했다. 전국생활문화제 참가까지 하고 이후 통기타합창단 구성을 해서 10월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화성문화원

저희 동네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건 ‘상여회다지소리’와 ‘농요’이다. 돌아가시면서 무형문화 지정자와 후계자, 그리고 제자도 없는 상황인데, 마침 마을에서 의지를 가지고 연결하고 싶다고 하고 있었다. 앞선 세 군데 문화원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데 우리는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라서 가능할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용인문화원

작년까지 용인문화원은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 문화원 강좌는 문화학교 중심이었고 원장님이 바뀌면서 다양하게 시도해보자라고 해서, 예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원 공간을 빌려서(문화원 소속은 아니다), 그 분들 중에 용인에서 10년간 통기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팀을 중심으로 시작 했는데, 작년(2015년도)에는 주로 인원을 모으고 네트워크를 파악하는데 시간을 가졌고, 용인 수지, 기흥, 처인구를 순회하면서 진행했다.

단순히 행사 중심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1차년도에는 장르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용인 생활예술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24개 동아리가 모집했고, 작년에는 네트워크 출범이 목적이었다. 이후 사업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체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했다.

자체네트워크출범을 목적으로 지인들과 관계망을 통해서 겨울에 무료 공연을 했고, 올해(2016년)의 목표는 작년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지만

공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모임을 목표로 잡았다.
일상적 대표자 모임의
정례화이다.

통기타라는 것이 연주와
노래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통기타 연주로 하는
4부 합창으로 진행하면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모임을
가지는 형식으로 했다. 그러다
보니까 구(행정단위)와
상관없이 20명이 조직됐고,
성남, 군포, 용인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성남밴드, 군포
풍물, 용인통기타로 이루어진
팀이 만들어지고 각 지역을
돌아가면서 공연을 했었다.
이번에는 50명 합창을
했는데, 새롭게 음악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년이 좀 고민이 된다.
문화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사업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도 있고,
또 용인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권역도 있고,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생활문화사업에 여기저기
기관에서 뛰어들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문화재단과
예총도 함께 모여서 워크숍을
해보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다.

도연합회

문화원에서 근무하면서
생활문화사업을 하는데
문화원과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화성문화원

우리 화성의 경우에도 문화원
소속이 아니라 자율적
모임인데, 재원과 행정 등의
관계가 있으니까 문화원에
도움을 요청한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화원이 동아리

운영에 있어서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는가가 고민이다.
관내 동아리 몇 팀을 보면
순수 동아리였다가 기반이
잡히면 그 중 몇 명이
나가면서 독립하기도 하고,
내부에서는 삐걱거리기도
하고... 문화원에서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끌어가야
하는가가 정말 고민이다.

도연합회

그러니까 만들어진 동아리를
문화원이 다 끌어안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원에는 연결고리만
가지고 있고, 연결고리 내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용인문화원

용인의 경우에도 3년
정도 후에는 자생적으로
가야한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지원 방법은 마련해

줘야 한다. 성남문화재단
'사랑방클럽'처럼 자생적
모임을 가지게 하면서
독립시키는 경우도 있고,
부천같이 시(市)에서
'생활문화진흥조례'를 만들고
생활문화센터를 만들어서
모든 조직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성남문화재단에서도
자생성만 두면 지속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와 같이 있기는 하지만
움직임 자체는 자생적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도연합회 지원 사항에
워크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 예총과 같이 용인
지역의 방향을 잡는 간담회
등을 해도 되는 건가?

자문위원

어떻게 보면 동아리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장르예술분야는 문화원이 독보적이다. 그런데 문화원의 인식을 보면, 우리가 원조니까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바뀌었다. '자생성'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권력'으로 바뀌거나 하고 있다. 그 사이 놓쳤던 것은 생활기술과 인문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가장 잘 한다고 자부했던 전승과 관련된 부분. 회다지 같은 경우가 그렇다.

문화원이 생활 문화 차원으로
적편을 멀어놓기 위해서는 특정
동아리에 뒀주 볼 두는 것이 아니라
'세어 오빠스 형태로와 전화이
권유해나

결국 성남문화재단
혹은 용인에서 경험하
는 것처럼 네트워크의
개방성을 갖는 것들은
중요한 부분이고 열어
놓고 가야한다. 생활문
화에서는 대장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재단은
재원을 가지고 있다.
사실 문화원은 오래되
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
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

장만 하고 있고, 다른 모색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재원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편입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청년 세대들은 주거 단위도 세어(공동나눔)로 가고 있는데 문화시설, 거점공간은 세어하지 못하고, 동아리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 안에서 또 기득권 세력이 생겨난다.

'이런 부분(공간을 세어 한다는 개념)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도 방향 설정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같다.

생활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원은 경량화 되어야 한다. 경량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들고 나감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담론으로 가지고 앉으면 소위 끈대 같은 세력들을 이겨낼 수 없다. 문화원이 생활 문화 차원으로 저변을 열어놓기 위해서는 특정 동아리에 위주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세어 오피스’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원이 생활 문화 차원으로 저변을 열어놓기 위해서는 특정 동아리에 위주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세어 오피스’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화성의 경우는 전승 문화 계승에 대한 문화원의 현주소를 어떻게 보고 그것의 향후 방향 설정에 관한 주제로 보여진다.

어느 날 향촌 기반의 공동체 사회가 도시화로 무너지고 나면서 사라져 버리게 된 것들이 많은데, 아직도 문화원은 문화원에서 이만큼 해 놓았지 않았는가(민속경연대회 등)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모로 심는 벼와 기계 벼의 사이즈가 다른데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을 하나의 사례로 만들면 되는 건데...

‘회다지’는 화성에만 있지 않다. 이북 쪽의 ‘회다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향촌 기반의 사회에는 아직 남아 있는 것이 화성의 경우에는 왜 사라지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 하다 보면 전승 문화의 네트워크로서의 문화원의 역할이 나올 것이다.

안된다면 지역의 군인이라도 협력해서 만들어야 되고, 학생을 동원하는 방법도 있다.

현 시점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화성의 경우 예전에 당연한 것들인데 지금 와서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을 내놓고 자랑해 본 적이 없지 않나. 없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당연하게 생각되어졌던 일상을 재발견하고, 계승방법을 찾아내고, 확장을 시켜야 하는 거다.

용인은 장르예술이지만 장르예술을 넘어선 차원에서 생활문화 네트워크, 자생성, 지속성이라는 측면의 사례가 나올 것 같다.

하나 아쉬운 것은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철학이 없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있는 것만 믿고, 고민해야 할 것들은 다 잊어 버리고 머물러 있다 보니 시대의 흐름에 대한 감각은 무뎌지고 인문학적 비판의식은 사라졌다. 이 부분을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있는 것만 믿고, 고민해야 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머물러 있다 보니 시대의 흐름에 대한 감각은 무뎌지고 인문학적 비판의식은 사라졌다.

화성문화원 그동안 화성문화원의 경우 동아리 구성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끼리의 학습이라는 형태로 강좌 운영을 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밖으로 나가버리고 다른 곳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화성문화재단에 동아리 등록을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한다. 문화재단에 빼앗긴 기분이 든다.

자문위원

지역문화진흥법이 발효되면서 지방문화원 측에서 보면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애써서 오랜 시간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는 것 같은 모양이 되고 있으니까.

평택문화원

원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원사가 있으면 권력화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문화원사를 지으면 지역의 문화를 아우르는, 즉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의 형태가 되도록 만들겠다. 의견들을 달라.'라고 하니 그동안 반대했던 사람들이 좋아한다. 문화원이 지향해야 할 바가 지역문화를 아우르는 커뮤니티센터 형태로 만들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

도연합회

공유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자문위원

공공성 확보. 공유공간의 세어가 중요하다. 성남 '사랑방클럽'의 경우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나 사업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사업이 없어지면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이 부분을 문화원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이야기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건 다 도시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것 같다.

도연합회

문화원 차원의 전승 문화 육성, 발전이라는 원래의 목적에 대해 다시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될 것 같다.

화성문화원 그렇지 않아도 '지속성'에 대해 마을에 물어봤다. 어느 순간 권력화가 되고 기득권 세력이 장악하는 구조가 되는데, 특히 전승과 관련된 부분은 세월이 가면서 열의가 있었던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또 다시 사라지는 모양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장기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다. 문화원에서 주도적으로 가기 보다는 마을이 주도가 되어야 하는데 마을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나태해 지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 미리 짚어 봤는데, 그들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더라. 지금은 어르신들이 하지만 놀이 문화로 또는 맥을 이어가는 마을로 지정되도록 노력해보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문위원 지금이 땅따먹기 하는 순간인 것 같다. 그동안 생활 문화에는 아무 관심 없다가 갑자기 생활문화센터를 만든다는 것도 말이다. 어떻게 보면 이미 문화원에서 만들었던 것들이고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인데 말이죠. 소위 '강준혁 모델'이 아직 20년 넘게 유효하고 있는 셈이다.

평택문화원 문화원이 앞서가면 센터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화원 내에서 만들거나 문화원이 끌고 갈 수 있다고 보는 거다. 문화원은 강사와의 관계도 중립적이다. 예총은 그렇지 않다. 세력화 조직화 되어 있는데, 문화원은 아직 그렇지 않는다고 본다.

독립원사가 있는 곳들도 많고, 기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만 있어도 단체를 키워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화성문화원

맞아요. 작은 지원이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도연합회

용인의 통기타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이 문화원에서 흡수하려는 모양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자문위원

문화재단의 역할 규정의 문제다. 여전히 지원 사업의 전달체계 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해 왔던 일의 가치를 재확인 하는 것.

이전 60여 년 동안 해 왔던 문화 향달 등 고루하지만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이, 중요하지만 소소하게 여겨 왔던 것들의 복기라고 생각한다.

그것들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복기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변화들에 의해 복기 되어지는 것이 안타깝다. 지역의 문화재단, 문화원, 문예회관, 예총, 민예총 가운데서 지방 분권이나 문화 단체의 전문화, 생활문화의 다양화 등의 흐름 안에서 문화원 차원의 재 세팅을 위한 자기 진단과 제안들이 이번 <생활문화 심포지엄>을 통해 나타나면 될 것 같다.

경기도 생활문화 다시보기

경기도 5개 지방문화원이 추진하고 있는 생활문화동아리사업의 사례와 고민을 나누는 '경기도 지방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 현황분석 및 담론 형성을 위한 심포지엄'이 2016년 11월 21일에 진행되었다.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좌장 경기도 5개 문화원에서 진행된 생활문화동아리 사업에 대해서 토론자의 의견으로 시작하겠다.

토론자1 발표를 들으면서 '문화원 국장님들과 직원들이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문화원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 하는구나!'를 느꼈다. 생활문화동아리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생활 문화의 의미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합창단 동아리 네트워크를 추진하려는 중인데 많은 참고가 된 것 같다.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을 이야기했는데 아마도 정보화시대를 이야기 하는 듯하다. 제1의 물결이 농업화, 제2의 물결은 산업화, 제3의 물결은 정보화이다. 그렇다면 제4의 물결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다.

개인적으로 그것은 감성의 시대, 소통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감성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우뇌의 작용이다. 서로 감성적으로 인간관계의 회복,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형성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라 본다.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인문학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문화 예술인데, 앞으로 문화원이 문화 예술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서로 공유하는 사업으로 보다 더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다섯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문화원에서 실질적으로 생활문화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 에 대해 고민을 해봤다. 오랫동안 운영된 지방문화원의 이른바 <문화학교>는 이젠 자리를 잡았고, 다양한 각도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답이다! 라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최근 정부에서도 생활문화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생활문화'라는 표현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문화원에서 해온 프로그램들이 사실 모두 생활문화인데 이것을 또 어떻게 하란 말인가?' 고민하게 된다.

박정근 의정부 사무국장님이 "문화에 예술의 옷을 입힌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우선 문화예술교육에서 네트워킹이 중요한 점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인 다양한 예술문화단체, 동아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정보의 교환은 되겠지만, 단순히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만으로는 기존에 있는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생활문화 동아리들을
문화원 지원에서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라고 했을 때
문화원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하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현재 지역 내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
프로그램들은 기존 방식으로
운영되어도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네트워킹은 문화원이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원은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원의 역할 중에는
'봉사'에도 있는 만큼 문화원이
네트워킹의 허브역할을
한다면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유휴 공간을 활용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전시, 공연 프로그램을 하고,
예술가, 아마추어 예술가
동아리들의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생활문화 활성화와 연결할 수 있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과의 연관성이구요. 창작센터, 아트 팩토리 등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예술가와 지역민들의 밀착 연계해서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하면 좋을 듯 하다.

동두천 국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단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계신지. 하고 있다면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용인문화원 나명철 과장님께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동아리들이 네트워크가 생겼을 때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화성문화원 김명수 연구원께서는 전통 음악이 지역에서 뿌리내리려면 지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화성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동아리 형태로 묶어서 활동 한다고 한다면 지역민들의 생각과 의식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좌장 세 가지 질문 중 생활문화센터의 동두천 국장님께서 함께하는 네트워크 운영 사례에 대해서 먼저 듣겠다.

동두천문화원 생활 문화 동호회가 구성되고 현재 2년 차 운영되고 있는데, 매월 월례회의 방침은 세웠으나 2-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다. 아직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지는 못하고, <매마수>에 참여하고, 문화 주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태이다. 예산 측면 등 문제 때문에 자체적 프로젝트를 추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

좌장 예산과 기량의 측면, 지역의 인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다.

용인문화원 용인 통기타 네트워크는 내년이 3년 차이다. 사회 통념상으로도 3년을 버티면 성공한다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2년 차까지는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 보는 형식이 더 크다.

3년 차에는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양의 한계와 목표를 가지고, 왜 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해로 잡았다.

각 구별로 6-7개의 동아리가 만들어졌고 용인이 3개 지역구로 나누어져 있으니 약 20여개 동아리가 있다. 처음에는 문화원이 만들어 줬지만 내년(2017년)에는 3개 지역별 축제에서는 참여하고 있지 않는 주민자치센터를 끌어 들이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명분을 찾게 하려고 한다.

설령 공연 수준이 좀 낮다 하더라도 1년 사업 과정의 결과가 600명 합창이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다른 느낌이 있을 것이라 보는 거다. 지금으로서 제도적인 기대는 없고, 3년을 거치면서 겪어봐야 할 것 같다.

화성문화원 지역민들의 공감대 부분은 중요하다. 지역축제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이 문화제가 왜 소중하고 왜 없어졌는가? 축제화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보여줄 것이냐에 따른 고민이 필요하다.

‘논 메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편의에 따라 모 형태를 깔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1년 단위의 예산과 계획이 있다면 실제 논을 1시간 정도 메거나, 마을 공동으로 경작하는 선모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나 해서, 실제로 재연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형태만 구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술 한 잔 하면서 하는 노래는 굉장히 단조로운 노래로 들리지만 공연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생동감 있게 들렸던 경험이 있다. 실제를 살려서 공연으로 할 때에는 이 단조로움이 공연의 형태로 보여 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공감을 얻기 힘든 거다. 아직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던 실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형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좌장 전체적으로 다섯 꼭지가 각각의 의미를 갖는 것 같다. 동두천문화원이 생활문화센터로서의 출발 지점에서 어떤 시설과 내용을 가지고 지역 안에서 역할을 해야 할지. 이것이 다른 문화원에 어떤 사례가 되고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화성의 경우 문화원의 가장 본질적인 전승 문화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지금은 전승 문화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 구성체의 변동이나 생산 양식들의 변화가 너무 크다 보니 원형들을 이미 잃어버린 상황이고, 그사이 농업 생산 사회에 계시던 분이 돌아가시고, 종교들의 이입으로 인해 전래해 왔던 전승 문화의 이질감들은 예전에는 당연하게 추구했던 전승 문화 자체를 놓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 할 것인지에 문화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오히려 특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 진다.

그러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논부터 사야하고, 장례식도 그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대화된 고유성, 전승 문화 자체가 세트화 되어버리고, 박제화 된 모습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회다지 소리가 북부, 남부, 경상도 양식이 다 다른데 통일화 되어 버린다는 뜻이다.

토론자2 많은 시간을 갖고 닦아서 발제를 해 주신 것에 대해 놀랍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지역문화진흥법에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 생활문화와 지역문화의 두 구도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지방문화원이 지역 사회에서 본질적인 미션으로 주어져 있는 지역 문화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방문화원의 미션이지 않나?

진흥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최근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중심으로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고유문화, 그동안 지역문화.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위해 애쓴 노력을 인정하고...’ 등의 문구들을 들이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원이 그동안 해왔던 소위 <문화학교>라는 틀을 정말 벗어나지 않으면, 생활문화의 리드를 해나갈 수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생활문화를 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아쉽게도 지역성의 고민이 좀 약하거나 빠져 있다. 지역 기반이 아니라면, 우리 지역의 과거의 전승되어 온 연원에 대한 연결이 없다면, 그냥 ‘생활문화’일 따름이지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는 아니라는 생각이고, 전통문화도 마찬가지로 ‘무대화 된 고유성’, ‘화석화 된 전통문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이 주민 관점이 아니라면,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재해석 해 내지 않는다면 ‘화석화된 전통문화’일 따름이지 ‘이어지는 전통 문화’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문화원이 열심히 해왔고, 생활문화사업들을 문화원이 주도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지금의 생활문화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맥락에 닿아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한다. 화성이 발표했듯이 우리는 과연 전통이라는 것. 옛 것이라는 것들을 문화재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형보존’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

‘지역성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은 생활문화의 소재를 지역에서 찾는다는 것이고 생활문화의 대상과 근거가 지역이라는 것이다. 그런 고민들이 없다면 어느 지역에서도 행해질 수 있는 생활문화인

것이지 '우리 지역의 생활문화'는 아니다.

평생학습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한 평생학습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동두천은 동두천의 학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부분은 지역에 대한 현실,

정체성,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녹여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센터식의
강좌를 벗어나야
하는데 아직 까
지 그것을 생활
문화라고 혼동
하고 있다는 것

은 우려될 만 한 지점이다. 고향의 고는 옛 고(古)아니라 연고 고(故)
입니다. 옛것을 파보면 우리의 지금 정체성을 추구할 수 있고, 옛것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더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다.

오래된 것을 올드(old)한 것 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재해석 능력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생활문화를 우리는

얼마만큼 변형시키고 활용하고 이용하게 할 수 있는가, 즐길 수 있게 만들 것인가 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관심공동체'라는 개념을, 저는 '지역에 대한 관심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취향공동체'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지역에 대한 논의와 고민들,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의 생활양식을 어떻게 바꾸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로 이어질 수 있다면 진정으로 지방문화원이 지역 문화를 견인해 나갈 만한 소명감을 깨닫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먼 길이지만 분명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찾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좌장 토론자2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화두를 던진 것인데, 한 시간 남짓의 정해진 시간 이긴 합시다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지방문화원과 함께 향후 문화원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확립하고 새로운 미션을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이 대단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것이 오늘 저를 광주에서 올라오게 한 힘이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간 지방문화원이 지역 내에서의 선발주자로서, 맏형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로서의 위상이 너무 많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무너졌던 것에 대해서 연합회 차원에서 별다른 담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문화단체나 기관에서 문화원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그다지 염려하지도 않는 상황이다. 그냥 시장의 선순환적 구조에 의해서 어떻게든 흘러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한국문화원연합회 및 지방문화원의 <문화학교>가 곧 어르신사업으로서 치환되고 있다고 보고 문화원 하면 <어르신 문화사업>으로 대표된다고 생각하고만 있다.

지방문화원을 그들만의 집단으로 간주해 버리고, 지역에 있는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은 문화원을 그냥 그렇게 가는 곳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예회관의 경우는 같은 문예회관연합회라는 구조를 통해 훨씬 더 많은 규모와 많은 지원과 많은 정책적 배려를 통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기초문화재단

등이 지역마다 설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문화원이 최근의 어젠다(Agenda)인 '생활문화'라는 이슈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일들의 본질적인 자기 규명과 반성을 오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마련했다는 일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토론자2의 말씀처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취향의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나누었으면 좋겠다.

평택문화원 20명의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들이다. 가장 큰 것은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외부의 사례를 보면 재정 지원보다는 공간이나 시스템 구축 위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재정 지원이 없다면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둔다.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다. 재정 지원을 받음으로서 오히려 자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강사나 회원 구성에 제약이 생기고, 지원을 받을 경우 공공성을 따지다보니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 훼손되는 부분이 크다. 지원 단체에서는 재정만 지원할 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는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런 점들로 인해 자율적 운영이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어떤 단체는 학습 동아리부터 시작이 되고, 발전을 하면 사회 활동을 하려고 하면서, 참여형 동아리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어려운 부분은 공연 장소, 필요 시스템 등의 구축을 공적 기관에서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 부분만 지원해주는 기관이 별도로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단체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강사나 회원들이 어떤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문제이다. 시작할 때는 순수한 마음이지만 규모가 커지게 되면 식사나 교통비 등을 요구하고 직접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실력 향상이 되면서 또 다른 지원 등을 바라게 된다. 그런 점에서 목적이 순수해지지 않게 되는 것들을 느끼면서 마음이 아팠다.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연형 동아리들에 지원 되고, 학습 동아리나 탐구 동아리들에게는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여서 분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공연형’이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50~60%가 장비 등의 비용이 대부분이다.

문화원이나 예총 등에서 무료로 빌려줄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된다면 단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좌장 솔직한 이야기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역마다 편성이 되어있고, 생활문화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도 많지 않은 예산으로 이미 시에서 명단이 내려지고 그 안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 광역 단위에서도 그런 형식인데, 하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어떻겠나.

우리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평택 국장님의 발제 안에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의 개혁이 필요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손을 댄다던지 하는 방안이 필요할 듯 하다.

직접적으로 물어보겠다. 평택문화재단이 없는 상태에서 평택 지역에서의 문화원의 위상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평택문화원 평택의 경우에는 평택문화재단이 없다보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내용이 지정되어 내려오는 돈들이 있었다. 인쇄소마저 지정해주었다.

언론사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사회를 통해서 향후 그러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후 점점 줄었고, 올해(2016년)의 경우에는 그런 건이 하나도 없었다. 지역에서 문화원에 대한 신뢰가 조금 높아졌다고 본다.

평택시 예산이 1조8000억이다. 47만 인구에 비해 많은 예산인데, 사실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예산 중 문예관광과가 쓰는 예산은 극히 미미하다. 문화 예술 관련 예산이 굉장히 작은 형태라 지역 사회에서 문화재단을 만들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긴 하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다. 아직은 예총이나 문화원을 통해서 자산을 확보하자라는 의견들도 있다.

평택은 3개 권역(평택, 안중, 송탄)을 통합하다 보니, 문예회관도 3개가 있다. 그런데 문예회관 운영을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 도시와 가까운 곳은 활발히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중이나 송탄 쪽과 같이 도시에서 떨어진 곳은 1년의 대관이 10차례도 안 되는 곳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시에서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활성화 시키거나,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으나 아직은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이다.

좌장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문화원, 재단,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경험도 있었고, 지방문화원 컨설팅을 한지 10 여년 가까이 되다 보니 지방문화원에 대한 여러 상황을 알기 때문인 것 같다.

문제는 '지금 현재 문화원적 기반 자체가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는 점인데, 앞으로도 생활문화의 근간에 대한 혜계모니도 갖지 못할 것 같다. 이에 대해 문화 권력이 아름다운 권력일 수도 있고 정치적 권력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두천문화원 동두천의 경우에는 자연스레 생활문화센터가 2년 전에 생겼다. 시민들이나 문화원으로부터 생활문화센터가 뭐하는 곳인가? 라는 이야기들이 많다. 그렇게 생활문화라는 말이 많이 자연스레 오르내리고 '문화가 있는 날'이 생기고 현수막들이 내걸리면서 시민들에게 자연스러운 단어로 다가갔다. 사실상 프로그램 센터 운영과정에 어려움이 많다.

동두천시가 재정이 없다. 2015년 2월에 시작했는데 공간만 제공 되었을 뿐 프로그램이나 예산 지원은 전혀 없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비슷한 시기에 개소된 곳이 서산생활문화센터인데 저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하다. 그곳도 서산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내에 생활문화센터가 생겼다.

예산지원 때문에 그 곳과 통화를 하면서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지원이 1억 좀 넘고 지원 인건비도 지원이 되어, 2억 이상이 초기 투자되었다고 하더라. 동두천문화원의 경우 전혀 그런 지원이 없었다. 공공근로(일자리 차원)의 경우 행정사무 능력이 없고, 근무시간도 9-3시까지 근무한다.

어떤 경우는 운영이 저녁까지 지속 되는데 문화원 임원이나 이사님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해 왔고, 프로그램 운영 예산도 기존의 동두천문화원 내 '문화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이용해 왔다. 노인회 등 관계없는 단체도 홍보를 마련해서 장소를 빌려준다는 등, 프로그램 운영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 홍보를 하고 있다. 현재 생활문화센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예산지원이 전혀 없으니까 모든 것이 움직일 때마다 예산이라 아쉬움이 많다.

의정부문화원사무국장님의 발제에서 '한마음실버밴드'가 자발적으로 움직인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감명을 받았다. 어떻게 그분들이 예산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지가 궁금하다.

좌장 의정부 국장님과 용인문화원 과장님이 '자생성'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두 문화원의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디테일(detail)들이 나중에 생활문화 동아리

가 향후에 지역으로 나가게 되면 바로 만들어 저야 하는 부분이다.

아시다시피 문화원에 가면 원사가 있어도 서예원 등 계속 있는 것들만 있는데, 이렇게 가면 이 공간 자체의 효율이 떨어지고 나가게 되는 과정에서의 다름이 생기고 그렇다. 어느 정도 연한이 되면 성장해서 독립하는 모양이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의정부문화원 실버밴드는 처음 만들 때부터 5년이 목표였다. '5년 후에는 독립 한다'였다. 어르신들이 처음에 악기를 배우거나 할 때, 하고 싶은 동기와 사연을 받았다. 두 번째 방향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아야 한다!'였다. 하고 싶은 마음에 사연이 있어야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기준이었다.

1년을 그렇게 했는데 열정이 대단했다. 한 번 공연을 나가는데 열 분이 움직였다. 그런데 문제는 스텝이 10명은 움직여야 했다. 차량 운행, 음향장비 등의 스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년 차 부터는 스텝교육, 음향교육, 악기세팅 등의 교육을 따로 했는데, 시간이 무려 2년 걸렸다.

2년 후 그분들이 맨 처음 직접 설치를 하기 전에, 세팅 연습을 몇 번씩 반복해서 하였고, 이제는 공연을 갈 때 한 사람 정도만 따라 가면 될 수 있도록 되었다.

이제 4년차가 되었다. 이제는 직접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재능이 있는 어르신 대표 두 분을 선발해서 공모사업의 서류를 쓰는 법 등을 가르쳤다. 4년 차 부터는 공모사업, 시(市)에서 하는 사업들을 스스로 공모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게 한 것이 연 천 만 원 정도 된다.

많이 도와드리지 않고 조금만 도와 드려도 되는 기간이 무려 5년이 걸렸다. 이제는 자발적으로 홍보를 하러 다니기도 한다.

이 과정까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 사업과 병행을 했고 5년차가 끝난 후에 이제는 지원을 안 한다. 한 번에 준비해서 자생하는 것은 안 되더라. 과정이 없으면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

‘지역문화가 지역에 기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토론자2의 말씀에 공감한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문화원은

변화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과정이 필요한데 각각의 문화원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 제 딸이 5학년인데 수학을 너무 못한다. 이야기 도중 나와 다른 생각을 발견하게 됐다. 사칙연산을 배우는데 이 친구는 모든 수학의 영역을 다 다르게 생각하더라. 각각의 단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 마지막을 가기 위한 과정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화원이 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던 것 같다. 지금의 형태로 변해온 것도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다시 정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역순으로 찾아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시작에서부터 조금씩 변하는 과정에서 다음 단계를 설정해야 하는데 시작과

동시에 변해있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 일은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목표를 두고 있되 그곳을 도달하는 과정을 세분화해서 단계를 밟아야 한다.

목표를 향해 못 갔던 이유 첫 번째는, 인력의 지속성이 안 된다는 점이다. 국장이 목표를 설정해도 중간에 국장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직원도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지금은 많이 변하긴 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목표점까지 갈 수 있는 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

생활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려는 긴 목표가 필요하다.
문화원의 위상도 이것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문화원은 홍보에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일을 해도 다른 주위 시민들이나 정치인들에게 문화원은 동아리, 문화교육을 실행하는 많은 곳 중의 하나 일 뿐인 것이다.

2017년 예산에서 의정부문화원의 '문화학교' 예산이 없어진다는 통보를 받았다. 문화원의 문화학교 예산을 없앴다는 것 때문에 찾아갔는데 문화원의 강좌가 다른 단체들과 별 차이가 없으니 문화원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

'우리는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이야기해도 전달이 잘 안되더라.

그 시점에서 'SNS나 블로그 등으로 홍보를 안 해서 그렇다', '문화원의 존재를 몰라서 그렇다'라고 해서 집중 홍보를 했고, 문화원 여유 예산과 인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지 두 달 정도 지나고 나니, 직원들이 일하는 과정들을 시청에서 보고 있었더라.

문화원이 하는 사업들을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후 문화학교 예산이 없어진다는 말도 없어졌다. 문화원다운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이야기도 해준다. 문화원다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문화원도 이제 알려야 하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 변해야 한다. 하지만 목표는 정확하게 수립해야 한다.

조급해하면 30년-50년 된 문화원을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좌장 용인문화원 과장이 자생성에 관해서 이야기 해달라.

용인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를 빨리 자생시켜 지역으로 내 보내고, 새로운 동아리를 육성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동아리가 쉽게 지역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출구전략으로 생활문화진흥원을 내고 중간 단위로 생활문화지원센터를 내서 운영하고 있다.

용인의 경우도 생활문화사업을 몇 년 간 추진했고, 현재는 동아리 연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고 연합체로 활동했을 때 지원이 끊기면 바로 없어진다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일부러 장르를 한 장르로만 통일했다. 그 분들이 기타를 배울 때 생활도 하면서 악기를 알고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단체를 통해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듯이 용인통기타 네트워크는 3년 차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간 교류이든 동네를 가든 단체로 만났을 때 거기에 맞게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에 600명 통기타합창단을 모아보려는 것은 또 다른 예술적

경험이라고 생각해서이다.

예산과 관련 없이 한 장르로 지역적 모임을 만들고, 이주민과 원주민의 만남으로 교류의 장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장르네트워크의 핵심은 ‘만남 자체가 지역 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문화원을 기반으로 확장해 나가고, 그때마다의 예술적 경험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전북 완주군이 도농복합지역이다. 인구가 9만 5천 밖에 안 되는데 140개 동아리에 1,800명이 모인다고 하더라.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아는 문화예술은 여유가 있는 도시에서 이루어진다고들 생각하는데 이제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 욕구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문화원이 생각을 좀 해 봐야 하는 지점인 것 같다.

좌장

전라북도 완주의 경우는, 지역적 특성 자체가 도시 근교였다가 새로운 혁신사업들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대부분 구성하고 있는 집단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귀촌자들이 많다보니까, 이 둘을 결합시키기 위해 저녁 시간에 건강을 케어하고 새로운 식구들에게 영농 기법 등 적정기술 전수 등과 연관 지어서 많은 동아리들이 생기고 있다. 그것들을 지역 혁신의 동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의정부나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수장들이 문화 마인드를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평택도 마찬가지로 1조 8천억원을

가지고 수장이 100억만 사용하는 것처럼 광주도 마찬가지다. 수장들이 어느 정도의 문화 마인드를 가지느냐. 그리고 의원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동조를 해주느냐의 차이인거다. 문화원장과 이사들의 협조나 마인드 등 접점이 다르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가 힘들다.

결국은 다시 토론자2에게 질문을 하고 싶다. 과연 우리가 지역에 기반한 예술과, 현재 유행처럼 인식되어지고 있는 생활문화예술 가운데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들이 있는가? 가령 너무 동네 위주로 가면 문화원이 오히려 뒤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백화점 문화센터나 마트의 문화센터 등. 그리고 주민센터의 생기발랄한 춤 등이 인기가 많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안에서 문화원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

토론자2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발제하신 분들처럼 지역에서 진도를 밟아가고 있는데 함께 해나가다 보면 상당히 많은 걸림돌이 있지만 결국은 함께 나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중요하고요.

‘관심공동체’ 라고 한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적어도 그것을 묶어주는 기반은 지역이고 지역에 대한 관심이다. 이것이 정체성과도 관련된 것이다.

인간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고향에 머물고자하는 존재라고 하는데, 그 고향이라는 것은 자기의 연원에 대한 따스함 같은 부분들을 말한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진 지식들을 녹여 내고 다시 재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초가 되어야 '봉사'가 아니라 '활동'이 된다. 복지부분에서는 서비스가 좋다. 하지만 적어도 문화에서, 특히 생활문화에서는 '서비스'를 버리고 '활동'이 되어야만 한다.

우리 일이라는 자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계속 용돈을 주면 어느 날엔가는 용돈을 안주면 안 놀겠다고 하는 시점이 있게 된다.

그런 것처럼 예산과 인력이 중요한데 예산을 어디에 투입해야 할 것인가? 아이들에게 논다고 돈을 줘야 할 것인가?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시설이나 놀이를 보급한다던지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예산을 올바르게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력의 부분들도 마찬가지로이다. 자원봉사는 기본적으로 실적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공적관리 시스템을 버릴 필요가 있다. 문화에서 지향해야 될 자원, 자발적인 것을 담보하는 것은 실적관리 시스템은 아니다. 어떻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느냐. 생활문화는 무엇이다. 라는 부분을 이해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민들 스스로 하게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찾아줘야 하는 것이고, 볼을 지필 수 있다면 문화원 내의 동아리 육성이건 지역 사회에서 다함께 가는 방식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화원은 문화원에서 길러낸 동아리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 지역을 안고, 평생학습이나 예총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단순히 '취향동아리'가 아니라

관심분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좌장

그러면 토론자1의 노하우를 들어보자. 우리는 이런 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대중이 좋아하는 현대적인 문화프로그램과 지역에 기반 한 생활 속 삶의 기술로 영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사례에 대해서 듣고 싶다.

토론자1

제가 생활문화라는 표현이 쉽게 와 닿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갑자기 생활문화활성화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생활문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라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문화원의 위기를 말씀하셨는데, 맞다. 각계에서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포진하고 있다 보니 그쪽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문화원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에 기반 한 문화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문화원이 단순히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역사문화, 전승, 보전사업이 중요한 역할이고 기능이다.

그러다보니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사업 중 교육프로그램은 그중 일부분이다.

문화원마다 다르겠지만 교육프로그램에 얼마나 비중을 두느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런데 지역에 기반 한 문화교육의 경우에는 단순한 교육

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화학교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서양화 등의 프로그램들이 다른 사업과 연계를 가질 필요가 있더라.

우리의 경우는 '지역역사문화바로알기사업'을 1999년부터 지금까지 지역문화유적투어사업으로 하고 있다. 예산이 좀 줄어서 지금은 어려움을 겪지만 전에는 연간 참여인원이 만 오천 명까지 됐다. 아파트에서 모임이 있으면 신청하고, 코스 10개 중 선택하고, 해설사가 동승 설명하고 4시에 돌아오는 프로그램인데, 지금도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평소에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민이나, 외부에서 이주해온 주민의 경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인해 지역에 대한 의식이 달라지는 거다.

문화학교 사업은 다른 곳처럼 비중을 크게 두지 않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지역학이다.

2010년부터 지역학을 정착시키려고 하면서 관내 6개 대학에 지역학 강좌를 개설했다. 교양 수업으로 하고 있고, 관련해서 지역축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데, 지역학으로서의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이다. 요즘에는 시민, 공무원들에게 외지에서 들어온 기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역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좌장 네.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광주의 경우를 예로 들면 시티투어 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참가비가 2,000원이다. 회당 버스 탑승 인원이 4명, 8명이

평균이다. 별로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고 지역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문화원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고,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들었다.

특히 화성에서는 문화원의 현재 문제이자, 해결해야할 문제로 가지고 있다고 본다. 원형과 전형의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현전화'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시대에 맞게'라는 의미로...

광주의 어떤 탕화에 보면 보살이 핸드폰을 들고 있다. 그것을 본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것을 '파문'이라고 한다. 이 시대에 맞는 파문! 그것이 아닐까 싶다. 너무 뛰어넘지 않으면서도 말이다. 그러려면 그에 대한 기반들이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학이든 형태학이든 그 안에서 같이 나가야 한다. 그것도 세련되게 말이다. 즉 서울에서 소비되는 것이 금방 광주에서 대구에서 소비되더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소비되는 양식을 가지고 새롭게 창출하는 문화원이 되어야하고, 과거의 독립적인 존재로 있던 문화원이 현재의 다양한 문화 생태계에서 위치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었으면 한다.

도연합회

오늘 제목이 경기도지방문화원 생활문화 담론형성 심포지엄이다. 그것과 겹해서 '생활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가야될 것인가?', '지역문화, 전통 문화에 대해서 문화원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주셨으면 한다.

문화원은 그동안 방향을 설정하는 공식적인 담론형성 기구가 없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마련하고 싶었는데 늦었지만 올해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분히 경기도를 보여주는 의미도 있지만 '향후 우리가 문화원담론으로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있으면 곁에서 함께 이야기 해 주셨으면 한다.

좌장

생활문화를 이야기 하지만 모든 관계들이 다 얽혀 있는데 실제 무방비가 아니라 어찌 보면 다 포용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리들 스스로 끌고 가야 하는 이슈가 되는 것들, 하지 못했던 것들을 곁에서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토론자1

생활문화에 한정하지 말고 확장해서 문화원의 활성화 방안. 대안으로서의 문화원의 미래를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다. '창작클러스터'라는 것이 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공유하고 나누는 장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창작은 예술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문화 예술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창작이다. 감성시대, 소통시대의 기반은 창의적 발상. 즉 창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문화선진국의 예를 보면 공동화 현상과 같은 과정을 다 겪었다. 앞으로 우리도 필연적으로 공동화되는 도심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그들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가 문화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눈을 돌려서 시장, 농촌의 창고들, 빈집 등을 활용해서 마을 박물관, 지역민의 사랑방 등을 만들어 서로 소통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창작클러스터의 경우 전문성 있는 예술가를 끌어들이 레지던시를 운영, 지역민과 주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에게 문화적 소양을 일깨워주고 이해시켜주고 지역의 현안에 대한 공동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하는 것 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중요하다. 생활문화와 직접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앞으로 문화원의 방향이기도 하고, 나오시마, 교토 창작센터 훗카이도를 다니면서 보고 사례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좌장 이슈로 보자면 지속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만든다는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예술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들이 결합된 것이다'라고 이해된다.

동두천문화원 생활문화와 문화원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문화원 입장에서 생활문화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생활문화의 키워드는 두 가지이다. '일상과 자발성' 일상성은 잘 되어 가는데 자발성, 자생력은 의정부처럼 잘 움직이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는 부족하다. 그런 자발성, 자율성에 동기부여를 잘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용인문화원 문화원이 과거에서 현재를 연결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데 현재에서 미래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생활 문화 활성화라는 것은 배우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표와 만남, 그것을 통해 지역 사회가 발전하는 모양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이야기하고 싸우고 하지만 또 고민하는 지점들도 생기게 마련이다. 생활문화 활성화는 과거, 현재에서 미래까지 연결 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좌장 미래의 이슈를 무엇을 잡았으면 하는 건가? 확장성을 갖자?

용인문화원 문화원의 정체성, 존재의의를 보통 어르신, 역사 등으로 인식하는데, 회원들이 다양해져야 다양한 이슈가 생길 것이다.

의정부문화원 문화원이 변하고 문화원이 문화원다운 프로그램, 사업을 문화원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무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전쟁을 해야 하는데 내가 무장을 안 하고 전쟁터를 갈 수 없지 않나. 문화원 직원, 국장, 회원, 원장, 이사들이 무장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그런 교육이 안 되어 있고, 다르게 말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본다. 이제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무장을 해야 할 때이다.

생활문화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참여하는 사람들

보다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지역생활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저희 동아리가 하고 있는 것 중 펜화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배우기 전에 지역에 대한 공부를 먼저 시켰다. 의정부의 역사 부분들. 교실에 어느 펜화 작가가 여행을 하면서 그린 펜화 책이 있어서 비치해 두었다. 2년을 배운 분들이 지금 의정부를 소개하는 책을 직접 그려서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 역사와 그림을 공부하면서 1권을 제작하고 있다.

‘1권은 역사편’, ‘2권은 동네 지역별 이야기’로 작업하고 있다.

우리 동네를 자세히 몰랐는데 세밀하게 보니까 정말 다르다 라고 말한다. 그들에게 우리가 같이 지역생활문화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화성문화원 저는 아직 지역과 많은 호흡을 해 보지 않아서 조심스럽다. 강원도 구술조사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하나 말씀 드리면, 주민들이 어떤 대회에서 정선아리랑을 하면 경기민요에 밀린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웃도 서민적으로 입고 재연을 하길 바라는데 그분들은 평범한 옷이 많이 위축되는 모양이더라. 다른 곳에서는 예쁘고 화려하고 듣기 좋은 가락을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생긴다.

지역에 대한 올바른 자부심은 건강한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 중심적이다 보니 그쪽이 더 잘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역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그 지역이 세계 최고가 되는, 최고인 것이 자부심이 아니라 옆에서 살아 숨 쉬고 독특한 것이라는 것에 자부심이 있어야 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정말 지역적인 것이 잘 살아나고 고유한 문화가 생기는 것 같다. 지역학을 잘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택문화원 프로그램이 전통이어야 하느냐? 시대에 맞는 것이어야 하느냐? 문화원의 주요목적사업이 전통문화보존 계승 발전이다. 그런데 보존하고 계승은 잘 하는데 발전에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 우리가 보기에는 재미없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보면 재미있어 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들은 이-마트 보다는 시장을 간다. 예술도 그들만의 예술을 보기를 원한다.

평택문화원에서 <한국소리터>를 운영하면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서양클래식과 '덩기덕 쿵덕'이라는 우리소리 프로그램인데, 아이들에게는 서양 음악보다 국악이 훨씬 인기가 많다.

애들은 '한 번도 직접 접해보지 못했다', '방송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보고 들었는데 국악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한다. 전통적인 것을 좋아할 만한 관객을 개발하면 된다.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전통적인 프로그램,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성격상 꼭 사람이 많이 오고 참여해야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 가지고 가야 할 보전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유행도 바뀌듯이 **우리가**

보존해 놓지 않으면 유행이 바뀌었을 때 다시 만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개발, 관객 개발을 통해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토론자2

작년부터 지역학을 시에서 하고 있다. 문화원에서 기획을 같이 한다. 작년에는 문화 탐방을 했는데 풍수 기행 프로그램을 했다. 올해는 한 마을을 선택해서 들어가자 해서 마을이 겪고 있는 문제들, 마을의 주민들이나 마을이 갖고 있는 자원들, 그것들을 알아보는 시간들로 한 시간을 할애했다. 전통문화자원이라는 것에 매몰되어서 지역학이 그런 방향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얼마든지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역 학습이다. 단순히 평생학습이 아닌 것이다. 딱딱하고 화석화 된 지식이나, 옛것에 대한 지식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작업이 온고지신(따뜻한 온)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전통자원, 향토 다 좋은데 그러한 것들을 말랑말랑하고 따뜻하게,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관심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작업들이 선행되고 기반이 되어서 생활문화가 만들어 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도 고유문화, 전통문화 향토문화라는 단어가 빠져있다. 모두 지역문화로 통일되어 있다. 그러한 단어의 이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은 자꾸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 것들만 잘 잡을 수 있다면 문화원은 충분히 미래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좌장

긴 시간 고생하셨다. 답론 형성, 경험, 연구했던 것들을 논의했다. 다른 문화원에게도 좋은 사례가 되고,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크리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모아서 의논하는 자리가 가지는 의미는, 생활 문화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공간, 사람, 히스토리에 관한 문제,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더 크게 지방문화원이 지역 사회에 할 수 있는 역할과 지방문화원 내부를 구성하는 성원들이 어떤 역량 속에서 지역 사회 미래를 책임 질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되고 공유할 가치가 있다.

약간 부족하지만 깊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도연합회

내년도에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서 슬기롭게 대응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고 느껴왔다. 그동안 문화원이 만나서 '이렇게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장(場)이 적었다. 비영리 독립법인 구조로 개별적, 지역적 차원을 넘어 협의하고 나누는 장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련된 자리이다. 내년에는 이런 형식의 공간을 도연합회 차원에서 더 많이 마련해보려고 한다. 저도 여러 가지로 공부가 많이 됐다.



- ▶ 2016 경기도 어르신사업의 키워드 찾기
- ▶ 경기도류(流)의 어르신 사업을 만들기 위하여
- ▶ 경기도 어르신사업 현황 공유
- ▶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Ⅲ.

경기도 어르신
사업을 말한다.

2016 경기도 어르신사업
 기획자교류 프로그램의
 자문회의를 정리한 것이다.

2016 경기도 어르신사업의 키워드 찾기

1. 첫 번째 회의

도연합회

올해 어르신 사업과 관련하여 광역 시도문화원연합회에서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한다. 하나는 기획자교류지원사업이고 또 다른 하나는 권역별 어르신 성과사업이다.

기획자교류지원사업은 작년에도 참여하여 잘 알다시피 어르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지방문화원 및 문화시설 직원, 기획자 대상 프로그램이다. 작년과 달리 구체적인 세부 사업이 정해져 있다.

권역별 어르신 성과사업은 기존의 권역별 어르신 축제에서 변경된 것인데, 16개 광역 시도문화원연합회 중 10개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된다. 어르신 기획자 교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워크숍, 모니터링, 사례공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모니터링은 기획자간 상호 현장을 방문하고 모니터링 하는 상호 모니터링과 전문가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이 있다. 전문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되면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실버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어르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시설)은 전국 246개 단체이고 그 중 82개는 문화원이 아닌 단체나 시설 수이다.

작년 어르신기획자교류사업의 일환으로 기획자 및 강사 대상 워크숍에서 '어르신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었다. 전문가들의 모니터링으로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기획자들에게 공유했다. 그리고 어르신사업의 그 동안의 흐름과 향후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방향을 설정했다.

올해의 계획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전문가 모니터링, 타 시도 연합회와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이다. 부산연합회와 울산연합회와 함께 할 생각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추후 재논의 예정이다.

부산과 울산 연합회와 협의하여 네트워크 워크숍 일정을 8월로 미리 정했다. 장소는 부산에 있는 연수원을 고려중이다. 어르신 프로그램 기획자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어르신 동반 참여를 전제로 경기도 참가 인원만 60여명 예상된다. 워크숍은 경기도 지역의 로드맵 작성을 위한 특강 및 컨설팅,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별, 사업형태별 로드맵 작성, 부산의 지역사례 연구로 구성해봤다. 경기도 지역의 로드맵을 공유하고, 각 지역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부산의 우수사례 연구를 통해 각 프로그램의 기획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오늘 회의에서 본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문가 모니터링과 컨설팅에 대하여 논의해야한다.

부산을 가는 기차 안에서 전문가와 기획자간의 면담을 통하여 컨설팅과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산에 도착 후 기획자들이 궁금해 하는 다른 문화원, 단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호 교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1박 2일 동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워크숍 종료 후 자문위원들은 부산에 남아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면 좋겠다. 그 자리에 부산, 울산 연합회 직원들도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문위원2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을 가는 건 아닌가?

도연합회

논의해야할 사항이지만 서로 대화를 하며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같다.

2016년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어르신 사업 규모는 55개 프로그램, 34개 단체이다. 문화원이 23개, 타 기관이 11개이다. 예산으로 보면 5억 3천만원 정도이다. 세부 사업별로 분류하면 어르신 활동가 21개, 봉사단 21개, 동아리 9개, 네트워크 1개, 일자리 2개, 콘텐츠 1개이다. 형태별로 보면 공연형 34개, 전시형 11개, 체험형 6개, 기타 4개이다.

작년에 발간한 어르신 기획자교류지원사업 결과 보고서와 관련하여 다른 시도연합회 직원들에게 피드백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네트워크 워크숍 아이디어가 나왔다.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3백만원이 줄었다. 그리고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연합회 계획에 수정요청을 해왔다. 기획자간 상호모니터링과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이 워크숍 전에 진행되기를 바란다.

자문위원4

일자리 프로그램은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이 안되는가?

도연합회

그렇다. 제외되어 있다.

도연합회

작년에 이어 연속성상에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올해 신규사업도 있다.

자문위원2

올해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1차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다.

도연합회

올해 신규 사업이 많다. 이 예산으로 모두 모니터링 하는 것이 가능할까? 기획자가 참석한다는 전제하에, 자문위원이 6명이니 1명당 5개 단체를 담당하면 좋겠다.

자문위원2

55개 프로그램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34개 단체 중 절반정도는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하면 신뢰도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도연합회

권역별 어르신 성과 사업이 있다. 7월 12일에 경기도 페스티벌31과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 공연이 10개팀, 전시가 11개팀이다. 이 날 자문위원들이 실버페스티벌에 참가할 우수사례프로그램을

선정해야한다.

자문위원1

실버 페스티벌은 언제인가?

도연합회

10월 14, 15일 예정이다.

자문위원2

문화의 날에 맞춰서 하는 것인가?

도연합회

박람회 겸 페스티벌을 하는 거 같다.

자문위원4

실버페스티벌에 참가할 팀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이 있는가?

도연합회

현재는 없다. 자체적으로 정해서 선정하면 된다. 그리고 도 사업비로 지원된 금액 중 일부를 참가팀 지원금으로

사용해야한다. 2팀 이상을 선정해달라고 했다. 공연이나 전시는 결국 각 사업의 결과물이다. 페스티벌 당일 기획자들과 만나고 전시와 공연을 보고 심사와 모니터링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문위원4

모든 단체가 참가하지 않을 텐데, 미참가 단체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도연합회

미참가 프로그램은 실버페스티벌을 참가하기 위한 심사에서는 제외될 수밖에 없다.

자문위원1

그렇다면 미리 공지되어야 할 사항이다.

도연합회

워크숍이나 권역별 어르신 축제에 참가하지 않은 단체들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

자문위원2

7월 12일에 참가하는 팀이 20팀 정도다. 이 날 참가하지 않은 단체를 나누어서 현장 모니터링 진행하자.

자문위원3

실버페스티벌에 참가해야하는 팀이 2팀 이상이라는데, 공연과 전시에서 각각 1팀씩 결정하면 되나?

자문위원2

공연이나 전시 장르 상관없이 선정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자문위원3

계획서에 경기, 부산, 울산 지역 기획자들이 부산에서 부산의 사례를 보는 일정이다. 그러면 부산 기획자들은 타 지역의 사례를 공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각 지역의 기획자들이 서로 얻어가는

것들이 있어야한다.

도연합회

1차적으로 경기도 문화원
입장에서의 기획서이다. 이
일정으로 부산과 논의 중에
울산이 뒤늦게 결합하기로
했다. 그래서 모양새가 바뀔 수
있다.

자문위원2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
이기도 하지만, 케미가 있으
려면 다른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

자문위원1

올해 기획자교류지원사업의
주제가 무엇인가?

도연합회

작년 어르신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유했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기획자
들끼리 진정한 교류의 장을
만들고 타 지역의 사례를 공부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자문위원2

사업에서 키워드를 뽑아내야
한다. 요즘 역량이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 역량은
어떤 학교 출신인지, 무엇을
공부했는지의 학력(學歷)이
아니라, 학력(學力)을 말한다.
학력(學力)을 위한 역량이
기획자들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노인 문제를 소재로
한 소설을 함께 읽는다거나
CoP같은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지방
문화단체의 기획 수준이
수도권보다 뒤쳐진 경향이
있다. 지역의 문화예술역량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가
관건이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바쁜 실무자에게
지속가능하게 해주는 힘이
무엇일까? 요즘은 지속가능이
아니라 지탱가능한
문화기획, 지탱가능한

문화사업이라든가 '지탱가능'이 키워드다. 지탱이라는 것은 한계를 알고있다는 뜻도 있다. 자기의 한계, 정책이나 제도의 한계를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자문위원1 작년에는 '변화하는 어르신, 지금의 어르신을 바라보는 초점,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라는 키워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존속을 하려면 기획자의 관점, 기획자의 마인드, 기획자가 어떤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이냐가 문제이다.
결국 자문위원2의 말처럼 역량강화이다.

자문위원2 지금의 '역량강화'라는 단어는 오염되어 있다. 상투적 임푸르브먼트(improvement, 향상)이 아니라 평생공부에 대한 이야기다. 공부의 기본 관점을 티칭(Teaching)이 아니라 러닝(Learning)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획자들이 당장 주어진 일을 하기 바빠서 자기 역량을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럴 땐 무엇을 새롭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를 '역량', 전체 컨셉을 '우리는 학생이다.' 이런 것이 잡혀야 부산, 울산, 경기가 어우러지는 게 가능할 것이다.

자문위원1 정책이나 문화원연합회나 사업의 관점으로 예산을 내려준다.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고민하고 설계하는 것은 기획자이다. 기획자들이 모여서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시간은 그만하고, 기획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한계를 찾아내고, 거기서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또 거기서부터 이야기 하자는 거다.

자문위원2

각 지역의 사례를 보는 것도 좋은데, 경험에 갇히면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 어르신문화사업의 설계는 피상적이다. 노년빈곤의 문제라던가 노인 문제는 우리의 상상이상이다. 무거운 주제인데, 워크숍에서는 가볍게 풀어내야한다. 국내외 어르신들의 환경 변화, 신자유주의로 인한 공공의 민영화 등의 변화에 기획자들이 너무 둔감하다. 기획자들이 그런 경각심,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문화나 교육이나 자폐적인 것이 문제이다. 그러니 상투적인 사업도 나오는 것 같다. 기획자들은 세상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그것을 감성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자문위원1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죠.

도연합회

특강이나 강의가 아니라 지금 하는 이야기를 자문위원들과 기획자들이 나누면 좋겠다.

자문위원3

오늘 공유된 기획은 경기도 문화원 입장에서만 생각된 것이다.

기획자들은 세상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그것을
감성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울산과 부산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부산을 가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컨설팅을 하는
건 좋다.

그렇다면 부산과 울산에 있는
기획자들은 그 시간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상호모니터 링이나
컨설팅을 부산이나 울산에서도
진행해야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내려가서 경기도의 사례
만으로 이야기하면 부산과 울산
기획자들은 소외당하는 것 아닌
가?

자문위원1

‘따로 또 같이’로 해야한다. 부산,
울산, 경기도의 개별 워크숍과
전체 워크숍이 필요하다.

자문위원2

권역별 어르신 축제가 당면해 있으니 경기도 사례는 그 날 집중하자.
기획자, 관계자,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자. 그리고
미참가한 단체들을 한 두 군데 정도 현장 방문을 하자.

도연합회

알겠다.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은 올해에 맞게 수정하여 공유할테니 모니터링 후 보고서 제출 해주시라.

자문위원4

상호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자간, 지역간의 방문을 해야하나? 연합회에서 틀만 짜주면 기획자들이 알아서 모니터링 하는 것인가?

도연합회

기획자가 타 단체, 지역으로 모니터링을 가서 그 지역 기획자가 사례를 공유하면, 일종의 사례비를 지급해줘야 한다.

자문위원4

상호모니터링이라는 것은 누가 누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업을 공유하는 것인데 사례비를 주는 게 맞나?

도연합회

사례비를 지급하는 건 둘째치고, 기획자들이 바쁘기에 일정이 나올지 걱정이다. 그래서 워크숍 때 서로의 사례를 공유할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 했다.

자문위원2

현장에 가는 것이 포인트다.

자문위원1

그렇다. 서로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점을 확대하고, 평가해보는 것이다. 이미 다른 단체에서는 상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원들끼리는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필요할까?

자문위원4

직원들이 의외로 보고 싶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업 목록만 보고 결정할 수 있나? 사전에 정보를 주고 수요조사를

해보는 것은 어떤가?

자문위원1 진행 순서를 정하자. 기획자간 상호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기획자들이 궁금한 프로그램은 제각각 일테니, 그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권역별로 구분하여 CoP형식으로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받는 것은 어떤가?

자문위원2 권역별 기획자들이 모니터링할 프로그램 또는 단체를 정해서 함께 방문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자문위원1 올해의 주제는 ‘어르신사업 기획 잘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해봤니?’ 어떤가? 기획자간 모니터링은 권역1, 권역2, 권역3, 권역4로 나누고, 권역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자. 모니터링 과정에서 오고 간 이야기나 결과를 보고서로 받자. 전문가 모니터링은 일단 권역별 어르신 축제에서 1차적으로 하자. 2차적으로 미참가 단체들을 모니터링하자. 그 결과로 실버페스티벌 참가팀을 정하자. 그런데 공연을 잘 하는 팀, 전시 작품이 좋은 팀으로 선정해야하는지, 공연이나 작품 수준이 좀 떨어지더라도 기획이 좋은 팀으로 선정해야하는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몇 팀을 선정할지도 도연합회에서 정해줘야 한다. 이 과정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워크숍 기획을 다시 하는 것이 어떤가?

도연합회

상호 모니터링은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하는 걸로 추진하겠다. 전문가 모니터링은 자문위원들이 모니터링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결정해 주면, 해당 단체와 협의 후 알려주겠다. 가능하다면 작년에 다녀온 곳은 제외해 달라. 그리고 신규 사업, 신규 단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 모니터링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

자문위원1

심사해야할 팀 정보와 심사표를 만들어 달라. 심사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실버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이니 단체들이 심사 결과에 예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도연합회

상호 모니터링, 전문가 모니터링, 권역별 어르신 축제

심사 결과를 다 반영하여 참가할 팀을 선정하겠다. 심사 지표와 심사해야할 팀 사업계획서나 정보는 제공하겠다. 워크숍은 부산, 울산 연합회와 협의하겠다.

자문위원1

8월 19일까지 상호모니터링을 마감하는 걸로 하자. 자문위원들은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우리 주제가 기획자가 무엇을 잘 하면 어르신 사업 기획을 잘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모니터링을 가면 사업에 맞춰져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도연합회

작년에 경기도류의 어르신 프로그램 로드맵 작성이 목표였다. 올해는 지역 차원에서, 지역성이 있는 로드맵, 발전 계획을 작성해보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자문위원1

지역성이 있는 로드맵을 만들려면 기획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내용으로 워크숍을 해야 한다.

자문위원4

이 사업은 워크숍이나 모니터링에서 기획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사업을 이야기하고, 사업을 통해서 기획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문위원1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더라도 기획자가 방향을 못 잡으면 사업은 항상 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워크숍에서 사업 컨설팅이 아니라 기획자 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도연합회

기획자로서의 마인드는 단 시간에 키울 수는 없다. 단지 기획자로서 해야 할 것들을 알려줄 수밖에 없다.

자문위원1

관점전환을 할 수 있는 실마리, 꺼리를 던져 줘야 한다. 기획자들에게 로드맵을 작성하라고 하면 매우 도식적일 것이다. 도식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좋지만, 결국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 기획자, 사람이 중요하다.

만약 기획자들과 어르신 동반 참여라고 한다면,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의 소감이나 진짜 필요한 기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정작 우리는 어르신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있다. 사례를 기획자가 발표하지 말고, 참여자가 생생한 소감, 왜 이 프로그램이 필요했는지에

대해 발표했으면 좋겠다.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도연합회

기획자들이 어르신 사업의 장기적인 기획, 목표를 만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인드가 지역 로드맵 작성에 드러나기를 바란 것이다.

자문위원1

알겠다. 그런데 그 방법이 사업 컨설팅은 아니다. 쉽지 않지만, 기획자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봐야 한다. 그 방법에 대해선 더 고민해봐야겠다.

자문위원2

질문에 대한 방식을 바꾸자. 사업과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만족도 평가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나의 나이들에 대하여'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다. 예로 노인 문제를 소재로 한 소설을 읽으면서, 간접적으로 우리 사회 노년 문제 방안이나 노년 프로그램에서 결여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화두를 던지면서 자기 사업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효과 있

상대에게 기획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인이라면
무엇이 하고 싶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게끔
해야 한다.

지 않을까?

자문위원1

‘나의 나이들에 대하여’가 좋은
게 나 자체도 5~6년 후에 노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 기획자들이 참여자를
타자화시키고 먼 일로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나도 노인이
된다. ‘나의 나이들에 대하여’
우리 안에서 생각 해봐야 한다.
너무 준비 없이 닥치게 되는
현실이다.

자문위원3 사업수행자로 접근하면 사업이야기만 한다. 당신이
어르신이 되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지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기획자들이 안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행하고 있는 게
문제이다. 상대에게 기획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인이라면 무엇이 하고 싶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게끔
해야 한다. 참여자들도 진정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가하면 분위기가 다르다. 실력이
문제가 아니다. 포천 실버 합창단 같은 경우가 그렇더라.

도연합회 자문회의를 한 번 더 해서 워크숍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자.

자문위원2

교육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티칭의 관점으로 접근한다.
티칭이 완전히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러닝의
관점으로 가야한다.

자문위원1

어제 희곡을 낭송하는
동아리 모니터링을 갔었다.
희곡은 대사를 주고받으며
진행이 된다. 참가자들이
몰입하고 감정이입을 해서
인지 즐거워하는 것이
보이더라. 강사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사가 처음
시도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되었다.
이 대사에서 어떤 감정을
가져라, 어떤 톤으로 읽으라는
티칭이 빠졌다. 이것이
오히려 참가자들에게는
자연스러움을 주었다.
텍스트가 괜찮은 자료가

있으면 같이 읽어보고,
감정이입하는 방식도 좋을 것
같다.

자문위원2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떤 강사들은 주도
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여
상심하는 경우가 있더라.
참가자들은 티칭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러닝의 관점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배움을 체험한다.
'나는 학생이다.'라는 컨
셉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 떤
가? 늘 배우고, 서로 배우는
입장이어야한다.
예로 '노년하면 떠오르는 당
신이 알고 있는 어떤 것을
준비 해와라'라고 과제를 주는
것이다. 시를 준비해왔다면
시를 다 같이 읽어보고 이야기
를 나누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가 컨설턴트가 아니라
모듈레이터(modulator)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도연합회 그 방법으로 준비해보겠다.

자문위원1 팀별로 영화를 보든, 시를 읽든, 아니면 똑같은 텍스트를 똑같이 진행하든, 자문위원들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보자.

자문위원2 기본 주제를 잡고, 참가자들을 팀으로 나누어 달라. 주어진 시간 내에서 2~3명의 자문위원들과 다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배치 해달라.

자문위원3 자문위원들이 같은 주제, 다른 콘텐츠로 접근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자문위원1 자문위원과 팀별 매치가 어려우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매칭 시켜도 재밌을 것 같다.

자문위원2 예로 워크숍 관련 공지 시에 당신이 알고 있는 노년에 관한 시를 준비해 오라고 과제를 내달라. 왜 그 시를 준비했는지, 읽고 이야기 나누면, 사업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결국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다.

자문위원1 이런 방식이면 팀을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주제별로 자문위원들이 하나씩, 총 5교시를 준비하자. 마지막

6교시는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자. 사례가 아니라 그들의 의견 그 자체를 말이다.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회의 때 논의하자.

자문위원3 어르신 프로그램은 소재, 지역은 다양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식이 획일적이다. 기획자들이 획일적인 교육을 받아서인가? 우연히 어르신 프로그램으로 팟캐스트 제작을 하는 사례를 접했다. 강사들이 기술적인 것만 가르치고, 그 내용에 대해선 참가 어르신들에게 맡겼다. 2인 1조로 마음대로 15분이라고 하는데, 팟캐스트라는 형식 때문인지 내용에 대한 티칭을 배제해서인지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독특하다.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야한다. 기획자가 달라져야한다.

도연합회 재밌을 것 같다. 그런데 새로운 방법이라 참가자들의 협조가 원활할까 궁금하다.

자문위원2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업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 이야기 금지', '우리 지역은... 금지'라는 제한을 두자.

자문위원1 재미있겠다. 핸드폰 하지 않기, 노답하지 않기, 중간 중간 코파지 않기 라는 유머도 섞어보자.

도연합회 오늘 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워크숍 계획을 다시 세우겠

다. 권역별 상호 모니터링이 세팅되면 공유하겠다. 전문가 모니터링을 일정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앞으로의 사업 일정과 관련 자료도 공유하겠다. 2차 자문회의는 7월 21일 11시에 하겠다. 1차 자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다.

2. 두 번째 회의

도연합회 회의 전에 공유할 사항이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와의 회의 결과, 사업계획 세부 내용이 변경되었다. 워크숍 1회, 회의 및 간담회 2회, 현장모니터링 44회로 되어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경기도는 최소 44회는 진행해 달라고 한다.

자문위원1 상호모니터링 38회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도연합회 총 34개 기관이다. 각 기관 실무자가 모니터링 가는 것을 1회씩 하여 34회, 권역별 진행 4회를 합쳐서 38회다.

자문위원2 문화원 포함 34개 기관이 있고, 적어도 한 번씩은 간다는 건가?

자문위원4 만약 수원이 고양을 가면 고양은 수원을 가는 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 사업은 교육을 하는 것인가 우수사례를 뽑아내기 위함인가? 평가 및 성과 산출인거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객관화

하자는 것인데 사업 이름은 기획자교류다.

자문위원2 모니터링을 특화한 사업이다.

자문위원1 우수사례가 선정되면 실버대축제에 참가하나?

도연합회 그렇다

자문위원4 경기도는 축제 참가팀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 그 참가와 별개로 전국 축제의 세부프로그램으로 우수사례 발표 시간이 있어서 우수사례를 찾아야 하는 것인가?

도연합회 축제 내용이 정확히 공지 되지 않아서 그것은 아직 모르겠다.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계획서 상 세부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워크숍, 현장 모니터링, 사례공유를 진행해야한다. 워크숍에는 세부컨설팅을 해야 한다.

현장 모니터링은 상호모니터링으로 기획자간 현장 방문을 1개 단체 이상 해야하고, 전문가 모니터링은 우수사례의 2~3배수로 진행하고 그 중 우수사례로 2건 이상 선정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 공유 간담회를 진행하고, 우수사례선정 및 확산하라는 것이다.

필수 활동사항, 권장 사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상황에 맞도록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은 8월에 워크숍을 하면서 기획자들이 서로 만나게 되니 상호모니터링을 그

때 진행하고, 전문가들 만나면서 컨설팅 겸 모니터링을 하자였다. 상호모니터링이나 전문가 모니터링을 직접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기획자들이 부산에 가는 것보다 경기도 지역에서 하는게 좋겠다고 하셔서 워크숍 계획을 다시 세워야한다.

자문위원2

오늘 논의 할 것은 워크숍과 상호모니터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인가?

도연합회

그렇다. 기획자들에게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모니터링 38회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 번 사무국장연수 때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역이 의정부, 남양주, 용인이다. 의정부는 닥종이인형, 남양주는 시니어 뮤지컬, 용인은 실버합창단이다.

자문위원4

우수사례에 타 기관은 안 들어가도 되는 건가? 결과적으로 전국 축제에 참가하는데 복지관 같은 기관이 없다.

도연합회

권역별 어르신 축제에 문화원 외의 몇 단체가 참가했었다. 그런데 거의 다 올해 처음 어르신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단체다. 내세울만한 성과, 결과물로 무엇을 보여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다.

자문위원1

상호모니터링 가는 직원들에게도 예산 지급이 되는 것이면 그 결과가 주가 되어야겠다. 우수의 객관화를 위해 많은 기획자들의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자문위원2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매개 역할을 잘 해주면 되는 것이다.

자문위원1

상호모니터링 기준을 잘 잡지 않으면 화려하게 보여지는 단체들이 우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외되는 팀들은 계속 소외된다.

자문위원2

해야만 하는 것들은 정해진 대로 하더라도 워크숍은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지 않나. 상호모니터링 결과를 포함할 수 있는 워크숍 형태면 가능할 것 같다.

자문위원1

화려함을 보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것까지도 끌어 낼 수 있는 지표 설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워크숍에서 상호교류하며 그 이야기까지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정해진 틀을 우리가 어떻게 전략으로 활용인지를 정하면 된다.

자문위원2

기획자들이 언제 다른 단체를 방문하고 프로그램 참관을 해보겠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업비평이라는 책을 보면

모니터링이나 컨설팅 보다 수업 비평이 중요하다고 한다. 요즘 초등교육에서 중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문화예술쪽에서는 아직 안 알려진 것 같다. 지적질하면서 컨설팅하는 것이라 아니라 당신 수업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애정 있게 읽어주는 수업비평이 좋은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강사들의 모니터링, 워크숍 참여도 중요하다.

자문위원1

강사가 기획자의 역할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자보다 강사의 역할이 큰 문화원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가 참여해야한다.

자문위원2

계속 했던 이야기지만, 교육의 목적을 티칭인 경우가 많다. 교육은 러닝의 관점이어야 한다. 배움이 주는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가

핵심이다. 다른 형식의 배움이 주는 수업 설계와 교육을 만들어 내야한다. 기획자 뿐 아니라 강사도 바뀌어야한다. 기획자와 강사가 함께하는 워크숍이면 좋겠다.

자문위원1

요구하는 것을 하되, 해석을 달리하자. 할 일이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가 많이 필요하다.

자문위원2

1차 때 상호 모니터링의 대안으로 권역별 진행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방법은 어떤가?

자문위원1

그것도 대안이 되지만 기획자들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곳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부터 하면 좋겠다.

자문위원4

내가 가고 싶은 곳이어야

기금증도 있고, 질문도 하게 된다. 설문조사를 하면 물리는 곳이 생길 수 있다. 그 물리는 곳을 권역별 모니터링 단체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 역으로 기획자들이 가고 싶은 단체로 신청은 안했지만, 다른 기획자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구하고 싶어서 모니터링을 받고 싶은 곳도 있을 것 같다.

자문위원2

버스를 한 대 대절하여 하루 동안 그 권역에 있는 현장을 순회하는 건 어떤가? 수업 현장을 같이 보는 것이 제일 좋지만 같은 날 수업이 있지는 않을 테니 쉽지 않을 것이다. 수업 현장을 같이 보고 같이 이야기 하는 것이 제일 좋다. 동료의 입장에서 같이 보는 것이 핵심이다. 동료가 선생님의 수업에 이런 부분이 추가되면 좋겠어요 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동료가 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다. 권역별로 가되, 가고 싶은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자. 그리고 물리는 문화원이 있을 텐데 그 곳으로 물리는 이유에 대해서 워크숍 때 사례발표하면 좋겠다.

자문위원1

특정 단체로 몰린다고 해서 제한하지는 말자. 그들이 다녀온 내용을 그들의 입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과정을 모아내는 것을 워크숍 안에서 하자.

자문위원2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변화, 참가자들의 변화이다. 상호모니터링을 상호 배움의 의미로 이어가자.

자문위원1

강좌만 개설한 기획자의 경우에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수업비평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할 없다.

상호모니터링의 효과를 보려면 프로그램에 가입한 기획자여야 한다.

자문위원2

그래서 강사도 상호모니터링에 참여해야한다. 잘했다 못했따를 따지기보다 못한 점은 스스로 점검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역량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강생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이다. 이 변화가 수업 분위기를 바꿔준다.

도연합회

그럼 우수사례로 선정된 3개지역의 기획자, 강사가 서로 상호모니터링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자문위원1

하다보면 우수사례로 선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혹시 미흡하면 전문가 모니터링

에서 점수를 더 주면 된다. 1차적으로 권역과 상관없이 먼저 가고 싶은 곳을 신청 받는 것이 좋겠다. 같은 아 이템을 하는 프로그램을 방문해보고 싶을 것 같다. 공문 보낼 시 1지망, 2지망 지원을 받고, 가능한 한 번에 여러 가지 답을 받을 수 있는 설문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오고 가야하니 각 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사전에 발송 해야할 것 같다.

도연합회

워크숍 일정을 8월 18, 19일로 공지를 했다. 이 때 기획자들에게 이번 사업 내용 공유 나 모니터링하는 방식에 대한 워크숍을 하면 좋겠다. 워크숍에서 모니터링 참여에 대한 불입도 할 필요가 있다. 상호모니터링 신청을 받더라도 직원들이 모니터링 방식이나 타 프로그램

읽어내기를 어려워 할 것 같다.

자문위원1

이 날 워크숍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모니터링 단체가 달라질 것 같다.

자문위원2

사전 교육 및 붙업 조성이 목적이라면 강사 참여는 어렵지 않나? 결국 강사와 기획자가 변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도연합회

이번 워크숍은 규모가 작더라도 상호 모니터링 세팅을 참가자들과 함께 하고 싶다. 모니터링할 단체 결정, 모니터링 시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이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세팅이다. 그 이후 평가 워크숍은 기획자와 강사가 같이 참여하여 진행하면 어떤가?

자문위원2

모니터링을 8월 말에 시작해서 9월중에 끝내는 걸로?

자문위원1

상호 모니터링을 갔을 때 프로그램의 기획을 읽어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

도연합회

권역별 모니터링을 갈 때는 자문위원들이 동행하면 좋겠다.

자문위원1

인근 지역 문화원 직원들 끼리는 친하지 않나? 권역별로 하면 서로 잘 알아서 이야기 나눌 것이 없을까봐 우려된다.

자문위원2

권역별 모니터링에 자문위원들이 동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워크숍 때 모니터링 관련 깊은 대화와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이 중요

하다. 2차 워크숍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것이 낫겠다.

도연합회 1차 워크숍 때 서로 같이 배우고, 나누자는 사업 구도를 설명하고 상호모니터링 붙업 조성을 한다. 모니터링 지표를 배포해서 상호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그 결과를 2차 워크숍 때 공유한다. 그리고 강사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자문위원2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 라는 취지 어떤가?

도연합회 좋다.

자문위원2 2차 때는 권역별이나 분반하여 진행하자. 모니터링 결과 공유만 하면 재미없으니 참여한 기획자들이나 강사들의 역량은 어떻게 향상 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자.

도연합회 1차 워크숍 사전 공지를 1박 2일로 했는데, 1일로 축소하고 2차 워크숍을 1박 2일로 진행하겠다. 1차 워크숍에서 사업 구도에 대한 설명, 상호모니터링 개념, 지표, 현장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이야기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니터링할 단체를 선정하는 부킹시간을 갖겠다.

자문위원1 부킹 방법을 색다르게 해보자. 그런데 모니터링을

가려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일정에 대한 정보가 중요할 것이다.

도연합회 당일에 진행하겠다. 인기투표처럼 하면 될 것 같다.

도연합회 장소는 1층 아트플랫폼에서 하겠다.

자문위원1 워크숍 때 모니터링 일정 조율 등은 당사자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문위원4 모니터링은 의무인가? 안갈 수도 있고, 못가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도연합회 의무는 아니다. 2차 워크숍 일정은 언제가 좋을까? 10월은 문화원이나 단체들이 바쁘다.

자문위원2 10월은 피하고, 11월 초 어떤가?

도연합회 11월 둘째 주까지 정산 보고를 해야한다. 10월 2주가 적당할 것 같다.

도연합회 10월 7, 8일로 결정하겠다. 장소는 서울 광진구쪽이나 구리 쪽으로 결정하겠다.



2016 경기도 어르신사업 1차
워크숍을 정리한 것이다.

경기도류(流)의 어르신 사업을 만들기 위하여

2016년 경기도 어르신기획자교류사업의 사업명은 '탐구생활-나는 학생이다'이다. 오늘은 경기도 차원에서의 어르신기획자교류사업의 기획의도를 공유하고 상호 모니터링의 개념과 하는 방식, 방문 단체를 선정하겠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어르신 사업을 담당하는 기획자, 실무자들이 향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이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나누고, 맥락을 가지고 진행하기를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자문회의에서 경기도의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어떤 방식,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 내용은 추후 공유하겠다.

워크숍은 2회를 진행할 계획인데, 오늘 워크숍이 그 첫 번째이다. 2차

워크숍은 기획자들의 상호모니터링과 전문가들의 모니터링 결과를 다시 읽어내는 시간과 평가로 구성할 예정이다. 2017년도에도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의 맥락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겠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17년도 경기도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여러분인 기획자들과 함께 협의하여 설정하고자 한다.

상호모니터링 신청 양식을 꼼꼼히 기재 해달라. 이 신청서를 기준으로 상호모니터링 세팅을 할 것이다. 경기도 어르신사업은 34개 단체에서 68개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이다. 이 중 모니터링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신청 해달라. 상호모니터링과 관련하여 교통비 지원을 할 예정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싶지만, 예산의 한계로 1회 5만원으로 책정했다.

전문가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고 진행할 예정이다.

구분	지 표
공통	▶어르신문화프로그램(정책사업)으로써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인가?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대표 사업으로 지역에 파급력이 있는가?
	▶사업의 지속성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향후 일자리 콘텐츠 사업으로 전환 등)
	▶사업대상자의 참여도 및 만족도가 높은가?
활동가	▶단순 교육이 아닌 능동적인 문화활동가 양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봉사단	▶봉사단의 내부 역량 및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동아리	▶동아리 모임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동아리 네트워크	▶지역 내 동아리 간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는가?

유엔 산하 자문기구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 네트워크가 있다. 이 네트워크에서 2012년에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삶의 질과 행복은 한 나라에서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의 총합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즉, '삶의 질과 행복은 돈이 많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아보세!', 경제적인 가치와 논리로 삶의 질과 행복이 결정되지 않는 다는 선언이다. 돈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선언이다.

코닥 하면 필름이다. 코닥 필름의 캐치프레이즈는 '순간에서 영원으로'이다. 코닥 회사의 연구센터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다. 전 세계 필름 시장의 90%가 코닥이었는데, 필름이 필요하지 않은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였다. 코닥 회사의 정체성을 흔드는 개발이었다. 그 연구진들은 해고되었다. 후지 필름이 그 연구진들을 고용하여, 후지 필름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했다. 코닥은 망하게 된다. 그 시점에서 코닥 필름 경영진은 연구진들이 개발한 디지털 카메라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지금은 자기의 존재의 의의를, 자기의 정체성을 흔드는 물건이었음에도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때 당시엔 용납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복지관이나 문화원 등에서 일하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기관, 단체의 근본 가치와 정체성, 존재의 의의를 해체하는 무엇인가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후 세대를 준비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다. 여러분은 '문화원은 이렇다', '복지관은 이렇다', '사회복지사는 이래야한다'라는 나름의 정의를 갖고 있을 것이다. 우리 안에 정리된 개념, 가치, 정체성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시작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5년 5월에 2014 문화예술정책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서 '박근혜 정부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2013년을 문화융성의 원년으로 삼았다. 2017년에 문화융성의 실현을 목표로 갖고 있다. 2015, 2016년에 '문화의 일상화를 한다'로 되어 있다. 이 말은 앞의 세계행복선언과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그 돈이 우리의 행복과 삶의 질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한 것처럼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일상'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 되고 있다. 문화융복합, 문화와 타 부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에는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고 문화한국 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고 창조경제가 확산된다고 한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전통문화정책으로 4가지 지표를 설정했다. 지역문화 창조역량강화, 전통·민족문화 창조적 발전 및 가치 확산, 지역문화진흥법 및 한복문화산업진흥법 제정, 우수 지역·전통문화브랜드 발굴 및 확산이다. 4가지 지표 중 지역문화 창조역량강화를 제외하고 3가지 지표는 '지역다움'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을 특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지역을 지역답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주는 전주대로, 포천은 포천대로, 광주는 광주대로, 양평은 양평대로, 양평다움을 만드는 인력을

키워내고, 그 인력들이 지역을 지역답게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이다. 지역을 지역답게 만들어 놓겠다. 이것이 문화융성의 시초라는 생각이다. 우리 입장에서 좋은 방향이다.

2013년도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추진체계를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구획 정리를 다시 했다. 어르신문화학교에 참여했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양성·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일종의 시민교육이었다. 이렇게 양성된 동아리가 봉사단으로 활동하는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어르신들을 강사로 양성하는 이수자 강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이수자 강사 프로그램으로 문화해설사, 이야기할머니 등이 있다. 1개 문화원 내지 복지관에서 6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지역마다 진행된 이런 사업을 연결짓기하는 것이 기획자교류활성화 사업이고, 사업성과를 모아내는 것이 어르신문화축제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의 고민을 했다.

1.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의 맥락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
2. 경기도 지방문화원들의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
3. 경기도 지방문화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어르신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

1, 2, 3을 고민한 끝에 경기도류의 사업 맥락을 다시 잡아야하지 않을까 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6년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세부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다. 어르신문화활동가를 양성하고 어르신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어르신문화공동체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2015년까지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일반사업과 기획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올해는 일반사업, 핵심사업, 기반사업, 지역거점사업으로 세분화되었다. 지역거점사업은 광역시도단위 사업이다. 지방문화원과 복지관 등의 단체에서는 일반 사업(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어르신문화동아리)을 진행하고 있다. 핵심사업은 어르신문화공동체이다. 즉, 어르신 사업을 통해 어르신 문화 공동체가 만들어 질 것이라는 기대이다. 일반 사업과 핵심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한 기반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르신문화콘텐츠개발, 청년기획자학교이다. 청년기획자들이 어르신프로그램을 기획해야한다는 것이다. 서두에 말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정책의 지역문화 창조역량강화와 맥이 닿는 부분이다. 더불어 어르신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콘텐츠의 수를 증가시켜나갈 것이다.

2016년 경기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현황을 보자. 총 55개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있다. 활동가 양성 21개, 봉사단 21개, 동아리 9개 일자리 2개, 콘텐츠 1개, 네트워크 1개이다. 진행 단체 및 기관은 23개 문화원, 복지관이나 미술관 등이 11개, 총 34개다. 경기도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2015년도 예산은 4억3천7백4십5만원 이었고 올해는 5억3천만원이다. 올해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의 총 예산은 50억 가량이다. 그 중에서 18억이 어르신문화활동가 예산이다. 경기도는 18억 중 2억2천5백만원 가량 지원받았다. 어르신문화봉사단은 8억 중 2억2천3백만원,

어르신문화동아리는 2억4천만원 중 2천7백만원, 일자리, 콘텐츠, 네트워크는 8억7천인데 경기도는 5천5백만원 지원받고 있다. 활동가, 동아리, 봉사단에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일반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원받고 있다. 핵심사업과 기반사업에 대한 고민은 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국비 지원한 지 10년이다. 각 지역차원에서 일반사업만 10년 동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정부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국정 기조로 문화예술발전을 내세웠고, 그 세부 지표를 보면 지역을 특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제 어르신 사업도 지역을 지역답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 맥락을 잘 잡으면 6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활동가를 양성해서 동아리를 만들고, 동아리를 지역 봉사단으로 만드는 기획을 할 때, 기반사업과 핵심사업의 목적을 간과하고 기획하면 안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반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어르신 중심의 지역사회 자원을 구축해보자', '지역 사회 문화 매개자로서 어르신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보자'가 목표이다.

지방문화원은 지역 역사, 문화, 전통의 발굴을 하겠다는 목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나 향토사학사들을 모집해서 향토사 관련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책으로 발간한다. '좋은 책 나왔네'하고 자축한다. 그리고 다음엔 무슨 책을 낼까 고민한다. 발간이 핵심이었다. 그래서 지역을 지역답게 만드는 지역을 특성화 시키는 일을 도서 발간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2차 고급 데이터 확보를 위해 아카이빙하고 콘텐츠화하는 고민을 사전 기획 단계부터 해야 한다. 이것이 지역을 재구성하고 지역을 특성화 시키는 일의 단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획을 하면, 예산 지원을 받을 기회도 많아진다.

기획이 지역 현장에서 구현될 때, 어떤 모양으로 될 지는 지역마다 다를 것이다. 누군가 '이 사업을 해라'라고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사업 모니터링을 할 때, 앞서 말한 부분의 맥락을 고민하면서 해보라. 그러면 '우리는 어느 지점에 와 있지?'를 정교하게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상호모니터링을 통해서 창조적 비판을 할 수 있다. 창조적 비판에 의거한 자기 위치 규정을 한 상태로 2차 워크숍을 진행하기 바란다. 오늘 1차 워크숍에서 상호모니터링 매칭을 하게 된다. 상호 모니터링을 하고 상호모니터링과 맞물려서 전문가 모니터링을 하고 2차 워크숍을 하게 된다. 2차 워크숍 때 상호 모니터링으로 창조적 비판에 의거한 자기 위치 규정된 사항과 전문가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해보자. 스타 문화원과 스타 프로그램을 발굴해 보자.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스타 프로그램이 발굴되면, 이거 괜찮은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예산이 자연스럽게 확대된다. 그러면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프로그램이 경기도에서 나오면 좋겠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지역과 함께 어떻게 만들어 갈까'를 창조적 비판으로 우리 위치 규정을 해봤다.

첫 번째,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여러분들의 사업을 컨트롤하고 조정한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을 자연스럽게 경기도 문화원연합회로 모으고, 우리 안에서 다시 읽어내고, 그 결과를 다시 지역으로 공유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플랫폼을 뜻한다.

두 번째, 외부 문화기관이나 문화기획자들을 활용하여 지역 기획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세 번째, 우리가 제대로 된 고민을, 제대로 된 질문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한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의 입장이 아닌 지역의 입장에서 다시 읽는 작업을 한다. 워크숍도 그런 맥락에서 기획되고 진행된다.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이해도 증대를 위한 사업이 배치되어야 해야 한다.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 사례를 바탕으로 동사업의 확장 가능성에 대하여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지역마다 맥락있게 6개 사업을 제대로 해보자는 꿈과 희망을 가져본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고민들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이것은 우리의 반성도 포함된 것이다.

그러면 지역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역의 로드맵을 다시 그려보자. 작년에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사업 방향, 원칙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재해석 했다.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에서 직접 지역로드맵을 그려보자. 지역로드

맵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거 하니 어르신 프로그램이 좋아 지더라.', '이런 거 하니 어르신들이 좋아하더라.' 같은 건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 기획자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그 고민을 지역에서 풀어나가는 과정을 나누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어르신 프로그램을 시작한 계기, 진행 과정, 지역에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나가는 과정, 또는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문제 같은 건 지역로드맵 없으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 만들어보자.

지역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기획사업 추진이 과연 가능할까? 올해의 그 시초를 닦기 위해 상호 모니터링을 시도한다. 지역간 교류를 해보자는 것이다. '우리 지역이 역시 이걸 잘해'가하는 교류가 아니다. 같이 고민을 나누고 극복하자는 것이다. 이 지역에는 어떤 특징 때문에 잘 되고 어려운지, 어떤 어르신 덕분에 진행이 원활한지, 어떤 어르신이 끈대갈아서 어려운 지, 이것을 서로 공유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지역간의 교류를 잘 하면 좋겠다.

추후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기획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지역이 생기면 좋겠다. 우리가 사업을 기획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제안을 해보자. 이것이 가능하려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지역로드맵이다. 우리가 방향을 같이 고민하면서 '경기도류의 어르신 사업은 이것이다 또는 저것이다, 이런 맥락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그래서 상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2015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결과보고서가 발간됐다. 전국의 현황과 목표, 추진 방향들을 알 수 있다. 꼼꼼히 꼭 읽어보기를 바란다.

2016 경기도 어르신사업 1, 2차 워크숍 중 참가자들이 어르신 프로그램 현황에 대하여 나누는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경기도 어르신사업 현황공유

1. 상호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 소개

도연합회 상호모니터링할 프로그램 매칭 시간을 갖겠다. '창조적 비판으로 인한 자기 위치 규정'을 다른 기획자로부터 정보를 얻게 되면 더 좋은 기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이다.

매칭을 하기 전에 '나의 사업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기획자, 해당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맥락과 타 기획자나 어르신들의 봤을 때의 맥락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간극이 있는지, 있다면 왜 그런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활동을 위하여 며칠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활동 사진을 받았었다. 도연합회 직원들이 55개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각 사업의 핵심 내용만 추려봤다. 그 이후 기관명, 제목은 지우고 사업의 방향과 목적,

내용만을 다시 정리해봤다. 정리 과정에서 직원들이 이해한 대로 각색이 되었을 수도 있다. 재정리된 정보만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업을 찾을 수 있겠는가? 어느 기관의 사업인지 알 수 있을까? 이제 부터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램 판넬을 주겠다. 중앙 책상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다. 본인 프로그램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찾아서 판넬에 붙여봐 달라. 다 붙이신 후 프로그램 소개 시간을 갖겠다. 앞선 활동의 소감도 함께 이야기 해달라.

아해박물관

봉사단 <어르신 효 큐레이터>

효를 주제로 어르신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효문화센터와 함께 하고 있다. 한국효문화 센터에서는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글짓기, 그림그리기, 엽서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회에서 입상한 그림과 글을 어르신들의 구수한 입담으로 효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어르신 큐레이터 양성과정도 진행 중이다. 어르신들이 지역 축제에서 큐레이터 활동을 하고 있다. 효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업이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보면 어렵게 쓰게 되는데, 쉬운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셔서 좋았다. 어르신들의 활동을 직접 보려면 지역 축제 현장으로 방문해야한다. 야외 활동이라 날씨에도 제약이 있으니 모니터링 참관 시 참고 바란다.

과천문화원

활동가 <승승장구 난타>

봉사단 <사랑매듭나누미>

봉사단과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봉사단은 어르신문화학교에서 3년 정도 전통 매듭 관련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르신들은 지역 학교, 축제, 기관 등 관내에서 요구하는 곳들은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교육 봉사를 나가고 있다. 전통 매듭을 활용하여 목걸이, 핸드폰 줄 등의 생활용품도 만들고 있다. 작품 판매를 통해 일자리 창출까지는 아니고 재료비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어르신들의 활동 모습을 직접 모니터링 하고 싶으면, 학교로 수업을 나가는 날 진행해야 한다.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은 난타 프로그램이다. 지역 복지관에서 같이 홍보를 해주어서 참가자가 많은 편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 1~3시 수업이다.

광주문화원

봉사단 <너른고을 옛이야기 나눔 봉사단>

저는 곧 어르신이 되는 나이이다. 그래서인지 내가 어르신이 되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예능에서 탈피한 사업을 하고 싶었고, 이미 문화원에 축적된 자료도 활용하고 싶었다. 그리고 지식층 어르신들의 새로운 여가

문화에 변화도 주고 싶었다.

문화원에서 광주의 설화 관련 책을 2권 발간했다. 책을 만들어 서고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내용을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가 고민거리였다. 그때 할머니의 팔베개가 생각났다. 어릴 때 할머니 곁에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옛날이야기를 들었던 기억 말이다. 그 결과 어르신들이 어린 세대들에게 광주의 설화를 들려주는 사업을 기획하였다. 작년에 복지관에서 동화 구연 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설화 구연 양성가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그 분들과 함께 봉사단을 꾸린 것이다. 작년의 교육 과정 중 학교로 직접 실습을 나가는 내용이 있었다. 3학년 사회 교과에 지역 관련 단원이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외부에서 유입되었기 때문에 실상 지역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해당 단원을 가르칠 때 고민이 많았다고 하더라. 그래서 문화원에서 이 교육을 제안했을 때 호응이 매우 좋았다. 담임 선생님들이 놀랄 만큼 학생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다. 참가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동화를 들려줄 때는 아이들이 재미있기만 하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지역 이야기를 들려주니 더 보람 있다고 한다.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는 어른이 되어도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다. 우리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 지역 설화를 기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

또한 설화는 지역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경우가 많은데,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등재로 더 유명해지면서, 남한산성과 관련된 설화로 학교를 찾아가니 호응이 더 좋다. 학교의 고민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기에 앞으로도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원에서 연합회의 청소년지역창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5, 6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역사 교실을 5년째 진행 중이다. 5년 동안의 성과로 올해부터 시 보조금을 받게 되었고, 강사인 해설사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게 되었다.

너른고을 옛이야기 나눔봉사단 사업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광주에 3학년만 100여 학급이라 봉사인원이 많이 필요하지만,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인원을 더 늘리지 않고, 전문 지역 스토리텔러로 양성, 활동할 수 있도록 문화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지역마다 설화는 있다. 이 사업이 경기도 전역에 확산될 수 있을 것 같다. '경기도 초등학교 3학년 지역 수업에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어르신들이 학교로 수업가는 날 모니터링 오시면 좋을 것 같다.

평택북부노인복지관

봉사단 <동화구연으로 소통하는 "오손도손 봉사단">

동아리 <화(火)로(老)동아리 [뜨개질로 사랑을 전하는 화(火)따뜻한로(老)인]>

프로그램 소개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린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활동에서 저희 사업에 대한 내용을 찾지 못했다. 더 심혈을 기울여 열심히 하겠다. 그러데 혹시 저희 정보를 가져간 단체는 없으신가?

오손도손 문화나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관에서 25개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중 동화구연교육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배운 걸 활용해보고 싶다고 하셨다. 그래서 다른 노인 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봉사활동을 제안했더니 흔쾌히 수락하셨고, 작년에 직접 활동교구도 제작하여 활동했다.

아이들과 오손도손 앉아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에서 오손도손 문화나눔봉사단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올해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받아서, 동화구연에 연극까지 확장하여 진행 중이다.

평택은 4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북부권 시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9월에는 북부권 보육시설 원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 공연을 예정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활동을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되었다.

뜨개질을 소재로 한 화로동아리 운영 중이다. 화로는 불 화, 노인로의 합성어로 뜨개질로 따뜻한 사랑을 전한다는 의미이다. 처음에 동아리 회원을 모집할 때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는 한 뜨개질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다고 겁을 냈다. 그래서 제가 머리로는 잊었는지는

몰라도 몸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용기를 내시라고 설득하고 지금도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

처음 시작부터 전문가 수준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보수 교육 4회 중 2회 진행했더니 더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만든 작품은 사업 종료 후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등에 기부 예정이다. 회원으로 모집할 때 결과물인 작품은 본인이 갖거나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0% 기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었다. 내가 만든 작품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다는 마음에 더 자부심을 갖고 동참하고 있다.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취미생활을 따로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뜨개 활동을 하면서 나에게도 소일거리,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꺼리가 있다는 것에 의미를 갖게 되어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주 2회 진행 중이다. 주 1회만 참가하시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2회를 다 참가하시게 되고, 뜨개질 자체에 재미가 붙어서 작품 제작 속도가 빠르다. 어르신들이 짤 날 때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뜨개질을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본 다른 어르신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동아리가 확장될 것 같다. 젊었을 때 뜨개방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창고에 남아있는 실이나 바늘 등의 물품을 후원하고 있다. 요즘엔 뜨개질을 잘 안하지만,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는 누구나 하던 소일거리였다. 어르신들의 예전 문화를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시흥문화원

활동가 <추곡서원(楸谷書院)>

봉사단 <2016잉벌로밴드(전통과 현대의 하모니)>

콘텐츠 <시흥 우리마을 만화영화공작소>

시흥문화원은 3개의 어르신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첫 번째는 추곡서원이라는 활동가 양성 사업이다. 추곡은 시흥의 가래울 마을을 가리킨다. 이 마을은 사상적으로 한국양명학을 정립한 정제두라는 인물과 관련이 있다. 양명학을 소재로 한 사업이기에 추곡서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활동 내용은 한국 양명학 전문가를 섭외하여 어르신들에게 양명학 교육을 시키고, 어르신들을 활동가로 양성하는 것이다. 추후 활동가들이 관내 청소년들에게 양명학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사업은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 시흥우리마을만화공작소이며, 올해 2년차 진행 중이다. 내년까지 진행 예정인 사업이다. 활동 내용은 시흥의 오래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과 삶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제작하는 것이다. 사업 1차년도인 작년에는 책으로 발간했고, 올해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책으로 발간 예정이다. 3차년도인 2017년에는 인터뷰 내용을 각색하여 만화로 제작하려고 한다. 처음엔 만화영화로 제작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의 한계도 있고 제작 과정이 쉽지 않기에, 카툰이나 웹툰의 형식으로 제작될 것 같다. 워크숍에 와서 알게 되었는데, 경기도에서 콘텐츠 사업은 시흥만 진행 중이다. 콘텐츠 사업은 다른 프로그램보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높은 편이다. 다른 기관들도 관심을 갖고 진행하면 좋겠다.

세 번째 어르신 사업은 8년차에 접어든 잉벌로밴드라는 문화원

나눔봉사단이다. 2009년에 어르신 문화학교로 시작하여 처음 2년은 전문 강사에게 교육을 받았다. 지금은 오래된 단원들이 강사 역할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보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벌써 8년차다보니 어르신들의 연세가 높은 편이다. 보컬 어르신이 최고령자인데 94세시다. 밴드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의 건강이 제일 걱정이다. 시흥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팀이고, 1달에 4회 정도 소외된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다. 지역 축제에도 참가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까지 할 만큼은 아니지만, 약간의 공연료를 벌어서 어르신들이 진행비로 사용하고 있다.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

봉사단 <꿈드림실버인형극단>

봉사단을 운영 중이고, 2012년 시작하여 4년차다. 막대 인형극으로 성범죄 예방, 환경보호 등 사회 문제를 어린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고 있다. 지역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역 내 노인인식개선, 1, 3세대간 통합도 이루어지고 있다. 막대인형이 무겁고 체력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지만 잘 하고 있다. 대본의 경우 전문 녹음으로 진행되었고, 월 1회 보수 교육으로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한다. 활동은 매주 월요일 1시부터 1~2시간 정도 진행되니 참고 바란다.

의왕시사랑채복지관

활동가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복지홍보사업 '온(溫)-AIR'>

2009년부터 시니어 기자단 담당이다. 시니어 기자단이 일자리 사업이라 보니 사업비가 충분하지 않고, 운영비로 진행하고 있었다. 5년 이상 기자단을 운영하고 신문을 제작했다. 산출되는 기사가 단순했다. 그래서 영상 제작과 홈페이지 운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업 제목은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복지 홍보사업이지만 1차년도인 올해는 단순 교육사업이다. 어르신들이 영상을 활용하여 기사를 취재하고, 그것을 윈도우 무비메이커로 편집, 제작까지 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차기년도 목표가 이 분들을 봉사단으로 구성하여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이다. 현재 기자단이 지면 기사만 제작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올해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영상 등 다양한 매체 기사를 작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는 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하반기에 직접 기사를 제작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경기도 권역별 어르신 축제가 7월에 진행되다기에 일정을 변경하여 중간 결과물을 제작하여 참가했다. 축제에 참가했던 작품은 3~5분의 지역 소개나 홍보 기사였다. 종결 결과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이와 관련된 교육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 첫 번째는 사업비로 강사비 외에 비품 구입 등의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중급 이상인 어르신들을 모집하려 했으나, 몇 없어서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어려워서인지 포기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화성문화원

활동가 <극단 초록 나비 연극인 양성>

봉사단 <화성춤클럽·운학선생의 춤과 함께>

동아리 <얼썩!우리가락 한마당 공연 지원>

동아리 <화성문화빛그림 전시 지원>

4가지 사업을 진행 중이다.

첫 번째는 어르신 연극인 양성 활동가 사업으로
극단 초록나비이다. 장르의 특성 상 회원 모집이
어려웠는데, 적응하기도 어려웠던 거 같다.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포기하셨다. 현재 10여명 밖에
없지만, 이 분들은 안정화가 되었다. 지역 인물이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작품을 선보이려고 했는데, 이
기획도 어르신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 화성출신
문학인 이옥이라는 분의 작품을 선택하였는데,
연기뿐 아니라 민요도 잘 부르고 무용도 잘 해
야한다. 말 그대로 만능 예술인이어야 가능한
작품이어서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고 있지만 꾸준히
연습 중이다. 교육의 성취 효과를 위하여 11월 즈음
발표회를 할 것이다. 이옥 선생의 유배지로 현장
학습도 계획 중이다.

두 번째는 5년차 문화나눔 봉사단이다. 처음부터 봉사단으로
시작하였고, 일자리 창출이나 다른 사업으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단원들이 봉사만 하고 싶다고 하여 봉사단으로 유지 중이다. 화성 출신의 민속 무용의 대가이며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팔박무 기능 보유자인 이동안 선생의 무용과 다른 한국 무용을 한다. 연령대는 50대 중반부터 70대 중반까지이다. 매주 보수 교육과 자체 연습을 하며, 주로 지역 축제에 참가하고 있다.



세 번째는 화성문화빛그림이라는 동아리로 사진반이다. 올해 5년차이며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동아리라 문화원에서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있다. 문화원 사업, 행사를 촬영하여 문화원에 사진이나 영상 제공을 해주고 있다. 올해 전시 예산으로 지원받았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 문화원 전시실에서 진행 예정이다. 그 외 지역의 다양한 축제에 부스를 요청하여 작은 전시회도 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문화나눔봉사단에서 동아리로 전환된 민요반이다. 주로 경기민요를 부르고, 지역 축제에서 봉사 공연 활동을 한다. 동아리로 전환하면서 발표 공연 1회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어르신들이 발표회 보다는 보수 교육이 진행되기를 원했다. 지역에서 봉사 공연을 다니고 있다.

양평문화원

봉사단 <문화재비누만들기>

활동가 양성 과정 3년째 진행 후 봉사단으로 3년째 운영 중이다. 양평의 문화재 모양이나 양평군을 상징하는 동식물을 활용하여 비누 물드를 제작했다. 비누 케이스 제작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학교나 노인정으로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다. 장기적으로 비누 판매를 통한 수익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고 있다.

포천문화원

활동가 <포천늘푸름합창단>

봉사단 <포천사랑 문화나눔 봉사단>

동아리 <어르신 한자동아리 서당체험>

2006년 1기, 2009년 2기 등으로 하여 4기를 진행 중이다. 1기는 어린이 한자 교실 운영이었는데, 작년까지 봉사단으로 지원 받았다. 올해는 지원을 받지 않고 동아리로 운영 중이다. 2기는 실버악단, 3기는 은빛춤사위인데 문화나눔봉사단으로 운영 중이다. 4기는 작년에 결성하여 활동 중인 늘푸름합창단이다.

문화나눔 봉사단은 악기를 다루셨던 분들이 봉사를 나가는 것이다.

어르신 프로그램이 2005년에 처음 실시되었고, 그 당시 사업명이 땡땡땡 실버문화학교였다. 땡땡땡이라고 하니 어린이 같은 느낌이 아니지 않나? 순수하게 자연스럽게 문화를 접하자는 목적이었다.

경로당에서 고스톱만 치지 말고 나와서 문화를 즐기자는 취지였다. 그 당시 복권기금으로 지원된 예산이었는데, 전국 실버 축제의 호응이 좋았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어르신 사업에 불만이 있는데, 전문가가 자꾸 끼어든다는 것이다. 전문 기획자, 전문 모니터링위원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니 어르신들에게 봉사를 하고, 돈도 벌고,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여 어떤 단체를 만들자고 한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다. 즐기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한다. 그런데 전문기획자들이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연합회에 모니터링 없애라고 건의했던 적이 있다. 한동안 모니터링이 없었는데, 다시 시작하더라. 그리고 기획자 회의 보다는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진행하면 좋겠다. 워크숍을 통해 어르신들의 진짜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다.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르신문화사업이 만들어져야 한다.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활동가 <가로수(노래가, 늙을로, 빼어날 수)>

노래 가, 노인 노, 빼어날 수해서 가로수 밴드이다. 문화활동가 양성으로 지원을 받아 밴드교육 중이다. 복지관 문화교육 사업 중에 한 가지 악기를 다루는 단일 수업은 많은데 하모니를 이루는 밴드 수업은 없었다. 키보드, 우쿨렐레, 하모니카 등 복지관에서 배우던 악기 외에 글로켄슈필, 윈드차임, 심벌즈 등 처음 접하는 다양한 악기를 배우고 있다. 다양한 악기의 소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소통하고 하모니를 이루는 교육을 하고 있다. 앞으로 봉사활동이나 발표회를 준비하려고 한다. 시흥문화원에서 8년째

운영 중이었는데 저희 쪽에 모니터링 오셔서
자문해주시면 좋겠다.

고양문화원

활동가 <고양행주취타대>

봉사단 <늘푸른 인형극 동화구연단>

고양 역사, 설화, 전래이야기로 구성된 인형극과
동화 구연을 하고 있는 봉사단이다. '고양 노래
이야기'라는 노래를 불러 보겠다.

“아름다운 고양시 꽃피는 도시, 옛날부터 전해오는 고양이야기,
1413년 태종 13년 고봉과 덕양이 만나 고양이가 됐어요. 고봉산에
피어난 사랑이야기 한구슬과 흥안태자, 박태성과 호랑이의 40년
우정, 공양왕과 충신 삼살개, 밥할머니와 권율 장군 왜군 모두
물리쳐, 서삼릉과 선웅의 역사이야기, 고양 이야기” (역사는흐른다 멜로디)

양성과정 3년 진행 후 올해부터 봉사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작년
까지는 무료 공연을 진행했었으나 올해부터는 최소한의 활동비를
받으면서 노인요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공연하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원 강당에서 공연한다. 12월까지 관객 마감이다 되었다.
행주산성 축제 시민 퍼레이드에 참가하여 상을 받았다. 지원금으로
재료비만 지출이 가능하여 어르신들이 손수 인형을 제작하고,
원고도 직접 각색하고 있다. 국립여성사전시관과 연계하여 여성
역사 인물인 밥할머니와 권율장군 이야기 공연을 하고 있다. 어린이
인성교육이 강조되면서 박태성과 호랑이의 우정이야기 공연도 많이

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공연 후 수업으로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저희도 광주문화원처럼 초등학교 지역 단원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인형극이다 보니 어르신 여럿이 활동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의 정서 교류, 공감대 형성으로 더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한 것 같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외 일자리 창출프로그램으로 전래놀이 지도단이 있다. 동화, 이야기, 고양시 민속놀이를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활동가 양성 과정으로 고양행주취타대가 개설되었다. 고양시에 취타대 팀이 없어서 외부팀을 섭외하여 공연하곤 했다. 이젠 고양에 취타대가 생겨서 지역 내부 공연팀이 생긴 것이다.

광주문화원 사업 포맷이 비슷하여 광주문화원에서 고양 문화원으로 견학을 갔었다. 저희는 이야기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플래쉬 동화, 티비 동화 등을 활용하여 3인 1조로 활동하고 있다.

고양문화원 여자 어르신들이 이야기 구연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문화원이나 지역단체끼리 협력을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광주문화원의 경우 저희쪽 방문도 해주셨고 사업 포맷이 비슷하여 모니터링 해보고 싶다.

연천군노인복지관

활동가 <미라클 실버 합창단>

연천군이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지자체이다.

문화 소외 지역이기도 하다. 어르신들과 기초교육부터 시작하여 20회 정도 교육이 진행되었다. 연천 여성합창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여성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과 합동 공연을 준비 중이다. 매마수 활동으로 10월, 11월에 공연 예정이다.

의정부문화원

활동가 <닥종이 인형으로 재연하는 『응답하라 1960』>

봉사단 <은빛인생 2막3장 「꿈을 실은 사진관」 나눔봉사단>

첫 번째 닥종이인형반이다. 60년대의 시대이야기를 닥종이 인형으로 풀어내는 주제이다. 그래서 작품을 보면 그 시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모니터링 시 어르신들과 인형을 같이 제작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다.

두 번째는 꿈을 실은 사진관 나눔봉사단이다. 어르신들이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포토샵으로 사진편집, 인화방법까지 배웠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찾아가서 효도사진 찍어주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은 효도 사진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 어르신이 어르신을 찍는다 그러면 그 거부감이 줄 것 같아서 기획하게 되었다. 촬영, 편집, 인화, 앨범 제작, 전달까지 어르신들이 손수 하고 있다.

양주문화원

활동가 <“나도야 전통주 빛는 장인”교실>

양주 맹골마을이라고 수원백씨 집성촌이 있는데

집안에서 내려오는 전통주를 만든다. 지역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마을로 가는 대중교통 상황이 안 좋아서 모험을 하는 마음이었다. 의외로 여성 어르신들이 전통주 만드는 것을 좋아하더라. 여성이 25명, 남성이 5명인데 남성들은 마시는 걸 좋아하신다. 안주로 전통 두부로 만들고 있다. 3개월 정도 진행되었는데, 아직까지 참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술이나 두부를 좋아하신 분들 환영한다.

동두천문화원

활동가 <노끈과 지끈으로 엮어내는 생활의 즐거움>

봉사단 <어화 좋을씨구, 어르신 이담풍물놀이 한마당>

동아리 <짱, 짱이야 실버색소폰 악극단 행복누리 콘서트>

어르신 프로그램으로 활동가, 동아리, 문화나눔 봉사단을 각 1개씩 총 3개를 진행하고 있다.

관내 어르신 10여명이 자율적으로 사물놀이를 연습하는 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팀이야 말로 문화원에서 도움을 주어야 할 팀이라는 생각에 사업을 지원하여 봉사단을 꾸리게 되었다. 관내 취약 시설이나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지역 축제에 참관하고 있다.

짱, 짱이야 실버 색소폰 악단이다. 문화 동아리 사업이다. 작년에 문화나눔봉사단으로 진행했었는데, 앞선 팀을 봉사단으로 구성하면서 이 팀은 동아리로 전환했다. 자체 공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문화활동가 양성으로 노끈공예반이다. 2009년부터 시작하여 8년차이다. 작년까지 노끈으로 작품을 만들다 보니 작품성이 떨어져 보이더라. 올해부터는 지끈(종이끈)을 이용한 작품도 만들고 있다. 문화원이나 지역 행사에 전시를 하고 있다. 8년차 교육을 하다 보니 한계에 도달은 것 같다. 내년부터는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확장시켜볼까 한다.

수원문화원

봉사단 <2016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검정고무신">

어르신들이 과거를 추억할 때 '검정고무신'을 많이 떠올리고, 어린이들에게는 만화'검정고무신'으로 검정 고무신이 친숙하기에 봉사단 이름을 검정고무신으로 하게 되었다. 이와 어울리게 다양한 소품과 의상을 준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단원은 문화원에서 모듬북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신규 단원을 모집하여 구성되었다. 처음엔 복장이 코믹스러워서 어르신들이 싫어하기도 하셨다. 그런데 회가 거듭될수록 어르신들이 새로운 것을 접하면서 재미있어 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에 관내 요양원 등으로 방문하고 공연봉사를 하고 있다.

풀짚공예박물관

활동가 <어르신 문화예술학교- 풀짚공예의 추억>

옛날에는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다. 풀과 짚으로, 자연에서 나는 재료로 만

들었다. 지금은 플라스틱 재료의 물건을 쉽게 사고 버린다. 자기에게 필요한 도구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한다. 풀과 짚을 이용하는데 주재료는 짚이다. 새끼 꼬기부터 시작하여 생활에 필요한 망태기, 짚리, 동물 모형 등의 작품을 만들고 있다. 매주 화요일 2시부터 5시 수업이다. 다음 주에는 명석 만들기 수업이 진행 예정이다.

양평군노인복지관

활동가 <Back歲 청춘 예술단>

신입직원이라 아직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 파악 중이다. 백세청춘예술단이라는 이름이다. 백이 숫자 100이 아니고 백(back)이다. 나이를 뒤로 먹는다는 뜻이다. 최종적으로 봉사단 구성이 목적이다. 마술과 인형극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90% 이상의 참여율이다. 어르신들이 더 많은 교육을 원해서 강의가 연장되었다.

안산문화원

봉사단 <은빛소리 아코디언 어르신문화나눔 봉사단>

동아리 <실버밴드'천하태평'어르신문화동아리사업>

두 가지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화강좌 중 아코디언반이 있는데,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봉사단을 구성하였다.

실버밴드는 70년대부터 90년대의 밴드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두 팀은 실력이 출중하여 관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인기가 많다.

도연합회

경북 한 단체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례를 이야기하겠다. 사업명이 어르신수채화반이다. 그 지역에서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되어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부스를 배정받았다고 한다. 기획자가 수채화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맘대로 초상화'를 기획하고, 어르신들에게 캐리커처 교육을 2주 진행했다. 2주밖에 교육을 안 받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잘 그리겠는가. 그런데 축제 기간 동안 이 부스에만 줄이 길더란다. 어르신들은 명석을 깔고 밥상을 놓고 캐리커처를 그리면서 관람객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한 대화를 소개하면 이렇다. 딸 셋을 둔 안동에 사는 한 젊은 여성 관람객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림을 그려주던 할머니가 여성에게 '그동안 어찌 살았노?'라고 하더란다. 안동은 보수적인 지역인데, 할머니에겐 아들을 낳으려고 딸만 셋을 낳고 고생하며 살아온 그 여성의 세월이 읽혀서란다. '내년엔 아들 데리고 올끼다'라는 글을 써서 그림을 주니 그 여성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우리가 하는 어르신 사업이 삶의 이야기가 얽히고, 어르신들에게 어떤 장을 마련해주느냐에 따라 수채화반이라는 평범한 강좌가 '내맘대로 초상화'로

재탄생했다. 기획자들이 진정성을 갖고 어르신들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어르신의 삶의 이야기들이 현재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삶과 만나는 지점을 어떻게 마련해 주느냐가 결국 어르신문화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탄생하면 좋겠다.



2. 상호모니터링 결과 및 노하우 나누기

화성문화원 시흥문화원 어르신봉사단 잉벌로밴드를 모니터링 했다. 잉벌로밴드는 2009년 어르신 문화학교부터 시작해 화성 봉사단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다. 전에는 별도의 전문 강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봉사단 안에서 주강사와 보조강사로 나눔 활동 하고 있었다. 워낙 오래 되기도 했고 많이 활동 해서 그런지 지역에서도 많이 알려진 팀이고 문화원 외에서의 요청도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모니터링 간 날도 연습을 하고 계셨는데 전원 참석하셨다. 밴드이다 보니 인원은 많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셨다. 시흥문화원에서도 우리 지역과 마찬가지로 신규회원 모집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용이하지는 않다고 한다.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회원의 80%가 기존 회원(초창기멤버)이라고 한다.

봉사활동은 4-5회 (월) 한다고 한다. 본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곡목 등을 정하고 있다. 문제점은 신규 회원이 기존회원들과의 사이에서 적응이 힘들고 잔류하기 힘들어 하는데 신규 회원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나 정서가 기존 회원과 다르기 때문이다. 기존 회원들은 어르신문화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봉사단으로의 활동 단계를 거쳐 봉사단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신규 회원은 그런 개념이 좀 없다. 화성에서도 신규 회원들은 회원 모집 시 어떤 대가가 있는지 질문한다. 봉사단임을 밝히면 교통비라도 줘야 한다고 한다. 시흥도 그런 점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싱어들만 약간 교체 될 뿐

나머지는 기존 멤버들로 계속 운영된다. 화성도 공감하는 상황이다. 어르신들이 오래됐기 무대에서나 준비과정에서 스스로 활동하는 것, 그리고 봉사단으로서의 입장에 자긍심과 자존감이 있다고 한다. 메인보컬이면서 주강사로 활동하는 90대 할아버지는 굉장히 세련되셨다고 한다. 무대에 오를 때는 항상 무대 의상을 갖춰 입고 사전 준비도 많이 한다고 한다. 이곳은 어느 정도 자립이 된 상태였다. 저희가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시흥문화원에 다녀왔는데, 저희는 신생 문화활동가 양성단계이다. 잉벌로밴드는 7년차로 저희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발적인 단체였다. 우리 경우는 밴드 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나갈 때 의상, 악기, 간식을 다 챙겨주는 경우인데 잉벌로밴드는 강사도 어르신이었고 악기나, 의상까지 모두 담당자가 따라가지 않아도 스스로 준비하신다고 해서 놀랐다. 가로수밴드 어르신도 악기실력 향상 뿐 아니라 능동적인 밴드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문화활동가 양성을 넘어서 봉사까지 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의왕시사랑채노인복지관

저희도 시흥문화원에 다녀왔다. 추곡서원이라는 사업명이었는데, 양명학을 소재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문화양성가 사업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했는데,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사업이 준

비되어 있는 어르신들로 어르신 강사단을 구성해서 수요처와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한다. 같은 교육사업이어서 모니터링 신청을 했다.

밴드나 이런 단체와는 달리 교육프로그램이다 보니 80%이상이 교육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특이한 점은 매마수 교육 일정이 특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저희는 자원봉사를 활용하지 않았는데 시흥은 자원봉사자가 네 분 있어서, 프로그램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고,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수업은 동영상으로도 촬영하고 있었다. 매 프로그램마다 촬영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인상깊었다. 양명학을 소재로 선택 했을 때, 설명을 듣고 왔음에도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쉽지 않은 소재를 개발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연계 했다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진행자

잘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시흥문화원에 갔는데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시흥문화원

인기 비결은 아무래도 사업을 많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연천군노인복지관

저희는 평택남부노인복지관 불타는 청춘인형극단을 다녀왔다. 어르신들 참여인원수가 생각보다 적었던

게 가장 아쉬웠다. 사업추진경과를 보고 갔는데 일정대로 이루지고 있었다. 처음 어르신들이 대본을 외워서 인형극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서 대본 미리 녹음해서 더빙된 것을 인형극에 사용하시는 것이 특이하다고 느꼈다. 또 인형극이다 보니 생각보다 표현력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 점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탈하는 경우가 생겨서 수시로 모집하는데, 모집이 쉽지 않다고 한다. 성비가 불균형 해서 남자분이 안계신데, 때로는 남자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이 쉽지 않다고 한다. 저희는 합창단이다 보니 인원자체가 많고 평택은 인형극이다 보니 인원이나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차이다. 공통적인 것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호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느끼는 점이 평택과 연천 노복의 공통점이었다.

양평군노인복지관

저희는 고양문화원을 다녀왔는데, 고양문화원은 3년 지속한 단체였다. 모니터링 당일에도 공연이 있어서 아이들이 3-400명이 관람하고 있는 것을 봤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봤을 때 진행이나 준비되어 있는 과정에서 부러움이 많았다. 가장 궁금했던 점은 초반 사업구성에 어르신, 강사, 실무자의 소통이 잘 안돼서 중간 이탈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했는 지다. 지금도 다툼이 있으면 바로 나가고, 그러면 다시 회원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

면 아직은 그분들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방향이었다. 저희는 고양문화원에서 부러운 것만 보고 왔다. 지역 자체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양평에 필요한 것을 찾아서 그에 맞게 바뀌보는 방향을 찾아보라는 조언을 받았다. 이야기꺼리, 군 자체 내의 스토리를 발견해보려고 하고 있다.

도연합회

고양문화원 프로그램을 고르신 이유는?

양평군노인복지관

양평노복에서 진행하고자하는 방향을 참고하고, 고양문화원이 했던 것을 따라가 보고자 했다

아해박물관

저희는 과천문화원 승승장구 난타를 모니터링 했다. 다른 분들은 봉사단, 양성가 등 대부분 같은 종류였는데, 저는 시간적 여유 관계로 같은 지역에 있는 단체를 다녀왔다. 저희는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양성가 사업을 하고 있는 과천문화원을 다녀왔다. 당일은 수업중이었는데, 제가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수업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열정을 느꼈다. 한 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마음은 청춘인데 머리도 몸도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힘들다고 했다. 때문에 연습을 더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쉬는 시간에도 강사선생님을 귀찮게 한다고 했다. 저희는 봉사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을

드려야 하는 입장인데, 이곳은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적극적이어서 부러웠고, 어르신 모집과정에 대해서 여쭙 보고싶다.

광주문화원

저희는 의왕시 사랑채노인복지관을 다녀왔다. 양성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지역에서 행사나 문화사업을 하다보면 지역영상 등의 자료가 필요한데 그럴 때는 시청에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촬영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자체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루의 모니터링으로는 사업진행을 파악하기 힘들어 그동안 사업진행이나 현황은 질의를 통해서 들었다. 온에어 영상교육반은, 저같은 경우 기기작동에서 어려움 있는데,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상기기반을 만든 자체가 용기 있어보였다. 15명이 참여중이었다. 염려대로 어르신은 새로운 기기에 대한 교육이라서 많은 반복 학습이 필요했다. 그렇지만 출석률이 좋은 상황에서 지속되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신선하고 새로웠다. 어르신들 중에서도 능력차이가 많아서 개별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참고할 만한 것은 시니어기자가 일자리 사업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문자매체로 소식지를 발행하다보니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있어 영상매체를 통한 사업을 시작했고, 끝까지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 보면 지속성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보였다. 기술을 잊지 않도록 지속성이나

보수교육이 필요하겠다. 직접 어르신들이 지역에 관한 일을 하다보면 지역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 질 수 있을 것 같다. 문화원은 어르신 참여자 모집이 쉽지 않는데 복지관은 늘 어르신들의 출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화원보다는 강점인 것 같다. 이분들이 일반 예술계통의 취미생활을 하는 분보다는 자부심이 있을 수 있다. 지역에 봉사하거나 일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 취미생활보다는 성취감이 있어 보인다.

과천문화원

저희는 과천에 있는 아해박물관을 모니터링 했다. 어르신 효큐레이터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역축제와 많이 연계를 해서 축제기간에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즐겁게 큐레이터 봉사를 하는 부분에서, 관람하고 모니터링 하는 본인도 즐거웠다. 전문 큐레이터에게 교육을 받고 스스로 작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예술가가 되는 것 같다는 부분이 기억이 남는다. 봉사단이 봉사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교통비를 지급하는 정도까지가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융통성이 있었으나 올해는 그 부분마저 없어지니까 섭섭함을 가지는 것 같다.

고양문화원

광주문화원에 다녀왔다. 답사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했다. 고양은 인형극 동화구연단 4년차 활동을 하고 있다. 고양의 지역사(역사, 설화)를 가지고 소재로 사

용하고 있는데, 저희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이나 문화원에서 많이 시도했던 걸로 아는데 지속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초3 과정 안에 지역에 관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담임 선생님이 지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외부초청강사를 섭외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에 애착이나 문제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어렸을 때가 좋은데 그런 역할을 어르신들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지역은 인형극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지역의 이야기를 특색으로만 가지고 가도 메리트가 있다. 광주의 경우에도 사업이 중간에 끝나기 때문에 모임이 지속되지 않고 방학하는 경우였다.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고양은 사업이 끝난 겨울에도 모임을 가지고 있다. 봉사 하는 일이나 일자리 창출이 안되면 다른 동아리나 단체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실력 있는 분과 활동하고 싶은 분을 잡으려면 사업 중이 아니어도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

도연합회

상호모니터링이 사업진행에 도움이 되었는지 알고 싶다.

조언은 해주셨지만 해결은 스스로 해야 하니 숙제가 되는 것 같다.

참고가 된다. 하지만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많다. 나눔봉사단에 대해 질문이다. 보수 교육을 하는데 인건비로 강사비를 지급하고 매니저나 보조매니저도 강사비를 지급하는데 내부 역량이 되는 분도 매니저로 강사비를 지급한다. 문제는 외부에서 강사가 오는 경우 어르신들이 봉사라고 해도 식사나 교통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단체 안에서 매니저나 보조매니저를 두고 강사비를 지급하면서 전체 운영비 지급을 한다. 사실은 문화원 내부에서 그 일을 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을 걸어서 사용한다.

봉사단이나 지속성과정에서의 최소사용 비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개인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아니어도 비용이 필요하다.

간식비와 식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교통비는 연합회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힘들고, 강사비로 해서 사용가능하다.

저희도 5년차인데 태생부터 봉사단이었을 경우는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 일자리 사업을 경험했던 분들이나 양성가로 시작한 경우는 교통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는 도중하차 하는 경우가 많다. 경험이 많은 분들은 식사는 당연하고, 교통비 부분이라고 해결해 줘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강사들의 경우도 그 부분이 항상 고민이고, 충족시킬 만한 대안을 찾아달라고 한다. 그렇다고 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하기에는 부족하거나 어려운 점이 많다.

도연합회

슬기롭게 해결 하시는 분은 없으신가?

저희의 경우에는 봉사비 지급이 되는 기간이 있다. 도서관의 경우에는 무료로 하셨는데, 지금은 활동비를 만원 정도 지급한다. 봉사나가는 단체에서 받는다. 봉사라는 것은 무급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르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나 도서관 단체에 상황설명을 하면 약소한 금액이지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소외계층, 차상위계층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받기가 힘들다

저희도 장애인 기관을 간다. 그럴 경우 어르신들께 명확하게 설명을 한다. 드릴 수 있는 경우에는 드리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처음 가입할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는 부분이다.

오늘 워크샵을 신청 한 것은 이런 고민을 들어보려고 온 것이다. 다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작년 어르신문화콘텐츠사업을 하면서 기획자, 매니저 제도가 있었다. 청년 기획자를 키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청년기획자 학교 같은 곳이 있었다. 짬뽕공예 3년차가 되니까 어르신사업이 정체되어있다. 내년엔 문화학교 강좌들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싶다. 자격증 남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코스를 마치고 일정한 실력이 되어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어르신도 이런 과정을 겪게 할 계획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적인 활동에 동기부여가 바닥난다. 제충도 60대에서 80대까지만데, 60대는 스스로 어르신으로 생각도 안한다. 오히려 기분 나빠한다. 문화강좌에서 젊은 사람을 키워서, 공모사업을 꾸릴 때 어르신을 결합하는 형태로 같이 움직이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화사업의 형태로 받아서 어르신들께 드렸는데 지속사업으로 가야하니

사업이 목적이 되어버려서 저희에게는 결국 일거리로 남게 되었다. 원론적인 고민을 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안하면 되는데, 타성에 젖게 된 분들에게 문화사업의 주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업목적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이다. 대안이 축제 때 연결을 시켜서 수익을 발생시키게 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이 비용을 관리하게 하는지 듣고 싶다. 체험부스가 2,000원만 된다고 하더라도 100명이면 금액이 커진다. 수익이 연결되면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회비 관리나 체험부스 비용 등을 효과적으로 그 분들이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주체적으로 움직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협동조합이나 다른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무자가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하게 하려면 젊은 사람들과 연합해서 만드는 경우나 이런 가능성이 있을지... 배우고 싶고 일자리를 가지고 싶어 하는 주부들과 어르신 사업을 연결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는 어르신들로 구성된 봉사단 안에 젊은 사람을 같이 넣는다. 30-40대 주부들이 기존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어르신들이 나가실 때 봉사를 같이 나가신다. 봉사를

나갈 때는 강사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저는 제가 강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부딪치는데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 예민해한다. 그 안에서 완력다툼도 하고 처음 협동조합 준비를 했었는데 서로 싸우고 만나오는 경우도 발생한다. 서로 맡는 책임 가지고도 싸움이 된다. 그러다보니 젊은 사람을 넣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끌고 나갔다. 지금은 사회적기업으로 진행 하는데 제가 강사인데 제가 주체가 된다. 어르신들이 주체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자신 없어하시고, 따라가는 것은 안정적으로 생각한다.

고양문화원의 경우에는 강사가 직접 꾸려 나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문화원직원들에게는 부담이 없고, 너무 좋은 케이스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저는 나이가 있으니 강사님이 하는 활동을 제가 강의만 안할 뿐 나머지는 다 하고 있다. 매니저를 뽑아서 연습을 시킨다. 직접 대면도 하고 기회도 좀 마련하라고 하고 저는 뒤로 빠지려고 하는데,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문화원에 기댄다. 그럴 때 제가 나이가 많다보니 은퇴 후 함께 하겠다고 용기를 주는 경우도 있다. 고양문화원처럼 교육청에서 유치원이나 학교로 공문이 나가거나 학교에서 유료로 초청하는

경우는 교육청의 절대적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광주의 경우는 그런 벤치마킹도 하나의 대안인 것 같다.

운영비는 누가 관리하나?

동아리 중 반장을 뽑았다. 반장을 매니저로 세우고 총무를 보조매니저로 세우고, 실제적으로 일은 문화원에서 해주고 그들을 공동 기획으로 넣어서 강사비를 책정해준다. 돈 관리는 어르신 쪽에서 한다.

도연합회

각 문화원에서 또는 복지관에서 어떻게 일들을 풀어나가고 있는가들은 이후에 개별적으로 나누었으면 한다. 여기서 있는 이야기를 연합회의 담당자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될까를 찾으면서 듣고 있다.

모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지역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실비 지급 부분이 어르신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일 것 같다. 무슨 일을 부탁하면 돈을 벌지는 않아도 자기 돈을 내서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이거 지역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사업비 내에서 실비정도를 지급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한가?

강사비 밖에 없다. 식사비는 동아리의 경우

50만원 이내. 봉사단, 양성가는 10% 이내로 제한해서 있다.

교통비는 카드로 하루 3만원. 거리별로 계산해서 주유일지를 써야한다. 작년의 경우 10km에 2,100원이었고, 올해부터는 카드로 50,000원이 넘으면 안되고, 총 금액이 50만원을 넘길 수 없다.

도연합회

일정 금액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그에 따른 행정적 절차도 너무 복잡하다. 장기적으로는 자기 돈을 내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밖에는 없다

왜 이럴 수밖에 없냐하면, 생활문화가 활성화 되면서 동아리가 많이 육성되는데, 그 동아리들이 지역 내 축제를 가면 의례적으로 일정 금액을 준다. 그러다보니 어딜 가면 의례적으로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연합회

그럼 수익이 (식비 형식으로)발생되면 어떻게 사용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인가?

일단 보고체계 상에서는 안하고, 자체수익이

라고 내재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연합회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하면 수익까지 모두 사용해야하는 행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게 되는 거다. 얘기가 나왔으니 경기문화재단의 경우는 서류가 간소화되는데 문화원연합회는 점점 더 늘어나는지 모르겠다. 교육일지, 증거사진 등 적은 금액에 서류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하고 싶지 않을 정도다.

공모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시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에 맞춰서 서류를 작성해야한다. 3년 전부터.

봉사단은 서류에 강사를 어르신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 어르신 사업은 담당자가 없다. 모든 서류를 어르신들이 작성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외부에 나갈 때는 사례비를 받는 경우, 봉사인 경우 등 금액까지 정확히 미리 말을 하고 있다.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아서 관리하고 있고 체험비는 재료구입에 쓰고 있다. 하지만 그에 필요한 서류작업은 제가 다 하고 있다. 공연팀은 난타채 등 보수용품을 구비하는데 쓴다.

그러다보니 장르가 예술 쪽이나 실제적 비용

이 발생하는 쪽으로만 운영된다. 앞으로는 인문학이나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필요로 할텐데 그런 장르는 수익이 발생 될 가능성이 적다. 앞으로 이 대안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가 고민이 된다.

도연합회 전국에 228개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원에서 뭐하느냐라는 질문이 문화부에서 왔을 때, '이런 것을 합시다'라고 말하는 문화원이 있었다. 이른바 스타문화원들이 있는데, 경기도에는 이런 문화원이 없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재미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분명 있다. 의왕의 온에어 영상의 경우 지역의 이야기를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라는 주제가 있다. 영상교육에 전문장비, 기술이 필요하다면 지원하고, 지역에 있는 이야기를 어르신의 시각으로 파악한 것들을 유튜브 등 매체나 미디어를 통해 발신하는 것은 매력적인 것 같다.

영상은 사실적인데 어떤 사람이 주가 되어서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다르게 들어가게 되는 거다.

도연합회 그러니까 어르신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르신들이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다. 전문적인 영역은 매체를 빌려서 해 주고 어르신들이 집중해야하는 부분은 의왕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르신들의 시각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들이 모아져서 발신이 된다면 매력적인 사업이 될 것 같다. 인형극, 잉벌로 밴드, 합창단, 효 큐레이터, 전통주들이 있다. 이것을 왜 하는가에 대한 매력적인 캐치프레이즈가 필요하다. 왜 합창이어야하나 라는 부분이 필요하다. 한 줄로 이 사업이 필요한 매력을 어필할 수 있어야한다.

나도 강릉문화원이 궁금했었다.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 한 직원이 공모사업창구를 열어놓고 있더라. 어떤 기관에서 어느 공모사업을 하는지를 알고 있더라. 단위가 큰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효율성이 좋았다. 단위가 높은 사업은 시와 연관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자면 관계가 좋아야한다. 지금 문화원의 역량으로는 직원들이 거기까지 감당하기가 힘들다.

강릉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미디어 활용된 홍보를 참 잘하고 있는데, 그건 전략인 것 같다. 문화원들이 하고 있는 지역정체성이 내제된 사업들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실무자들은 갑자기 뽑아내고 만들어 내는 것들이 아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니까 기사도 안내, 방송도 안해, 자기 PR을 할 시간이 없다. 올해부터는 시민기

자단들에게 도움을 요청 할 것이다. 생활 문화플랫폼은 그걸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 강릉은 미디어 활용을 정말 잘한다. 단오제나 이런 것들이 규모가 커서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크게 되곤 하는데, 어르신 문화학교는 사실 방송같은 것이 필요하다. 기자들을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 경기도는 31개 문화원이니까 10개 단체당 한사람의 기사를 붙여준다든지, 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다. 문화원은 홍보에 신경 쓰지 않고 일만 할 수 있도록...

강릉은 미디어 센터가 따로 있지 않나?

방송미디어 센터가 다 있다. 강릉은 그쪽 자체에서 그것을 잘 활용한다.

도연합회

2017년도에는 스태프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자. 아해박물관의 효규레이터를 스태프프로그램 으로 밀어주기를 한다면, 서로 현수막을 걸어준다든지 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르신 교육프로그램. 어르신 들께 이 사업에 대해서 알리는 프로그램 이나 교육을 하는 건 필요할까?

참여하시는 분 중에 3년차 이상 되시는 분들을

다 모여서 4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하면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교류의 장이 될 것 같다.

도연합회

54개 프로그램이니까 각 프로그램당 1명씩만 보내 주시면 54명이 모여서 기획자교류 같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1명은 주관적 판단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되고 2-3명이어야 한다.

기획자교류 1차 워크숍 때 단원 한 분이 같이 오셨었는데 가시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지원만 받고 끝나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필요한 것 같다.

도연합회

능동적, 자발적, 자생적 문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려면 그런 기회도 필요할 듯하다.

어떠신가?

어르신 의식변화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전달하는 것 보다 훨씬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좋을 것 같다. 정보교류의 기회도 될 것이다.

내부에서는 의지하려고 하시지만 외부로 나가시면 태도가 달라지신다. 필요하고, 잘 하실 것 같다.

도연합회

그럼 내년도에 어르신 보내주시는 것으로 알겠다.

지금과 같은 기획자교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얻어가고, 서로의 어려움 점을 이해하고, 당장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공감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기는 것 같다.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갑자기 이름과 연락처만 아는 것 보다 이야기를 나눠봤던 경험이 있으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도연합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사업은 이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는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2016 경기도 어르신사업 2차
워크숍 중 강의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문학평론가 고영직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문화원이나 다른 단체에서 진행하고 계신데,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본질은 무엇일까? 핵심은 '이야기'라고 본다.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이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현장을 보면 활동가사업이든 기획자사업이든 콘텐츠사업이든 일자리 사업이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경우 몇 년 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동어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운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특히 외부에서 보면 더 쉽게 보인다. 자폐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이 당면한 문제점 인 것 같다. 이걸 어떻게 전환해야할지 고민인 것 같다. 지금의 프로그램 진행은 대체로 기능강습위주의 프로그램이다. 나쁜건 아니지만 기능강습만 하는 것이 문제다.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에서 2016년도 기획자교류를 기획할 때 현장이 왜 이렇게 안바뀔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기획

자 뿐 아니라 강사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결국 강사들이 바뀌어야한다. 노인, 노년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 교육의 질은 강사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고 싶다.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참여하는 어르신뿐 아니라 선생님 한 분 한 분에게도 해당된다. 이런 질문을 드린다. 문화원, 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에 ‘내가 노인이라면 참여할 수 있을까?’

근자감이 무엇인지 아는가?

저는 근자감을 근육, 자신감, 감수성으로 바꿨다. 몸과 마음과 감수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대흠이라는 시인의 아름다운 위반이라는 시를 읽어보겠다. 버스기사와 노인과의 이야기를 쓴 시인데, 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

아름다운 위반

이대흠

기사 양반! 저쪽으로 조간 돌아서 갑시다
어떻게 그란다요 버스가 머 택신지 아요

아따 늙은이가 물팍이 애링께 그라제
 쓰잘데기 읊는 소리 하지 마시오
 저번착에 기사는 돌아가듬마는……
 그 기사가 미쳤능갑소

노인네가 갈수록 눈이 어둡당께
 저번착에도
 내가 모셔다드렸는디

첫째 연에서 평풍하듯이 대사가 펼쳐져 있다. 시골 간이 버스에서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시골어르신이 세워달라고 하는 내용이다. 물팍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는가? 무릎이라는 뜻이다. 이 시의 의미는 두 번째 연이다.

‘노인네가 갈수록 ~~~~~’ 마치 버스기사가 혼자말 하듯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모셔다 드렸고 지금도 모셔다 드렸다는 이야기다. 나는 이 시의 두 번째 화자가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획자나 강사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 물팍이 애린 어르신은 버스정류장에 내렸을까? 이 시의 제목은 ‘아름다운 위반’이다. 이 부분이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마음의 스탠스(stance)이다. 이것이 과연 현장에서 잘 되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는 어르신을 프로그램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를 이야기 하고 싶다.

올해 7월에 읽은 소설인데 프랑스소설 카타리나 잉엘만순드베리라는 노인작가의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라는 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메르타할머니인데 노인요양소에 거주하는 전직

체육교사 출신의 79세 할머니이다. 이분이 요양소생활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다보니 감옥에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한다. 요양소의 은방울꽃합창단 친구들과 함께 노인강도단을 결성해 박물관의 그림을 훔치고, 은행도 털고 하면서 외국으로도망을 친다. 노인요양소의 생활이라고 하는게 전부다 의존하는 삶을 산다. 그런 것에 대한 의미인데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서의 중요한 것이 '의미'라고 생각한다. 프로그램의 과정, 설계 모든 것에서 어르신들이 주도성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경우 강사가 끌고 가는대로 움직인다. 하물며 어떤 강사는 원장이 몇 번 바뀌는 동안에도 변하지 않고 한 강사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현장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기획자 탓만 할 수도 없는 것이 대부분 문화원의 직원이 2.5명밖에 안된다. 온갖 접시를 돌려야(일을 다 해야)하니 하나에 집중할 수 없어서 때로는 접시가 한 두 개씩 깨지기도 한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메르타할머니가 앞부분에서 하는 얘기는 상당한 메시지를 갖는다. 전직 체육교사였고 사회정의에 대해서도 상당한 활동을 했던 분이다. 그런 분이 “여기 요양소에 들어온 이후로는 이상할 정도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찌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변해버렸을까? 여기서도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한다. 실제로 소설을 쓴 할머니 작가분이 요양소를 다니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인을 폄하하고 경멸시하는 사회문화에 대해서 꼬집으려고 쓴 작품인 것 같다. 이 소설을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접목해 본다면, 단순히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참여하는 어르신들과 주도성을 공유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는게 필요한 것 같다. 어린이들도 주도성을 가졌을 때 존재감을 가지고 보람을 찾게 되는 것처럼 프로그램 전반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가 중요하다.

특히 동아리 활동가사업 뿐 아니라 콘텐츠나 일자리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당신의 이야기. 이야기라는 부분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가 필요하다. 조나선 갓셜(Jonathan Gottschall)은 인간은 호모픽투스(Homofictus: 이야기하는 인간)라는 말을 한다. 문화예술의 본질은 이야기이다. <스토리텔링 에니멀>이라는 책도 썼는데, 음악이나 장르화된 기능강습으로 왜 빠질까? 이것은 매개일 뿐 다른 이야기를 꼬집어 내야 한다. 매마수에서 오카리나하는 어르신들이 공연을 하는데 그걸로 끝이다. 그 다섯명의 어르신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 과거의 삶에서 어떤 이유로 이 악기를 하게 됐는지의 이야기가 있을 때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게 되는데,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 이외의 것은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개별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노인일반이라는 덩어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이성(singularity)을 꼬집어내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갓셜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식량과 인간공동체'라고 한다. 인간 본질적인생존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야기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머릿속은 바쁘게 돌아간다는 말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런던시에 폭탄을 던져서 홀랜드하우스라는 도서관이 잿더미가 되었다. 이곳에서 시민들이 서가에 있는 책을 가져가는 사진이 있다. 책을 왜 가져가는 것일까? 사람은 아무리 가혹한 상황에서도 이야기를 찾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찾는다. 그건 나는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싶은가, 일부이고 싶은가를 찾게 된다는 거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이다. 프로그램 종료 후 어떤 이야기를 그 안에서 찾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단적으로 볼프랑 보르헤르트(Wolfgang Borchert)라는 작가가

쓴 짧은 소설엔 <밤에는 쥐들도 잠을 잔다>라는 소설이 있다. 9살 위젠이라는 아이가 폭격으로 무너져버린 잔해 앞에서 주그리고 울고 있었다. 어떤 아저씨가 왜 울고있느냐고 묻자 건물더미 밑에 부모님이 들어가 있는데, 쥐들이 파먹을까봐 지키고 있다라고 했다. 아저씨가 말하기를 “위젠아 선생님이 그런 말씀은 안하시던? 쥐들도 밤에는 잠을 잔단다.” 과학적인 사실과 무관하지만 그 말에 아이는 자기의 고통스러움 속에서 세상을 향해 한발짝 나아갈 힘을 얻는다. 참여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써나가기를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기획자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그들을 어르신 덩어리가 아닌 개별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그만큼 이야기는 나를 살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시 한편을 읽어보자.

점심 비빔밥

허수경

교실에는 작은 석유난로가 있었다. 겨울이면 그 난로 옆에 도시락을 두었다. 아침에 도시락을 그렇게 난로 곁에 두면 양은 도시락 속에 든 밥은 학교까지 오느라 찬바람을 맞고도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다. 사학년 땐가, 우리 반 담임선생님은 도시락 반찬으로 아이들 집안의 빈부가 가늠될되는 게 보기 좋지 않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밥하고 가져온 반찬하고 큰 양동이에 부어 같이 비벼 먹자.” 모두 도시락을 내어놓았고 가지고 온 반찬도 함께 양동이에 부었다. 비벼서 서로 나누어 먹었다. 비빔밥을 먹다보면 선생님 생각이 난다. 굶는 아이들을 위해 도시락 다섯 개를 가져오셔서 양동이에 붓던 처녀 선생님.

시에 등장하는 처녀선생님이라고 표현되는 대상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발상은 천박하다.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의미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사람의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다.

노년에 관한 다양한 문화적인 텍스트를 눈여겨 보시면서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이 되는지 연결시켜보려는 시도도 일상에서의 공부법이다.

브라질에 꾸리찌바라는 도시가 있다. 박용남의 <꿈의 도시 꾸리찌바>라는 책이 있는데, 이 도시에서 운영하는 수업의 타자연습 교재에 이런 시가 있다고 한다.

당신이 울고 싶을 때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나는 당신과 함께 울어줄 수 있다.

당신이 웃고 싶다고 느낄 때 나에게 말하라.

그러면 우리는 함께 웃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필요치 않을 때도 역시 나에게 말하라.

그러면 나는 누군가를 찾을 수 있다.

독수리타법으로 타자를 치는 동안 이 시에 대해 천천히 생각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 곁에 있어주겠다는 메시지를 잘 설명해 준다.

결국 사람은 다양한 것이다.

올해 화제가 된 책 중 이스라엘 작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다. 내용은 대체로 공감하지만 16세기 이후 지금까지 역사를 백인남성의 시각으로 서술한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들테면 신석기 시대를 빅히스토리라는 관점에서 쓴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가 된다. 만 년전쯤 인구폭발이 일어났다. 하라리는 책에서 '우리는 밀을 경작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밀이 인간을 길들였다'라고 바라본다. 그런 부분은 새로운 시각인데, 그 무렵 문화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많은 인류학자들이 정의한다. 흔히 문화의 발생이론을 얘기할 때 '할머니 가설'을 말한다. 그 시대의 할머니들은 일종의 잉여 인간들이다. 잉여인간이 된 할머니들은 자기 손주만 돌본 것이 아니라 옆집 아이까지 함께 돌보면서 문화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과연 할머니들한테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특히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할머니들한테 농촌과는 다르게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최근에 할머니들이 쓴 시들이 꽤 나왔다. 충북 옥천 안내면에 어머니학교라는 곳이 있다. 여기는 졸업이 없다. 입학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죽어야 졸업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자치로 운영하고, 프로그램도 강사주도가 아니라 참여한 할머니들이 회의를 해서 배우고 싶은 것을 결정하면 강사모집을 한다. 문화원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작년에 안양문화원 현장모니터링을 갔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이 기존 강사를 다 정리하고 새로운 젊은 강사를 영입해서 변화가 생겼다. 오래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머니학교의 형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경기문화재단의 웹페이지 지지봄봄에 보면 옥천신문의 권단이라는 기자가 어머니학교에 대해 상세하게 취재를 해 놓았다. 참고하시라. 결국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다. 일개 문화시설에서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정책사업의 설계자체를 고쳐야 할 필요도 있다. 인간을 기능적으로 파악하는 부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 시에 보면 시를 잘 쓴 것은 없지만 지역과의 연계, 마음속의 이야기를 끄집어 내는데서는 주목할 만하다.

경북 칠곡에서 작년에 <시가 뭐고>라는 시집을 냈다. 6-7년 동안 한글교실에서 한글을 배우신 어르신들이 쓴 시 몇 백편 중 100편을 선정해서 시집을 냈다. 그 중 몇 편을 보겠다.

시가 뭐고

소화자

논에 들에
 할 일도 많은데
 공부시간이라고
 일도 놓고
 헛둥지둥 왔는데
 시를 쓰라 하네
 시가 뭐고
 나는 시금치씨
 배추씨만 아는데

아름다운 위반에서는 전라도사투리의 힘을 맛봤다면, 이 시에서는 경상도의 힘을 본다. 이런 시집이 일반적인 문해교실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결국은 주도성이 중요한 것 같다.

올 해도 시집을 또 한권 냈는데 주민강사들이 30명이 된다. 작년에 시집이 인기를 끌어서 그런지 이 분들이 좋은 시, 아름다운 시, 예쁘게 쓴 시를 요구하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삶의 지혜들이 시에서 빠지게 된 것 같다.

올해 나온 시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시를 하나 더 소개 하겠다.

내 기분

이웃집 할망구가
'가방들고 학교간다' 놀린다
지는 이름을 못쓰면서
나는 이름도 쓸줄알구
버스도 안물어보구 탄다
이 기분
니는 모르제

친한 친구인 할머니를 디스 하는 내용이다. 이런 시가 잘 쓴거라고 생각한다. 할머니의 경험치들이 들어 있는 것인데, 기존 시인들의 시를 흉내 내려고 한 예쁜 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지금의 문제가 그것이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서도 강사들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다. 강사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의 변화는 쉽지 않다.

로마노 과르디니 (Romano Guardini)라는 독일 신부는 나치 체제에 저항하면서 쓴 책에서, "변화의 와중에 있는 인간에게 가장 커다란 위험은 바로 생이 든 것이다."라고 말한다. '생'이라는 것은 인생. 즉 평범한 인간이다. 세속화 된 인간이란 뜻인데, 니체가 최근에 쓴 말이기도 하다.

문화예술의 가장 큰 적은 상투성이다. 이 상투성이 우리의 기획 과정에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김천문화의집에 가면 1070합창단이 있다. 10대 아이들과 70대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합창단을 꾸렸다.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는 세대간 통합의 고려가 전혀 없고, 그들만의 문화로 취급되고 있고,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는 형태다. 이걸 위험한 일이고 깨야 하는 일이다. 김천문화의집에서 10대 아이들을 할머니들이 엄청 구박했다고 한다. 떠들 권리와 의무가 있는 아이들을 할머니들은 견디기 힘들어 했는데 나중에는 크게 달라지고 서로 이해하는 곡절들을 겪으며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도 하고 있는데 어르신사업의 구조에서 시도하기는 어렵지만, 지역과의 연계차원에서 단순하게 자기의 준비된 과정만 보여주는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과정을 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동대문문화원의 왕언니 밴드의 경우는 많이 알려졌다지만, 할머니들이 세대별로 공연 레퍼토리를 준비하는 것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또 서울극단에서 영자의 칠순잔치라는 연극공연이 큰 화제가 됐는데, 하이서울에서 폐막전으로 공연되었다.

같이 준비하고 사연을 꼬집어내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공동의 문화적인 목표를 향해서 지역과 연결되고 그 안에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포함 시킬까의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기도 부천에 카툰캠퍼스라는 단체의 도움으로 진행된 시니어 만화창작학교는 어르신들이 만화로 자서전을 쓰는 프로그램이다. 결국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상투화된 것은 불가피 할 수 있겠지만,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당신의 이야기를 꼬집어내고 마을에서 예술을 통해 표현하고 누군가가 들어주는 선순환적인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가?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하다.

몇 권의 책을 소개하겠다. 기획자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되어 추천한다.

로마노 과르디니 (Romano Guardini)라는 독일 신부의 <삶과 나이>라는 강연록이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죽음에 이르기까지 연령별로 각 세대에는 인생의 목표가 있고 인생의 목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노년편에 보면, ‘노년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진다’라고 했다. 노년의 이야기를 경청하면 기획이라든가 프로그램 진행에서 상당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어떻게 어르신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끄집어 낼 수 있고, 하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좋은 기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은 주도성이다. 참여하는 기획자와 강사의 변화를 위해서는 수업비평이 필요하다. 단순 모니터링이 아닌 수업비평으로 질적인 도약이 필요하다.

교육의 질은 강사의 질을 절대로 넘지 못한다고 서두에서 말했다. 그 점을 우리가 고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본질은 티칭의 관점이 아니라 러닝의 관점이다. 그래야 참여하는 수강생의 변화를 끌어 낼 수 있다. 단위 문화시설에서 모두 감당하기 힘든 것을 안다. 특히 인력의 부족은 크다. 그런 두려움은 있지만 담대하게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를 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현장의 변화는 기획자교류워크숍에 참여한 강사들이 오셔야 할 것이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사람은 조금이라도 변할 수는 있다. 작지만 조금 달라지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변화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 질 것이다.

강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안에 있는 봉투를 꺼내시면 어떤 이야기가 들어 있을 것이다.

5분정도의 시간을 드릴테니 읽어보시고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의 발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다.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2)

권정생

도모꼬는 아홉 살

나는 여덟 살

이학년인 도모꼬가

일학년인 나한테

숙제를 해달라고 자주 찾아왔다.

어느 날, 윗집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도모꼬는 나중에 정생이한테

시집가면 되겠네

했다.

앞집 옆집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두 쳐다보는 데서
도모꼬가 말했다.

정생이는 얼굴이 못생겨 싫어요!

오십 년이 지난 지금도

도모꼬 생각만 나면

이가 갈린다.

재미있었고, 인간의 본능적인 생각이 보였다. 1-2학년의 어릴때의 생각은 단순하고 원초적이다. 도모꼬는 이기적인 아이라는 성향이 느껴지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하고 계신 이 분도 내공을 참 못 쌓았다는 생각이 든다. 작은 일 하나에 어르신들도 참 예민하신데 그런 부분을 털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강사

이 시의 맨 마지막에 반전이 있다. 실제로 이가 갈려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제목으로 유추해 보면 도모꼬라는 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 또한 인생에서 마주친 사연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과정에서 어떻게 끌어내고 감정을 그대로 표현 할 수 있게 만드는 자리를 깔아줄까? 하는 차원의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장화홍련전의 경우라면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빗대어 자기의 삶을 자연스럽게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찐레꽃은 피고

신경림

이웃 가게들이 다 불을 끄고 문을 닫고 난 뒤까지도 그애는 책을 읽거나 수를 놓으면서 앉아 있었다. 내가 멀리서 바라보며 서 있는 학교 마당가에는 하얀 찐레꽃이 피어 있었다. 찐레꽃 향기는 그애한테서 바람을 타고 길을 건넜다.

꽃이 지고 찐레가 여물고 빨간 열매가 맺히기 전에 전쟁이 나고 그애네 가게는 문이 닫혔다. 그애가 간 곳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랫동안 그애를 찾아 헤매었나보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애가 보이기 시작했다. 강나루 분교에서, 아이들 앞에서 날렵하게 몸을 날리는 그애가 보였다. 산골읍 우체국에서, 두꺼운 봉투에 우표를 붙이는 그애가 보였다. 활석 광산 퇴약별 아래서, 힘겹게 돌을 깨는 그애가 보였다. 서울의 뒷골목에서, 항구의 술집에서, 읍내의 건어물점에서, 그애를 거듭 보면서 세월은 가고, 나는 늙었다. 엄마가 되어 있는, 할머니가 되어 있는, 아직도 나를 잊지 않고 있는 그애를 보면서 세월은 가고, 나는 늙었다.

하얀 찐레꽃은 피고,

또 지고,

처음에는 시가 어려웠는데, 어르신을 생각하면서 읽다보니 처음 어르신을 만났을 때의 첫사랑 같은 느낌이었다. 부모님 같은 느낌이어서 정성을 다하면 부모님께 못했던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3년을 하다 보니 그 분들이 제 속을 너무 많이 썩혔다. 특히 올해가 가장 힘들었다. 어르신들이 보기 싫어졌다. 지난주에 어르신 한 분이 단체톡방에 칭찬을 많이 해달라고 하셨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분들이었는데 나를 힘들게 했던 것만 생각하고 있었더라. 그런데 이 분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글을 보면서 모든 어르신들이 소중했었나 생각하고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어르신들에게서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강사

신경림 시인은 83세이다. 이분이 80세가 되던 해에 내신 <사진관집2층>이라는 시집에 있는 글이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첫사랑이 있고, 에로스가 있다. 참여하신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인생에 이런 드라마가 다 있고, 강하게 표출되는 분일수록 약한 부분이 있다는걸 알게 해 준다.

[산문] 내가 만약에

안도현

내가 만약에 열여덟 살 소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깨에 닿도록 머리를 기르리라. 축구를 할 때는 출렁거리는 머리카락을 고무줄로 질끈 묶어보기도 하리라.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게 무엇인지 어머니께 분명하게 말씀드리리라. 책상 앞에 앉아 식물도감을 펼치기보다는 들길을 걸으며 허리 낮춰 들꽃들을 보리라. 마음을 흔드는 여자아이를 만나면 내가 먼저 말을 건네보리라. 그 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야기하리라.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한번 만져봐도 되냐고 물으리라. 귀뺨을 맞더라도 용기를 내보리라.

내가 만약에 열여덟 살 소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버지가 읽는 신문을 매일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읽으리라. 혼자 높은 데로 날아오르기 위해 공부하지 않고 여럿이 낮은 데를 살피기 위해 공부하리라. 밥상 앞에서는 고기를 덜 먹고 채소를 더 먹으리라. 쪽지 하나 남기지 않고 이유 없이 가출을 해보리라. 기차를 타고 가다가 허름한 역 대합실 의자에 누워 날을 새워 보리라. 새벽을 데리고 오는 첫 기차를 타리라. 휴전선으로 막힌 한반도가 서글픈 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뱅글뱅글 돌아다녀보리라.

내가 만약에 열여덟 살 소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최신 휴대폰이 없다고 안달복달하지 않으리라. 자전거를 타고 공중전화가 있는 곳을 찾아가리라. 목덜미에 땀이 흐를 때까지 친구네 집을 향해 뛰어가리라. 숨 가쁘게 떨리고 설레는 시간들이 나의 편이므로 울고 싶을 때는 크게 울리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회적역할, 위치, 성
때문에 하지 못한 일들, 평상시에는 하지

못했던 용기가 필요한 일을 과거로 돌아가면 해보고싶다는 내용이다. 우리도 가끔 몇 살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을 받곤 한다. 내 경우에는 한 번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이 나이까지 자신감 있게 살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 시기마다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마음에 드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적극적으로 살았다. 만약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과거로 돌아가기 보다는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현명하게 살고 싶다. 어르신과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현재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보기에 노화라는 것은 아픈 것도 아니지만 아름답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걸 알았고, 공감했다. 내가 무슨 일을 잘 할 수는 없더라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사

안도현의 <발견>이라는 책에 수록된 글이다. 읽었을 때 제 왼쪽 가슴에 있는 16세를 끄집어냈던 기억이 있다. 세월호 사건에 희생된 아이들을 생각하며 쓴 글이다. 꼭 그렇게만 읽지 않아도 어르신들에게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을 환기시키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골라봤다.

노인이 되는 방법

안주철

혼자 밥을 먹어도 외롭지 않다. 식탐 때문에
 혼자 밤늦게 산책을 해도 두렵지 않다.
 미인이 쓰러져 뒹구는 술집 근처에 살기 때문에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말할 사람도 없고
 애써 기억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도 심심하다. 친구는
 사라진 일자리에 빠져 있고 나는
 옆 테이블에 앉은 미인의 다리가 궁금해서
 아내와 통화를 해도 할 말이 없다. 애인이라도
 생겼다면 거짓말이라도 정성스럽게 할 텐데.
 여행지에 도착해서도 신기한 것이 하나도 없다.
 사진을 몇 장 찍으며 나를 속인다.

혼자 밥을 먹으면 눈물이 난다. 식욕이 없어서
 혼자 산책을 하면 외롭다. 상점이 모두 문을 닫아서
 혼자 영화를 보면 구석에 가서 울고 싶다.
 등이 갈라지면서 또 하나의 내가 기어나와
 갈라진 등을 두드리며 나를 위로해줄 것 같아서

혼자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 집을 지나친다.
 더 오랫동안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년의 외로움이 절절하다. 개인적으로 어릴 적부터 일찌감치 애늬은이가 되었고, 중년이 되었고, 벌써 노년이 된 기분이다. 그래서 이 기분을 너무너무 잘 알 것 같다. 저도 간과한 것이 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았나 하는 것이다. 노인은 한 세대를 열정적으로 살았을 뿐이지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치부한다. 그렇게 치부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끔찍한 외로움이다. 젊은 세대가 앞날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어르신들은 젊은 날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이 시에서 마지막 연이 가장 인상 깊다. 어르신들은 삶이 가득 느껴지는 감동을 그리워하고 있고, 여전히 멈출 수 있는 이상향을 갖고 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성숙하지만 성숙함 안에 외로움과 권태와 자유가 동시에 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젊은 사람들이 간과한다는 것이다. 내가 80, 90이 되어도 나는 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상향을 영원히 희구하는 존재로서 이해해야지 다 살았으니까 그만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젊은 사람들이 다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르신들은 진부하다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그런 편견을 어떻게 깨야 할 것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반성하고 공부하면서 늙어가고 있다.

강사

안주철 시인의 <다음 생에 할 일들>이라는 시집에 수록된 시였다. 가난을 알고 외로움을 헤아릴 줄 아는 시인인 것 같다. 시에 녹아 있는 내용을 시보다 더 의미 있게 해석 해 주셨다. 최근 NHK 방송사에서 낸 책 중 <노후파산>이라는 책을 읽었다. 일본의 노후 역시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이를테면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 사회복지가 집이 있거나 예금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는데 일본에만도 300만명이 된다. 예금제로가 되는 상태를 매우 두려워하는 일본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의 상황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NHK 기자가 쓴 글을 보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외로움을 견뎌 낼 수 있는 말벗, 즉 연결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한다. 여기 노인복지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텐데 어찌면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문화원에서 오신 분들과 노인복지관에서 오신 분들이 또 다를 것이다. 문화원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생활이 많이 힘든 분들은 아닌데 노인복지관은 그런 경우도 꽤 있다. 이런 노인에 관한 시각의 문제를 안주철 시인의 시에 빗대어 보았다.

멋진 해설 감사드린다.

이레 속고 저레 속고

이분란 (경북 칠곡 할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3학년엔
 아버님 살든 집을 다시 짓다가
 다쳐서 병원에 수술을 받게 됐다
 병원생활 일년을 하다보니
 엄마가 하신 말씀이
 우리 분란이 학교 고마도라
 우리집 살림을 사라야 댄다
 여자는 공부를 안 해도 댄다 하셨다
 학교로 안 가니 너무 맘이 아파 밥도 안 먹고
 누워서 우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대로 안됐다 울고 있으니 엄마가
 아버지 병원 퇴원하면 학교 보내주겠다
 그 말에 속았다 이레 속고 저레 속고
 한평생 다 갔다

늦게 공부하시는 분이 글을 배우고 쓴 시인
 것 같은데, 제목이나 글에서 보이듯 예전
 어르신들은 배움에 대한 갈망이 크다. 사실 제
 때는 너무 배워서 싫은 경우도. 그래서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런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다. 얼마 전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난다. 장수사회가 되면서
 100세까지 사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60세
 부터 실버, 노인이라고 칭하지만 이분들은
 60세가 젊은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때부터

무언가를 배웠다면 90세까지 30년을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무언가에 전문가가 되어있겠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가 말하는 실버가 젊은이 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막판이 저렇듯 타오른다면

정양

가오내 단풍 구경을 다녔다
 단풍잎만 단풍이 아니다
 물드는 건 다 단풍이다
 정년퇴임한 가을이 산마다 곱다

얼레덜레 물들던 산그늘이
 알록달록 수런거리던 산자락이
 골짜기마다 마침내 울긋불긋 타오르거니
 새 울음 소리 눈물 없듯
 골짜기들 타올라도 연기 없거니

막판이 저렇듯 타오른다면
 사람살이 얼마나 아름다우랴
 타오르는 골짜기들이
 소리도 눈물도 연기도 없이
 막판의 가슴을 훑어내린다

시가 어렵다. 모든 인생의 절정이 아름답지
않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강사

이 시인은 76세 정도 되었다. <헛디디며 헛짚으며>라는 시집에 수록된 시다. 나이들에 관한 성찰, 사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만나는 어르신들이 그런 분이 분명히 계실 것이고, 그런 분들처럼 잘 익어가고 잘 타오르길 바라는 마음이다.

시 안 쓰는 시인들

김해자

무의도 섬마을에서 문학교실을 하는데, 갯벌에서 박하지 잡다 오고 산밭에서 도라지 캐다 오고 당산에서 벌초하다 오고 연필 대신 약통 메고 긴 지팡이 짚고 왔습니다

저 고개 너머, 자월도 살던 대님이라고 있어
키가 작달막하고 얼굴 모양 가름한 게 여자는 여자여
내가 죽으면 어느 누가 우나
산신령 까마구 드시게 울지요
일본 말루다 그렇게 슬픈 노랫 했어
첩으로 살다 아이 하나 낳구는
덕적으로 시집가 죽었어

공중에 펼쳐진 넓디넓은 종이에 한 자 한 자 새겨지는 까막눈이 시 속으로

대님이가 까악까악 날아왔습니다 이 땅에 시 안 쓰는 시인 참 많습니다 명녀
아지 은심이 숙희 승분이 경애 춘자 상월이 이쁜이, 시보다 더 시 같은 생애
지천입니다

우리나라 등 세계에 많은 시인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고매한 정신과 책상에 앉은
시간에서만 대단한 시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삶에 찌든 인생이나
노동자들도 그보다 더 좋은 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강사

인천 앞바다에 무의도라는 섬이 있다. 김해자 시인이 거기서 몇 년
전에 섬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프로그램을 참여 하면서 경험을 쓴
것이다. 칠곡 할머니 같은 분들을 일컬어 시 안쓰는 시인들이라고
표현했다. 그런 분들을 참여시키고 그 안에 있는 시들을 끌어내는
것이다. 교육, 가르친다는 뜻의 에듀케이션(education)의 어원은
라틴어인 에듀케레(educere)라는 말인데 그 말은 무언가를 끄집어
낸다는 뜻이다. 끄집어내는 것이 교육이다. 기능은 단지 수단일
뿐이다. 선생님들이 기능교육을 넘어선다면 질박한 삶의 이야기가
언어로 무용으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내 이름은 문학의 밤

이상국

내 이름은 문학의 밤입니다
 친구들 모임 같은 곳에 가서
 누군가 "아이, 문학의 밤, 한잔 받아" 하면
 나는 "미친 녀석" 하면서도 덩석 잔을 받습니다

나의 앨범 속에는 유난히 밤이 많습니다
 별이 빛나던 밤이나 눈보라 치던 밤 혹은
 너 아니면 죽고 못 살던 밤
 그리고 시체 같은 밤도 있었으나
 나는 그냥 어둑한 길을 혼자 걷는 밤이 좋았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문학의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부지런해도 아직은
 문학의 아침이나 문학의 저녁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문학은 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의 밤'은 '문학은 밤'과 같은 말이어서
 시인들은 대체적으로 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차마 잊지 못할 밤이 있는가 하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밤도 있게 마련입니다
 많은 밤들이 물결처럼 왔다가는 스러져가고
 나에게서는 문학의 밤만 남았는데
 아직도 그 어둑한 길을 혼자 다닌다고
 친구들은 일부러 즐거운 술잔을 건네는 것입니다
 나는 문학의 밤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문학의 현실을 문학의밤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되었다. 어르신들의 문화예술도 아직까지는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이 시인처럼 어르신들도 묵묵히 해나간다면 문화의 아침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사

저는 내 삶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의 차원에서 생각해봤다. 문학은 밤이라는 표현은 승리하고 빛나는 것이 아닌 낮고 어둡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인데, 스스로 선택한 그 삶에 대한 당당함과 자부심을 확인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꿈보다 좋은 해몽에 박수 드린다.

하늘접시

이정록

시골 어머니를 위해 누님은 에어컨과 스카이 라이프를 달아드리고 아우는 텔레비전과 청소기를 사드렸는데, 말아들인 나는 병아리 눈곱만큼 나오는 전기료와 병어리 전화세 내드리는 게 전부다

그런데 누님은 누님이시다

누님이 달아드린 그 위성 안테나가 치매 걸린 광줄땃, 풍 맞은 대밭머리

아주머니, 수다와 버캐가 전문인 박달자 할머니까지, 동네 과부들을 어머니 방에 다 모이게 하는 것이다 모두 모여 별건 대낮에 홀러딩 식식거리는 영화를 꿀깍꿀깍 보고 계신다 이 집 텔레비는 원제 저리 다 벗겨 놔다? 어이쿠 어이쿠 저 양코배기 방아 찧는 것 좀 봐 풍 맞은 몸으로 흥내내려니 반쪽만 예로배우다 굳은 한쪽 팔다리느, 주책 좀 그만 떨라니까! 젊어 떠난 서방이 엉거주춤 옷셔 추슬러주는 듯하다 풍 맞고야 앞서 간 남편과 몸을 섞다니,

누님은 역시 누님이시다

함박꽃 틀니들, 공옥진 초청공연이 따로 없다 웃음바다에 둥둥둥 떠가는 치매의 복사꽃잎들, 떠돌이 약장수에게 약 들여놓는 일도 없어졌다 이제 나는 노파 전용 영화관의 만아들이다 돌아가시기도 전에 벌써 스카이라이프이라니! 짠하기도 하지만, 누님은 역시 누님이시다 녹슨 처마 끝 천국의 접시여 하느님도 세상 재미가 쏠쏠하신가 새털구름 불과한 하늘접시여

저희 부모님세대는 케이블티브이가 없어서 채널이 KBS밖에 없었고, 농사 후 뉴스만 보시고는 주무시는 생활을 반복했었다. 시 안에서 누님이 케이블을 달아드리면서 어르신들이 야한 영화를 접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주책 맞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사실 정신이 나이를 먹는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누님은 누님이시다' 라는 시어에서 누님이기 때문에 누님이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들의 마음을 캐치한 부분이라고 생각 된다. 기획자들에게

누님의 역할을 해서 어르 신들께 인생의 새로운 맛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해야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강사

이정록 시인이 어머니들께 인기가 많다. 자기의 경험을 쓴 시다. 할머니라고 해서 에로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문화프로그램은 너무 범생이 필이 나는 것이 아닐까? 어르신들이 진짜 요구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기쁨의 증진, 기쁨의 강화와 관련되는데 어르신 프로그램에서 과감하게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지금의 궤도에서 조금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윤여정씨 영화 <죽여주는 여자>를 좀 보시고, 노인의 실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다르게 바라보는 공부도 필요하다.

택배 상자 속의 어머니

박상률

서울 과낙구 실님이동……. 소리 나는 대로 꼬불꼬불 적힌 아들네 주소. 칠순 어머니 글씨다. 용케도 택배 상자는 꼬불꼬불 옆길로 새지 않고 남도 그 면에서 하루 만에 서울 아들집을 찾아왔다. 아이고 어무니! 그물처럼 단단히 노끈을 엮어 놓은 상자를 보자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터져 나온 곡소리. 나는 상자 위에 엎드렸다. 어무니 으쩌자고 이렇게 단단히 묶어놔소, 차마 칼로 싹둑 자를 수 없어 노끈 매듭 하나하나를 손톱으로 까다시피 해서 풀었다. 칠십 평생을 단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고 단단히 묶으며 살아낸

어머니. 마치 스스로 당신의 관을 미리 이토록 단단히 묶어 놓은 것만 같다. 나는 어머니 가지 마시라고 매듭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풀어버렸다. 상자 뚜껑을 열자 양파 한 자루, 감자 몇 알, 마늘 몇 쪽, 제사 떡 몇 덩이, 풋콩 몇 주먹이 들어 있다. 아니, 어머니의 목숨들이 들어 있다. 아, 그리고 두 홉짜리 소주병에 담긴 참기름 한 병! 입맛 없을 땐 고추장에 밥 비벼 참기름 몇 방울 쳐서라도 끼니 거르지 마라는 어머니의 마음.

아들은 어머니 무덤에 엎드려 끝내 울고 말았다.

저는 자신의 삶을 많이 포기하고 살고있는 모습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을 대입해봤는데, 정작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다

강사

맞춤법도 다 틀리게 쓴 어머니의 글씨 안에 담긴 물품들을 보면서 어머니의 삶이 담긴 관처럼 보였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위반

이대흠

기사 양반! 저짜으로 조간 돌아서 갑시다
어칭게 그란다요 빠스가 머 택신지 아요
아따 늙은이가 물팍이 애링게 그라제

쓰잘데기 읊는 소리 하지 마시오
 저번착에 기사는 돌아가듬마는……
 그 기사가 미쳤능갑소

노인네가 갈수록 눈이 어둡당께
 저번착에도
 내가 모셔다드렸는디

제목처럼 경로를 벗어나면 위반이지만,
 어르신에 대한, 노인에 대한 존경과 배려가
 보이고, 저 또한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습
 니다.(ㅎㅎㅎ)

강사

처음에는 위반이지만, 길을 가다보면 길이 생긴다라는 표현처럼
 아름다운 위반이 필요 하겠다.

매화 배움학교

도필선 (경북 칠곡 할매)

매화 배움학교 입학생 땡땡
 벌써 일년이 지나버렸네
 매일 포도밭에서 포도 송이 같이 씨름하다 보니
 포도알만 땡굴땡굴 눈에 밝히더니
 이제는 포도알이 'ㅇ'이요 포도잎이 'ㅍ' 같다

오래 살다보니
 오래 재밌는 일도 있네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매화 배움학교 선생이 되었다
 두근두근 콩닥콩닥 교실에 들어가니
 포도 송이 같이 땡글땡글한 아이들이
 나만 쳐다본다 내 얼굴만 쳐다본다
 희안하고 신기하다 내가 할매 선생님이 되었다
 오래 살다보니
 오래 재밌는 일도 있네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사실 시를 읽고 부끄러워서 발표를 안하려고 했다. 어르신문화사업의 담당자로서 행사와 서류에 밀려서 문화생활을 해보지 않았다.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겐 없었다. 현실의 생활인으로서 살고 있는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 사실 오늘 워크숍에 쉬고 싶어서 왔다. 회의에 서류에 민원이 많다. 하물며 가입도 안하신 어른신이 오셔서 문화원을 탈퇴한다고 말씀하시면 무슨 이야기든 들어드려야 한다. 사실 읽으면서 내가 어르신문화사업을 너무 오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매화배움학교 땡땡땡은 실버문화학교에 입학하셨구나, 배

웠다는 걸 읽으면 어르신문화학교에서 배우셨구나, 선생이 되었다는 아, 봉사활동을 나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마지막에 오래살고 볼 일이다... 마지막 한 줄에서 느껴지는 것이 담당자로서 어르신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획자교류사업이 필요한게 어르신담당자들이 함께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기획을 하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강사

스스로를 디스하시면서 멋지게 발표해주셨다. 이 시가 이야기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역린(逆鱗)>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중용23장을 낭독하는 것으로 워크숍을 마치겠다. 결국 멀리 있지 않다.

[산문] 중용(中庸) 23장

_ 영화 <역린> 속 상책(정재영 분)의 대사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곁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강사

연습하신 것처럼 잘 읽어주셨다. 평소 시나 글을 접하는 게 좋다. 어린이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일어나는가? 땅을 짚고 일어난다. 이것을 뜻하는 말이 '인지이도자 인지이기(人因地而倒者 因地而起)' 땅에서 넘어진 자, 그 땅을 짚고 일어나라는 말이다. 지금의 마음의 바닥을 생각하시면서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 내 눈앞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지지고 뉘으면서 함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어떤 정치인이 '저녁이 있는 삶'을 말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삶이 있는 저녁'이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다. 참여하신 어르신들에게 삶의 중요한 매듭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고, 스스로 자기에게 꾸준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마음의 담장을 허무는 시도를 한다면 더 나은 내가 되고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 경기향토문화연구소 2016년의 방향 모색
- ▶ 경기향토문화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모색
- ▶ 경기지역학포럼 - 경기 의병 이야기
- ▶ 문화원의 향토문화사업 부분의 현실진단을 통한 솔루션 찾기

IV.

경기도 문화원
지역학에 대해
논하다.

경기향토문화연구소

2016년의 방향 모색

2016년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총회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의장(이명수 소장) 작년 이맘 때 모여서, 연구위원들을 새로이 위촉했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다. 향토사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훼손되고 없어져가고 있는 자료가 많다. 동두천 에서도 문화재를 발굴, 복원하려고 할 때 자료가 미비하여 막막할 때가 많다. 우리 연구 위원들께서 논문을 작성하시다보면 자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2015년도에 우리 연구위원들께서 좋은 논문을 많이 써주셨다. 2016년도에 우리 후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논문이 나오길 바란다. 발전적인 의견이 있으면 받겠다.

성남문화원 윤종준

원고 분량으로 인하여 발간 목표량만큼 인쇄를 못하고 있다고 하니 원고 제출 분량을 제한해 주기 바란다. 연구위원님들도 그 제한을

지켜주기 바란다.

의장(이명수 소장) 논문을 작성하다 보면, 초과되는 경우가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기준을 고려하시어 작성하시길 바란다.

용인문화원 김장환

일정 분량을 지키며 작성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이다. 초과된 부분은 되도록 줄여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최근 몇 년간 일부 지역의 위원님들만 논문을 작성하고 있다. 매년 논문을 제출하는 지역 위원들이 있는 반면, 몇 년 동안 나오지 않는 위원들도 있다. 최근에 논문이 실리지 않은 지역 위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의장(이명수 소장) 논문이 안 나오는 지역은 해당 지역에 연구위원이 없거나, 여러 이유로 참여를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연구위원님들 중에는 전문가도 있지만, 내 고향을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향토사를 수집하는 분들도 있다. 연구위원님들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역 어르신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알게 된 이야기,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자료로 많은 참여 바란다.

남양주문화원 엄중오

작년에 기준하여 논문계획서를 작성하면 되는 건가? 논문을 작성하다보면 사진이나 도상자료로 인하여 분량이 늘어나기도 한다.

도연합회

논문계획서의 작성 방향은 기존과 같다. 요즘엔 저작권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도상자료 사용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잘 해주시고 있지만, 도상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거나 저작권 관련 부분은 해결하고 원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사진의 경우, 촬영이 가능하다면 직접 촬영 바란다.

원고 분량에는 도상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의장(이명수 소장) 원고 집필에 대해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힘들다. 위원님들이 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논의하자.

용인문화원 김장환

계획서 심사가 5월이지 않나. 논문계획서를 받고 심사를 하자. 논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의장(이명수 소장) 제 의견은 좀 다르다. 같은 연구위원으로서 참여를 하는데,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불편하다. 우리가 쓰는 논문이 학위 논문은 아니다. 함께 향토사를 연구하자는 의미이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용인문화원 김장환

경기향토사학은 공식적인 간행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참고를 하는 책이다. 어느 정도의 수준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량 미달의 논문이 실리게 되면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요즘엔 없지만, 예전엔 종종 그런 일이 있었다.

의장(이명수 소장) 기본적인 수준이 유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인가?

용인문화원 김장환

그렇다. 도연합회에서 논문 집필 기준을 상세히 제시하지는 않지만, 논문 작성을 할 때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 그런 것조차 지켜지지 않는다. 이미 작성하여 제출한 논문을 제외시키고 발간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사전에 심의를 통해서 걸러낼 필요가 있다.

의정부문화원 최영희

매년 각 지역의 상업사, 전쟁사, 농업사 등 공통된 주제로 진행하면 어떨까? 그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지역은 주제외의 논문을 작성해도 되지만, 매년 공통된 주제가 있으면 좋겠다.

의장(이명수 소장) 근현대사를 말씀하시는건가?

의정부문화원 최영희

고대부터도 가능하다. 조선, 고려 등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는 어떤 상업적인 흐름이 있었는지, 어떤 물자가 주로 유통되었는지를 연구하면, 체계적이고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공통 주제 논문과 일반 지역사 논문의 비율은 논문계획서 심사 시 결정하면 될 것 같다. 또한 경기도를 대표하는 간행물인데, 논문집필기준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발전적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지역 이야기도 중요하다.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 옛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은 이야기로 채집, 보존을 하면 좋겠다. 경기향토사학은 논문 집이니 논문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주제와 내용으로 작성하면 좋겠다.

성남문화원 윤종준

공감하는 바이다. 주제 설정도 몇 년 전부터 나온 의견이다. 책 발간 계획과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 되도록 논문 10편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10여 년 전에는 도저히 조정, 편집을 할 수 없는 원고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작성을 하지 않은 지역 연구 위원에게 작성 우선권을 주는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

안양문화원 오기환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연구위원들이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다. 연구위원들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지역에 꼭 필요한 연구, 아직 진행되지 않은 연구를 찾아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정 주제를 정한다면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10편으로 한정 짓는 것은 문제다. 작년에 16편의 논문이 실렸다. 올해도 비슷하게 논문계획서를 제출한다면, 그 중에서 10개만 뽑는 것인데, 다들 열심히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심사를 통해 잘린다면, 기분이 상할 것 같다. 이 자리에서 주제를 정해버리거나, 집필진 10명을 정해버리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것 같다. 5월에 논문계획서를 받아본 다음에 결정하자.

용인문화원 김장환

주제와 관련하여 꼭 그 주제로만 작성하자는 것은 아니다. 전체 논문을 해당 주제로 할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만 적용할 수도 있는 거다. 공통된 분모로 각 지역의 특성이 모아지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가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예전에 경기향토사학에서 전쟁사를 주제로 진행했던 적이 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 현대까지 각 지역의 전쟁사를 모아내서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 농업이 되었든

어떤 주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각 지역에서 지역향토사 연구 사업은 진행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가져다가 또 하나의 책을 만드는 것뿐일 수 있다. 경기향토문화연구소는 지역의 향토사학 연구를 꾀고, 엮어내야 한다. 그렇기에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도연합회

예전에 전쟁사를 주제로 진행했을 때, 전쟁사 관련 기획 논문이 5여 편 정도였고, 나머지는 다른 주제였다.

하남문화원 이강범

예산을 이유로 논문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주는 건 문제가 있다. 도연합회에서는 본 사업의 예산을 늘리는 노력을 해달라. 그리고 논문 주제를 하나로 통일해서 진행하기에는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주제와 관련한 논문이 몇 편 안 나올 것 같다.

의정부문화원 최영희

우리가 예산 타령을 하는데, 방법이 있다. 기가 막힌 논문을 써서 전국적으로 경기향토문화연구위원들의 실력을 알리면 된다. 여러분들이 좋은 논문을 내 주시면, 사무처에서 예산을 늘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경기향토문화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모색

2016년 5월 26일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워크숍에서 경기향토문화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나누는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1. 들어가며

좌장 윤종준

지방문화원은 축제, 발간사업, 학술회의 등 다양한 목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을 중추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곳은 지방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소이다. 그런데 향토문화연구 사업을 수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다.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있고 문화원장이 향토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지자체 단체장이 향토사의 중요성을 모르기도 한다. 가끔은 지자체의 예산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지방문화원의 역량이 부족하여 사업을 수행하지 못해 연구가 정체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한다면, 그 대안

중의 하나는 각 지역별로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지역의 향토문화연구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겠다.

2. 동두천향토사의 현황과 문제점

이명수

동두천향토문화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지역의 문화유적지가 훼손되어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관련 조사가 미비하거나, 왜곡된 것들이 있다. 그 사례들을 알리고자 한다.

첫 번째로 동두천 걸산동에 김좌진 참모 역할을 했었다는 김승록의 공적비가 있다. 독립열사로 1989년도에 시로부터 6백만원 예산을 받아다가 김승록 공적비를 만들고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자료가 없더라. 제가 독립기념관과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조사 위원이어서, 자료를 찾아봤다. 김좌진 장군의 참모 명단에 김승록은 없더라. 이 분에 대한 조사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

미2사단 영내에 고려 시대의 오층 석탑이 있다. 이는 원래 서울에 있었는데, 1963년 당시 미 7사단 통역관이었던 루이스장이라는

목사가 한미 우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미 7사단장 데이비드 그레이스 소장에게 기증한 것이라고 한다. 그 당시엔 우리나라가 문화재와 유물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기에 발생한 일이다. 이제는 환수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석탑 하단 부분이 훼손되어 있는데 복원도 이루어져야한다.

동두천의 대표적인 인물로 정장공 어유소(魚有招1434) 장군이 있다. 조선의 무관이었는데, 1467년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고 적개공신으로 예성군, 이조판서, 병조판서, 영의정(領議政)을 지냈으며, 많은 공적을 세운 장군이다.

향토유적 제 1호인 어장군의 사패지 경계석이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있다. 성종이 어장군과 사냥을 즐기다가, 어장군의 뛰어난 궁술에 감탄한 성종이 현재의 동두천 시 일대를 사패지로 하사하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문인석(文人石)을 세운 것이라고 전해진다고 한다. 그런데 왕이 문인석을 내려 주는 예는 없다. 전쟁 문화와 아무 관계도 없는 문인석을 잘못 옮겨 놓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어장군을 기릴 수 있는 생가터 복원이나 기마동상 건립, 관련 연구 활동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소요산과 관련된 유적, 기념물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소요산 매표소 건너편에 독립유공자 추모비가 있다. 독립유공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당시 동두천시장(市長)을 비롯하여

5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1960년부터 70년대까지 소요산 남쪽 건너 산에 규석(確石:유리원료)을 채석하는 과정에서 소요산 원형이 훼손되었다. 채석하다 남은 크고 작은 돌무더기들이 여기 저기 흙물스럽게 흩어져 등산객들의 안전에도 위협스럽게 놓여있다. 소요산성(山城)복원과 함께 안창말 원각사 뒷산으로 등산로 개설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조선 27대 순종의 윤비(尹妃) 생가, 마차산 봉화(烽火)터와 보루(堡壘), 태조 이성계가 물을 마셨다던 우물터 등 아직 묻혀져 있는 유적과 유물이 많다.

동두천의 문화재가 묻히고, 잊히고 왜곡되고 있다. 동두천문화원 예산이 1년에 3~4억이다. 시 규모 대비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행사성, 보여주기 식 행사다. 지역 역사의 활성화를 위해 활용 가능한 발굴 자원 조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동두천의 문화유산 보존 방안과 전반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두천시는 전철과 함께 수도권의 일일 관광권으로 각광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 소요산성을 비롯하여 관광 자원의 상품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 많다. 제대로 된 고증과 방법으로 역사 현장을 복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두천문화원이 이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동두천 문화원은 학문과 학술을 연구하며 장려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좌장 윤종준

이명수 소장님께서 동두천의 향토사와 관련 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아마도 다른 지역 역시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다른 지역의 향토 문화 현황은 어떤가?

엄중오

왜 활성화가 안 되는지, 지역에 따라 잘 되고 잘 안 되는지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해봤다. 제가 살고 있는 남양주를 비롯해서 인근 지역을 볼 때 재임기간에 있는 문화원장의 마인드와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단 얼마라도 올리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문화원 관계자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명수

동두천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극장인 동광극장이 있다.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서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인기 드라마 촬영을 이 극장에서 했다. 그런데 정작 지역에서는 이 극장에 대한 관심이 낮다. 문화원과 지자체장, 시민들 모두가 지역에 관심이 많아야 이런 시설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동두천에 있는 지명들만 봐도 엉망이다. 마차산 표지석을 보면 '차'자의 한자를 깎지킬 차(叉)인데 비너차(致)자를 새겨 넣었다. 여러 차례 시에 수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그대로이다. 지명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좌장 윤종준

동두천 향토문화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두고

이명수 소장이 홀로 각개전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다음으로는 지역향토문화연구의 의미와, 향토사학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강범 부소장이 발표하겠다.

3. 지역향토사의 의미 및 향토사학자의 역할

이강범

제가 이 주제로 발표를 하는 것이 주제에 넘는 일 같다. 직접 관여했던 연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문화라는 용어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문화란 자연과 인간을 매개로 인위적 작용을 가해 새롭게 창조해 낸 생활방식의 전체를 의미한다고 본다. 그래서 지역향토문화의 연구는 지역에서 일어났었거나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생활방식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분야라고 할 것이다.

향토문화의 연구는 대개 지역의 향토사학자들에 의하여 시행되며 그 대종은 향토사학(郷土史學)이다. 일찍이 역사를 잊은 민족을 두고 처칠은 '미래는 없다'라고 했고 신채호 선생은 '재생 할 수 없다'고 설파했다. 조선왕조실록 조선시대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에 걸쳐 472년간 조선왕조의 역사적 사실을 연월일별로 기록함으로써 역사의 중요성을 왕실 스스로 인정한 증거이다. 이렇듯 역사가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인간이 경험한 과거의 전부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시대에 따른 인간의 제반 행위를 탐구하고 서술하는 노력의 일환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역사와 관계를 갖는다고 한다면 항상 후자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역사를 논할 때는 과거의 인간행위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그 대상을 직접 우리들이 지각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항상 남아있는 기록문서나 가요, 구비전설(口碑傳說), 회화, 유물 등의 사료(史料)를 근거로 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사료는 대개 역사의 현장에서 발견되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곧 지역 향토사이며 향토사에 가장 밀접하게 관여하고 연구하며 경험한 사람이 향토사학자인 것이다.

이렇듯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그 첫째의 목적이 인간의 자기인식 즉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기위한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를 알게 되고 또 과거의 역사적 실패를 거울삼아 또 다른 과오를 방지하고자하는 교훈적 대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따라서 향토문화를 연구한다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을 연구하는 것이요 이를 기반으로 지역

민의 자신감과 긍지를 심어주어 애향(愛鄉)의 토대를 설계하는 것이고 올바른 역사를 확립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믿어 하남시의 향토사연구를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과 향토사학자들이 나아갈 방향과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지역 향토사 연구의 의미를 제 생각대로 말하겠다. 지역 정체성 확립의 보루다. 정체성이란 자기내부의 일관된 동일성(同一性)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과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하남시는 오래 전부터 ‘하남이 한성백제의 중심도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정서는 85년부터 시작된 지역 내 이성산성의 발굴조사와 88서울 올림픽을 위한 서울의 몽촌토성과 풍납동 토성의 발굴을 기점으로 풍납동지역이 백제의 중심도성이고 하남은 이와 관련이 없다는 사학계 주류의 중심사고(中心思考)의 이동은 지역 정체성에 중대한 혼돈을 초래하였고 지금까지도 정체성의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뜻있는 학자들과 하남문화원 그리고 향토사학자를 중심으로 한성백제 중심도성의 역사적 위상회복과 정체성 확립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하남시 향토사 연구는 백제건국과 도성변천사를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주류 사학계가 백제 중심 도성을 서울로 옮겨가져 갔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남이 중심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연구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관내 백제 관련 유적 답사를 시작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의 백제 유적 답사를 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있다.

하남문화원에서 ‘한성백제의 도성은 하남이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최근의 주제는 2010년 백제지명(百濟地名), 2011년 이성산성(二聖山城), 2012년 고대신앙(古代信仰)과 백제불교(百濟佛敎), 2013년 백제인(百濟人)의 삶, 2014년 하남의 불교유적(佛敎遺跡), 2015년 하남의 발굴(發掘) 백제유적(百濟遺跡)이다.

또한 매일 하남향토사연구 회의 진행, 하남 정체성 관련 도서 발간과 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제가 여기 계신 연구위원들에게도 드린 적이 있는 발간물 ‘하남에서 백제를 만나다’라는 책은 2014년 하남과 관련한 지역 및 일본, 중국 등의 유적 답사기와 하남이 한성백제도성의 중심이라는 2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작년에는 하남문화원 주관으로 이성산성(二城山城)과 기쿠치성(鞠智城)에 관한 한일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했다.

제가 하남 정체성과 관련한 연구 현황에 대해 말하겠다. 도미나루의 위치와 한산의 소재도 규명했다. 그리고 백제 초도는 남한산성임을 규명했는데, 금년에 제출할 경기향토사학 논문과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하북위례성(河北慰禮城) 부존재(否存在)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드린 자료를 참조해달라.

우리가 향토사를 연구한다고 하지만, 기존 사학계 주류들의 연구보다 내가 깊이를 더 하여, 그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논문을 써서, 뛰어

넘어보자는 것이 목표이다. 그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북위례성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산 정약용 선생이 주창을 해서 이병도 학사가 이어받았다. 역사의 주류 사학자들의 대부분이 이거를 이어 받았다. 그러나 제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하북위례성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향토사학자들은 기존의 사학자들을 꿈쩍 못하게 할 몇 가지 방법론을 토론 시에 시간이 되면 제시하겠다.

좌장 윤종준

하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가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활기를 띠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이강범 소장님께서 이끌어 가신 후부터는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다. 하남시는 삼국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유물, 유적들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시민들에 알리는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다. 다음은 김장환 용인문화원 국장이 발표하겠다.

4. 문화원형과 지역특성화를 연계한 문화콘텐츠

김장환

이명수 소장님이 문화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가 문화원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난처하다. 향토문화연구소는 문화원의 얼굴인데, 향토문화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원들이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요즘에 와서 문화원형을 소재로 발굴하고, 그것을 문화콘텐츠로 개발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문화원형에 대한 개념을 먼저 말하겠다. 문화원형은 본디 모습이라는 뜻이다. 영어로는 originality 또는 archetype라고 한다. 이 용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원형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변화지 않는 불변의 속성이 아니라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의 원형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문화원형’이란 한 민족, 국가 또는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담보하는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 현상이다. ‘문화원형을 찾는다’, ‘문화원형을 발굴한다’는 것은 특정 지역의 정체성이나 고유성과 연계된 근원적인 형태의 문화를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래’의 어원은 놀이이다. 놀이의 기본형은 ‘놀다’이다. 놀다-놀이-노래-노름 같은 어원이다. 지금도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용어들의 어원을 찾는 행위가 문화원형을 찾는 것이다.

문화원형의 일반적인 특성을 말하겠다. 문화원형은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본디 모습, 원래 모습을 갖고 있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전형성이 있다. 전형성은 본질적 속성이다. 전형성이란, 본질적 특성, 대표적 특성을 말할 수 있다. 특정 지역이나 민족적 범주 내에서 볼 때, 그 지역이나 민족의 특성을 잘 표현해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민족이나 지역과 차별화 되는 고유성을 갖고 있다. 즉, 본래적인 모습, 전형성, 정체성, 고유성을 갖고 있다.

문화원형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두 측면이 있다. 문화의 보편성은 인류 전체의 공감을 전제로 하는 글로벌 문화원형이다. 또한 특수성의 입장에서는 다른 민족과 차별되는 주체성과 민족 구성원 사이의 공감대에 바탕을 둔 정체성이 민족 또는 지역 단위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불교는 세계인이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 종교 중 하나이다. 여기에는 보편성이 담겨있다. 불교가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면서,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변형이 된다. 사유체계라던지 이론적 접근, 체계가 그 나라마다 독자성을 갖고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중국 불교, 태국불교 등으로 이야기 한다. 이것이 특수성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며 문화가 가장 큰 상품으로 각광받는 시대이다. 따라서 디지털 매체의 발달과 함께 문화의 다양성이 강조되는 현대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문화원형을 발굴하여 문화콘텐츠 상품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의 발전뿐만 아니라 문화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작업이 될 것이다. 문화원형 논의를 처음부터 주도한 곳은 문화관광부 산하의 문화콘텐츠진흥원이었으며, 논의의 의도는 '우리 문화원형'을 발굴해서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 21세기 문화경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적 효용가치를 끌어내는데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전통문화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무한한 시장 확대 가능성을 지닌 분야이다. 오늘날 우리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문화원형 콘텐츠는 관련 산업분야의 미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중요한 소재로 인식되고 있다.

향토문화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문화양식
 이므로 가장 현대적인 문화산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향토문화는
 가장 고유성이 많은 문화자원인 동시에 가장
 활용성이 높은 문화산업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역적 향토문화
 자원의 가치를 재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향토문화
 자원은 콘텐츠의 무진장한 보고일 뿐만 아니라
 관심만 있으면 언제라도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이면서
 고유성과 배타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도 밀접하다.

용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문화콘텐츠 사업을 소개하겠다. 포은
 정몽주를 소재로 오페라로 제작하여 오페라 ‘정몽주’를 공연했다.
 포은 선생과 관련된 연극, 뮤지컬도 제작했다. 포은 선생과 관련된
 사업은 다양하다. 김윤후 승장이 몽골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한
 의미를 살려서 처인성 연극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용인하면
 떠오르는 말이 ‘생거진천사거용인’인데, 용인은 실제로 역사인물의
 묘가 아주 많이 있다. 그리고 용인의 진산이라고 부르는 할미산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사도 하고 있다.

저는 문화원형이라는 표현보다는 문화자원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용인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역사인물 축제인
 포은문화제가 있고 처인승첩의 의미를 살려 처인성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그 역사를 널리 알린다는 입장에서 연극으로도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음력 7월에는 세시풍속인 백암 백중문화제가 열린다.

지역학과 관련하여, 용인향토문화연구소를 2013년부터 용인학연구소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고 있다. 관내 6개 대학에 용인학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행사 때마다 전국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용인의 특화사업으로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향토문화연구와 관련해서 용인에서는 구술생애사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는 5집 발간을 앞두고 있는데, 시대별 테마를 설정하여 관련 원로 인사를 섭외하고 그들을 인터뷰하여 제작하게 된다. 가령 일제강점기 때 징용을 다녀오신 분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분들, 또 70년대 새마을운동 이야기 등 다양한 시대별 테마를 통해 그동안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증언을 통해 복원해보자는 취지로 진행해 오고 있다.

좌장 윤종준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향토문화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연구위원으로서 향토사학자로서의 역할과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문화콘텐츠와 관련해서 향토문화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하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그럼 이제부터는 주제와 관련한 종합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5. 종합토론

최창근

용인에서는 구술생애사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포천에서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6명의 증언을 기록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더라. 증언해주실 분을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 사전에 질문지를 작성해서 면담을 하는데 두 시간, 네 시간씩 면담을 한다. 현직 사학과 교수들과 함께 입회해서 녹음을 하고, 관련학과 대학원생들이 녹취 기록을 한다. 아직 자료 보관만 하고 책을 발간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김장환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나?

최창근

교육계, 정치계 또는 행정 분야에서 새마을운동 현장에 계셨던 분들 등 다양하다. 포천 지역이 넓어서 60명 정도 인터뷰를 해야할 것 같은데, 작년에 6명 진행했다. 앞으로 10년은 해야할 것 같다. 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요된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김장환

용인의 경우 구술사 채록 사업을 5년째 진행하고 있다. 해마다 10명에서 12명 정도 구술을 채록한다. 전문적인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자문을 구해서, 사업 시작 전 모든 면담자들이 교육을 받는다. 술적인 자문도 얻고 있다. 매년 하나의 테마를 정하고, 그에 적합한 구술자를 선정한다.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새마을운동 등 주제가 다양하다. 작년의 경우는 사라져

가는 직업을 찾아 기록했다. 정말 살아있는 역사를 보는 듯 하다.

김명희

구리의 경우,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들이 구술생애사 사업을 하고 있다. 용인처럼 주제를 정하고, 녹취, 기록, 최종적으로 수정을 하는 팀을 짜서 운영하고 있다. 연구위원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거의 10년째 하고 있다. 물론 사전에 교수초빙해서 심화교육을 받았다.

좌장 윤종준

각 지역별로 주민들의 구술사 채록 사업은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향토문화자원을 보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성남의 경우는 10년 전 사진을 구하기도 힘들다. 얼마 전에 포천의 100년 전 사진이라는 책을 발간한걸 보고 매우 감동 받았다.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김명희

구술사를 녹취할 때 녹취한 그대로를 기록해야 하는데,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다. 어떡해야 하는가?

김장환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야하고 질문지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사전에 구술자가 살아온 시대적인 연구를 한다. 구술의 내용은 영상을 함께 찍어서 그대로 보관한다. 다만 구술자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에 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편집을 하기도 한다.

좌장 윤종준

그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토론의 목적은 향토문화연구소가 지역별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떤 발전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각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색있는 향토문화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해달라. 또는 우리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자.

하남의 집성촌에 대한 연구는 매우 좋은 것 같다. 성남에서 몇 년 전 인물지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조사가 어려웠다. 처음에는 약 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 6품 이상의 인물이 800명 정도 나왔다. 그런데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이름과 벼슬만 있고 내용이 없는 인물이 대부분 이었다. 경기도의 인물들을 조사해본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것 같다.

다만 청백리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등 어떠한 기준이 있다면 좋은 기록으로 남을 것 같다.

김명희

구리에서 사대부 문중에 대한 조사를 한적 있는데 각 문중에서는 자료를 내 놓으실 때 좋은 점만 기록해주길 원한다. 그런데 역사 기록을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나쁜든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김장환

바로 그게 향토사학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되지 않게 기록을 하되 그 문중에서는 꺾끄러워 하지 않도록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한다.

좌장 윤종준

숨기고자 하는 문중의 마음은 용인이 되지만, 없는 사실을 부풀리는 것은 왜곡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적절한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

이명수

역사의 진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향토사학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완곡하게 서술하는 게 운영의 묘가 아닐까.

좌장 윤종준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어 경기도의 향토문화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의견을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장환

사실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을 말씀 드리자면 지역 간의 비교문화를 연구해보는 게 어떤가 싶다. 경기도내에 살면서도 서로 지역 간의 문화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경기 남부와 북부 권역별로 나누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한다.

좌장 윤종준

좋은 의견이다.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거의 비슷하지만, 의병의 경우는 지역별로 매우 다양하다. 그런 경우는 권역별로 사진, 연구서, 유적답사를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다. 올해로 명성황후 시해 된지 120주년이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의병이 일어난 지 120주년인데 그런 의병에 관해서만 경기도에서 답사를 진행한다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또 명성황후가 임오군란 때 피난 갔던 일기가 발견되었다. 서울에서 여주까지 피난길을 답사하는 프로그램도 좋을 것 같다. 공동연구를 병행 하면서 용인, 하남, 광주, 이천의 의병활동에 대해서도 답사와 연구를 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다.

엄중오

남양주는 왕릉이 많이 있다 보니까 능을 연구하면서 답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강범

하남에는 '바댕이'라는 지명이 있다. 양수리 지역은 물길이 합류하니까 배를 세워 놓으면 빙글빙글 돈다. 그래서 배가 떠내려가지 못하게 버드나무에 묶어 놓는 것을 바댕이라고 하고 그 안쪽 마을은 속바댕이라고 했다. 바댕이를 한문으로 표기하려니까 한자가 없어서

팔당이라고 했다. 그래서 팔당이라는 지명이 생겨난 거다. 이러한 지명을 연구하는 일이 젊은 세대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귀중한 재산이고 향토사학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사무처장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기도향토 문화연구소가 어떤 맥락으로 아카이빙을 잘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방법과 연구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각 지역과 경기도 차원의 향토문화 아카이빙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오늘 이 자리의 숙제로 남아있다.

김장환

미래지향적인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다. 이것이 네트워크의 단초이다.

좌장 윤종준

이것으로 마치겠다. 모두 감사하다.

경기지역학 포럼-경기 의병 이야기

2016년 12월 12월에 개최된 경기지역학포럼 중 '경기서부지역에서 전개된 의병 전쟁' 토론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좌장 김장환 '경기서부지역에서 전개된 의병 전쟁'을 주제로 토론 시간을 갖겠다.

신창희

먼저 경기도 독립운동에서 특히 의병전쟁. 그 소중한 자료를 제시해주시고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기지역학 포럼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진행된 학술대회인 만큼 지역학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사회적 공간이 있다고 하면 광의의 공간이 있고 그 안에 또 협의의 공간이 있다. 협의의 공간들은 각각 충돌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신설되기도 하고 퇴행되기도 하면서 재구성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 사회에 대한 천착도 중요하지만 지역학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지각과 역사에 대한 재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 의병전쟁, 나아가 독립운동은 민족운동이고 민족 해방운동이고, 종속해방운동, 식민지 해방운동으로 나눌 수 있겠다. 독립이라는 명칭 자체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면 '홀로서지 못하는 상대를 강제하는 타자를 전제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고 싶다. 애국심이라는 것 하나에만 집착하기에는 독립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관념적인 사상이나 개념이 상당히 넓고 현대인들이 공감하게 만들 수 있는 관념적 사상들은 조금 더 고차원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발표를 들으며 1. 희생정신 2. 인간성 회복 3. 평안한 삶의 영위 4. 민족정체성 회복 5. 타자에 대한 항거 등 5가지에 대한 생각을 해봤다.

대부분 선생님들은 역사가 배경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문화재학을 기본으로 문화콘텐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So What(그래서 뭐 어떻다는 것이냐)?'에 관심이 많다. 그렇다면 역사적 흐름 속에서 파생되어진 독립운동 관련된 부동산, 동산, 무형, 또 경관적인 자원들을 활용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각각의 문화도시화가 가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명섭 교수님의 남한산성 의병 활동 발표를 들으면서, 이 내용들은 즉각적으로 영상콘텐츠, 캐릭터, 출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하락 의병부대가 1896년 남한산성으로 거점을 옮기기 전 단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계로 구분 해 보자면 광주나 음죽, 지평,

안성 등지에서 의병을 모집했고, 이 단계에서는 안성 등지에서는 민승천이라는 인물이 창의대장으로 있었고, 의병 등을 모집해서 활동을 하면서 그 이후 김하락 부대애에 편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의병을 모집하는 1단계가 있었고, 2단계 남한산성 입성전의 광연전투나 노루목 전투들이 있었고, 3단계가 남한산성 입성 후, 4단계 활동무대를 경상도로 이동하는 단계에 대한 총체적 흐름이 잡힌 글이 추후 나온다면, 콘텐츠화에 있어서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올 해 사업 중에 남한산성 옛길 타당성 조사가 있었다. 김정호의 대동지지에 조선옛길을 10대로 구획을 해 놨다. 그 중 봉화로라는 명칭이 있는데 봉화로는 한양에서 전곡길을 지나서 남한산성을 지난다. 이천, 여주를 거쳐서 영주 봉화까지 태백산 사고로 가는 길이었다. 다양한 형태의 문화자원들이 있겠지만, 옛길을 조사하다 보니 경기도 구간에서 남한산성이 가장 중요한 거점이라는 것이다.

전근대 자원들에 대한 자료들은 상당히 많은데, 근현대 자원들은 거의 없는 형편인 것 같다. 이 점에 있어서 김명섭 교수님께서 근현대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곳, 역사적 사건이나 아우라를 느낄 수 있는 거점에 대한 코멘트를 해 주시면 좋겠다. 건물이나 동산유물, 터 등 무엇이어도 좋을 듯하다.

추가적으로 이선민 팀장께 질문이 있다. 제가 알기로는 민승천 의병장이 노루목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좀 전 발표에서 '패장에게는 창의대장직을 줄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어떤 사료를 기초로 말씀하신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좌장 김장환

남한산성 사업에서 거점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김명섭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라.

김명섭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선 김하락 의병을 중심으로 연구가 됐고, 그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연구를 할 수 있다. 오히려 저는 심지환, 심영택, 신용희, 구연영 이런 분들이 좋은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김하락 의병은 서울에서 내려와서 모집을 했다라고 연구가 됐다. 의병은 이미 토착민에서부터 조국적인 분노가 있었고, 동학에서부터 오랜 수탈과 일제와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오랜 분노가 쌓여서 발생한 것이다. 그렇기에 심지환, 심영택, 신용희, 구연영 이런 분들이 의병을 모집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역민들이 돌아다니면서 의병연합을 만든 과정도 중요하다. 광주의 구연영 같은 분은 전투에 참여도 했지만 부자가 일제에 저항하면서 두 분 다 순국한 경우이다. 1905년 남한산성 점령 후에도 8년까지 의병전쟁들이 일어난다. 그런 연속성을 고려하고, 그 과정에서의 일제의 만행, 경기도를 파괴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으로 포커스를 잡는 것이 경기도 의병에 대해서 제대로 조명하는 것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

좌장 김장환

신창희 연구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의병활동 관련해서 남한산성에서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질문하신 것 같다.

김명섭

콘텐츠화의 의견에 대해 말씀 드린 것이다. 질문과 관련해서

타당성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봉화로는 조병로 교수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봉화에 대한 연구가 이미 나온 것이 있다. 봉화가 남산으로 모이지만 그 전단계가 남한산성이고, 용인은 할미산성을 거친다. 그러면서 이천, 충주 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남부 쪽에서는 할미산성이 지역적 거점이 될 것이고, 옛길에서는 남한산성 자체가 광주와 하남을 아우르고 있고, 하남으로서는 청군과 관련한 고궐로 연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남쪽으로는 젓골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우마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큰 길이 있었고 다양한 길이 있다. 남한산성 자체가 광주부윤이 군사적, 행정적, 정치적으로 관청이 있고, 경기지역을 방어하는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승병도 있는 문화적 종교적으로 변화한 지역이었고, 약 1,400여호가 사는 변화한 지역이었다. 그 지역자체를 복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좌장 김장환

이선민 팀장님이 민승천 의병장에 대한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선민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천을 연구하는 향토사학자들의 연구자료에서 발췌를 했다. 2006년에 나온 '이천독립운동사'라는 책이고, 김하락이 직접 쓴 '진중일기'라는 책을 토대로 정리하신 것 같다. 내용의 한 구절을 인용해드리면 "처음에 모집할 때 고을에서는 이미 창의를 하여 민승천이 대장이 되었으므로 서로 합세하기로 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현전투에서 패배를 한다. 이후의 내용에서 패배를 하고 새롭게 김하락이 의병진을 구성을 하면서 박주영을 대장으로 하고 여주에 있던 심상희라는 의병장을 불러서 역할을

드렸다고 재구성을 하는데, “23일 안성에 격문을 보내어 민승천 의장을 불렀더니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보시고 그렇게 기록하신 것 같고, 그 뒤로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데, “24일에 군사수요를 점고한바 포군이 일천팔백명이고, 장수종사관을 합하여 2만명 이었는데, 모두 말하기를 패전한 장수는 다시 등용 할 수 없다. 라고 하여 마침내 박주영을 대장으로 삼고 (박준영, 박주영이라고도 하고 기록마다 차이는 좀 있다) 심상희로 여주대장을 삼고… (이하생략)등으로 새롭게 구성을 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췌해서 사용한 것 같다.

좌장 김장환 그 박주영이 배신한 게 맞나

이선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데, 김하락은 ‘진중일기’에서 박주영이 살해당했거나 처형 당한거는 사실이기는 한데 배신을 해서라는 것은 이론이 갈리는 부분이 있다.

좌장 김장환 그 부분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다. 강대덕 선생님께서 발제하신 ‘경기 동부지역에서 전개된 의병전쟁’과 관련하여 포천향교의 이종훈 전교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다.

이종훈

화서학(華西學)의 권위자이신 강대덕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다. 이 발제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경기의병의 역사적 의의와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북부 포천, 영평(지금은 포천에 합병),

양주지역 항일의병투쟁활동을 체계적으로 규명하셨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아직도 이 분야가 연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를 동원해서 고찰해 좋은 발표한 점에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문헌적 가치, 자료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서 훌륭한 논고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토론자라고 생각한다.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과 발표된 형식에서 의문나는 점을 질문 드리는 형식으로 보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경기 북부지역이라고 하면 행정구역단위로는 10개 시, 군으로 되어있다. 한강북부와 북한강에 위치한 곳인데, 이 중 포천, 영평, 양주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현재는 포천에 합쳐져 존속되지 않는 영평군과 이들 지역을 강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두 번째 한말에 의병 활동하는 시기를 학자에 따라서 전기, 후기 또는 전, 중후기로 나누는데, 강박사님은 주로 화서학파를 연구하셨기 때문에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셨는데, 논거를 보면 그 부분의 연구발표가 되지 않은 듯한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셋째, 의병장 허위라는 분이 계신데 1908년 6월 11일, 돈에 현혹된 고향친구의 밀고로 은신처인 경기도 영평군 서면 유동에서 체포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때에 대한매일신보는 7월 9일

황성신문은 동년 6월 19일자에 체포된 걸로 나온다. 실제로 판결문은 5월 14일로 되어있다. 왜 이렇게 다르고, 체포되었을 때 누구와 함께 체포되었는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덜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보충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좌장 김장환

세 가지 정도 질문하셨습니다. 경기북부 10여개 중 세 개만 지정하신 이유. 영평은 옛 지명인데 당시의 지명을 사용하신 부분. 화서학파의 입장에서 나뉘는 시기 부분. 허위 의병의 체포시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대덕

첫째는 정리하다보니 범위가 너무 넓었다. 화서 선생님을 43년간 연구하면서 많이 다니면서 했던 것은 한강을 중심으로 하고 북한강 상류에서 능 하나를 넘어 왔다갔다하면서 할 수 있는 화서연원의 유류한 지역으로 잡아야 하겠고, 전기의병은 화서선생님의 영향권 안에서 제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화서연원에서 이루어진 을미의병(전기의병)이라는 부분. 이 명칭은 60갑자에 의해서 부르는 명칭이다. 1895년과 6년에 일어난 것인데, 이것을 조도물교수는 1864년부터라고 보고 있다. 안동 향교에서 일어난 것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을미의병이라고 하는 60갑자에 의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확한 연대를 쓰던지, 전. 중. 후기 전환기라고 구분하는 것이 역사 학회에서 통용화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다보니 120주년에 맞추려다보니 상당히 열악하고, 간헐적으로는 보이지만 그것을 엮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일본측 자료나 이전자료가 있긴 하지만, 일본 측 자료는

일본중심에 의해 쓴 자료를 우리가 비판없이 본다고 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 이런 문제가 있고, 세 개의 지역만 한 이유는 경기북부도 세 개의 생활권으로 나뉜다. 고양 파주권, 의정부 양주권, 남양주 구리권, 포천은 양주권으로 묶여있다. 포천 속에는 영평이 지금은 일부 북한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곳의 자료가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에 병합했다가 분리 했다가 1896년에 지방제도 개정 할 때에 분리됐다가 합쳐졌다가 다시 분리가 됐는데 1896년부터 1914년까지는 (포천과)분리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포천과 영평을 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영평이 그 당시에는 경기도 38관하를 타이틀로 해 보려고 그렇게 정리를 했다.

두 번째 전기의병 쪽은 양평, 춘천지역. 강원도와 특히 양평, 가평지역은 관찰부로 되어 있을 때 춘천관찰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가평, 양근지평은 강원도 생활권으로 묶여 있고, 지금도 가평은 춘천으로 많이 오고 있다. 다음 충주의 경우는 원주가 충주관찰부였다. 그런 면에서 시대적 인식을 제대로 보려면 적어도 시기적인 상황 속에서 전기의병 쪽이 너무 자료가 미미하다. 그리고 포천사람으로서 춘천의병회, 포천, 영평사람으로서 지평의병회, 학문적인 연원으로 인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문적 연원도 중요하지만, 출토지(출생지)를 중심으로 한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루지 못했다.

왕산 허위에 대한 부분은, 판결문과 신보들과 다르게 보느냐.

매일신보 7월 9일자에는 6월 9일로 나왔고, 황성신문 6월 19일자에 6월 12일로 나와있다. 그런데 왜 판결문에만 잘못되어 있느냐.

우리가 판결문을 그대로 비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서두에

말씀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다 진실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근거라던가 배후를 숨기기 위해 다 가려지게 되어있다. 그 이후 대한매일, 황성신문에는 6월 12일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향친구라고 되어 있는데, 발제문을 쓰고나서 찾아봤더니 권대웅선생이 밝혀 놓았더라. 유동에 박정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밀고로 알려줬다. 판결문은 가리워진 것도 많고 이름도 여러 가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신문이나 다른 것에 연계된 것으로 보자면 왕산 허위의 순국, 체포는 6월 11일자로 정리가 되어있다.

이종훈

나중 논고에서는 그 상황을 각주를 달아주시기 바란다.

좌장 김장환

이번에는 윤종준 선생님의 남한산성 전쟁에 대해서 흥대한 숙명여대 건축환경디자인연구소 연구원께서 토론해주시겠다.

흥대한

발표해 주신 것에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이야기 해 보겠다. 일반적으로 오늘 참석자께서는 각 지역을 배경으로 연구하고 계신 분들인데, 미시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모습들이신 것 같다. 상대적으로 저는 '경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거시적인 질문들을 해 보겠다.

첫 번째 질문은 윤박사님의 발표문 머리말에서처럼 박은식의 의병의 정의가 있는데, 앞서 고려나 이전에 있어서의 외침과정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전체 한국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병, 일본의 초기 침탈기 이전의 의병들의 성격과 오늘 포럼에서 다루려는 시간의

제약 속에서의 의병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질문이 모호할 수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초기 의병들을 명확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보겠다. 그 이유는 고려 전 기간을 보면 외침의 기간이다. 현종 때 거란이나 몽골전란 때를 보면 향리들이 주도해서 의병을 조직한다거나, 고려 때는 향마군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승군들이 참여하지만 명분상으로 의를 실천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거시적인 한국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의병들과 초기 침략시기에 활약했었던 의병과의 뚜렷한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은 이천문화원 이선민 주임 포함 '남한산성의 항일 의병운동'이라고 명칭할 수 있을 만큼 남한산성에 포커스가 맞춰져있다. 그만큼 이 시기에 남한산성이 차지하는 위상과 의미가 크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한산성 의병운동이 전, 후와 일제강점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좌절 되지만 이후 항일무장투쟁 등 독립운동사에 미쳤던 의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세 번째는 윤박사님의 발표문에서 김하락의 진중일기를 언급하면서 봉기원인을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계시는데 앞선 다른 발표자도 말씀하셨듯 의병운동이 어떤 지도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의병으로 참가했던 병사라고 해야할지 의병군이라고 해야할지, 실제로 전투를 참여한 부분인데, 사료를 간과할 수 없지만 지도자급들이 제시했었던 봉기원인 등을 동의할 수 있었을까? 아무래도 지도자급들 보다는 교육, 지식수준이 낮기 때문에, '의'라는 개념보다는 현실적인 부분, 여섯 가지 제기의 기준이

되는 계급, 민족 모순에 동의해서 참가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주'였는지가 알고싶다.

네 번째로는 오늘 주제가 '경기의병의 역사적 의의와 현황'인데, 개별적인, 대부분 남한산성이 핵심이 되고 이들 주변의 경기북부라든가 이천지역 등, 그리고 이들 지역은 결국 남한산성과 연결이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 중심의 현황은 정리된 것이 있는데 이 모두를 아우르는, 거시적 측면에서 과연 경기 의병이라는 관점 속에서 살펴봤던 전체 주제가 어떤 의의를 찾을 수 있는지를 질문 드린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강대덕 소장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역사연구에서 전기, 중기, 후기의 구분을 사용하고, 조선시대사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전기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오늘 발표 하셨던 분들. 윤박사님을 보면 선행연구를 통한 시대구분을 언급했다. 최소한 경기지역에서는 항일 의병에 대해서 특수성, 제한성 때문에 연구자들마다 시기차를 달리 둘 수 있지만, 하나의 동의할 수 있는 도식적이라고도 할지 모르지만 시기구분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시기 자체가 길지는 않으나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쭙 본다.

그리고 의병에 있어서 전기, 후기, 을미나 을사같은 사건 중심으로 거병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기에 하던 을미의병이 군사력의 잔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후기의병의 발발에 있어 원인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선후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준

의병이라고 하는 박은식 선생의 정의가 '민간인으로서 국가의 명을 기다리지 않고 참전한 사람들'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삼국시대에도 공식적 용어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려시대든 조선시대 때 주로 전쟁 때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삼군체제를 갖춘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90%이상이 민병이었던 것 같다. 의병의 나라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대표적으로 임진왜란을 극복한 것은 거의 의병의 힘이지 관군의 힘은 아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의 관군도 있었지만 그것은 전쟁이 터진 직전과 직후의 대비상황에서의 작전단계에서만 있고, 육지전쟁에서는 거의 무력화된 상황이었다. 굳이 그것뿐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의병이라고 지칭이 되었다. 연산군을 축출하는 중종반정 때 참여했던 자들 스스로를 의병이라고 했고, 광해군을 몰아낼 때 인조가 자기 군대를 의병이라 불렀다. 박은식 선생이 말하는 의병과 뉘앙스가 좀 다르다. 자기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조직화된 군대를 이용한 것이다. 정의 군대다는 의미를 가진 경우고, 전쟁을 참가한 의병은 박은식 선생의 의병이라고 의미가 일치되는 것 같다. 한말에 대한제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후의 의병전쟁이기 때문에 구한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시기 의병은 외세의 침략이 노골화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박은식 선생의 의병의미에 부합된다고 보고, 물론 밀에 병사로 참전한 의병들이 임진왜란 때와 같은 위기상황에서와 같은 참가의식을 가졌는가? 제 생각에 깊은 연구를 하진 않았지만 시대적 상황(서승갑 선생님의 말씀에도 있듯)에서 주인의 명을 따랐을 가능성. 신분제타파에 따른 가능성, 외세침략에 대한 내 것을 지켜야하는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것 같다.

성남에서 의병을 일으킨 남상목 같은 경우도 1907년에 의병을 일으켰는데, 그 이전에 1905년 전후로 수탈을 당한다. 일시적으로 잠깐 구금됐다 풀려나서 정식 의병부대를 조직해서 전투행위로 표출했다. 일반인들이 상당히 원칙적으로는 계층구분이 되었지만 일본 수탈에 관해서는 평민들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같이 참가하지 않았을까 하고, 이런 현상은 3·1운동까지 이어진다. 리더들은 거의 양반 출신이고 참가자는 농, 평민과 천민까지 만세시위에 참가했고, 당시까지도 시골 등에서는 동네 유지들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다.

심지어는 1904년 하남시 마반식당 주변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사건 뒷처리 총 지휘를 광주지역의 군수나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집강'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이장님 같은 사람이 사망원인의 초기 진단이라든지 과정을 총괄지휘를 한 기록이 있다. 만세운동 때까지도 지역의 유지가 나가자고 하면 나가는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답이 충분한지 모르겠다.

약간 겹쳐져있긴 한데 산성의병은 해체되면서도 끝까지 저항하다 죽은 사람들도 있고, 일부가 의병은 아니더라도 삼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후일 신간회운동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남한산성 주변에 나타나있다. 일제가 망할 때까지도 이 지역의 지도자들은 일제 강점기 때 면의 이장이 된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일제 후에 친일행위를 한 사람은 거의 지역에서는 소외 된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는 거의 소외 된다. 일제 강점기 때 면장 했던 사람에 대한 송덕비 같은 것도 세워지기도 하고, 친일파에 거목이었던 민영위라는 휘문고 설립자에 대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이들은 해방 후에도 부자세력으로 남아있고 이민도 가고 그랬지만 이런 사람들을 기념하는 비석들은 주민들이 제거해버렸다. 일부는 오히려 송덕비가 세워져 있기도 한 사례들이 있다. 의병에 참가했던 지도자들의 영향력은 순수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 후손들은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는 입지 않는 정도로 정신이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다음 경기지역만의 시기구분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다. 이 행사 준비하면서 강대덕 소장님 말씀 중에 경기지역을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파주나 고양 쪽을 더 발표하려다가 준비시간이 부족하고 해서 못했다. 경기지역의 시기는 거의 현재의 시기가 서울경기 중심에서 구분된 걸로 판단된다.

오늘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을미의병이 김하락 의병장과 같은 시기에 동시에 다른데서 전개된 것이 흔히 제천의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제천의병의 발상지가 경기도 지평현 상동 지금의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이다. 거기서 안승우, 이춘영 이 사람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제천으로 이동해 가서 제천의병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상태이다.

좌장 김장환

이번에는 이천 이선민 팀장님께서 발표하신 '이천의 구한말 항일의병투쟁'에 대해서 이천의 서희리더십사관학교의 대표로 계신 안병문 선생님께서 토론해주시겠다.

안병문

제가 향토사학을 하고 있지만 국문학이 전공이다. 지금은 민속자료 설화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고 지역학에서 전설 설화 민담을 담당하고 있다. 자료를 한 번씩은 읽어봤지만 제가 감히 발표자의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토론자로 나서기가 부끄러웠다. 오늘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의미를 규명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느낀 소감 몇 가지를 질문해보겠다.

20분 동안에 이선민 팀장께서 준비하신 것을 다 제시하지 못하신 것 같다. 김하락 의병장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천 만의 이야기 구연영, 전덕기, 이명순 열사 같은 분들이 이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서, 의병활동이 아니라 개혁 운동같은 (노비문서 폐지 등) 혁신적인 활동을 해 나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못하신 이야기를 인물별로 1분정도씩 말씀해달라.

처음 서승갑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의병전쟁은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천의 의병활동에서도 신돌석과 같은 의병장이 나온 사례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신돌석은 천민인데 의병장이 됐다. 아래 계급의 말이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지도자들은 낙향한 유생인 기득권층이었는데, 신돌석의 경우 하층민이 의병장을 했다는 것은 그 시대에 이미 평등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다.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

다음은 의병운동에서 과거의 각종 난 때 보면 승려나 신도들, 그리고 한말의 천주교나 개신교 쪽에서도 의병활동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한다. 총칼을 드는 활동은 아니어도 있었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장 김장환

이천에 김하락 의병장 못지않은 이천출신의 의병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의 발제를 못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 발제를 요청 하셨습니다. 이천에도 천민출신의 신돌석 의병장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다고 본다. 저도 궁금한데 종교계 쪽에서도 이런 의병 활동을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민

앞서 발표해 주신 분들과 달리 저는 한참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애국계몽운동으로 전개되는 구연영 의사의 활동과정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인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다른 단체에서 했었던 항일 투쟁이 있는지를 같이 대답 드리겠다.

김하락 의병장이 남한산성에서 밀려서 남쪽 지역으로 부대이동을 감행한다. 중간에 예천에서 처음으로 다섯 명의 동지 중에 탈락(따로 떨어지는)되는 분이 생기게 된다. 유인석의병장한테 감화 받아서 그의 제자가 된 김태원이 있고, 또 경주에서 또 한 명이 탈자가 생기는데 그게 구연영이다. 이분의 경우 탈락하는 과정을 진중일기에는 못되게 써놨는데, '구연영이 겁을 먹어서 돌아왔다'라고 써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다. 아까 의병체제에 대해서 말씀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중군장 역할인데, 이천창의소에 중군장을 맡았던 인물이 구연영이다. 그래서 초기부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광현전투, 이현전투, 수백 명이 죽어나간 남한산성 전투에서도 끝까지 투쟁했던 분인데, 이 분이 경주의 비봉산 전투에서 약간 위기에 처했다고 겁을 먹고 돌아왔다는 것은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의병항쟁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2차로 회군을 한다. 그때부터는 의병항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에 몸을 담으면서 일종의 애국계몽운동을 하게 된다. 구국회활동이라고 해서 이천의 항일의병사에서 중요한 활동이다.

1907년을 기점으로 일진회라는 활동이 있는데 여러 장터에서 사람을 모아서 군중집회를 하는 것이다. 일진회의 부당함이나 지금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성 등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회의 밀고로 구연영과 아들인 구정서 부자가 잡혀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면 기독교의 항일운동이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천주교나 불교도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천에 부악산 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설봉산이다. 초창기에 설봉산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직접적으로 영월암에서 풍류를 했다 등의 어떤 기록은 없지만 이전에 1907년도에 백켄지 기자라는 외국 기자가 서울중앙에 있다가 의병활동이 지방에서도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등의 이야기만 듣다가 눈으로 봐야겠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의병은 다 경기도 이천에 있다고 해서 갔는데 보는 풍경이 전부 마을이 불타버리고 동리자체가 모두 폐허가 됐다.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것이 이천 총화사건이라고 이천의 약 1,000여 가구가 불탄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설봉산에 있는 영월암도 모두 전소된다. 일본군들이 아무 이유없이 불태우지 않았을꺼란 생각은 든다. 전에도 사찰 중심으로 의병들이 활동하고 보급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영월암도 그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라는 것이 저의 추론이다. 밝혀진 것은 없다.

천주교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경기 의병과 관련한 활동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다.

좌장 김장환

마지막으로 서승갑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의병항전의 역사적 의의와 기념사업 방안에 대해서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다.

최영주

작년부터 문화원을 중심으로 '미래유물전'이라는 전시를 했다. '기존 유물이라는 과거를 어떻게 미래로 가져갈 것이냐고 했을 때, 결국

현재 지역을 문화원이 어떻게 재구성 할 것인가'라는 콘셉트였다.

<미래유물전> 이후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이전 자료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눈에 보여 지는 형태, 즉 전시라는 형태로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역 뿐 아니라 역사를 재구성해서 현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그것을 눈에 보이는 사업의 형태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의미로 작년에 경기학연구센터 쪽에 제안한 것이 <경기의병전> 이었다.

그때 경기학연구센터장께서 '의병연구는 너무 방대해서 하나로 맥락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오늘 포럼을 하면서 일정 부분 의병을 통한 역사의 재구성과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찾는 무엇인가 가능할 것 같다! 라는 희망을 본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잘 몰라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지만, 이런 포럼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는 뭘 하지? 라는 질문을 해 보고 싶었다. 얘기로만 끝나질 않길 바라기 때문이다.

서승갑 교수님의 발제를 듣고 '의병'이라는 개념을 애국심에 의한 것이다!는 관점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의병 운동은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동시 해결을 지향했다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시대정신을 의병들이 어떻게 구현했는가! 하는 부분. 그 당시 시대정신의 맥락으로 의병 정신을 어떻게 재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연구과제가 도출된 것 같다고 느낀다.

정신사적 맥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구성체 변화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조명해야 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서승갑 교수님의 경우 가장 먼저 다음 단계에 이것을 연구했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또 하나는 향후 실천 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구체화된다고 했을 때 이 포럼을 통해서 제안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사실 저는 사업기획을 할 때 토론회나 포럼에서 어떤 교수님이 사업 제안을 했다고 하면 힘을 좀 받는다.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제안을 듣고 싶다.

서승갑

실제로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면 학생들이 세 명정도만 듣고 나머지는 잔다. 역사학자들도 반성해야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문화의 전달자이다. 전달자들이 이렇게 재미없는 토론을 장시간 해서 뭘 얻는 건지. 프랑스 아널학파가 포도주 생산과 관련해서 날씨를 가지고 연구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해석한다.

김하락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문화콘텐츠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김하락 강의 할 때는 어디서 싸우고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 김하락 사진을 놓고 관상학적으로 어떻게 생겼

는가? 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하락은 한국 전형의 무장형이다. 초, 중, 말년 운으로 나뉘서 설명해주면 한명도 졸지 않는다.

오늘 포럼은 전공자끼리 하는 이야기지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들을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바쁜 시간에 모여서 아무 이익도 없는 얘기를 왜 들겠는가? 제 생각에는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해석방법 보다는 실생활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의병장들이 관상학 적으로 어떻게 생겼지만 봐도 후기의병장들과 달라진다. 전기 의병장들은 상당히 세련된 모습을 보이지만, 뒤로 가면 이인영 같은 경우 관상학적으로도 왜 장군으로 불렸을지 알 정도로 얼굴에 나타난다. 관상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사마천의 사기를 공부하면서 왜 중국 사람들이 인물에 대해 얘기하고 눈, 귀를 설명하고 인상을 어떻게 파악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도 역사를 공부하고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기획전시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본다. 엉뚱하고 의병과 관련 없는, 예를 들면 의병의 옷을 소재로 한다는 등. 전기의병과 후기의병의 의상이 왜 달라지는지. 실제로 한국이 모자의 나라인데, 프랑스에서 한국의 모자가 그렇게 다양하다는 것에 대해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렇게 기술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이 됐다. 후기의병에는 다양한 의상이 나타나는데 그 것은 계급이 다양하다는 거다. 역사만 가지고는 안되고 설화, 건축학, 의상학 등에 대한 연구발표도 같이 이루어져야 의병 이야기가 아닌데 들어보니 의병에 관한 이야기였다가 될 수 있다. 주변을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제안이다. 문화가 우리와 인접한 데에서부터 착상이 되어서 다른 시각

으로 봐 나가는, 그 시대 사람들은 무슨 고민을 했고 생각은 어떻게 의상은 어떻게 등으로 접근해야한다.

신돌석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전에는 과연 신돌석 같이 생긴 사람이 없었을까?

여기 모인 분들이 누군가 의병 나가자라고 한다고 나가겠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나갔을까? 인간적 유대관계에서 신뢰와 실천을 보여줬기 때문에 존경심이 실천으로 옮겨졌다는 거다. 왜 패장과 명장이 있는지. 명장은 구성원의 마음을 사는 것인데, 단순히 나가서 싸우고 학문적으로만 연구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지역 사회에 장이 됐는데 그 장이 상당부분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믿음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전체가 동의하고 전체가 따라가는 사회구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다양한 부분을 조망해 낼 수 있는데 우리는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게 막혀있어서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강인한 민족이다. 의병에 참여한 사람들이 뛰어난 전술, 전략 등 모든 것들이 제일 어려운 시기에 자기의 생보다는 다른 것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던 것을 다시 봐야 한다. 의병장 중심으로 봐서는 안된다.

부탁드리는건 주변지역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사업구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전문 분야에서 한 주제를 놓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포럼이 필요하다. 융합하는 사업구상이 필요하다.

좌장 김장환

토론회를 정리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정관념,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는 말씀인 것 같다.
이제 지정토론은 마쳤다.

이명수

지금까지 토론한 것을 보면 의병에 대한 하나의 평가라고 할까? 앞으로 도연합회에서 이런 자리를 한 번 더 만들어야 할 것 같다. 동두천시사 30년을 집필하다 보니까 의병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안되어 있다. 의병항쟁 재판기록에 올라가 있고, 재판기록이 폭도, 수괴, 사기, 강도라고 되어있다. 문제는 그분들의 공적을 찾기 위해서 과천 국사편찬위, 천안 독립기념관 다니면서 판결문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의병에 대한 기록은 반쪽, 많아도 한쪽 밖에 없다.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국가보훈처에 가보면 자세가 틀려먹었다. 일제 잔재들이 거기에 앉아 있다. 국가보훈처직원들이 왜 있나? 그들이 지방에 다니면서 묻히고 잊혀진 의병들을 발견해서 의병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자료수집해서 갖다 주면 검토하고 더 해오라고 시킨다. 국가보훈처가 진품명품 가리는 곳인가? 앞으로는 토론회가 그분들의 명예회복에 힘써야 한다. 예를 들어 동두천에 정용대, 부아인, 이금례 의병이 있고, 또 한 번은 홍원우, 부아인, 이금례 의병이 있다. 이분들이 국가유공자가 안되어있다. 하물며 정용대, 부아인, 우병창 의병은 고순주 사위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근무하신 본인데도 그걸 못했다. 제가 되려 그분들의 공적을 가지고 국가보훈처에 가서 설득을 해야된다는 거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하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의병을 했다고 한다.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 예를 들면 우병창 의병이 자기 동료인 하봉조 의병이 그 당시에 의병활동을 하다가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아버지를 찾아가서 의병이 친구의 아버지니까 당신 아들을

빼줄테니 얼마를 내놓으시오 하니까 사기죄로 올라가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해명을 못한거다. 사기를 쳤던 강도를 했던 간에 과정이 중요하게 아니라 군자금의 어디로 쓰였는지가 중요하다. 당시는 러시아 중국 만주에서 무기를 팔고 사는 밀매꾼들이, 일제 앞잡이를 모두 조선사람이 했다. 그럼 순순히 돈을 낼까? 이분은 찾아갔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빼줄테니 돈을 달라고 한거다. 이런 부분을 자기 생계를 위해서 했다고 말하는 거다. 그 돈이 군자금에 들어간 거다. 분명 그 사람의병장이 홍원우이고 군자금으로 들어갔다. 이 사람이 자기 직책을 사칭해서 그 돈을 가족을 먹여 살렸다면 일본이 누군데 정말 그랬다면 일본측에 의병이라고 올라가 있지 않았을 거다. 일본 헌병들이 얘기할 이야기를 국가보훈처 직원이 하고 있다. 이건 아니다. 여하불문하고 의병항쟁 재판기록에 올라가 있는 의병은 독립유공자 시켜달라고 말했다. 동두천에 보면 자락에 독립유공자추모비가 있다. 1987년에 세웠는데, 독립유공자는 죽은 자이지 산 자가 아니다. 기념비를 세우면 건립비를 세운다. 어느 단체, 개인에 의해 왜 세워졌는가가 있다. 시장 이하 세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독립운동 활동사진도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독립유공자 명단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또 시장, 시의회 등등의 이름이 또 들어가 있다. 그런데 TV에도 제보를 해서 방영을 했는데도 아직도 안고쳐져 있다.

좌장 김장환

긴 시간동안 진지한 발표와 토론 하시면서 경기의병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한 좋은 시간이 된 것 같다. 저는 용인지역밖에 몰라서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제가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연구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도지역학협의회 4차 포럼인데, 의병포럼이 올봄부터 이야기 됐었다. 여건이 안되어 못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시행하다보니 단시간에 준비하느라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내년에는 준비도 철저히 해서 다시 한 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문화원의 향토문화사업 부분의 현실진단을 통한 솔루션 찾기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오민영

2016년 6월 15일에 진행된 2차 지역문화아카데미의
'향토문화사업 발전 방안' 발제 내용을 정리했다.

지역문화란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민들이 향유하는 문화라 할 수 있다. 지역문화의 개념을 통해 지역문화사업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중심으로 지역 정체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 및 계획수행을 의미한다. 지역문화사업은 지역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발굴, 보존, 개발 등을 통한 총체적인 문화사업으로 지역의 향토성, 생활환경, 문화 예술환경 등 지역문화를 토대로 다양한 가치를 끌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한 하나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지방문화원에서 행하고 있는 지역문화사업은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향토문화연구활동, 문화행사활동, 사회문화교육활동,

문화체험활동, 문화예술활동, 지역문화교류활동이다.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예산 편성을 보자면, 경상운영비에 40%, 사업비에 60%이다. 사업비의 재원은 지자체 보조금 78%, 자부담 9%, 공모사업비 11%, 후원금 1%, 기타지원금 1%다. 지자체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수를 보자면, 역사/향토사, 민속/전승, 세시 풍속 등이 대다수였다. 문화재단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민담설화, 마을조사 사업, 인물사업 같은데, 문화원에서 비중이 낮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재단과 충돌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향토문화사업의 경우 지자체 보조금과 더불어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평택의 경우 공모사업의 비율이 높은데, 다른 곳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공모사업의 확대와 후원사 개발을 해야 한다. 민담, 설화 등 지역을 상품화할 수 있는 특색 사업이 부족하다. 프로그램 진행 전문 인력이 없어서 공모사업, 조사연구 사업에 참여하기 힘든 것 같다.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전통문화와 현재의 문화에 대한 연관성을 토대로 문화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사업 기획부터 유관기관과 연계한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문화사업의 지속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문화원은 사업에 대한 평가가 약하다. 시작 단계만 요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의 취지가 멀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의 평가지표에 의한 사업평가를 해야 한다. 전문가 배출 및 전문가에 의한 기획, 운영, 평가가 필요하다. 문화원이 예산 집행 기관이라 보니, 이런 부분이 약한 거 같다. 예총 및 문화기반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현대화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기존 홍보전략(홈페이지, 현수막, 전단지, 신문광고)과 함께 SNS 홍보를 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사업과 연계된 유관기관, 단체들을 직접 찾아가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사업(지역축제) 관련이다. 축제는 지역민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개념을 새롭게 해야 한다. 대다수의 성공된 축제를 보면 이 세 가지는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3가지의 틀에 묶여서 기획을 하니, 행사의 규모나 다양성이 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원이 무엇을 하는 집단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화강좌를 하는 단체인가, 시 보조금을 대신 집행해주는 곳인가,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행사여서 시 보조금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가, 조금 더 차별화된 행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마을조사 사업, 인물선양 사업이 문화원에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문화원에서 인문학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역학이나 이런 강의가 더 늘려야 한다.

사회

향토문화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인 해법을 찾을 것인가 말씀했다. 각 문화원들의 사업을 보면 유사한 사업이 많다. 그런데 문화원이 서로 연계하거나 공동 기획 같은 건 없다. 이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다. 어떤 방향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연계하고 기획할 때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지 등 포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OO문화원

그 동안 문화원 내부 분쟁으로 재단, 지역과의 관계도 단절되었다. 문화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문화재단이 지역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려고 한다.

100%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보조금이 지자체장에 의해서 모두 조정이 되거나 삭감되었을 때, 문화원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궁금하다. 보조금, 사업이 다 없어졌을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보조금이 없다. 없는 걸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자생하는 기법을 얼마 전에 찾았다. 문화원에서 하던 산신제나 이런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해보겠다는 의도로 하고 있다.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문화재단에서 많이 하는 공연 사업으로 접근했다. 공연팀과 홍보 역할을 협력하여 공연을 성공리에 끝냈다.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갔다.

우리는 안전 문화를 트렌드로 잡았다.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양성된 사람들을 우리 문화원에 충성도가 높은 회원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 또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으려고 한다.

조만간에 지자체 보조금은 다시 받기 시작하면 기초적으로 예전 것을 부활하는 것은 간단할 것이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교육이나 행사를 통해 만나는 시민들이 문화원에 얼마만의 충성도가 있을까?

누군가 중재해주면 지역에서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공존하기 쉽겠지만, 실제적인 중재 역할은 정치논리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 생존력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트렌드가 있어야 한다.

사회

문화원과 문화재단과의 관계는 오늘 주제에서 벗어난다.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추후 심도있는 논의를 할 자리를 만들어보자.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오민영

문화원이라는 곳이 문화기반시설이라서, 회의실, 공연장 등의 시설이 있다. 시설이 있으니 교육, 공연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재단과 더 겹쳐지는 것 같다. 예산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많다. 예로 마을조사 사업이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보고서 작성 정도로 마무리 지었다가, 추후 예산이 투입되면 발간물로 제작하여 배포하면 된다. 인물선양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는 현재의 직원들의 역량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사나 사업은 많겠지만 보조금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다.

평택문화원은 행사를 할 때, 주변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 현금 후원은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산스파비스같은 경우 무료이용권, 할인권, 호텔같은 경우 조식이나 뷔페 이용권 등 현물 후원으로 꾸준히 받고 있다. 이런 경품이 있으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때 도움이 된다.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OO문화원

문화가 트렌드 변화에 따라 자생적으로 변해가고 발전해 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정책적인 변화에 의하여 인위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지자체장과의 마찰,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도 많다. 이제는 하이브리드 컬처 모델을 생각해야할 단계이다.

원주민, 유입 주민으로 따지기보다는 같은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 인구가 70만이 되어 가고 있다. 원주민보다 유입인구 비율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체성이라는 부분만 갖고 논하는 것이

맞느냐고 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전기와 기름, 둘 다 사용 가능하고 둘 중 하나가 없어졌을 때 다른 대안이 있다. 트렌드 변화에 문화원이 지켜왔던 역할을 보완하면서 하이브리드 컬처 모델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

문화적인 트렌드 변화는 과연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생존보다 공존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한 것 같은데, 네트워킹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얼마 전 여행을 하면서 에어비엔비를 이용했다. 그러면서 에어비엔비가 왜 갑자기 인기인가를 고민해봤다. 에어비엔비 모델이 나온 지 10년이 안되었다. 호텔 하나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에어비엔비 회사가 100년이 넘은 호텔 힐튼의 객실 수 보다도 광범위한 네트워킹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자산의 가치를 뛰어 넘었다.

에어비엔비를 이용하여 여행을 하는 사람은 잠자고 먹고 하는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 지역 주민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지역 주민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가치이다.

문화원이 오래되었는데, 오래되었다고 해서 지키고, 전통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나? 문화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참여하고, 가치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문화원은 향토'라는 고정된 키워드를 우리가 깨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깨주지 않는다. 쉽지 않겠지만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우리 지역에서도 변화를 시도해보자고 하는 것이 멘토양성사업이다. 더불어 고민하는 것이 젊은 문화 리더 양성 사업이다. 과연 그 지역을 끌어갈 사람은 누구일까? 전통, 기성세대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회

문화원이라는 조직이 전통문화연구라는 범주를 못 벗어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현대인들의 문화를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요즘에 와서 지역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역에서 향토문화라는 전통적인 방식의 연구 행태를 지역학 용어로 바꾸면서까지 방향 설정을 다시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화원의 고유성, 향토문화연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한다는 의미이다.

좀 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정관념을 버려야겠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우리나라가 2017년이면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니 어르신 프로그램이 중요하긴 하다. 문화원이 전국적으로 어르신 문화학교, 어르신 프로그램을 전담하다시피 하니 노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우리도 젊은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

사무처장

문화원에서 마을 조사 사업을 진행한다. 컨설턴트들은 마을 조사를 조사 자체로 끝내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마을 조사를 하여 그 마을에서 나오는 지역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하라. 그 콘텐츠가 지역의 특성으로 연결되어야 마을조사를 진행한 의미가 있고, 성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 문화원은 이것을 잘한다'는 의미는 지역의 특성은 이것이라는 거다. 그렇게 스타문화원이 발굴된다. 경기도 문화원 내에서 스타 문화원이 발굴되어야한다. 전국 단위로 무슨 회의를 할 때 경기도 문화원 사례는 소개가 잘 안 된다. 경기도에 좋은 사례가 많은데, 공유가 안 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좋은 사례를 맛있게 각색을 해서, 성과관리를 하고, 그런 사례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도연합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경기도 문화원들이 이 사업은 어느 문화원이 잘한다고 같이 소문을 내주어야 한다.

사회

경기도에서도 스타문화원을 만들어야겠다. 경기도 문화원 중에서도 특화된 사업을 운영하는 곳들이 많다.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해야할 것 같다.



문화원에서 일하는 우리들, 법과 제도 속에서 길을 잃다

문화정책론 2016 문화트렌드 분석-문화예술교육 영감 사례 10선

V.

경기도
문화원의
미래를
준비하다.

문화원에서 일하는 우리들, 법과 제도 속에서 길을 잃다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이동준

2016년 11월 18일에 진행된
3차 지역문화아카데미의 강의 내용을 정리했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썼는데 모두를 위한 책, 하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않은 책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예를 들어서 글을 쓰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학교에서나 아니면 각자의 일터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 그리고 뭔가 나서서, 그리고 배운 것들을 전수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저도 오늘 몇 명 되지 않지만 굉장히 귀중한 분들이 끝까지 남아 계시다고 생각되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달려왔다. 반갑다.

강의 제목을 <문화원에서 일하는 우리들, 법과 제도 속에서 길을 잃다>라고 달았다.

이렇게 제목을 단 이유는 도연합회에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셨다. '법과 제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처우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직원 연수, 사무국장 연수를 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가 법과 제도 문제, 예산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늘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장은 중요하다. 그런데 한 번 더 거슬러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서로 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서,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서로 물어보고 도움을 주고받으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당장에 법과 제도에 실무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문화 융성이라는 얘기가 붓물처럼 터지면서 시작된 지 벌써 4년이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놓은 슬로건,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크게 방점을 찍었던 부분들이 문화 융성이다. 그래서 문화 분야에서의 열 가지 중요한 정책적 방향들을 제시해 놓은 적이 있었다.

2013.12.19. 문화 융성 원년이라고 했다. 문화 융성의 기주로 내걸면서 하나하나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 중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진도가 나간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드는 건, 가장 많은 피해를 끼친 것이 문화 분야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이후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겠구나 싶다. 하지만 어떻게 중심을 잡고 문화의 꽃과 열매,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했다.

강의 의뢰 시, 두 가지 요청을 받았다. 하나는 법과 제도 속에서 직원들의 처우 문제이다. 문화원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가야 될 방향을 찾고, 직원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는 문화원에서 일한다는 것, 그 속에서 어떻게 삶의 보람을 느끼고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어떤 미래 청사진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강의 자료 양이 많다. 문화원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다. 문화원이 중심을 가지고 추구해야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문화원을 둘러싼 법들, 그 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서, 분석해서 넣은 부분들도 있다. 각 문화원에 속해 있는 규정도 이십여 가지 있다. 안동문화원의 규정집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만든 법령 규정집이 있는데, 문화원연합회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 연합회 중심의 법령, 규정, 문화원의 표준 정관을 넣은 정도이다. 그런데 안동문화원에서는 안동이라는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원의 구체적인 적용 규정집을 정비하여 발간한 책이기에 문화원 직원 입장에서는 안동문화원 규정집이 더 많은 참고가 될 것 같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급하여 규정집을 한 권 얻고 싶었는데, 쉽지 않았다. 타 문화원에게까지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규정상에는 있어서 인가 싶다. 그래도 참고가 될 것 같아 목차만 넣었다.

그 다음 문화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질들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역량들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도식화해서 넣었다. 참고 바란다.

오늘 강의 내용과 참고 자료로 준비한 강의 자료와 큰 매칭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강의 내용은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묻고, 대답하고, 고민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을 새로 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는 강의 후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시작하겠다.

문화 예술 분야의 정책적인 방향성으로 제시한 열 가지 중에서 상당히 (진척)되어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다. 하지만 전면적으로만 측정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역시 성취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문화 체험의 시작을 2013년부터 17년까지(로 삼고) 문화 융성을 실현 하겠다 했다. 국민 문화 체험의 시작, 문화의 일상화, 문화의 일상화를 생활 문화로 실현하겠다는 부분들이 있고, 2017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 하겠다는 목표였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문화체험과 관련하여 가장 우리가 실감 나는 부분들은 '문화가 있는 날'이다. '문화가 있는 날'이 어디서 등장 했을까? 문화기본법에 바로 등장했다. 2013년 12월에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문화의 달, 문화의 날, 문화가 있는 날이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은 최근에 법으로 반영 되었고, 문화의 달은 10월이다. 그리고 문화의 날은 10월 셋째 주 토요일이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다. 국민들이 문화를 체험하려면, 날을 정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아니면 명칭을 개념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비슷한 것으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는 굉장히 무언가 큰 변화를 이끌어

낸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런데 그 개념에 맞게 실질적으로 무언가 되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문제1 문화원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법과 제. 규정이 필요한 이유와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현재 대다수 지방문화원의 법과 제.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라.

대학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주관식으로 답을 써야하는데 제대로 맞는 답을 쓰기는 쉽지 않을 거 같다. 여러분도 도대체 어떻게 답을 써야 할지 한 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먼저 법을 보자.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제도인데 ‘법률’라는 말을 사용한다. 국사 시간에 율령격식이란 말 들어 보셨나? 율령격식. 다 하나하나 뜻이 있다. 그중에서 율이란 말 대신 법이라는 말이 도입됐는데 법과 율이 조금 다르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말에서 어떤 법은 00법으로 끝나지만 어떤 법은 00법률로 끝나는 것이 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지역문화진흥법, 이렇게 명사로 끝나면 그냥 법이다. 그런데 법 앞에 있는 말이 ‘~에 관한’으로 꾸며주는 관용어구로 표현이 되면 법률로 된다. 예를 들어서 지역문화진흥법도 다르게 표현하면 지역문화의 진흥과 어떤 문화기관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는 것이다. 이름을 그렇게 정했다면 말이다. 쪽 나열식으로 된 법령이 있고 명사형으로 이루어진 법령이 있다. 그럴 때 딱딱 끊어지는 것은 00법으로 되어있고, 관용어구로 꾸며주는 것은 00법률, ~에 관한 법률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 다음, 법 아래에 령이 있다. 령은 대개 장관 령, 부령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는데 대개 령이라고 할 때는 대통령령을 말한다. 시행령이라고 표현한다. 시행령인데 법에 '법에서 미비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규칙이 있다. 규칙은 해당 소관 부처에서 더 하위로 세부적으로 정할 때 규칙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시행 규칙이라는 말을 쓴다.

그다음에 더 자세하게 규정하고자 할 때 시행 세칙이라는 말을 쓴다. 그리고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무엇 무엇에 관한 사항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표현이 있으면 그것은 조례에서 정해주는 것이다. 강제로 정하는 규정도 있고 아니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천문화원은 시 차원에서 이것을 꼭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관은 각 지역에 있는 기관단체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정체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정해 놓은 일종의 법이다. 내부적인 법을 정관이라고 하고 그 정관에서 하위적으로, 세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을 규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원에는 정관이 있고 그 정관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 어떤 규정들이 있느냐는 한국문화원연합회 규정집의 표준 규정을 참고해라. 안동문화원 사례 같이 각 문화원 마다 능력에 따라, 처지에 따라, 수준에 따라 정해 놓은 규정도 있다. 그런데 정관과 규정은 계속 운동성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정책에 따라, 여러 가지 변동 상황에 따라서 끝없이 개정을 필요로 한다. 고정된 것은 없다. 법이 늦지 않게 계속 따라와 주어야 된다.

위의 내용을 알고 법과 제도 문제를 보면 된다. 모든 법령, 규칙, 세칙, 조례, 정관, 규정에는 조가 있다. 제1조, 제2조 등으로 표현한다. 조 아래에 항이 있다. 동그라미 친 숫자, ①, ②를 항이라고 읽는다. 제1조 ①항, ②항. 항 다음에 숫자로만 1, 2 이렇게 나오는 것을 호라고 읽는다. 제 3조 ②항에 1호로 읽는다. 그 다음 하위 레벨을 가목, 나목, 다목, 라목 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2호에 가목, 2호에 나목 이렇게 읽으면 된다. 읽을 때 항, 호, 목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②항 2호 나목 이런 식으로. 그것을 읽을 줄 알면...

그럼 2013년 12월에 제정된 문화기본법을 보겠다. 요약하여 문화원을 둘러싸고 있는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법을 설명하면 2조, 8조, 9조, 12조이다. 2조는 기본 이념과 문화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본 이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전에는 문화를 문화 예술로만 국한 시켰다. 아니면 문화 산업에 국한 시키거나 문화재 중심으로만 봤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문화는 광범위하고, 실생활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넓어져야 된다. 그래서 문화기본법에서 보다 광범위한, 유네스코에서 지향하는 그런 문화 개념으로 확대해서 협의의 개념에서 탈피해서 정립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문화의 개념을 전문 예술인들 같은 공급자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서는 공급자 중심이다. 정책 입안자나 아니면 예술인 같은 전문인 위주의 성격이었다. 하지만 그래서 안 되고 향유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복지도 공급자 중심은 아니다, 결국엔 수혜자 중심이

되어야 하니까 중요한 전환이다.

제8조에서 문화진흥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꼭 세우게 했다.

제9조에 보면 '분야별 문화 정책의 추진'이 있는데 11개 분야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1항과 10항이다. 1항과 10항에 지역문화라는 말이 들어있다. 문화 기본법에서 이미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표시하고 있다. 지역문화하면 지방 문화원이 연계된다.

12조 문화행사는 문화의 달, 문화의 날 까지 있다가 최근에 개정 하면서 '문화가 있는 날'을 대통령령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문화가 있는 날'이 뜨고 참여가 높으니까, 이 날이 제도화 되고, 법으로 걸어 놓은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은 아시면 좋을 거 같다. 왜냐하면 문화 영역에서 일을 하니까 문화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변천을 이해하면 우리 인식의 지평이 이렇게 넓어졌 구나 하고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법인 지역문화진흥법을 보자. 2014년 1월 28일에 제정되었다. 앞서 본 문화기본법과 더불어 이번 정부에서 중요한 두 개의 법이 제정된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2조, 6조, 8조, 10조, 15조, 19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조의 정의에 보면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 문화는 결국엔 누가 주인공이나? 지방문화원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지역 문화의 개념을 외우고 있어야 되리라 생각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문화원이 뭐하는 거지? 문화원이 해야 할 사업을 지방문화원 진흥법에서 보면 8가지, 9가지이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이다. 그러니까 지역문화가 무엇인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 덧 입혀서 생활 문화 시설은 이런 것이다. 생활 문화가 시행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다. 문화 도시와 문화 지구.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지역문화 전문 인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역문화 전문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키워내야 될지에 대한 정책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광역시도문화원연합회에서 어떻게 기초단위에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 전문 인력을 키워나갈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쉽게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 되느냐. 지역문화 전문 인력을 키울 수 있는 몇몇 기관들이 지정 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문화원연합회이다. 다른 기관 단체들이 지역문화 전문 인력을 키워 나간다면, 기초지역 문화재단이 저런 인력을 키워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나? 문화원은 도태될 것이다.

그 다음 지역문화 진흥 계획의 수립, 이 부분은 광역단위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다. 기초 단위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생활 문화 시설의 확충 및 지원.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생활문화센터라는 것들이 막 생겨나고 있다. 문화원은 그에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느냐, 신경을 얼마 못 쓰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경기도에서 몇몇 문화원은 이것을 하고 있지만 말이다.

여러분께서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10조를 읽어보고 10조에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나 규칙 같은 것들이 있으니 읽어봐라. 법령 등을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다. 나중에 알려주겠다.

문화 도시의 지정, 이것도 필요하다. 전주, 문화 도시, 문화 지구 도시, 아주 전통 문화 지구 이런 것들을 지정한다. 이런 부분들도 발 빠르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정책적으로 그 도시를 변화 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마련되고 있다.

법률 지식 정보 시스템. 국회에 보면 이런 사이트가 있다. 누구나 다 들어 갈 수 있다. 그럼 검색란에 예를 들어서 지역문화 진흥법을 치면 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한꺼번에 비교하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도 검색할 수 있다. 시스템이 쉽게 되어 있다. 누구나 다 쉽게 접근 가능하다. 지방문화원 직원들은 이런 부분을 적어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정책의 방향을 이끌어 갈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대들 수 있고,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대들 수 있고,

지역에서 지역문화 정책을 리드해 나갈 수 있다. 지역문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문화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목과 스킬이 없다면 도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은 2011년 7월 21일 개정되었다. 1994년에 제정되었지만, 1997년에 지금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조 목적인데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방문화원의 목적이다.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기 위해서 지방 문화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의에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설립 인가 기준에 대해서 문화원이라는 기관이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비 등 재원 수입으로 지역 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인정될 경우이다. 그렇다. 어떤 문화원은 100% 지자체에서 재원을 지원받는다. 이것은 잘못 됐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잘못 됐다. 왜냐하면 문화원이라고 하면 대면적으로 시민들과 접촉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관찬, 아니면 관에 편승 된 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어떤 문화원은 관의 지원율이 낮아 자립이 힘들다. 또 어떤 문화원은 100%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원장도 국장도 시에서 막 잡아 치운다. 이것도 문제이다. 저는 생각하기를 한 7:3 정도는 황금 비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적어도 3 정도는 자체적인 회비에 의해서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 그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비율이 넘거나 낮춰지거나 할 때, 그 정도의 비율을 맞춰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 그것이 문화원이 사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대해서 보자.

이 부분은 행간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지방문화원의 사업을 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의 사업이다. 그럼 거기에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중에서 지역문화, 지역문화, 지역문화, 지역문화, 지역문화... 지역문화가 6번 들어갔다. 6번은 문화 예술 교육에 대한 부분이고, 7번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방문화원의 미션은 지역문화에 활성화에 있다. 진흥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거슬러 가보자. 1993년 7월, 23년 전에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있는 내용이다. 1번부터 8번 항이 있다. 여기서 보면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번 향토사의 조사. 3번, 4번에 보면 문화에 관한 자료의 모집, 보전, 보급. 5번 지역 전통 문화. 이런 말이 있다. 이 부분을 지방문화원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놓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놓으면 우리의 밥줄이 끊긴다. 이것을 놓으면 우리는 완전히 해체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OO문화원 우리는 전통문화, 전통문화하는 93년도에 저 법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저 법에 못 벗어나고 있나?

강사 바뀌었지만 이 의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지금 한국 문화원연합회에서 여러 법률 자문을 받아서 개정 이 필요하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보내왔다.

연합회가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 2015년 부터 2016년 까지 1조, 2조, 3조, 4조 쪽 있다. 1조에 보면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이런 표현들, 향토사와 향토문화 복원 및 보존에 관한 많은 노력을 했음을 인정하고 이런 얘기들, 정의에 보면 역사와 전통, 향토 자료라는 것을 정의에 한 개정으로 내놓으려고 하고 있다. 지역문화 정의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제 3조를 보면 역사와 전통, 문화의 보전, 발전시켜 왔음을 다 알아줘라 하는 얘기이다.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을 우리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이다. 이 기본 계획이 없으니까 문화원 지원이 덜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이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있어서 제 8조를 보자. 지역의 뿌리를 둔 역사 문화에 관계된 문화예술 활동과 그 지원 사업을 하나 더 늘려가고 있다. 제 16조 향토 사례관의 설립, 이런 말들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문화원은 뭔가 전통문화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전통은 지켜야 되고 보전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 고유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후퇴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부분은 문화원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 정조 임금의 이런 얘기를 했다. 신하와 경연을 하면서 온고지신(溫故知新) 하위야(何謂也).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뭘까? 이유경이라는 신하가 온고서이지신서지위야(溫故書而知新書之謂也)라고 했다. 옛 글을 읽고 새 글을 미루어 아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이다. 그러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온당치 않다. 초합지인(그렇지 않다. 아주 초보적인 사람이 그렇게 아는 것이다.)”

대개 온고서즉지신미어기중(溫故書則知新味於其中). 옛글을 익힌다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맛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익지기소부지지위야(益知其所不知之謂也) 그랬다. 알지 못하는 바를 새롭게 더욱더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풀이를 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같다. 이 때 정조 임금은 20대였다. 이 신하는 굉장히 나이가 많을 거 같다.

이게 무슨 차이 일까? 옛것을 미루어 가장 새것을 안다는 우리의 입장, 보통 사람이 아는 입장. 정조가 해석한 것은 옛글을 가지고 익힌다는 것은 그 새로운 맛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몰랐던 것을 더해서 더욱더 새롭게 알게 된다 이런 말이다. 우리는 혹시 학고지신(學古知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 온고지신(溫故知新)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이해하고 있는 것은 학고지신(學古知新)이다. 문화원이 전통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들, 전통문화에 대한 집착은 학고지신(學古知新)하겠다는 얘기로 생각된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 아니라. 이 고(故)하고 저 고(古)는 다르다. 이걸 옛 고, 이것도 옛 고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옛 고(故)에서 옛은 조금 다르다. 그 고사성어 할 때 그 '고(故)'자를 쓰고, 고인할 때 그런 '고(故)'자를 쓴다. 이 고(古)와는 다르다. 이걸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 되었다는 뜻이고, 우린 단순히 오래된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끌어안겠다는 얘기다. 그게 아니고 연고 '고(故)'자를 썼다는 것은 연유, 까닭, 이유, 왜 그러한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온(溫)자를 썼다. 이게 덤다는 뜻의 따뜻한 '온(溫)'자를 썼는데 여기서 어떤 의미로 썼냐하면 익힌다 라는 '온(溫)'자로 쓰였다.

그런데 익힌다 라는 의미에는 배울 '학'이나, 익힐 '습'자가 있다. 학고(學故)라고 하거나 습고(習故)라고 해도 된다. 그런데 왜 '온(溫)'자를 썼을까? 저 온(溫)이라는 것은 따뜻하게 한다는 것이다. 학습화된 것이 아니고 이 배움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럼 옛 전통문화를 우리는 따뜻하게 하고 있는지 그냥 우리만 끌어안고 우리 나름대로 밥벌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인지 옛것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온고지신(溫故知新)과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조는 정조 방식의 해석이라는 것은 그러한 까닭, 그러한 근원 그런 부분들을 자꾸 고고해서 지식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더해 준다 라는 의미이다.

과연 전통 문화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나? 우리 문화원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의 역할을 문화원은 하고 있나? 전혀 아닌 거 같다.

법을 한번 보자. 헌법 제 39조 ①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다. 국방의 의무이다. 그러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데 여성은 제외되고 있다. 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는다. 여성은 국민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 사회봉사의 의무로 바꿔라. 국방의 의무 라는 표현을, 모든 국민은 사회봉사의 의무를 진다. 남성은 병역을 하는 것으로 사회봉사의 의무를 지는 것이고, 또 여성은 시기별로 다르게 그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생각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처럼 지역문화진흥법에서도 그렇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문화기본법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계속 봐야한다. 그 법과 정책이 우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좌우되면 안 된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을 우리를 구속하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방향성과 맞춰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개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 2 문화원 직원의 더 나은 근무 조건과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조직과 개인 차원에서 논하라.

이 문제는 모두가 정답을 못 쓸 거 같아서 충실한 대답은 못되지만 어느 정도 언급이 될 만한 내용들로 정리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사람이 있다.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부인이 편지를 보내온다. '시를 쓰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장으로 '나는 이 일이 정말 즐거운가. 나는 꼭 시를 써야하나. 나는 이 일을 진정 원하고 있나. 나는 이 일이 정말 즐거운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고독한 밤에 질문해 보십시오' 라고 했다. 나는 과연 시 밖에 없는가? 시를 쓰는 이 일이 즐거운가. 그것은 나의 소명이라고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개 문화원의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나는 내가 소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나는 과연 지역문화라는 미션

앞에서 얼마만큼 전망을 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화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그것이 직업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서 취업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일거라고 생각한다. 그때그때 급여 조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전반적인 인생을 설계하고 그 인생의 퍼즐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 경력개발이다. 그래서 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옛날에는 경력 개발을 한 직장에서 했다. 한 직업에서 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좀 많이 달라진 거 같다. 왜냐하면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4차 기술혁명 이런 얘기를 한다. 많은 기술 변화로 인해서 사회가 변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직업군이 나타나고 기존의 직장들은 없어지고, 직장들은 또 도태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리고 커다란 사회변동과 경제활동,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해서도 직업은 영향을 받는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소명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보케이셔널 컬리지(vocational college). 컬리지(college)는 2년제 대학을 말하는 것인데 컬리지 중에서도 보케이셔널 컬리지라는 단위가 있다. 직업학교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케이션(vocation)은 소명이라는 것의 미국식 표현입니다. 독일에서는 베루푸(Berufung)라고 하는데 베루푸는게 루펜(Berufungen rufen)이라고 신이 부른다는 뜻이다. 신으로부터 내가 소명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는 뜻인데 직업을

그와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어에 직업을 말할 때 아큐페이션(occupation)이라고 한다. 이게 중세 유럽에서 점령군이라는 말을 어원적으로 사용했다. 그 지역을 점령한다, 도시국가들 간에 봉건제 사회 속에서 점령한다, 시간을 점령한다는 의미로 그 의미가 확대된다. 그래서 아큐페이션(occupation)이라는 말은 내 하루의 시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부분이 나의 직업이라는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나의 하루 시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열정적으로 투자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에 투자하지 말고 미래에 투자 하라는 거, 그 다음에 폭넓게 사고하고 작은 일부터 실천하라 이다. 이런 부분들이 직업과 연관되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평생직장이 없어지고 있다. 예전엔 평생직장이었는데 지금은 평생직장이나 평생직업이 없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급격한 사회적 변동과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직장 자체가 무너지고 스러지고 그런다. 아무리 좋은 직장도 금방 없어진다. 그래서 자격증을 우리 집사람도 많이 따고 여러분도 많이 따을 것이다. 어느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자격증을 따서 무엇하는가. 자격증을 따지만 또 사회변화가 일어나서 그 자격증이 필요가 없다. 사실은 어떤 자격증을 기획한 단체나 기관에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 자격증을 막 따기 위해서 애쓰는 일 자체가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평생학습 이라는 말이 생겼다. 평생교육. 급격한 사회변동 때문에 계속적으로 직장이나 직업에 투입할 재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훈련과 재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계속 사람들은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미래 직업세계에 대한 전망과 사고방식을 갖고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흥미한 세상에서 정신을

있고 길을 잃고 방황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에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을 얘기해 보겠다. 인재 채용,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한다. 그만큼 후진적이라는 얘기가. 해외에서는 인재 개발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일단은 당신이 들어와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준다. 우수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다. 인재를 그 회사에 들어와서 개발시켜 주는 과정을 겪는다. 이게 차이이다. 문화원이 좋은 직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람을 뽑는 방식 보다는 들어와서 뭔가 협의하고 토론하고 배우고 일하면서 바뀌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정말 좋은 전망 있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한다. 1950년대 후반에 하인리히 벨이라는 독일에 유명한 작가가 있었다. 이 사람이 그때 쓴 단편소설 중에 데어 베그베르퍼(Der wegwerfer) 라는 것이 있다. 광고물 폐기자라는 뜻이다. 너무나 놀랍게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이다. 저도 다음메일에 보면 메일이 1000개가 넘는다. 네이버 메일은 500개가 넘는다. 그리고 네이트온에 쌓여있는 메일을 보니까 한 700개가 넘는다. 이런 부분들 건잡을 수가 없지 않나? 이 분은 이메일 말고 그 당시에도 무수한 우편물들이 왔을 것이다. 무수한 우편물을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가려서 책임져 주는 사회, 관리해 주는 사회다. 광고물 폐기자, 이런 직업이 미래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이런 것이 전망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해줘야 한다. 정보의 홍수 때문에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다. 매매주택 연출가라는 것이 있다. 집을 지었거나, 집을 팔려고 하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살만해야 팔릴 거다. 그래서 매매 주택을 살 만하게 연출해주는 직업이다. 멋진 직업이지 않나? 사이버 언더테이커(cyber undertaker)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남긴 사이버 상에 모든 기록들, 관련된 것을 다 삭제해 주는 직업이다. 저희 문화원 회원

중에 어떤 분 누님이 돌아가셨는데 연고가 별로 없어서 당신이 그 뒤치다꺼리를 다 하느라 몇 달을 새우셨다더라. 금전관계, 채무관계, 연락관계, 남긴 유산 그런 문제가 되게 복잡하다.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우리는 사회 변동에 따라서 어떤 직업이 만들어 질지, 유용할지를 예측하거나 기초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고정된 업무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문화원도 저를 포함해서 고정된 업무, 고정된 직장, 고정된 책상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다. 흔히 문화원 조직이 과로 구성되어 있다. 과라는 것은 고정된 단위이다. 제도화 되고, 계속 반복되는 업무. 거기에 합당한 조직이 과이다. 그런데 팀 조직이라는 것은 상시적인 조직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과제 위주로, 그리고 새로운 어떤 업무가 생겼을 때 즉시 투입되어서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조직, 그것이 바로 프로젝트 팀 조직으로 볼 수 있겠다.

각 문화원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다. 요새는 고정되어서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별로 없다. 어르신 문화사업이라는 것도 작년에 했다고 또 올해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다. 계속 바뀌어 가기를 요하고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팀이 회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에 갔다 그 팀이 다른 회사에도 이동하고 그렇게 한다. 프리 에이전트라는 것이 있다. 프리 에이전트라는 특정 기관,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일적인 급여가 아니라 능력과 성취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 직업인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노마드 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다. 다국적, 다문화 다음으로 소통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들이 유목민처럼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런던에 거주

하면서 마드리드에 비행기 타고 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가서 사는 것이다. 일정기간, 한 10년 살았다가 또 다른 데로 갔다가, 특히 인도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한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미국의 어떤 기업에 채용 되서 근무하다가 또 다시 다른 데로 갔다가 한다. 그래서 문화원 업무도 고정된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유연하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고대 그리스로마 신화에 보면 프로테우스라는 해신이 나온다. 바다에서 사는 신인데 포세이돈의 자녀이다. 포세이돈의 자녀인데 노인으로 나온다. 이 노인이 여성납치를 많이 한다. 납치하는 장면 그림을 보면 꼬리가 두 개로 되어 있다. 프로테우스는 자유자재로 변신한다. 원하는 것으로 꽃, 식물, 바다생물 온갖 것들로 능수능란하게 변신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로테우스적인 경력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 나는 문화원에 평생 가는 거야가 아니고 나는 이천이라는 지역, 용인이라는 지역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원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얼마든지 넘나들면서 지역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전망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평생 고용이나 평생직장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새롭게 자기에게 맞는 일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는 능력, 그 다음에 개인의 경력이 이런 환경에서만 아니라 자신의 관심과 능력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고소득, 지위, 명성 이런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아실현과 행복, 마음의 평안같은 내적인 성취에 있다. 한 직장 내에서 수직 상승이 아니라 특히 문화원에서 수직 상승 해봤자 어디인가? 다양한 직장 경험하고 세상 경험하고, 독특한 경험들이 자산이 되는 것이다. 그 경험은 실패 경험도 포함 되는 것이다. 옛날에 실패한 경험은 부끄러운 경험이었었는데 지금은 실패 경험이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다. 그건 경력개발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자신을 변화시키고 끊임없이 학습하고 준비하는 프로테우스 같은 경력을 갖춘 직원이 보편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내용은 제 생각만이 아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을 이끌어내고 정리한 것뿐이다.

또 한 가지, 안타이오스라는 그리스로마신화에 싸움꾼이 등장한다. 가이아의 아들이다. 대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레슬링을 한다. 그리고 레슬링에서 지면 가차 없이 죽여 버린다. 그러던 어느 날 강적을 만서 계속 지게 된다. 그런데 대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서 땅에 내던져 지면 더욱 힘을 얻어서 일어난다. 이 강정인 사람도 결국엔 너무 지쳐서 쓰러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안타이오스의 허리를 번쩍 안아 들어서 올린 다음에 든 상태에서 목을 꺾어서 죽여 버린다. 이 강적이 헤라클래스이다. 저는 지역문화 전문가 혹시 이 자리에 문화원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안타이오스와 같다고 생각한다. 지역문화라는 토대위에 지역성 기반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있지 않다면 이렇게 들려져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힘을 잃고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만큼 지역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활 문화를 하든지 아니면 평생 학습을 하든지 어떤 다른 영역에서 일을 하든지 우리가 자기 지역성에 디디고 서있지

않다면 이런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주민이 문화 예술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모든 유, 무형의 모든 활동들을 생활문화 라고 규정 한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자발적인 예술이라는 콘셉트가 확산하고 있다. 자발적인 예술은 무엇일까? 별문터리 아트(voluntary art)라고 하는데 별문터리 아트(voluntary art)라는 것은 커뮤니티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소통을 목적으로 다양한 협업과 협력으로 전문가들끼리 하지 않는다. 일반 시민들과 소통을 하려한다. 그리고 그 권위마저도 놓으려고 한다. 그 개방성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예술. 이것을 자발적 예술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생활의 성격과는 다르다. 우리는 아직도 문화생활을 누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 문화생활과 생활 문화는 다르다. 문화생활은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려서 누리지 못했던, 바이올린을 배우거나, 공연을 보거나, 미술을 그리거나 이런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되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젠 우리도 다같이 공평하게 해보자 라는 정책이 생활문화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문화 향유를 하자는 정책이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활문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공연해보자는 것이다. 우리가 그려보자는 얘기이다. 우리가 저질러 보고 지역 사회 자체를 어디 공연장이나 미술관 전람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골목길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이다. 우리 집에서 그와 같은 작업을 미술 작업을 해보자는 것이다. 생활문화와 문화생활은 180도 다르다. 그래서 생활문화 자발적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성과 공동체성이다. 그리고 그것을 더 분석해보면 코메인(kommein)이라는 것인데, 코메인은 커뮤니티의 어원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걸어서 하루, 한 반나절

동안 걸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그 범위 내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지역, 범위. 그것을 코메인이라고 한다. 내가 직접 마주치고 이야기 나눌 수 있고 함께 뭔가 수작부릴 수 있는 그런 작은 단위에서의 지역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과정을 함께 겪어 내는 것,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성과 공동체성에 기반위에서 생활문화가 일어나야 되고 자발적 예술이 일어나는 기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까지는 그들의 문화였다. 우리들의 문화가 아니었다. 그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전문가이고, 그들은 예술가이고, 그들은 정책 기반자고, 그들은 권력자고, 그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자들이었다. 우리들은 누구일까? 힘없고 그저 그들에게 업무 보조를 할 뿐이었다. 그들과 협력해서 문화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단위에서 자족적으로 참여해서 새로운 문화창조 활동을 하는 것을 바로 생활문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입장이 바뀌는 것이다. 올해 유럽에서 행하고 있는 벌룬터리 아트(voluntary art) 위크는 영국과 아일랜드 섬, 유럽 본토 등 수많은 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벌룬터리 액트(voluntary act)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대단한 것이 아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예술가가 만드는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만큼 '작품 행위 속에 이미 감상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어야만 예술이 예술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넓어진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보겠다. 뜨개질 프로젝트를 한번 보겠다. 아일랜드의 한 도시인데, 뜨개질을 하는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다. 버섯 모양으로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온갖 곳곳에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사는 공간을

예술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저는 악어의 눈물을 얘기하고 싶다. 크로커다일 티어즈라고 악어의 눈물 혹시 아시나? 악어가 자기보다 더 큰 짐승을 잡아먹을 때, 물소를 잡아먹을 때 입을 크게 벌린다. 그럼 그 큰 입속으로 물소 뒷다리가 다 들어간다. 그러면서 점점점점 들어가게 된다. 그럴 때 악어는 눈물을 흘린다. 놀랍지 않나? 악어가 측은지심이 발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과학적으로 보니까 자기보다 큰 먹이를 삼킬 때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라고 한다. 그런데 고대에서는 악어가 자기가 먹게 되는 그 먹잇감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 눈물을 흘린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악어는 누구인가? 우리 문화 영역에서의 악어는 누구인가? 저는 결단코 문화예술인이 그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온고지신(溫故知新)이 아니라 학고지신(學故知新)을 일삼아 왔던 문화원에 소위 향토사를 점령해왔던 사람들도 악어였다고 생각한다. 1365 자원봉사 시스템, 행정안전부에서 만들고 있는 사이트다. 보건복지부에서 만들고 있는 VMS 사이트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어서 문화 품앗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원봉사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까놓고 얘기해서 다 허당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은 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봉사라는 개념을 버려야한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자원봉사는 점수 따기 봉사이기 때문이다. 점수라는 관념을 디디고 올라서지 않는 이상 유럽과 같은 선진국형의 벌룬터리 액트(voluntary act)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문화품앗이를 한번 보자. 구체적으로 봉사자가 필요한 수요처와 내가 자원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 사람 간의 매칭 시스템이 아주 정교하다. 내가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 라고 들여다보고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요식행위이다. 점수만 따면 되니까. 지역 문화 자원활동가 벌룬터리 액티비스트 인 컬처 아트(voluntary activist in culture art). 저는 지역의 문화 운동가이자 문화 매개자, 그다음에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 촉매자, 그다음에 지역 문화의 프로그램과 행사와 활동 전개를 위한 문화 관리자, 예술가, 문화 공간, 지역민을 연계시키는 문화 코디네이터, 지역주민 서비스를 위한 문화 복지사 이런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중개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역문화 자원 활동가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직원이라는 틀을 부수고 나는 과연 내가 속해있는 이 지역에서 지역문화를 위한 자원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 디자이너, 문화 기획자라는 말을 몇 년 전부터 저희 이천에서도 쓰고 청소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서 대담한 상상력을 가지고 각 지역문화를 새롭게 디자인 하고 이를 실현해 갈 수 있는 문화 인력, 지역문화 전문 인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가? 문화원은 아직 준비하고 있는 거 같지 않고, 한국문화원연합회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거 같다.

디자인을 한다는 일은 기존에 형성된 직업이나 근무조건 또는 법과 제도 속에 안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법을 만드는 것이고, 새롭게 지평을 열어가는 것이다.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당신들이 지역 생활문화에 주역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과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다양한 실패의 경험들과 창조적 사고, 인문학적 시각,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문화,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나는 OO문화원의 직원이 아니라 이제 부터는 이 지역을 바로 내가 맡아서 지역문화를 꽃 피울 수 있는 내가 주역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내가 주역이고자 하는가 라는, 내가 주역이길 원하는가 하는 자문들을 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문화원에서 만족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것으로 마치겠다.

질의응답

OO문화원 국장님의 마인드가 나오는 강의였다. 프로테우스적인 경력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는 것인지?

강사 저는 문화원에서 근무한 지 벌써 5년이 됐고, 예전에는 3D 업종에서 조금 일을 했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큰 자산이었다. 그리고 3D 업종을 하면서 한 7~8가지를 경험해 본 거 같다.

컴퓨터 자수, 지하실 건물 새로 짓는 곳에서 이렇게 뿌리는 것, 페인트 칠, 벽돌 나르기 몇 가지 일을 했다. 그 때 한 1년 정도 가출 아닌 출가를 허락을 받아서 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제 삶의 자산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시선을 바꾸면 나의 실패가 귀중한 삶의 자산이 된다. 위기는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과연 내가 인생에서 맞이한 위기를 기회로 맞을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

OO문화원 문화원 정관에 표기된 문화원이 할 수 있는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향토사 보존, 전승, 개발이다. 그런데 연합회에서 이제 바꾸려고 개정을 한다고 하셨다. 말씀하셨듯이 저희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기인 것 같다. 향토사에 대한 정립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기관들이 향토사에 대한 사업권을 가질려고 하고 관심도 많아졌다. 문화원의 사업 중 향토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문화공동체나 동아리나 뭐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해했다. 그런데 저희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더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향토사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했다. 그래서 현재 정책 사업도 중요하지만 향토사에 대한 정립이 먼저 된 다음에 생활문화공동체나 그런 사업에 관심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 방향성을 잡고 있다. 그런데 문화원이 미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셨으니깐 어느 부분에 더 초점을 더 보여서 발전시켜야 되지...

강사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문화원이 해야 될 것은 특히 전통문화와 관련해서 온고지신을 하자는 입장이다. 온고지신을 하자면 향토사를 기존의 생각, 개념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학을 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저는 지역학이 그런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학문이라 생각한다. 지역학이 꼭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토사를 아우를 수 있다. 단순히 지나간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인문지리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체계화하고 시민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향토사는 어떤가? 소수의 사람들만 점령하고 있고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는다. 그리고 과거에 정리된 시각은 과거의 시각으로 굳힌다. 관찬읍지류이다. 내 지역을 바라봤던 그 당시 지배 권력의 중앙 파견 관리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우리 지역이다. 우리가 바라본 우리 시각에서 다시 지역을 재점검해야 하고 과거 역사를 다시 새김질 할 필요가 있다. 온고 지신이라는 것은 과거의 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김질하면 과거에 편찬되어 왔던 우리 고장을 기술해 왔던 읍지류가 상당히 새롭게 다가오고 거기서 찾아낼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향토 산업에만 그쳐버린다면 우리는 화석화된 것의 보존에 그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한다.

OO문화원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다.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라도 하나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강사 모든 지역의 문화원이 그동안 했던 것이 향토사 사업이다. 향토사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앙과 대비되는 논리이다. 중앙사와 대비되는 의미의 향토사. 그건 뭐냐 중앙사의 언저리이다. 그런데 향토사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사의 관점, 지역학의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 지역을 바라본다는 관점이다.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 편찬되어 왔던 기록들도 다시 한 번 살펴보자는 얘기이다. 그렇지 않고 과거의 기록, ‘옛날에 이랬어’라고만 계속 강조하면 새로운 미래로 자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지역학으로의 발전이 지역문화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앞서서 필요한 것은 옛날 소수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한문을 아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이 점유했던 기록이 아니라 모든 부분들, 옛 기록들과 지금 현재의 기록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기법으로 아카이브 할 필요가 있겠다. 10년 전에 구술했던 할아버지 이야기, 아니면 20년 전에 불렀던 우리 지역의 민요. 이런 내용을 듣고 싶으면 누구나 자기 지역 사이트에 들어가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예로 광고동을 누르면 그 당시 82세 할아버지가 재연했던 노동요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듣고 내가 흥이 나서 아이들에게 전수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개작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지역학이 전개될 수 있는 미래적인 전망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향토사는 그런 부분들로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OO문화원 이천문화원은 그런 작업을 했나?

강사 지금 하고 있다. 아카이브 작업을 올 해는 오디오

테이프를 녹음 했던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홈페이지에 하나하나 지역별로, 장르별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전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진들을 가능한 한 수집해서 연도별, 지역별, 장르별, 주제별로 구분하여 사람들이 그 당시 우리 지역이 어땠는지, 그 당시에 우리 지역 건물이 어땠는지, 그 당시에 생활상이 어땠는지 그 모습을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계획하고 있다. 그게 진정한 아카이브를 통한 문화 콘텐츠로의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

이천문화원도 민속조사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안하는 건 아니다. 하는데 시각을 달리해서 지역학으로 방향 전환이라기보다 새롭게 재해석 되게, 강점을 달리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아카이브나 이야기꾼 양성이나 결국엔 소재가 지역이다. 지역이 뭐 산신제나 이런 사업도 한다. 이런 사업 수행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것만 파고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OO문화원 예산은 어디서 보조받나?

OO문화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다른 문화원들은 산신제만 파고든다. 굉장히 향토사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다. 이천문화원은 지성미 산신제를 파고드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 파고들기도 하지만, 여기서 다시 파생되는 또 다른 이야기를 찾는 것이다.

사무처장 부연설명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도연합회는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을 아카이빙한다’ 라는 부분에 대하여 ‘현재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향토사라는 것들을 ‘옛날 고을에 군수 같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쌓여있는 기록을 다 발굴을 하여, 현재화로 번역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현재에서 어떤 의미인지 밝혀내는 것. 그것을 현재 사람들이 보더라도 의미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본다.

아직 과제이긴 하지만 도연합회 사업인 ‘미래유물전’ 같은 것들이 앞서 말한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

‘미래유물전’의 부제 슬로건은 ‘지역을 재구성하자’이다. 권력있는 사람들, 힘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기록해 놓은 것만이 아니라 일상과 지금 현재들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전시했을 때 ‘지금의 지역을, 우리 지역은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드러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이다. 사실은 문화원 차원에서 이런 고민과 사업을 하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갖고 있다. 미래유물전은 작년에 이천 전시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역을 재구성하는 의미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문화원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 점이 저한테도 고민이다.

OO문화원 저희 지역은 시청에 향토사료실이 있다. 저희 원장님이 향토연구소를 만드셨는데 시에서 시청에 향토사료실이 있기 때문에 더 필요 없다고 하면 향토연구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국장님은 그런게 아니니까 지역학 연구소로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원장님은 향토연구소로 해야 된다 주장했고, 향토연구소가 되었다. 원장님께서서는 향토사를 지역에서 누군가 안하면 아무도 안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OO문화원 문화원 공동의 지향성을 법조문에서 제시는 하고 있지만 각 문화원마다의 여건이나 지형들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원마다 지향해야 할 바도 다르다. 그런데 대다수의 문화원의 주요 세력이라고 할까? 원장님들을 비롯해서 주요 임원들의 의식은 아직까지 바뀌고 있지 않다. 향토사 부분들을 아쉬워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회에서 못 알아주고, 그 동안 우리의 숨은 노력과 애쓴, 묵묵히 음지에서 일을 해왔다 이런 부분들은 강조하지 않고 계속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문구를 작성해서 개정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대세가 아닌데 개정이 되겠나? 지역문화진흥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화원은 계속 피해 의식적인 방식으로 참여하여 안타까웠다. 그래서 재단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문화원은 문화를 선도해 나갈만한 소위 그 한국 사회의 문화영역, 특히 전통 문화를 선도해 나갈만한 역량이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방문화원만을 위한 법은 아니므로 지역에서 전통문화를 담당하고, 고수하고, 보존 유지 발굴하는

역할을 맡은 단체들이 이젠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움직이고, 선도해 나가려는 움직임과 몸부림이 없다면 그 단체들이나 재단에서 얼마든지 문화원에서 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 법과 제도가 제시한 방향을 다 선점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한 10년 뒤, 20년 후를 보게 되면 문화원은 향토사로서의 의미는 있으니까 향토사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쭉그러들 가능성이 있다.

사무처장 고문서에 '0월 0일에 이것이 있다.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향토사학자들이 많다. 사실을 진실로 보고 있는 거 같다. 그런데 진실이라는 것은 이런 사실들이 현재적인 것으로 재조명 됐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했을 때 지금 현재 의미 있는 사실로 끌어들이는 것이 저는 온고지신이라 생각한다. 지역문화원이 향토사전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전에 있는 기록들을 발굴했을 때 진실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향토사를 정리해가려고 하고 그 방향을 좀 바꾸자 하는 제안이 아까 학고지신이 아니라 온고지신을 뜻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

OO문화원 향토사도 사실 순환 과정에 있는 것이다. 가장 좋은 예가 그리스로마신화다. 신화를 계속 콘텐츠로 활용하고, 텍스트로 활용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문화원의 향토사 측면도 옛날 것이 진실이든 사실이든 그대로 기록해 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거기서 뭔가 의미를 찾아서 현재에 적용하고, 그 현재 것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작업, 순환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마인드가 없으시다. 교육을 들을 때 마다 가장 크게 고민되고 생각되는 것이 정말 문화원에 근무하면 지역문화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이다. 어르신 사업이든, 청소년 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기획을 할 때, 가령 어떤 설화를 발굴해서 설화 같은 것은 향토사를 발굴하는 것이므로 발굴해서 이야기로만 남겨 놓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것을 연극으로 만들어 본다든가, 노래로 만들어 본다든가 청소년을 찾아가서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이 있을 테고, 또 그것이 다른 것으로 확장 되서 다른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순환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어르신들은 ‘뺏기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사실 그것도 필요하긴 하다. 왜냐하면 미처 발굴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발굴하는 것은 발굴해 가며, 또 기록은 기록으로 남겨 가며, 기록물을 현재에 적용하고 현재에 적용한 것으로 다른 또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활용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 순환이 계속 되어야 하고,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든다.

강사

향토사를 잘 하는 데는 그렇게 확장되는 지역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향토사라는 콘셉트나 그동안에

해왔던 성취들을 보면 그냥 그 지역에 고립되어 있다는 얘기이다. 지역학과 향토사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시간적인 맥락들을 이어준다는 것이다. 과거로만 두지 않고 현재적인 관점에서 그다음에 미래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전승할 것이냐에 대한 시각도 아울러 갖는 것이고, 공간 장소적인 맥락들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이게 우리 지역에서만의 사건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되어 온 부분까지도 아울러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OO문화원 향토사와 보전 발굴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굉장히 억눌려 있는 것 같다. 향토사, 보전 발굴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각의 전환점, 바뀔 때가 돼서 용어만 달리 쓰면 되는데 단어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

OO문화원 세대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 같다. 지금 과도기 인 거 같다. 우리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향토연구소에서 지역학으로 바꾸자 하여 간판도 새로 걸고, 위원도 새로 구성하였다. 다른 지역도 용인학, 성남학 이라고 하며 바뀌는 추세니까 우리도 지역학으로 하자 그러고 일단 출발했다. 새로이 연구위원을 구성했지만, 연구위원들은 여전히 그 전통과 향토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제향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 사람 학자야?, 전공자야?'라며 이런 것을 먼저 따진다. 우리 실무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다. 전공자도 필요하지만 정말 체감하고

체득할 수 있는 가령 문화원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관심을 갖고 있는 비전문가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을 합류를 시켜 지역학이 되려면 향토연구소가 아니고 지역학 연구소가 되려면 옛날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된다. 현재 진행형까지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더 젊은 세대가 들어오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극을 통해서 작은 실천부터 해서 앞으로 변해 갈 것 같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참 어렵다.

OO문화원 지역학 이야기할 때 지금도 이해는 잘 안되지만 뭔지 모르게 맞는 것 같다. 자꾸 반복적으로 푸쉬를 주니까. 그런데 단어가 주는 것이 있다. 그걸로 정해지면, 몸으로 체득해 지는 언어라고 하는 것처럼 향토사도 우리가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지역학으로 바뀌면, 바뀔 때를 전환점으로 그 단어로 갈아타는 준비를 우리도 모르게 한 것 같다.

OO문화원 지역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학문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애매할 수 밖에 없다. 큰 방향만 알 뿐이지, 이제부터 구체화 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강사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는 것과 같이 단어가 바뀌는 것으로 상당한 변화를 체험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OO문화원 앞으로 지역학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향토사만 하면 안될 것 같아.’, ‘이제 현재의 것도 뭔가 찾아야 할 거 같아’라는 움직임이 시작이 되면 조금씩 변할 것이다.

사무처장 문화원이 향토사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아니다. 문화원의 중요한 미션이다. 이전엔 향토사를 발굴하는 것도 버겁기 때문에 발굴을 먼저하자였다. 그런데 단계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발굴함과 동시에 이것들을 ‘현재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동시 트랙을 전제로 향토사연구를 진행하면서 현재적인 의미의 문화원 사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OO문화원 스케일이 더 커지는 것 같다. 전문가들에게 향토사 발굴을 하게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활용을 하는.

사무처장 그것은 그것들대로 그 사람들의 역할인 것이고 문화원의 역할이 발굴하는 역할은 아니라는 것이다.

강사 그건 박물관에서 하는 것이죠.

OO문화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 같다. 우리 지역은 박물관같은 시설, 조직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자료를 찾는 문의가 많이 온다. 예를 들어 산에 관한 자료가 있지 않느냐해서 “시청이나 산림청 그런데 있지 않을까요” 했는데 “문화원에 그런 자료가 다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한다.

OO문화원 문화원에는 모든 자료가 옛것에 관한, 옛날 것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시청이나 담당할 것 같은 단체나 기관에도 자료가 없어서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엔 문화원에서 찾는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문화원이 기본적으로 지역 자료실의 역할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한다.

사무처장 만약 어떤 지역에 산에 대한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시지나 다른 연구서에 지역 산의 현황이나 산과 관련한 설화나 역사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산에 대한 정보를 알기위해서 우리 지역의 산에 대한 책을 우리가 내야 돼.' 이 관점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여러 인문, 지리, 자연 같은 것들의 아카이빙, 향토사 연구는 2차 고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 문화원의 향토사 연구는 이제부터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들을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쪽하고 많이 진행하고 있다.

OO문화원 우리는 아직 사이버나 온라인보다 종이식의 향토 자료가 익숙하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아직까지 그게 익숙하다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도 연구논문 같은 것을 학교에서 하다보면 이런 지문도 있지만 사이버상에

바로 더 확실하게 와 닿는다는 말이다. 그럼 지역학에서 아카이빙하고 하는 부분들이 지역에서, 지면에서 한 단계 더 덧씌워져 활용할 수 있는 게 아카이브 하는 지역학이라고 생각한다.

OO문화원 향토사 연구를 책 내는 것으로 끝내지 말자라는 것이다. 책 내는 것은 책 내는 것대로 책 쓰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파트는 그대로 두되, 문화원에서 이제 책 내고 끝내는 사업이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무슨 결과물들, 의미 있는 자료들을 만드는가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에 대한 염두가 된 기획이 될 수 있도록 문화원의 사업형태가 프로세스가 잡혀야 된다.

OO문화원 지금처럼 누군가 향토사에만 집중해서 하자라고 하면 딱 30년 뒤 미래를 생각하면 진짜 문화원은 답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예전엔 문화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먹혔는데 지금은 문화재단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 단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 방식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향토사도 지역학이라는 것을 입혀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개선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앞으로 향토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설득 해 나가야 할 거 같다.

OO문화원 우리가 향토사 사업을 하지만 아카이브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설화로 이야기 경연대회

나 책을 만든다던지.

OO문화원 오늘 나누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 알겠다. 여기서 이야기 하기 창피하고 너무 부러운 것이 향토사든 지역학이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리타분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정립이 된 상태에서 지역학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것일 텐데 우리 문화원은 지역정체성을 밝히는 데에도 버겁다. 이런 사전 작업이 향토사 연구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사무국에서 서브역할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작업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국장님 포함 3명의 직원이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어떻게 발전 시켜야 되나,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너무 버겁다. 그래서 이천이나 다른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사실 좀 많이 부럽다. 우리는 지역 정체성도 다 밝히지 못한 상태인데, 다른 문화원들은 앞서가고 있다.

OO문화원 정말 이천 시민들이 이천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을까? 문화원도 정말 정체성을 생각하며 움직이는 임직원, 회원들이 있을까, 나는 지역 정체성을 염두하고 일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하면서 '아! 이거구나 지역성은...'이라고 조금씩 느낀다.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역성이 들어와서 일을 하다보면 이렇게 변화 되는 게 지역성인가 보다 그렇게 변화된다.

사무처장 내년도에 지방문화원 원천 자료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이 전국문화원으로 지원될 것이다. 오늘 이야기한 사업과 관련하여 그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보길 바란다.

OO문화원 수도권에는 동두천, 하남, 의왕 등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에서 독립한 지역들이 있다. 독립한 지 2~30년 정도 밖에 안 되었기에 그 지역의 문화원 직원들이 지역 정체성 확립에 대한 고민은 당연한 것 같다.

OO문화원 우리 문화원은 시 사료집 발간 사업을 다시 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작업을 박물관에서도 하고 있다. 문화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지역에 관한 자료를 문화원에 와서 문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우리 지역은 문화원에 올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 문화원이 사료집에 영향력을 끼친다거나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직원 세 명이서 틈새시장을 노려야 한다고 고민한다. 박물관에서 할 수 없는 것, 재단에서 할 수 없는 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속제를 녹화를 해서 계속 축적을 시킨다거나, 소리를 축적을 시킨다거나 그런 틈새시장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고민이다.

사무처장 박물관에서 향토사 발굴 사업을 욕심내면, 박물관에서 하게 하고 발굴한 원천 자료를 활용하는 사업을 문화원에서 하면 어떨까. 교육 사업이나 공연 같은

것 말이다. 원천자료를 바탕으로 두 번째 단계를 문화원에서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불현 듯 들었다. 사업권 때문에 다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구한 자료만 사용해라. 관점만 달리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OO문화원 우리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10년 뒤에 문화원이 다른 기관과 합친다거나 없어지지 않을까? 과연 우리 문화원이 수강생들의 문화학교 말고는 할 것이 뭐가 있을까? 운영이 잘되는 문화원들도 있지만, 우리 같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문화원들도 있을 거 같다.

OO문화원 토론회를 해라. 문화원에 대한 토론을 하셔서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봐라. 관점을 바꿔야 할 거 같다. 앞선 문화원처럼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문화원이 생각보다 많다.

OO문화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시에서 역사 해설사를 양성사업을 한다. 사실 우리가 문화원에서 하고 싶었던 사업이다. 그런데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했다. 옛이야기나 인물전 이런 자료를 요청했다. 정말 주기 싫었다. 우리가 애써서 발굴한건데 왜 니네들이 가져가서 활용을 하느냐 하는데, 안줄 수가 없다. 그런 것처럼 박물관에서 향토사를 발굴하면 기다렸다가 다음 단계 사업을 계획해서 써먹는 거다. 어르신들 만나서 귀하게 얻은 사진인데 가지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사무처장 문화원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직원들이 문화원이 향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직원들끼리 정답을 이야기 한다기보다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장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향토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부터 지역문화, 생활문화, 동아리 사업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문화원 조직 운영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각각의 이야기 할 것들이 구체적으로 매우 많다. 그리고 그 고민의 정도도 굉장히 구체적이다. 이런 내용을 직원 연수라는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조금 더 다른 형태에 간담회, 좌담회 등 이런 논의의 장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OO문화원 그런 주제를 국장님들이 논의하시면 변화가 더 빠르다. 직원들 보다 실권이 있는 분들이시니까. 원장님들에게도 이런 변화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거나 논의할 수 있는 좌담회가 있으면 좋겠다.

OO문화원 오늘 나눈 이야기를 원장님들, 국장님들과 나누어도 좋을 것 같다. 그분들에게 더 필요한 내용 같다.

OO문화원 우리가 지역학으로 변경하고 정관도 바꾸고 명칭도 바꾸고 개소식까지 했다. 직원들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건의하고 원장님을 설득해서 했다. 그런데 소장님과 연구위원들의 관점에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

오늘 교육 내용을 우리 문화원 내부에서도 진행하고 싶다.

OO문화원 지역학 관련 연구소가 문화원 소속인가? 아니면 단독, 독립으로 있나? 문화원 내에 향토문화연구소가 다 만들어져 있다. 아직 이 연구소를 더 활성화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분이 있다. 지역학으로 확장시켜 가지고 가야된다는 방향 설정이 아직 경기도문화원 차원에서 안 되어 있다.

OO문화원 지역학을 하되, 지역학이라는 기구를 문화원에 둘 것이냐, 박물관처럼 독립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사무처장 지역문화원에서 기존의 향토문화연구소를 확장 개편해서 운영하는 것이 향후에 사업의 확장성이나 지속가능성, 추진능력에 있어서 훨씬 더 힘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문화원이 지역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기본적으로 향토사를 정립하자 라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논의들이 조금 더 성숙해져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향토사를 발굴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 축으로 공론화 시켜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총합이 되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건강한 결론들이 나와 주면 좋겠다.



문화정책론 2016

문화트렌드 분석

문화예술교육 영감 사례

10선

지혜로운봄 대표 민병은

2016년 11월 17일에 진행된
3차 지역문화아카데미의 강의 내용을 정리했다.

사례1_도예작가 니시무라의 도전

제가 올해 5월, 우연치 않게 일본에 다녀오게 되면서 한 도예작가가 제 눈에 들어왔다. 이 사람은 흙으로 그릇을 빚는 작가이다. 이 분이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더라.

“도예 작품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시작했어요. 내가 만든 작품이 그릇이냐. 작품이냐 아니면 물건을 담는 그릇이냐 이거죠. 원래는 그릇이 본질이잖아요. 작품이기 이전에. 그런데 물건을 담는 그릇은 비어있어야 그 쓸모를 다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비어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담아야 하는데 이 담는 내용물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니시무라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 무엇을 담는다는 본질, 그래서 그 무엇이 무엇인 이유를 알아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벼농사를 짓고, 만들어진 쌀로 도기 술을 만들었다. 그리고 염전 밭에 나가서 소금 채취를 직접 한다. 그리고 소금 그릇을 만들었다. 그런데 다음번 고민이 무엇이나면 도기 술을 만들었는데 이 도기술으로 밥 짓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동네 할머니를 섭외해서 밥을 짓기도 하고, 쌀 반죽을 해서 떡 만드는, 안이 울퉁불퉁한 것이 들어가 있는 (절구 같은) 도기 그릇, 그 안에다 쌀을 넣고 찜고 뿜아가지고 만드는 것들을 한다. 그래서 그릇이라는 도구와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바라보는 그런 활동들을 살면서 한다. 그냥 이게 (니시무라의) 삶이다.

그리고 나서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과 행위의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 도기를 빚고 (그 그릇으로) 마시는 등의 행위들을 하면서 동네에 있는 다례를 하시는 분을 초빙을 해서 그 자리를 꾸민다. 그래서 다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마련한다. 작품으로써 유리관 안에 들어가 있는 다기가 아니라 차를 마시는 사람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사람 표현이 '다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마련해서 이 다기를 이용해서 차를 마시는 행위를 한번 해봤더니 자부심마저 생기더라'는 것이다. 예의, 차를 마시는 행위가 갖는 예의를 보고 굉장한 느낌을 깊게 받는 거다.

그리고 술을 빚고 마을 축제를 관장하는 사제가 있다. 빚은 술잔을 준비하고 축제를 관장하는 사제를 초빙해서 술에 대한 배움을 같이 함께한다. 이게 축제에 술이 올라갔을 때 어떠한 의미인지를 만들어 가는 거다. 마을에서, 그래서 자기가 만든 주병과 술잔으로 있어야 할 자리를 만드는 거다.

나의 활동이 그냥 “하나 만들었어, 만들 때 느낌이 어때.”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고민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 분이 술 빛는 분을 모셔서 (마을에서)하는 거다.

그리고 직접 벌꿀을 친다. 아이들이 오면 자기가 빛은 꿀향아리에다 꿀을 담아서 먹는 활동을 한다. 이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때, 벌에 대한, 꿀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니시무라가 운영하는 갤러리와 도예공방 앞(마당)에 이상한 것이 있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가마를 만들었나 했다. 부엌이다. 부엌에서 이 사람은 노 플랜 파티라는 것을 한다. 그게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자급자족 파티다. 그래서 플랜이 없다. 그냥 지역 요리사들이 혹은 음식을 만들고 만들어서 먹는 사람들이, 그릇 만드는 사람들과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임이다. 그릇을 쪽 가져온다. 본인이 만든 그릇이다. 그리고 음식 만드는 사람들은 본인 음식을 그 그릇에 담을 것이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는 누가 요리사여야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관심있는)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연령층에 대한 제한은 없다. 직접 불을 때서 만든다. 콘로나 가스가 없다. 하나씩 (아궁이?) 차지해서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린다. 테이블 세팅도 알아서 스스로 한다. 자급자족 파티가 되어 버리는 것인데, (공방 앞마당에서 진행하고 있으나)지금 언덕 너머에 새롭게 짓고 있다.

동네를 다니면서 부뚜막 같은 것을 얻어온다. 이게 가만히 보면 부뚜막처럼 생겼는데 개량된 부뚜막이다. 구멍에 불을 집어넣고 불을 때는데 이것이 공기구멍이다. 이거를 사용하던 할머니한테

얻어왔다더라. 자기가 만든 그릇하고 바뀌었다더라.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이 분(니시무라)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당신이 먹고 있는 음식은 저기 옆에 있는 밭에서 나온 것이고, 이 음식은 이 할머니가 이래 이래 이렇게 만들어 준거야. 그리고 당신이 먹는 그릇은 저 아래 공방에서 만들어진 거다. 우리 동네에는 두 개의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데 산 아랫마을에서는(지금의 공방) 도기 가마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산 위쪽에서는 산 속 부뚜막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올 것이다.”

이것을 상상하고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이것을 계획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하고 있다.

이 분이 결국은 나의 활동에 대한 고민을, 삶에 대한 태도에서 부터의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 분이 시내에 갤러리를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런 카페도 운영하고, 작품도 만들고 있다. 재밌는 작업은 뭐냐면 작품을 의뢰받아서 만드는데 ‘우리 집 앞마당 흙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 흙으로 작업을 한다. 요즘엔 태토 작업이 다 되어 있는 흙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분의 공방을 가보면 물레치는 실내 공방보다 태토 작업을 하는 바깥 공간이 더 크다.

손으로 다, 그야말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시작과 끝을 맺는데 그 하나하나 활동에 새로운 관점과 태도가 있는 것이다.

결국은, 그릇 만들고 음식 담아서 차 마시는 프로그램을 하고, 술 마시는 프로그램을 하고… (보이는 것은) 우리와 똑같다.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사례2_누구나 학교

누구나 학교이다. 배움과 나눔에 대한 플랫폼이라고 한다. 수원시 평생학습원 정상훈 관장님이 쓴 글과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심포지엄 가서 보고서 ‘와! 이거 재밌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말그대로 누구나 학교이다. 누구나 학교를 열 수가 있는 것이다. 누구나 가르칠 것이 있다라는 것이다. 자격증이 있어서, 그리고 누군가의 경험이 출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식과 경험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누군가의 지식과 경험은 당신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 나이, 직업, 자격증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학교이다. 그러니까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필요한 모든 주제가 강의가 된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은 학습기관에서는 미처 배우지 못한다. 지혜, 지식, 노하우 등은 사실은 살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소소한 일상도 경험도 재미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누고 배우는 학교 안에서 학교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움이 비쌀 이유가 없다. 배우고 싶지만 비싼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지식 공유, 지식 공헌, 학습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다. 함께 성장한다. 그 다음에 마을과 사람을 연결한다. 우리 마을에 이웃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평생학습형 마을 만들기 실현을 지금 이곳에서는 하고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학생들이 여는 누구나 학교가 있다.

'여고생 민경이의 재미난 미술사'는 민경이라는 여고생이 학교를 개설했다. 나는 미술에 관심이 있는데 미술사를 함께 해보자 모여라이다.

'장학생 성철군의 공부법'. 이게 마감됐을 거 같은 느낌인데 이 친구가 와서 나의 공부법을 얘기해주는 것이다.

'예린이와 함께 보는 지식채널-e'. 지식채널이 짧은 시간동안 압축적으로 이야기가 돌아가는데, 그 안에는 굉장한 역사와 사회, 세계사, 인류학 다 들어있지 않다. 지금 잠깐 상상해보면 지식채널-e를 예린이와 함께 보고 난 후에 더 많은 이야기가 오고갈거란 걸 상상이 할 수 있다.

부모들이 여는 누구나 학교가 있는데 엄마들의 힐링 스쿨, 엄마표 생활영어 등이다. 평생학습에서 연장이 된 것 같은 프로그램이다.

전문가들이 여는 누구나 학교도 있다.

'우리 동네 의사선생님의 굿바이 디스크'. 우리동네에 디스크 관절 전문의가 살고 있는데, 그 의사선생님이 디스크 관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친절히 얘기해 주겠지만 이 의사 선생님은 고객확보에도 좋을 것이다.

'수요일에 만나는 착한 가정 경제 멘토. 재무 상담사와 함께하는 보험 다이어트'. 지금 내주머니에서 새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잘 모른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조목조목 알고 있는 분들도 얼마 없다. 얼마 전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너무 많은 보험료가 나가서 자기가 정리하려고 봤더니 아버지의 압력으로 가입했던 보험이 있는데 한 십 몇만원을 매달 내고 있다더라. 어느 날 보험사에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다더라. 이게 도대체 어떤 보험이나. 죽으면 타는 거냐, 죽으면 타는데 죽는데도 조건이 있다더라. 배를 타고 죽거나, 기차를 타고 죽어야 받는다는 것이다. 이 친구는 주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즉시 해약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내 돈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다. 주체적 비용을 쓰고 있지 않다는 거다. 그만큼 잘 모르는 것이다.

이런 것들로 동네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숨씨 좋은 이웃들'. 발렌타인 때 수제초콜릿 만든다고 난리지 않나? 막 그릇에 녹이고.

'졸업맛이 꽃다발 만들기'. 꽃다발이 엄청나게 비싸다. 사실 알고 보면 하나 가격으로 만들어서 이웃집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기관 실무자들이 여는 누구나 학교'도 시범을 보여 술선수범을 하신 거 같다.

'볼매녀의 프레지 맛만 보기'다. 이 분도 잘 못한다는 걸 학교이름에서 알 수 있다. 맛만 보기... (여러분)프레지를 알고 있나?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프레지는 파워포인트 보다 조금 더 역동적이고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다. 강의를 구구절절이 하지 않고 맛만보기 활동을 하는 거이다. 학생들한테 꽤 인기가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

관장님이 사진을 찍는 걸 좀 하시는 거 같다. 사진을 찍고나서 보정하는 거다. 소위 말하는 포토샵. 요고를 개설했다.

환경지킴이들이 여는 누구나 학교. 동네에서 활동하는 환경지킴이들의 학교라 생각되는데 버려진 종이로 만드는 쇼핑백, 패트 병을 이용한 수경 재배 만들기, 흙, 식물을 이해하고 친해지기. 이런 것들을

지역의 활동가들을 함께 엮어 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시니어가 여는 누구나 학교는 '생생놀이단'. 여기 평생학습원에 생생놀이단이 있다고는 하시더라. 이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전통 놀이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노는지 풀어내는 것이다.

요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누구나 학교인데, 이곳에는 “뭐라도 학교”가 또 있다. 누구나 학교는 누구나 학교를 열어서 배움을 나눌 수 있다는 거고, 뭐라도 학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가 주최에 방점이 있다면 뭐라도는 하는 활동의 내용에 방점이 찍히는데 뭐라도 학교는 시니어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것도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회가 되면 뭐라고 학교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 사례는 아마 문화원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 같다. 뒷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지만 말이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자원, 역량 있는 분들이 치고 나가 주어야 한다. 관리는 문화원 기획자들이 지지해 주셔야 되고 나름의 룰을 만들어 나갈 때 조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데 하나둘씩 정착해 나가면 굉장히 증식이 빠를 거 같은, 세포분열처럼 빠를 것 같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티칭에서 러닝으로 바뀌었다는 느낌이다. 일방향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이 아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옆동네 주민자치센터에 ‘야 이거 대박났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해서 만들었다. 어느 날 요가가 유행하면 요가가 쪽 간다. 어느 날 밸리 댄스가 유행하고 있으면 밸리댄스가.

같은 강사가 지역을 짝 돈다. 공급자 중심은 어디까지나 이런 한계가 있는 거다.

주민 중심 프로그램을 주도했다라고 보여진다. 기관의 자원과 능력, 제한된 기획력이란 한계를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에서는 가끔 있다. 우리 기획자들은 램프에서 나오는 '지니'가 아니다. 문지르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다. 그러면 어쨌든 기획력에 한계는 있다. 기획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네 주민들로부터 찾아가는 거다.

그다음에 유행에 따른 변별성 없는 프로그램에서 다양성과 세분화된 내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소수가 와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다. 그동안 강사비가 뽑아지지 않으면 폐강됐다. 이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소수자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리고 시민참여형에서 시민 주도형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강의실 배움에서 삶의 현장이 배움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지식에서 개인의 지식과 경험도 배우고 나누는 끼리가 될 수 있다는 생활 속에서의 앎과 배움의 나눔이다. 수강생은 끝나도 수강생이었다. 초급부터 중급, 고급, 끝나면 다른 거(강좌) 초급. 이렇게 진행됐다. 수강, 어떤 강의를 들을까를 이렇게 건너뛰기 널뛰기 하듯이 다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마을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도 해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욕구의 또 다른 방향으로 머리를 쓸 수 있게끔 계속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특정 강좌 안에서 머물렀던 것이 연계와 융합이 되는데 결국 그것이 뭐냐하면, 민정이의 e-채널 같이 읽기를 했는데 영상물을 같이 봐줘야 되지 않나. 영상을 같이 보면서 옆에서 연주하는 팀과 엮어서 공연을 좀 더 활발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수강생의 강좌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다른 방식의 연계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시너지를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적용을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사 중심은 강사 주도형으로 강제성이 많이 흐르기도 하는데, 이것이 꼭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주체의 형태로 만들어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다.

사례3-1_ 희곡 읽기

희곡 읽기이다.

참여자로 완성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젠가부터 낭독 프로그램이 유행을 하고 있다. 낭독 프로그램, 낭송 프로그램. 함께 읽어가는 것이다.

이 팀은 희곡을 읽는다. 시를 낭독하고 낭송하는 것도 좋은데 희곡이라는 것은 대사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무대에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 지는데 희곡이기 때문에,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결국은 혼자 읽기보다 여러 명이 낭독과 낭송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읽기 낭독 프로그램인데 희곡을 선택했다는 것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 마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엔 극짓는

사람들 000 이라는 창작 극작가 분들이었다. 이 분들이 글 쓰시는 분들이다. 그리고 이 글을 올려서 연극화 해내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 분들이 이제 책임기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셰익스피어를 하겠다고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까 궁금했다. 가서 봤는데 낭독 공연도 하고 희곡 읽기를 한다. 올해가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 이다. 어떻게 보면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두 개를 작품을 읽는다. <한여름 밤의 꿈>을 읽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 귀족, 검찰관>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몰리에르 작품을 읽는다. 희곡을 읽다 보니까 즐겁고 재미있어진다. 이것들을 서로 나눠서 읽으면서 낭독 공연을 하는데 이게 짝을 지어서 자기가 읽었던 부분에 밀줄 긋기, (밀줄 그인 글들에 대한 느낌)서로 나누기 이런 작업들도 한다. 그리고 테이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쪽 금을 긋는다. 이쪽이 무대이고, 저쪽이 객석이다.

그거 아시죠? 마당에서, 동네 운동장에서 아이들하고 놀 때, 동그랗게 원을 긋고 선을 긋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게임의 세계가 된다. 선을 긋는 순간 게임의 세계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평상시의 물과 다른 물을 적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놀기에 아주 훌륭한 조합인데, 이 분들은 줄을 쪽 그으면 이쪽은 무대고 저쪽은 객석이 된다.

굉장히 재밌게 나름대로 작품을 해석 한다.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굉장히 잘 만들어 가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전이 갖는 특징은 세대를 초월한다는 것이다. 부르주아 귀족 이라고 하는 작품이 졸부들의 얘기다. 지금이랑도 다르지 않다는 거다. 그것에서 사람들이 세대를 뛰어 넘는, 시대를

뛰어 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고전이 갖는 강력한 힘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얘기를 나누어도 그 시대 16세기, 17세기가 아니라 지금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통해서 그 시대를 성찰해 볼 수 있다.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동네 축제에 와우북 페스티벌이 있는데 한 꼭지 낭독공연이 진행된다. 라디오 드라마, 이런 거와 같은 형태로 낭독공연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공연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와우북 페스티벌에 나가 가지고 뭔가 한다는게 압박감을 받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다른 일들을 한다. 소품을 담당하거나, 무대를 담당하거나 각 역할에 맞는 일들을 맡긴다. 그것은 기획자의 축이다.

또 특강도 한다. 해외 낭독공연 사례를 보여준다. 마포구에 있는 극단들, 관계되는 배우를 초청해서 내 목소리로 희곡 읽기를 같이 한번 해 보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건 배우들이 좋아한다. 와서 같이 읽고 하는 행위를.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맞아서 연극도 관람했다. 한여름 밤의 꿈을 읽고 가서 볼 때와 그냥 볼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갔다 와서 다시 한여름 밤의 꿈을 같이 낭독을 한다고 하면 또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사업 장소, 사업 대상, 사업 시간의 케미가 잘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탈 우정국, 옛날에 우체국이었던 장소인데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돼서 근대건물 느낌이 난다. 젊은이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나. 그리고 두 개의 프로그램이

크로스 돼서 진행이 된다. 두 개가 주 2회씩 크로스 돼서 진행이 된다. 왜냐면 하나는 월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 하나는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다. 그리고 특강은 금요일 날 이루어진다.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밤에 올 수밖에 없고, 주부들은 오전이 편하다. 그리고 특강은 주로 배우들이 와야하니 저녁때 모여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크로스 돼서 진행이 되니까 두 개를 다 참가할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편한 곳으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책을 한권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책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여기 참여했다가 여의치 않으면 이쪽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한참 리플렛을 보고 들여다봤는데 마을에서의 이런 크로스 된 시간의 변화가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현상은 이들이 대학 잔류학생이라고 표현하더라. 졸업하지도 못하고 공부하지도 못하는, 졸업하자면 취업난을 겪고 공부하자니 졸업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휴학계를 내놨지만 그렇다고 사회인은 아니다. 그것을 대학 잔류학생 이라고 표현한다. 마포구 거주하는 이런 친구들이 저녁시간 때에 와서 참여를 한다. 소위 말하는 인문적인 소양을 갖고 싶은데 인문학을 가르치는 학원도 없고, 그렇다고 학교에서도 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혼자 하자니 자기 주도성은 좀 떨어지고. 이런 친구들이 찾아와서 함께하는 것이다. 결국은 지역성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사업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재미있었던 것은 이미 읽는다는 기본 활동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고 시작했다는 것이다. 희곡 읽기 때문에 제목에 목적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래서 읽고 가야 되겠다 라는 목적이 있다.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책을 읽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진행자가 '이걸 이렇게 해야하구요, 다음엔 꼭 참석해 주셔야해요.'라는 구구절절한 설득을 생략하고 할 수 있다. 재밌는 거는 강사를 기다리거나 하지는 않는다. 앉아서 읽기를 시작하면 되니까. 그리고 강사의 특별한 스킬이 필요하지 않는다. 여기에 스킬이 들어가면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책을 읽으러 왔는데 뭘 또 판거 하자고?가 된다. 그러니까 참여자들의 적극성마다 진행수위는 달라진다. 그러니 그 적극성을 강사와 기획자들은 바라보고 맞춰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어찌보면 용이하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일 수 있다. 여기에서 다른 방향으로 뿔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낭독극으로 간다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라디오 공연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연극 쪽으로 아예 가보겠다 해서 갈 수 있다. 희곡 읽기 프로그램에서 새끼 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읽기의 반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할 것이라고는 명확성이 주는 편안함이 있다. 그리고 목적과 활동 내용이 다르지 않다. 아주 명징하다. 날것 그대로 원재료의 맛을 살려서 이것을 꼬고 쪄고 해석하고가 아니라 '책을 읽는다. 그리고 함께 낭독한다. 그리고 감상한다. 이야기 한다.'이다. 그러니 처음에 책 읽고 독후감 쓰세요 했으면 아마 안 되었을 것이다. 이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니 문화예술 이라고 하는 틀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굳이 따진다. 사실 따질 이유가 없는데 지역으로 내려가고, 생활로 내려가면 따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도서관 프로그램이니 문화원 프로그램이니 이걸 굳이 따진다. 그럴 경우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되게 재밌었다.

사례3-2_음악으로 함께 무엇을 보다 OO보다

음악으로 함께 무엇을 보다 OO보다. 우리 한국말에는 보다라는 말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만져 보는 것도 만져 보다. 얘기해 보다, 만들어 보다, 연주해 보다, 함께 보다. 뒤에 붙는 서술어 접미사에 -해 보다라는 말이 많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악으로 OO해 보는 거다.

이 팀의 사업대상은 효자동 주민과 청소년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간다. 효자동에 시각 맹학교, 옛날 표현대로 하자면 맹학교 두 개가 있다. 시각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이 기획자는 사업이 처음이다. 맹학교 아이들하고 저질러 보는 건데 맹학교에 가서 음악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이다.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학교에 더 이상 못 온다. 그냥 나가야 된다. 그런데 사회로 나가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 동네에 이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이친구들이랑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런데 이 동네의 특성 상 이친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면 좋겠다. 성인 누구나 다 함께하면 좋겠다는 것이 시작이다. 처음에 몇 명 왔을까요? 맹학교 관련하여 시각장애인 가족들이네, 다섯 가족이 왔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한 분이 두 분이 왔단다. 그런데 여기의 목적은 통합교육이다. 그러니까 교육의 내용도 통합이지만 참여하시는 분들도 통합이다. 장애와 비장애라는 것의 통합인데 진행하기 힘들니까 어머님들, 부모님들도 함께하자가 된 것이다. 보통 어머님들은 로드 매니저만 했었다. 데려가고 데려오고 바깥에서 기다렸다가 끝나면 아이를 데려가고. 그러지 말고 같이 해보자가 된 것이다.

어쨌든 음악을 전공했던 학생들과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시각장애 아이들은 악보를 못 보지 않나. 그래서 미리 음원을 인터넷으로 보낸다. 그럼 인터넷에서 듣고 악보를 다 외워가지고 온다.

색소폰 한 명, 클라리넷 한 명, 오보에 한 명, 바이올린은 없었고, 클라리넷 두 명이었고, 초창기에는 심벌즈도 있었고, 기타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이 친구들이 음원을 듣고 다 외워 온다. 외워 오면 누가 더 잘 할까? 비장애 아이들은 악보 보기도 바쁘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시다가 잠깐 누구야 한 번 연주 해줘봐 그러면 연주를 해준다. 그러면 옆에서(비장애참여자들이) 그걸 듣고 따라 한다.

어떤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참여를 했었는데 “다음 번에도 나 가르쳐 줘.” 이러면서 가더라. 장애와 비장애라는 경계가 그 순간 사라진다. 음악을 하는 순간.

또 재미있는 건 아이들마다 수준차이가 있지 않나. 그럼 각 수준에 맞게 악보를 편곡해서 준다.

이들이 악기는 클래식 악기로 연주하지만 트로트, 동요, 클래식 장르를 가리지않는다. 그래서 발표회 할 때는 동네 할머니들이 오시니 트로트를 연주하면서 놀듯이 진행한다.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내 딸아이 지혜, 지혜랑 음악으로 함께 몰입해서 연주하고 얘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고 하더라. 맨날 부모님은 옆에서 거들어 주는 보조자 역할이었는데, 아이는 도움을 받는 역할만 했었는데 음악을 연주할 때는 엄마가 이 아이한테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예전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대관 시간이 끝나면 나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현수막을 걸어주고 나서서 홍보를 해주고 있다. 통인시장서 길거리 연주를 한 번 했는데, 그 이후 섭외가 들어왔단다.

내년과 후년에는 길거리 공연을 계획하고 있단다. 동네에 전라도에서 이사 오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첼로 전공자란다. 그래서 기획자가 그 분을 마을 강사로 섭외하려고 짝 썰어보고 있다고한다. 기획자가 언제까지나 효자동 오케스트라를 책임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기획자가) 여기를 떠나도 이 오케스트라가 유지될 수 있는 방향, 고민을 시작했다.

세종대왕 축제인가, 세종 축제, 마을 축제가 일주일간 열리는데 오프닝 연주를 해달라는 섭외를 받아서 들떠있었다.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시 읽기도 하고, 책 읽기도 하고, 무용선생님이 오셔서 간단한 음악을 하면서 몸, 왼발 오른발 옮겨 가는 정도로 해서 같이 춤추고 음악을 몸으로 느낀다. 이런 활동들을 한 다음에 연주를 하게 되면 연주에 몸을 신는다.

사례4_ 동시를 낳는 향아리 시시콜콜한 인생 상담소

동시를 낳는 향아리 시시콜콜한 인생 상담소는 단순하다.

언어를 초과하는 감성의 열림이라는 부제를 달아 봤다. 단어가 갖는 개념이 시 속으로 들어가면 그 개념을 초월해 버린다. 그래서 단어의 정의, 어떤 한계성을 시로 표현할 때는 그것을 초월하게 되고, 내 감정이 거기에 실렸을 때, 또 다른 효과들이 나타난다. 시시콜콜 시가 나를 부른 것이다.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인문예술캠프 달빛감성 인문학 프로그램이 각 권역별로 진행됐는데 내 기억으로는 충청권 프로그램으로 기억한다.

어쨌든 시를 향아리에서 뽑는다. 그 뽑은 시를 가지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놀이하는 프로그램이다. 놀이로 풀고, 만들어 보기, 아니면 동시를 몸으로 표현해 보기, 고전적인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풀었다. 그리고 동시를 써보고 발표한다.

첫 번째 워크숍은 때 벗기는 작업이었던 거 같다. 인문학 캠프, 캠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단절이다. 선긋기이다. 사회 속에서의 내 생활과 일단 선긋고 캠프에 들어오면서 또 다른 세계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캠프를 진행한다. 이 캠프에서 때를 벗기는 첫날을 한다. 두 번째 날은 아이들은 다른데 가서 놀고 어른들과 상담소를 진행한다. 부스를 열어서 상담소를 만든다. 여기에는 두 분, 시인과 비평가가 한 분씩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어른들이 누군지 사실 모른다. 불특정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아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어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다. 상담을 하면서 쪽 들어준다. 그런 다음에 시로 처방을 해준다. 시 한 구절. 예를 들면 '나는 걷기에는 너무 멀고, 뭍 타기에는 너무 가까운 애매한 길을 하나 가지고 있다'든가 그리고 뭐, '병따개는 통니 하나가 생명이다.' 이런 시 한 구절을 처방으로 툭 던져준다.

이 처방이 묘하다. 점집에서 처방해 주는 거, '앞으로 뭐 교통 조심해.' 이런 처방을 받으면 알아서 해석하지 않나. '조심해야겠네. 나 어저께도 사고 날 뻔 했잖아.'라고

처방전을 갖고 약국으로 가지 않나. 이 시 한 구절 처방전을 들고

본부석으로 가면 그 시가 들어있는 시의 전문을 뽑아준다. 그 시가 일종의 나의 처방전이다. 이게 일종의 부적 같은 것이다. 나를 설명해 주고, 나를 이해해 주는 그런 시가 되는.

시가 내 삶을 말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고, 직관, 예언, 영감, 자기 암시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놀이로 장난처럼 접근을 했는데, 드러나지 않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경험 아니겠는가. 사실은 시가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이거를 콜하지 않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다. 내가 이 시를 불러냈을 때에 이게 나한테 와서 작동을 하는 거다. 이게 참 재미있었다. 이걸 아마 직원들끼리 한번 해봐도 재밌을 거 같다. 수호천사, 마니또 그런 것처럼 응용을 해서 한 번 진행을 해 봐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거 같다.

이 프로그램의 전신과 같은 행사가 있었다. 이런 문화기관의 운영자들 모임에서 텐트를 짝 치고 놀았다. 저녁에 부침개 부쳐 먹으며 술 마시면서 텐트를 순례하는 것이다. 그러다 한 텐트에서 '야 손금 좀 쥐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다. 운영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

사혜5_시카고 공동체 이야기

시카고 공동체 이야기이다. 머나먼 시카고 이야기인데, 우리랑 전혀 다를 거 같은데, 제가 여기에 꽂힌 거는 뽑아낸 질문 때문이다. 교사, 예술가 협력으로 시작된 학교통합 프로그램인데, 결국은 교사가 기획자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의 예술가들과 협력을 했는데 어떻게 학교의 교육 학습과 이 통합된 프로젝트가 되었는지 한번 보자. 여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 이야기는

패스하고, 두 번째 사례만 이야기하겠다. 2만 대이동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시카고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이 대이동 이주자들의 후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남부의 흑인들이 인종차별과 가난을 피해서 북부 도시로 이동했다. 민족 대이동인 것이다. 시카고로 대이동을 해 갔기 때문에 시카고의 대부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상으로 쭉 가보면 남부 흑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 분들이 왜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지 알아보자. 결국은 뿌리 찾기인데, 이 대이동과 관련한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예술로 만드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통합 교육이다. 학교 선생님과 예술가들이 함께한다. 이들이 모여서 대이동을 직접 실행해 본다. 직접 쭉 오가면서 고민들을 함께 한다. 교사, 예술가, 예술학자, 역사가, 커리큘럼 컨설턴트들이 함께 모여서 프로젝트 컨설팅을 위한 순례여행을 한다.

순례여행을 한 다음에 커리큘럼이 나온다. 지루하지만 주요 활동을 읽어보겠다.

남부, 특히 소작농의 생활 환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아이들하고 함께 표현해 보는 활동을 한다. 한국의 기획자 또는 선생님들이 남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도를 넣어서 활용해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남부 흑인을 시카고로 불러들였던 시카고 디펜더 신문이라고 있었던 거 같다. 조사해 보고 보고서를 써 본다.

흑인을 시카고로 불러들인 힘을 표현하는 인간 구조물들을 만든다. 이제 예술가들이 협동, 협력하겠죠.

대이동과 관련해서 학생들 혹은 부모가 경험한 이야기를 글로 써서 발표하고 그 이유를 토론한다. 내가 처음 시카고에 도착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어디에 정착할 것인지 그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서 표현한다. 단, 지도에서 정해진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미시시피 델타의 소작농과 시카고 시민들의 생활을 비교하고 도표를 완성한다. 생활 비교하기는 아마 사회 교과 활동, 글로 쓰는 것은 읽기, 쓰기, 발표하기 교과 활동, 인간 구조물 만드는 것은 예체능 활동에 해당될 것이다.

1900년도, 50년도, 80년도, 2003년 인구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고 그 표를 보고 토론한다. 그다음에 현재 시카고에 사는 인종 분포를 시대별로 알아본다. 그리고 당시 생활을 표현한 시와 노래를 학습하고 의미를 연구한다. 그 시대에 나왔던 시, 그 시대에 유행했던 노래가 그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다.

대이동과 관련된 정치만화를 연구하고 설명한다. 수업시간에 웹툰이나 카툰, 신문의 한 컷짜리 만평 가지고 수업하는 학교도 있다. 그게 굉장히 함축적으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오래된 사진을 보고 당시의 생활을 서로 이야기한다. 이것들은 많이 하고 있다. 어머니 아버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사진 내 사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우고 느낀 내용을 시, 노래, 연극, 무용, 멀티미디어 발표 등의 다양한 형태로 표현한다. 그게 구체화 된 것이 연극 수업이었다.

최종과제는 ‘북으로의 대이동’이라는 연극을 올린다.

이렇게 해보겠다는 콘티를 짠다. 7학년과 4학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연극을 하려면 연극 대본이 있어야 한다. 대이동을 소재로

한 책, 12가지의 활동에서 활용한 책, 편지, 시를 활용해서 희곡을 한 편 완성한다. 그리고 음악은 음악교사가 흑인영가를 타악기를 이용해 편곡한다. 무대배경은 미술 교사의 지도로 4학년이 제작한다. 그리고 나레이션, 노래, 연기는 7학년들이 조별 활동으로 분담해서 맡아서 진행한다. 단체무용은 무용교사 지도로 4학년이 진행한다. 그동안에 쪽 이어서 해왔던 것들을 하나의 연극 수업으로 발표를 한다. 여러분들 우리 지원 사업의 한 팩 같지 않나?

이렇게 진행이 되면, 만약에 이대로 벤치마킹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정말 이대로 갈 수 있다면 훌륭한 하나의 프로세스가 된다. 지원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훌륭하겠단 싶어서 사례로 소개했다.

문화예술 전문지 '새야'라고 하는 잡지가 있다. 지금은 발행되지 않지만, 이 새야 책을 보면 문화예술계와 관련한 굉장히 훌륭한 사례들이 많이 나온다. 그 중에서 한 사례를 소개한 것이다. 책 구하기가 어렵지만 구해서 읽어보면 좋겠다.

사례6_아리마후지 공원

다음으로 아리마후지 공원이다. 커뮤니티 디자인이란 책을 읽어 보면 좋겠다. 이 책 내용에 들어 있는 사례이다.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게 디자인에 관한 얘기지만 디자인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 프로그램을 디자인한다. 내 삶을 디자인 한다와 같은 표현을 한다. 커뮤니티 디자인이 옛날에는 아파트단지를 만들었을 때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것, 커뮤니티 디자인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영역에서

쓰였던 단어라고 한다. 지금 하는 커뮤니티 아트, 디자인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결국은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모여서 함께 얘기하고, 함께 설계하고자 하는 것이 커뮤니티 디자인이다.

제가 재미있었던 거는 만들지 않는 디자인이었다. 아리마후지 공원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하면, 주민을 위해 만들어 진 곳인데 주민이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공원을 활성화 시키고자 스튜디오 랩이라는 이 책 쓰신 분에게 의뢰가 들어왔던 것이다. 이 분은 공원 매니지먼트에 대해 알 필요성이 있겠다싶어서 디즈니랜드에 가봤다고 한다. 디즈니랜드도 일종의 공원이다. 공원이면서 놀이가 합성된 공원인데, 그럼 우리가 있는 뒷동산의 공원과 여기에 있는 디즈니랜드라는 공원이 뭐가 다를까 라는 거다.

디즈니랜드를 가봤더니 캐스트가 있더라. 탈을 쓰고 돌아다니는,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로 뼈끼들. 그러니까 이 공원을 활성화시키는, 공원을 다른 새로운 곳이라고 알려주는 캐릭터들 있다. 디즈니 캐릭터들이 디즈니랜드에서 계속해서 와서 이 공원에는, 너희들은 이 세계에 들어와 있는거야 라고 말한다. 그런데 일반 공원에는 그런 뼈끼들이 없다. 올테면 오고, 갈테면 가라는 거다. 그런데 디즈니랜드에 오는 소비자들에게 카스터머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게스트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다. 결국은 너나 나나 같은 주인공이라는 개념이다. 이 탈을 쓰면 니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고, 나는 촉매제 역할이고 너는 이 공원의 주인공이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리마후지 공원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 돈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라고 이야기 한다. 쉽게

얘기한다. 우리 늘 자주 쓰는 주민의 주체화이다. 주체화가 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건데. 그들로 하여금 공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무얼까 라는 고민을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은 약간 마을 만들기 형태의 조직을 짜는건데, 아리마후지 공원의 주변에 있는 박물관, 행정 담당 공무원, 지역에 있는 NPO, 자원 봉사단, 대학생들을 모았다. 아리마후지를 조금 더 재미있고 주민이 많이 찾는 공원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할테니까 모여라라고. 이 모임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공원 입지 환경 운영 프로그램, NPO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공원 관련 마케팅, 신규 주민의 교류하는 방법, 법인 운영은 어떻게 할지, 문화 프로그램과 공원의 미래 산업은 무엇인지, 곤충 채집도, 도시 활동까지 다양하게 공부했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마을에서 다룰 수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이 이 안에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문화기획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산다와 시라고 하는 시, 아리마후지 공원이 있는 시, 공원 협회, 토목 사무소, 공원 녹지과, 인간과 자연 박물관이라고 하는 공공시설, 관련 전문가, NPO 주민 위원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협의회가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하고자 사무국을 만들었다. 여기엔 스튜디오 엘이라고 하는 여기를 움직이는 간사회가 따로 있었다. 간사회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공부 모임이기도 하고, 지원하는 팀이기도 하다.

코디 시안 부회와 장소 만들기 부회가 사무국에서 따로 만들어 지는데, 이게 왜 만들어 지나면 사무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놀 수 있는 공간 좀 나오.', '우리가 모여서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프린트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 '우리가 모여서 연주를, 기타도 치고 뭘 좀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더라.' 등의

주민들의 요구가 나왔다. 우리는 공원이 잘 안된다고 하면 뭘 자꾸 갖다가 짓기부터한다. 그런데 여기 코디네이션부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한다. 주민들로부터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한다. 그리고 장소를 제공하는데 지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놀이왕국 같은 것을 만드는데 이것들도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세미나도 이루어지고 포럼도 만들어 진다. 산길로 난 길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길을 주민들이 함께 만든다. 동참한 주민들이 디즈니랜드의 캐스트다. 주민들이 직접 와서 만드니 자주 와서 걷고 싶은 것이다.

사례7_ 호츠미 제재소 프로젝트

호츠미 제재소 프로젝트도 결국 커뮤니티 디자인이다. 도시 재생이라는 것들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여기는 도시 재생이고 뭐고 간에 20년 이상 된 제재소가 있는데, 개인 제재소다. 지금은 제재소에 가서 나무 켄 일이 없다. 다이소에 가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은 이 제재소를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이다. 자식들이 받아서 했으면 좋은데 후계자도 상속자도 이것을 하고 싶지는 않은 거다. 그래서 공원으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을 한 것이다.

제재소를 철거하고 제재소 공원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이러니하지 않는가?에서 출발한다. 보통 제재소 건물을 훑 까내고 제재소 박물관을 만들거나 체험관을 만들거나 할 것이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콘셉트를 변경하여 사람이 찾아오는 제재소를 만들자가 되었다. 있는 제재소를 그냥 활용을 해서 사람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환시키자 라는 거였다.

사람이 와서 무언가를 하려면 먹고, 자고, 놀고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먹을 만한 장소가 없는 것이다. 굉장히 오래된.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이럴 잠자고 할 만한 곳이 없는 오래된 동네 이다.

제재소 법인 카페에 NPO 법인이 있었는데. 안주인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에다 의뢰를 해서 그 동네 로컬 푸드로 만드는 식사를 제공 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그리고 현지 온천 목욕탕하고 연결을 했다. 잘 어울리지 않나. 목공 열심히 하고 온천 가서 온천 하고.

그리고 인근 활동 건축가들 6명한테 활동이 가능한 공간마련을 위해 오두막 제작을 의뢰한다. 건물 건축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이 붙어줘서 건축가가 나름의 집을 짓는다.

목재 텐트 6채를 짓고 6팀이 참여해서 4주간 일정으로 주말마다 목공활동을 하기 위해 방문한다. 문제는 활동이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 프로그램은 그날 시작해서 그날 끝내고, 그날 가져가는 프로그램이 많고, 1회성으로 돌린다. 그런데 여기는 4주간 일정으로 진행한다. 내가 만들던 거는 그냥 두고 다음 주말에 와서 이어서 작업한다. 그 오두막은 4주 동안 그 사람에게 유효 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4주 동안 1팀한테 주는 것이다. 이런 오두막을 더 짓고 있다고 한다.

재밌는 점은 산림탐사와 벌목을 함께한다. 지금은 사람들이 산에서 나무를 많이 해가지 않는다. 간벌이라고 하는데. 산이 건강하려면 간벌을 해줘야 한다. 간벌을 정부에서 모두 담당하기 버겁다. 이 제재소는 간벌 활동을 하면서 벌목과 통나무 손질이 함께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정부는 NPO 단체들과 함께한다. 공공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20년간 운영했던 제재소를 공원화시킨다 라고 하는

콘셉트에 잘 맞게 기획이 풀어져 가고 있다. 그러다 보면 가구도 제작을 하게 되고.

천천히 추진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다 실었다. 제가 감동했던 것이 다음 부분이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도' 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외부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외부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만남이 준비가 안되어 있는 주민들이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 속도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천천히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국공립 사업이 아니고 개인의 집을 변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어디선가 차용해 와야 했다. 그래서 단기간에 진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래저래 천천히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 동네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목재 접시, 포크, 나이프 제작을 하고 갤러리를 만들어서 판매가 가능하게끔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활동은 하고 싶은 것, 기획자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리고 예술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 요구되는 것이 있다.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취미 활동이다. 요구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면 일이 된다. 요구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맞아 떨어지면 이상적인 것이 되는 거지만 꿈같은 얘기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 낼 때는 이 3개가 맞닿아 있는 지점에서 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기획에서 '이 모임이 즐거워서 와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주민들 쪽 모였는데, '오라니까 왔지.' 이런 경우 많지 않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즐거움을 얻을 요인을 넣어야 하는 거다. 그게 기획자가 고민해야하는 부분이다.

사례8_수집이 창조가 될 때

수집이 창조가 될 때는 어떤 미술관 전시에서 이름을 차용했다. '이천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전시 사례를 얘기하고자 한다.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 전시 프로젝트를 할 때, '동네 사람들 이야기 구술을 채록하고 동네만이 갖는 특별함을 추출한다'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동네에 있는 70년된 미미 사진관이 갖고 있는 자료를 얻게 되었다. 옛날에는 동네마다 오래된 사진관이 있었다. 왜냐하면 증명사진은 삶의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었으니까. 중학교를 가든, 고등학교를 가든 지금은 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캡처해서 올리지만 말이다. 어느 동네든 오래된 사진관이 있었다. 허바허바 사진관, 미미 사진관 이런 이름으로 많이 있었다.

이천의 미미 사진관은 3대째 운영하고 있다. 예전에는 사진을 찍으면 원판을 안줬다. 그래서 다음에 또 갔을 때 새로 찍지 않고 그냥 뽑아만 주세요라고 했었다. 원판에 소요되는 비용을 세이브하고 그냥 뽑아만 주세요라고 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사진을 많이 가져오라고 했었다. 이 사진관은 1964년도 원판부터 갖고 있었다. 그 사진들을 보면 졸업사진, 어디 야유회 갔을 때 사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동네에서 사진관이 여기 한군데 밖에 없었으니까 이 사진관에서 학교 사진 촬영, 제작을 많이 했었다. 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사진의 원판을 보관하고 있어서 이천의 보통 얼굴을 발굴을 해봤다. 65년도 사진 100장을 레이어드 했다. 증명사진은 똑같은 포즈로 똑같은 크기로 찍으니까 계속 겹쳐봤다. 2000년대 원판도 겹쳐봤다. 1984년 모 미술학원 졸업생 애들 사진도 겹쳐봤다. 그런데 되게 잘생기게 나왔다. 시대별로 큰 차이는 없는데 얼굴이 좀 둥그러졌다.

수집된 것들이 모여지니까 어느 순간 창조적인 작업이 되었다. 재밌었다.

사례9_ 대동 모놀로그

대동 모놀로그이다. 마을 사람들 이야기가 공연이 될 때이다. 문화원에서 구술 채록 많이 할 것이다. 그 구술 채록을 연극으로 만들었던 거다.

충청도에서 공동체 프로젝트라고 기획했다. 문학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말이다. '이야기의 힘을 믿고 한번 가보자. 마을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야기가 있는 마을과 연결이 되지 않는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낼 것이다. 문자가 가지지 못한 힘을 우리는 말로 하는 것이다. 문학으로 접근을 했지만 텍스트로 간 것이 아니라 말로, 글자 문자로 간 것이 아니라 말로 풀어보자.'는 것이다.

말이 살아 있어야 마을이 살아 있다.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찾고 마을을 찾고, 이야기를 찾고. 함께할 작가를 찾고, 말이 살아 있는 이야기가 있는 지역을 기관, 대학과 연계한다. 그래서 역할과

협력을 나눈다. 참여 학생들이 각색과 연출을 해준다. 할머니
원작자들이 피드백을 해준다. 그래서 나온 것이 대동리에 사는
할머니들의 모놀로그. 1인극, 독백 연극이다.

이 할매들의 이야기가 모놀로그라는 콘텐츠로 나오는 것이다.
기획자가 작가를 만나고, 대전대학교의 학생들을 만나고, 이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만나서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대동리를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대전대학교 학생들이 할매들의 이야기를 채록을 해내고
채록한 내용으로 학생들이 연극을 한다. 할머니들에게는 학생들이
연극을 하면 할머니가 손봐주신다.

우리가 비슷한 프로젝트를 할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할머니들을
자꾸 연극 배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할머니들은 그거
되게 쑥스러운 거다. 무언가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힘든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는 힘들다. 내 얘기를 내가 하면 가장 좋다. 감정이
전달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할머니들한테는 그게 중압감일 수 있다.
'내 얼굴 그려보세요. 내 얼굴을 왜 그렇게 그렸는지 한번 발표해
보세요'하면 "됐다. 차라! 나 간다!" 하고 나가버린다. 쑥스러운거다.
그런데도 자꾸 연극 배우로 무대에 세우려고 한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전문 연극인이 최종 발표를 한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채록하고, 운문하고 그 내용을 할머니들이
손봐준다. 젊은 손자빨, 손녀빨 되는 친구들이 팀이 되어 움직여
주면서 대본을 나누고 그걸로 연극을 한 번 해보는 거다.

모놀로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작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 주로
이야기, 말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말을 전달하는 과정들을 할머니가
쭉 한 번 더 보면서 또 다른 나를 보게 되는 거다. 애들이 다 분장하고
한다. 처음에는 할머니들이 머쓱해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보조
연출가가 되어 얘기를 해준다. 그 상황에서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케미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한번 해보고 전문 연극 극단에서 따로 와서 제대로 된 기획과 연출과 연극을 이 안에서 이루어서 공연하는 프로세스다. 전시도 했다. 대본이 아까우니 출판까지 하게 된다.

우리가 이런 것을 소위 말하는 격대교육, 아이들을 통해서 할머니뻘 되는 2대 위의 할머니뻘의 이야기들을 채록하고 수록하는 격대교육이라고 얘기한다. 결국은 할매들의 사는 이야기가 할매들의 아름다운 독백이라고 하는 모놀로그로 콘텐츠화 되어졌다. 이것이 갖는 과정의 의미를 결국 젊은이들이 받아쓰고 할머니들은 말을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노인들이, 젊은이들이 변화를 한다는 거다. 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 생각을 한 번도 내가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할머니들이 많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거다라고 한 번도 말해 본 적이 없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 말을 하는 순간, 이 분들한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말을 받아쓰는 젊은이들도 할머니들의 삶이 이랬었구나 하고 이해한다. 중요한 거는 이 젊은이들이 할머니들의 삶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할머니한테 왜 저렇게, 할머니를 대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너무 압축적인 성장을 해왔다. 짧은 시간동안 흑... 할머니의 세대 다르고, 엄마, 아빠 세대가 다르고, 지금 세대가 너무 다르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도대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왜 저렇게 들이대고 저러는지 이해를 못한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저러는지 왜 저렇게 끈대 같은지 이해를 못했던 것들이 글쓰기를 통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우리 엄마 세대와 할머니세대가 같이 늙어가는 입장에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는 거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삶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문재 시인이 그렇게 얘기한다. 격대 글쓰기라는 것, 격대 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니 얘기해봐 써 볼게.', '어르신들의 지혜' 이 차원을 넘어선 또 다른 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문화원에서 생애 글쓰기, 구술 쓰기 이런 활동 많이 하지 않나? 이런 활동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돌아가시면 사라질 이야기니까 없어지기 전에 얼른 기록해야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의미심장하게 풀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더 덧붙여 보면 북유럽 신화에 오딘이라는 신이 있다. 오딘은 외눈박이다. 눈알이 왜 하나 뿐일까? 기억의 우물을 관장하는 이미르라는 신이 있다. 오딘이 기억을 갖고 싶어서 그 우물물을 떠먹는 대가로 눈알 하나를 준 것이다. 그만큼 기억이 중요하다 것을 강조 하는 이야기다. 오딘은 두 마리의 까마귀를 데리고 다닌다. 이름이 한 마리는 생각이고, 한 마리는 기억이다. 생각은 사람이 총명해지기 위해서 중요한 거지만, 기억이라는 것은 불가결한 것들, 인생에서 살아가는 데 삶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대부분의 문제점들, 살면서 생기는 생태계적 문제점들의 대부분은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다. 새로운 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기억들에 의해서 해결되어 지는 것이 거의 100% 라는 거다. 그만큼 생각과 기억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인터넷에 영상 시대가 갖게 되는 즉흥성들,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려는 것들이 갖는 단순화된 문제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글쓰기 작업에 대해서, 생애

구술사 작업에 대해서 할머니 이야기들, 없어질 이야기를 복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철학적인 관점의 것들을 끄집어서 정당화시킬 필요, 아니면 의미화 시킬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대로의 정의를, 새로운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다. 이문재 시인이 삶의 정치를 얘기하는데 아 맞다! 그러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례10_ 가능한 변화들

제목 멋있지 않나?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파일럿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붙였던 거 같다. 짬뽕로 놀이터 도전이다. 사실 1차시만 진행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떻게 진행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에도 굳이 사례로 가져온 것은 경기도문화원 중에서 짬뽕 활동하는 곳이 많아서다. 네, 다섯 군데 되는 거 같다. 가보면 언제나 짬뽕기 꼬고 계신다. 늘 여치집 만드시고, 계란 꾸러미 만드신다. 이 팀도 계란 꾸러미 만든다고 기획서를 썼었다. 짬뽕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기획자가 그러는 거다 '우리 동네에는요 허허벌판이다 논이구요. 앞에 가면 냇물이 있구요. 애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데...'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럼 우리 거기서 놀이터를 만들어 봅시다. 옛날에는 쥐불놀이 하면서 놀았고 팽이 돌리고 놀았고, 뭔가를 태우면서 놀았다. 그러니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했다.

어르신들이 짬뽕을 활용해서 애들이 놀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어르신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다. 불가능에 도전이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다. 가능한 변화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분들은 불가능 할 거야 하고 (기획자가 지레) 생각하니까 그랬던 거다. 어르신들에게 나와서 설명을 하라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다. 그런데 파일럿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2달밖에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하고자 하는 걸 다 할 수 없었다. 우선 순위를 정했다. 날씨가 추우니까 우선으로 할 것과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만들어 나갔다. 참가하는 어르신들 중에 목공하시는 분들이 계셨다. 동네에 가면 소목, 대목 한 분씩 계시지 않나. 놀이터를 만드는데 피라미드 모양의 움집 같은 걸 세우는 게 첫 번째였다. 날이 추우니까. 목공하시는 분들이 뼈대를 세웠다. 그 동안 다른 분들은 뭐하실까? 열심히 짚풀을 꼬았다. 나무 뼈대에 짚을 입혔다. 지금도 계속 만들어 나가고 계실 것이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려면 놀이라는 행위가 들어가야 한다. 다음 단계를 고민하게 된다. “뭐하고 놀까?”를 고민하니 또 뭐가 필요해. 그래서 뭔가를 또 만든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나가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껍리를, 물꼬를 터나가는 거다.

놀이가 작년, 제작년 유행했다. 꿈다락도 그렇고 집행사업도 그렇고 동네마다 하는데, 놀이 프로그램에는 세 가지로 대략 나타난다. 퍼포먼스형 놀이, 고무줄놀이, 비석치기 이러한 놀이들이다. 아무것도 없이도 할 수 있는 뽀치기 이러한 놀이들, 전래놀이 형태로 가는 놀이가 있다. 또 하나는 하드웨어형 놀이로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다. 흔히 보는 동네 놀이터가 아니라, 거대한 나무와 나무를 잇는

사파리형 놀이터를 만드는 팀도 있다. 만들어만 놓으면 그 다음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다. 출렁다리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이들이 알아서 롤을 만들어서 놀면 된다. 그 다음 전래 놀이와 소품이 결합된 놀이가 있다.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져서 진행이 되는데, 소품이 결합된 놀이는 굳이 전래놀이가 아니어도 나름대로 창작을 해서 놀이교구를 만든다. 흔히 돌아다니는 박스로 글자를 만든다거나, 박스를 세워서 글자탑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 이걸 응용을 해보면, 산에서 끌어온 목재들에 판을 하나 대면, 위는 다락방처럼 되고 밑은 본부처럼 된다. 그럼 여기다가 계단만 만들어주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한다. 그걸 끊임없이 한다. 정말. 줄서서. 무슨 재미가 있을까? 그런데 한다. 그러한 창작형 놀이. 이렇게 동네에서 놀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권장할만 하다. 이 안에서 놀이하듯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것들이 아니라 규칙만 가르쳐주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놀이형식을 만들어 나가는 거다. 정말 떡볶이, 오뎅이 끓고 있어도, 먹고하라고 해도 아이들은 딱지를 따야되니 안 먹는다. 그 딱지가 뭐라고. 그게 바로 놀이가 갖는 흡입력이다. 줄그어 놓고 시작해버리면 애들은 그쪽 세계로 확 빠져버린다. 창작형 놀이로 가게 되면 그 안에 서사가 들어가기도 한다. 딱 영상으로 표현하면 게임이쥬. 리니지나 이런 게임에 다 서사가 들어간다. 그 안에 몰입한다. 그런 것처럼 서사형 놀이도 가능할거다. 너는 뭐해, 너는 엄마 해, 나는 얘기할게. 그때서부터 롤 플레이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 프로젝트에서는 어른들이 만들었지만 아이들 이 안에서 어떤 놀이를 하는지,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직접 보면 또 다른 상상을 하게

될 것이다. '아 저 부분은 조금 이렇게 했었으면...' 아니면 '아 좀 작다 좀 더 크게 할 걸.' 이런 고민들을 하게끔 하는 것. 그리고 이 분들에게서 '내년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프로젝트는 성공이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200% 성공한 것이다.

많은 작은 사람들이, 많은 조그만 장소에서, 많은 조그만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면 세상은 변화한다. 내가 하는 일이 거창하고 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곳에서 작은 일을 일단 하는 것. 일단 실천하는 것.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변화는 시작인 것이다. 지역에서 작아도 의미있는 활동을 하길 기대한다.

발행인_ 엄상덕
편집인_ 최영주
발행처_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TEL_ 031-239-1020

FAX_ 031-239-3785

인쇄_ 2016년 12월 31일

발행_ 2016년 12월 31일

제작_ 글그림

본지의 내용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2016년 경기도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031-239-1020

본지의 내용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2016년 경기도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

